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BERKELE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EAST ASIATIC LIBRARY
MAR 25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제 1 호(47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김일성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첫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희망찬 새해 1982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지금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마을, 모든 가정들에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있으며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1982년을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열정을 안고 새해의 힘찬 진군을 시작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사파쑈분자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먼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새해에 해외동포들의 생활에서 보다 큰 행복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1981년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한해였습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지난해

Digitized by Google

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헌신적로력투쟁을 벌려 공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켰으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어로전사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생산과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학교교육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민족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발명과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부대의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적들의

Digitized by Google

400533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파탄시키고 조국의 방선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하여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첫해 전투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2년은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한 때로부터 50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시작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뜻깊은 이해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원을 열어놓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온 나라가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

Digitized by Google

의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은 국토를 넓히고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올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대자연개조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전투에 참가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설장마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자연개조사업은 많은 자재와 설비, 로력을 요구하는 매우 방대한 사업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재와 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대자연개조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은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전투를 잘하여야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습니다.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학고지를 점령하는것은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올해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일부 생산시설들을 개건확장하여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화학공

Digitized by Google

장들을 많이 전개하여 여러가지 보조원료와 화학약재, 칠감 생산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은 올해에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입니다. 금속공업에 힘을 넣어 금속고지를 점령하여야 날로 늘어나는 철강재와 유색금속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규모가 크고 전망이 좋은 철광산들과 유색금속광산들에 힘을 집중하여 광물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며 금속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강철과 압연강재, 유색금속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미 건설하여놓은 주체적인 철생산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콕스탄과 소성탄 생산을 늘이며 새로운 콕스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인민들을 훨씬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키며 수산업에 힘을 넣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전군중적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지도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

Digitized by Google

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경제지도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으며 나라의 전반적형편도 매우 좋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올해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입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파쑈폭압속에서도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으며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섰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은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광범한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기운이 높아가고있으며 통일의 려명은 다가오고있습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더욱 굳게 단결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통

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로선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 대외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각계층 인사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줍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도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에 따라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뜨거운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Digitized by Google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

황 순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대중정치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대중정치사업의 귀중한 경험은 혁명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그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대중정치사업의 고귀한 전통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전진시키는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빛나고있다.

현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정치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철저히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1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묶어세우고 항일혁명투쟁에로 적극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혁명사업은 대중정치사업으로부터 시작되며 혁명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자면 그들이 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도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깨닫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사회적 및 계급적 처지를 옳게 깨닫고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질 때 비로소 혁명을 지지하게 되며 혁명투쟁에 나서게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힘있는 수단은 정치사업이다.

정치사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가장 힘있는 선전조직활동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깊이 침투시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똑똑히 알고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총만 가지고는 혁명을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단결되고 조직된 대중의 력량이 없이는 우리 혁명은 한걸음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승리할수도 없는것이요. 인민대중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요.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어디서나 군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오.

그러므로 군중정치사업은 곧 혁명전선에서 무장투쟁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혁명임무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무엇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셔

Digitized by Google

버리기 위한 무장투쟁의 승리적인 전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전제로 하는 인민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셔야 하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에서 믿을것은 오직 인민대중밖에 없었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지원 속에서만 조선인민혁명군은 자기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며 무장투쟁발전에 유리한 군사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들을 마련할수 있었다.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승리의 중요한 담보였다. 대중정치사업은 바로 항일무장투쟁의 군중적지반을 꾸리고 유격전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또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전민족적인 반일항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날로 확대발전하는대 질겁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유격구에 대한 군사적《토벌》공세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한편 우리 혁명대오를 안으로부터 허물며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일혁명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조선은 피바다에 잠기고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마저 잃고 난관앞에 주저앉아 조국의 운명을 한탄만 하고있었다.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지 않고서는 대중의 동요를 막아낼수 없었고 이미 생취한 혁명군중을 잃어버릴수 있었으며 결국 항일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없었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은 정치사업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각성시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항전에 힘있게 인입시킴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전취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고 항일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군중정치사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정치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 실현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준엄한 항일혁명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담보한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중로선과 계급로선에 기초하여 밝혀주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방법, 대상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방법, 격식과 틀이 없이 정치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가는 방법 등 대중정치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은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대중정치사업에 대한 사상과 방침들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밝히신 대중정치사업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그 독창성과 풍부성, 다방면성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고 항일대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리론실천적무기로

Digitized by Google

되였다.

2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그 내용이 광범한 군중을 항일대전승리에로 조직동원하도록 옳게 설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을 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였다.

정치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군중교양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정치사업의 내용을 옳게 정해야 대중을 목적지향성있게 교양할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성과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대중정치사업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기된 혁명임무에 기초하여 규정되여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내용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나서는 혁명임무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항일혁명대전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데 철저히 복종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싸운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126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것은 광범한 군중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이였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혁명의 성과적인 전진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때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이였으며 민족의 대경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지난날 쓰라린 실패와 피의 교훈만을 남기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은 비로소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곧바른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예를 받아안게 된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 대중단체일군들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적인 실천으로 나라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대중정치사업의 중심을 두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상과 혁명리론, 탁월한 령군술 그리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대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존경심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끝없이 높이고 수령님의 권위를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전사로 자라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태양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마음들이 하나의 뉴대를 이루게 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넘쳐나게 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또한 인민대중을 반일혁명의식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인민대중을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항일혁명의 성격과 임

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였다. 광범한 대중속에서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온갖 사회적질곡의 근원이였던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키워주어야 그들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반동적본질과 그 교활성,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에 대하여 그리고 일제식민지략탈자들과 결탁되어있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착취적본성과 죄악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가난속에서 《팔자》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던 인민들에게 계급적자각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이 계급적원쑤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고 반일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었다.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이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짓밟힌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인민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지 않고서는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줄수 없었으며 결국 사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없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속에서 조국의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이나갔다. 애국주의교양은 우리 인민들이 암흑한 민족수난의 시기에도 드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게 한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간고하고도 준엄한 시련을 이기내고 반일투쟁에 동요없이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자본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깨닫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양사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에 인민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으며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속에서도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게 되였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대중정치사업의 내용들이 옳게 규정됨으로써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켜 항일혁명대전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대중정치사업을 광범한 군중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정치사업이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각계각층 인민들을 대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

Digitized by Google

치사업을 하였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60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군중교양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사업의 대상인 반일군중들의 계급적처지와 생활상요구는 서로 달랐으며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준과 기호와 정서도 같지 않았다.

대중정치사업이 벌어지는 환경과 조건, 지방의 실정도 같지 않았으며 정치사업의 목적도 당면한 혁명임무에 따라 서로 달랐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중정치사업을 고정된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해서는 군중교양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었으며 적지 않은 경우 역효과를 나타낼수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정치사업을 그 어떤 기존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제기된 혁명임무와 주어진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설과 설복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중요한 방법이였다.

각계각층의 군중을 각성시키고 의식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그 어떤 강요나 명령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디까지나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정치사업은 오랜 세월을 두고 물젖어온 봉건적인 낡은 인습과 일제의 기만책동으로 말미암아 사상동향이 각이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벌려야 하였으며 특히 적들의 삼엄한 포위와 감시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서 해설과 설복의 방법이 더욱 중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은 비합법적 및 합법적 조직들을 거점으로 하여 인민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만나 꾸준한 해설과 설복으로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계급적자각을 높여주었다.

그들은 나라를 구원하는데 리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다같이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로동자, 농민은 물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있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종교인들, 독립군들까지도 인내성있게 설복교양하여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단결시켜나갔다.

정치공작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도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반일군중의 사상을 깨우쳐주고 투쟁대렬에 끌어들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된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려나간데 있었다.

정치사업의 대상은 각이하며 그들의 성격과 취미, 생활감정도 서로 다르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그의 체질에 따라 같은 병에도 약을 서로 다르게 쓰는것처럼 정치사업도 군중의 계급계층별에 따르는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그들의 심리에 맞을수 있고 결국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시켜나갈수 있다.

당시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사회계급적구성이 복잡하고 혁명에 대한 그들의 립장과 태도도 서로 다른 현실은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매개 사람들의 특성과 심리를 꿰뚫고 그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려나가야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각계각층 군중의 풍속과 관습, 여러 지방 주민들의 구성과 처지, 사상의식상태에 맞는 정치사업을 벌려 그 효과성을 백방으로 높여나갔다.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때에 항일유격대원들이 신사동목재소 로동자들을 각

Digitized by Google

성시키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킨것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치사업방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로동자들속에 들어간 항일유격대원들은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을 놓고 진심으로 걱정도 하고 살아나갈 방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논도 하면서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로동계급이 앞장서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무산지구의 로동계급들은 민족재생의 희망과 조국광복의 미래를 한가슴에 안고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나서게 되였다.

하나의 투쟁구호를 내세우거나 혁명조직의 명칭을 달아도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계급계층별 특성, 지방적특성을 고려하고 같은 내용의 정치사업을 하여도 군중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벌려나가는것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중요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의 하나였던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격식과 틀이 없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참신하게 진행되였다. 여기에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어진 대중정치사업의 위력의 원천이 있었다.

대중정치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대중선전교양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대중의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은 그들이 혁명의 영양소를 부단히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섭취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 때 담보된다.

그 어떤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는 유격전의 환경에서 벌려야 하는 정치사업은 겉치레가 필요없었으며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하였다. 유격전의 실정에 맞게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정치사업이라야 군중교양은 중단없이 해나갈수 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참신하고 다양하게 진행된 정치사업방법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는 구두선전이였다.

구두선전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기동적으로 벌릴수 있고 또 적들의 감시속에서도 안전하게 능동적으로 벌릴수 있는 우월한 정치사업형식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구두선전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제기된 혁명임무,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강연 및 선동연설, 해설담화, 이야기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의 풍산군 파발리경찰관주재소 습격전투때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형권동지께서 하신 선동연설은 구두선전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오빠시》라는 순사부장을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재소앞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조선인민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우리의 강토에서 일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하며 남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호소에 끝없이 고무되여 군중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불렀으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광범한 군중들을 참가시키고 진행한 군중대회, 기념경축대회, 추도모임, 추석놀이 등 여러가지 형식의 모임들도 역시 군중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혁명적문학예술을 통한 선전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위력한 형식의 하나로 되였다. 이것은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광범한 군중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그들의 반일기세를 더욱 북돋아주는 힘있는 무기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문학예술작품들

Digitized by Google

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군중의 생활감정을 옳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천만사람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열렬한 군사정치활동가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의 예술선전활동은 고정된 격식과 기성의 틀에 구애됨이 없이 힘있게 전개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들의 통치밑에 있는 부락을 해방하고 인민들과 상봉할 때나 잠간 휴식하며 숙영할 때 그리고 정치공작지 등 그 어디에서나 조성된 환경과 대상의 실정에 맞게 혁명가요보급 및 오락회, 유희대활동, 연극공연과 같은 여러가지 예술선전활동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군중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투쟁의욕을 높여주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정치사업의 중요한 형식의 다른 하나는 혁명적출판물을 통한 선전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간된 출판물들은 인민대중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 투쟁구호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하며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혁명의 예리한 사상리론적무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출판물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출판물발간사업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신문 《새날》을 비롯하여 대중정치잡지 《볼쉐위크》,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 등 혁명적출판물들을 창간하여주시고 출판물을 통한 대중교양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헤치고 등사기를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신문, 잡지, 소책자들과 선전문, 삐라, 격문, 포스터 등 수많은 출판물들을 찍어내여 정치사업에 적극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반일군중을 항일대전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무장투쟁의 매 단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수행에로 훌륭히 조직동원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죽음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은 거대한 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항일혁명20년의 간고한 투쟁을 이겨내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대중정치사업경험은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전투적이고 참신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정치사업의 귀중한 경험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정치사업의 빛나는 전통이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위업은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의 밀접한 결합

송 기 원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유일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으며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염주군당위원회에서도 당의 방침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경제과업수행과 옳게 결합하여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참된 주인으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육성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을 비롯한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새롭게 변모되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을 옳게 결합시킨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그대로 실증하여준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모든 당조직들이 주체사상교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고 구체적현실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사상사업분야에서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할수 있으며 인간개조사업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것만큼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방도를 옳게 찾아내야 하며 사상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당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주었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근본방도의 하나이며 우리 당이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 방침이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원리를 지식으로 체득할뿐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혁명실천의 강력한 무기이다. 주체사상교양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상사업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1폐지)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과 인민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바로 이 근본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가게 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교양개조할수 있게 한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난다. 사람들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와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고 공산주의혁명가의 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간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가장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한다.

사상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있으며 사상사업의 결과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따라서 사상사업은 근로자들의 혁명실천, 그들의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며 경제문화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주체사상교양이 근로자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그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경제와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당의 근본사명과 목적에 맞게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가장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제기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Digitized by Google

군당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경제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집행단위이다. 사상사업과 경제사업이 옳게 밀착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나타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모든 군당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옳게 관철해야 주체사상교양과 경제과업수행을 밀접한 련관속에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염주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커다란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을 현실적문제들과 결합시켜 진행한것이다.

사람들속에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빨리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교양이 현실적문제들과 옳게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염주군당위원회는 주체사상교양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대상의 수준에 맞게 통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군의 책임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원리교양에 대한 옳은 방법론을 찾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동발리와 하석리를 비롯한 여러 리들에 나가서 당원들과의 학습담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일부 학습강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원문에 기초하여 알기 쉽게 해설할 대신 어려운 말을 쓰기때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주체사상학습에서 강사들의 역할이 높지 못하고 학습방법이 심화되지 못하였다는것을 포착하고 한 단위를 설정하여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통속적으로 진행하는 좋은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가 찾은 원리교양의 좋은 방법이란 바로 농장원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들으며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서 가까운 실례를 들어 주체사상의 원리를 설득력있게 통속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체의 심오한 원리와 리론, 방법들을 빨리, 쉽게 리해하도록 한것이다. 사람이 세상만물의 주인이라고 할때 사람이 자연의 환경에 예속되여 사는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면서 산다는것을 지난날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던 우리 농민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오늘의 생동한 현실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똑똑히 리해하게 하였다.

이렇게 농장원들의 표상에 안겨올수 있는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속에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들을 깊이있고 확고하게 인식시킬수 있었다.

군당위원회가 진행한 직관물을 통한 원리교양은 사람들속에 주체사상의 체계정연한 원리와 리론들을 깊이 인식시키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기초원리로부터 시작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있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심원한 원리와 리론, 방법들을 체계정연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생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직관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주체사상의 체계정연한 리론들을 원리적으로 빨리 인식시키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기초와 본질, 그 요구 그리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도표와 그림으로 표시한 직관물들을 만들어 전반적학습반들에서 널리 리용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만든 직관물들은 주체사상의 체계와 내용을 청강자들에게 일목료연하게 안겨주었으며 그들이 생활적인 표상을 가지

Digitized by Google

고 자기의 지식을 끊임없이 공고히 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모든 학습반들에서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토론과 론쟁의 방법으로 주체사상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지도하였다.

광범한 토론과 론쟁은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알고 지식을 끊임없이 넓혀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군당위원회는 농업생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분조마다 학습조를 만들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쉴참을 리용하여 강의에서 배운 문제를 실지 사업과 결부하여 문답식방법으로 학습토론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특히 학습조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와 자기 부문의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원칙에서 학습토론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이 학습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학습방법이였다.

주체사상교양을 생활화, 습성화하자면 학습에 대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습총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열의와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군당위원회는 협동농장 분조들과 공장, 기업소 작업반들에서는 매일 생산총화와 함께 학습정형을 총화짓도록 하였으며 리당조직들과 공장당조직들에서는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수시로 총화하며 분기학습총화는 반드시 실천과 결부하여 총화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게 되였으며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군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주체사상학습을 통하여 누구나 다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들을 환히 깨들고있으며 그것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신념으로 체득하고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주체사상의 요구가 현실에서 빛나게 구현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2페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근본립장이며 고상한 품성이다. 이러한 립장과 품성을 지녀야 사람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똑똑히 알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경리가 발전하여 농산작업이 섬차 전문화되여가고있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은 매 영농시기마다 각이한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현실에 알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킬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교양을 농산작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여야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똑똑히 알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해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매 영농시기마다 군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부문별제강을 만들어가지고 각이한 공정에서 일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농업근로자들

Digitized by Google

이 언제나 자기 임무를 똑똑히 알고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농업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하여 모판관리공, 논물관리공, 모내는기계운전공, 시비공 등 직종에 따르는 강습과 방식상학, 경험교환회를 자주 조직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농사일을 깐지고 알뜰하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이 공업화되여가고있는 오늘의 농촌현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참된 주인이 될것을 요구한다.

오늘은 과학농사의 시대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와 과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함이 없이는 발전된 농촌경리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수 없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갈수 없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 들어가 모두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것이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모든 단위에서 기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학소협동농장을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경험을 얻게 되였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기계화가정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농장원모두가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자고 하니 기계수단을 리용하는데서 시간적제한을 받았으며 더구나 일부 나이 많은 사람들과 녀성들 속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계화가정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반복하여 해설침투시키고 예술영화 《운전수집 새며느리》에 대한 실효모임도 조직하였으며 농장원수가 제일 많은 가정부터 먼저 뜨락또르운전면허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방조함으로써 여기에서 신심을 얻고 모두가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리하여 학소협동농장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농장원모두가 뜨락또르를 몰수 있게 되였다.

학소협동농장의 경험은 주체사상교양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합될 때 농촌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이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힘을 굳게 믿으며 모든것을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이며 일본새이다. 이러한 품성과 일본새를 가져야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그래야 주체사상교양이 혁명실천과 옳게 결합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빛나게 수행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고 그 원료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는 사업도 우리는 군자체의 힘으로 진행하도록 대중을 적극 이끌어나갔다. 큰 규모의 중앙공업공장이 없고 공업발전의 토대가 미약한 우리 군이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고 그 원료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튼튼히 마련한다는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힘으로 난관을 뚫고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만 쳐다보거나 남이 도와

Digitized by Google

줄것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그릇된 사상관점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군의 내부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이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켰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기술자들을 적극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식료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해나가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군의 책임일군들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혜와 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중소화학공장과 200여정보의 지방공업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교양이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끊임없이 높아질 때 자체의 힘으로 군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린것은 우리 군당위원회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일군들과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이 가는곳마다에서 강연, 담화, 해설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널리 선전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24페지)

주체사상교양이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자면 사상사업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다양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체사상교양을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다.

농촌은 공장과 달리 시기마다 제기되는 과업이 다르며 작업조건도 각이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체사상교양, 사상사업을 일률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모내기와 김매기를 비롯한 농번기에는 포전경제선동을 통하여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렸으며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선전선동사업이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지난해 모내기때였다. 일부 농장들에서는 마감단계에서 모가 모자란다는것을 구실로 빈포기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책임일군들을 협동농장에 내려보내여 포기농사를 지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해설침투하는 한편 《빈포기를 없애는것은 참된 농사군의 일본새》라는 해설담화재강을 만들어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깐진 일본새로 포기농사를 잘 짓는 단위들을 군방송과 기동선전대활동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업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는 사람만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는 참된 농사군으로 될수 있다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주체사상교양을 활발히 진행한 우리의 경험도 역시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를 푸는데 주체사상교양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군의 형편을 놓고 볼 때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다.

우리는 강연사업과 선동사업을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일본새라는것을 해설선전하는 동시에 로력혁신자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였다. 또한 공장, 기업소마

Digitized by Google

다 속보판에 질문과 대답란을 만들어놓고 동무의 주인다운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기술혁신과제를 얼마나 수행하였는가, 자재와 원료는 얼마나 절약하였는가, 480분로동시간을 잘 지키고 기대는 만가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각자가 자기의 대답을 써내게 함으로써 매개인이 자기의 생산활동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스스로 검토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업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로동자들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줌으로써 군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훨씬 늘일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그것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간것이다.

숨은 영웅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고있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이다.

그들의 모범은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군당위원회는 두개의 고리를 틀어쥐고나갔다. 하나는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것과 같은 충실성의 모범을 의도적으로 키우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군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적극 찾아내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것을 소개일반화한것이다.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묵묵히 바치가며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오직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온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강연과 해설담화, 연구모임과 실효모임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 최신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벌써 제2차7개년계획과제를 두배로 수행한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모범적인 사실과 귀중한 기술발명을 하여 국가에 커다란 리익을 준 식료화학공장의 성과들을 비롯해서 군안의 여러 부문에서 아름다운 소행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군당위원회는 이러한 긍정적모범을 적극 내세워주고 일반화함으로써 로력혁신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우리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사상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갈 때 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더욱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염주군당위원회는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군안의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으며 군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느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농촌경리와 지방공업발전에서는 전례없는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지난날의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나감으로써 사상개조사업과 경제과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치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 리론과 방법의 기초

남 진 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서 우리 시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고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 사상과 리론에 일관되여있는 근본사상이다. 우리 당의 교육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여 전개된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교육리론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확고부동한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쳐준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4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교육사업에서도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의 기초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의 기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철학적원리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관점을 준다는데 있다.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교육리론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교육리론의 혁명성과 과학성을 특징짓는 기본표징으로 된다. 그것은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는가에 따라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 교육리론전개의 원칙이 달라지며 따라서 교육리론의 체계와 내용이 다르게 세워지기때문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세우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게 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그 어떤 구속과 예속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가는

Digitized by Google

자주적존재이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창조적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그저 막연하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의 진정한 담당자로 키우는 성스러운 사업이며 사람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워나가는 보람찬 사업이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종래의 낡은 관점과 구별되는 새로운 관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관점이다.

종전의 교육력사에서는 교육이란 선행한 세대가 이룩해놓은 문화적재부중에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후대들에게 전수하는것이라는 관점이 뿌리깊이 지배하고있었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 교육관점이다. 여기에는 교육사업을 계급적 착취와 지배의 수단으로 보는 착취계급의 사상관점이 반영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력사적으로 지배하여온 교육에 관한 이러한 고질적인 낡은 관점을 깨뜨리고 사람중심의 새로운 교육관점을 가지게 한다.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어떤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가장 보람있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가 교육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견해와 태도를 가지게 하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가장 정확한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교육리론전반의 기초로 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야 거기에 맞게 교육목적을 바로세우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따라세울수 있으며 교육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자기의 본래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인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풍모와 자질을 해명해줌으로써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리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는것으로서 구현된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 그리고 건장한 체력을 갖추어야 주위세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무궁무진한 능력을 발양하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공산주의적, 혁명가적 풍모와 자질은 오직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것으로서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힘있는 담보로 된다.

Digitized by Google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이 갖추어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만일 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을 홀시하고 주로 선행세대가 이룩한 지식을 전수하는데 치중한다면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줄수 없고 구경에는 사람들을 정치와 사회도 모르고 개인의 안일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속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글뒤주》로 되게 한다.

오직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점령을 앞당기고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바로 해명한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근본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의 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명백히 해명하여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태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푸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따라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리론을 세우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는 혁명적인 교육리론을 세울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내는 혁명적인 교육이며 여기에서는 그 어떤 비로동계급적요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은 철두철미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 만일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거나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진다면 교육에서 혁명적원칙성을 고수할수 없게 되며 이렇게 되면 온갖 비과학적인 교육 리론과 방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오직 교육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교육사업에서 온갖 그릇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고 로동계급적선이 명백한 혁명적인 교육 리론과 방법을 세울수 있다.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기존리론에도 구애됨이 없이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교육 리론과 방법을 세울수 있게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은 일찌기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생소한 사업이며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기존 교육 리론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사회주의교육을 옳은 길로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리론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기존 리론과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창조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워낸수 있는 혁명적인 교육 리론과 방법을 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견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들은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서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온갖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원칙으로 제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교육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모든 사회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또한 교육에서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만일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지 않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교육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하게 된다.

경험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할때 사람들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마비된 무기력한 존재로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교육리론과 방법을 옳바로 세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교육의 리론과 방법의 기초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교육교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방법론을 밝혀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76페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로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이다.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교육리론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교육은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 안받침되는 경우에만 자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가 기초하는 철학적방법론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것

Digitized by Google

을 밝힘으로써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자각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방법론의 근본문제로 내세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가장 과학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심으로써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력사적인 교육체제에서 천명된 사회주의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그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깊이 리해하고 배운 지식에 대한 응용능력을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다. 특히 교수의 기본방법인 깨우쳐주는 방법과 해설과 설복, 긍정을 통한 감화 등 사상교양의 방법들은 주체사상의 이 요구를 구현하여 학생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적극 키워주며 그들자신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새로운 주체의 인간개조방법이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는 사회주의교육방법의 기초로 될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공고발전, 학교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학교의 관리 등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처럼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요구를 밝힘으로써 교육교양과정을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정으로 만들고 교육사업을 사람들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종래의 모든 교육리론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오직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히 하며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위대한 교육학설로 된다. 또한 그것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계급적지향과 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하고있는 교육학설로, 착취사회의 온갖 반동적교육리론과 자본주의적인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적인것도 아닌 범벅교육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가장 혁명적인 교육학설로 된다.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는 완성된 교육학설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할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교육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교육리론은 이미 우리 나라 교육실천을 통하여 그 위대성과 정당성,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

Digitized by Google

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6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마음껏 배우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낼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뒤이어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72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 다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세워짐으로써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 땅우에 오늘은 170여개의 대학과 수많은 고등전문학교들이 일떠섰고 이를 통하여 이미 100여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과학문화 기관들,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과 기업소 및 협동농장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근로자들도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 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교육은 더욱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우고 학교에서 교육의 전과정을 사상개조과정, 사상혁명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의 교육은 사람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철저히 복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인민이 학습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의 교육은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억세게 키워나가는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주의교육리론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심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과 우리 당의 교육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하부지도의 중요한 원칙

박 정 순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당적지도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하부지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의 하부지도의 목적은 본질에 있어서 아래당조직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의도대로 옳게 움직이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 혁명과업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집행정형에 대한 료해장악사업을 잘하지 않고 방임상태에 두거나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

당의 하부지도는 아래당조직들을 장악하는 사업과 도와주는 사업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준다는것은 하부지도에서 장악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도와주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준 다음 그 집행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는 기초우에서 잘못되는것은 제때에 바로잡아주고 걸린 문제는 풀어주는 방법으로 옳게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우의 당조직이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의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며 우리 당이 하부지도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우의 당조직이 아래당조직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6페지)

당은 혁명의 전위대, 참모부이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인다는것은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당원들과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이 혁명의 전위대, 선봉대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장악지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줌데 대한 당의 하부지도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한다.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며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에 의하여 굳게 결속된데 그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Digitized by Google

있다.

우의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전반사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도와주는것은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당이 제시한 하부지도원칙대로 아래당조직들의 전반사업을 철저히 장악하고 도와줄때 아래당조직들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을수 있으며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무규률적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바로잡아줄수 있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숨쉬고 일치하게 행동하게 할수 있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제때에 신속히 침투되고 드팀없이 관철되며 당조직들이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된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방침은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 구현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첫째가는 요구이며 하부지도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반을 장악하고 도와주는것은 아래 실태를 모든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사업을 앞세우게 함으로써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이 실속있는것으로 되게 한다.

전반을 철저히 장악한데 기초하여 아래를 도와주어야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고들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혁명적열의를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또한 아래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어야 당조직들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에 맞게 활동할수 있는것이다.

특히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는 현실은 당조직들이 전반사업을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장악지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장악지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집권당의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대를 이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규모는 날을 따라 커지고있으며 당사업의 범위와 대상도 더욱 확대되고있다.

현시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도경제지도위원회가 새로 나오게 됨에 따라 당사업의 범위와 대상은 더욱 늘어나게 되였다. 이것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구체성을 철저히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될수 있으며 정황도 수시로 달라질수 있다. 당조직들이 변화발전하는 아래실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

Digitized by Google

며 도와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면 지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울수 없고 과학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부지도가 구체성과 과학성을 잃고 거충다짐식으로 되여 내리먹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반을 료해하고 장악하여야 아래실정에 맞는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고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킬수 있다.

또한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립장을 가져야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주관주의적인 지도를 없애고 아래단위의 실정에 맞는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산 지도를 할수 있다.

이처럼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하부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과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늘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풀어주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었으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하부지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각급 당조직들속에서 아래당조직들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과 사업실태를 환히 꿰들고 제때에 필요한 지도사업을 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각급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고있으며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주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되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또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고있으며 그들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있다. 군중이 있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움직이고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인민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당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이처럼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당조직들이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우리 당의 하부지도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안에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친절히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군중과 같이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4페지)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는 각급 당조직들이 아래당조직들을 장악하고 지도하기 위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체계이며 사업질서이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을 일상적인것으로 진행하자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벅찬 현실에 들어가서 모든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고 묘술을 찾아내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도록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그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사업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주기적으로 재무장, 재작전하는것과 함께 아래일군들을 재무장, 재작전하도록 사업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재무장, 재작전해가지고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는것은 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생신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지도일군들이 자신과 아래일군들을 끊임없이 재무장, 재작전해가지고 지도해야 해당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들을 대중에게 제때에 알려줄수 있으며 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 아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다.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단위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주는것이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아래의 전반적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제기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자는데 있다.

내려가기만 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실태를 과학적으로 료해하지 않는다면 내려가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고 아무리 많이 내려간다 해도 큰 은을 나타낼수 없다.

전반을 장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는것이다.

전반을 옳게 료해장악하자면 해당 부문사업에서 보다 중요한것과 덜 중요한것, 기본적인것과 부차적인것, 사업의 선후차를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해보아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정형을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는것은 아래에 대한 장악지도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다른 모든 사업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아래를 료해장악하는것은 하부지도의 선차적공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써 하부지도의 목적이 다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하부지도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자면 료해장악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하고 장악한데 기초하여 나타난 우결함을 정확히 분석하고 좋은 집은 일반화하여 적극 내세워주는 한편 결함을 제때에 고쳐주기 위한 실제적인

Digitized by Google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은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근본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만 잘 알면 자신있게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처리할수 있으며 군중을 옳게 이끌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31페지)

일군들이 아래실태를 료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모로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옳고그른것을 분석판단할줄 알아야 하며 그러자면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모든 사물현상들을 정확히 분석판단하며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침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높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대할수 있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을 자로 하여 정확히 재여보고 옳게 판단하며 능숙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튼튼히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실력있고 능력있는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아래를 장악하고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하부지도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져야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과학적으로 료해할수 있으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아무런 방법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우의 지시를 되받아넘기는것으로 그치거나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로 도와주는 사업을 대치한다면 하부지도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

일군들의 지도대상인 아래의 실정은 같지 않으며 단위마다 처한 구체적 환경과 조건,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성격도 서로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한가지 처방만으로써는 아래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실속있게 도와줄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업을 포치하거나 조직할 때 외출로 지시만 줄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과 수행방도까지 가르쳐주어야 하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늘 장악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아래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전반을 철저히 장악한 기초우에서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함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공장대학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

리 도 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방도로서 공장대학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장대학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공장대학이 가지는 의의와 그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지식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공장대학은 사회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테리로 키우는 믿음직한 기지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많이 내오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2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실현에서 공장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공장대학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형태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사회에 상응한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기술지식수준을 소유한 참다운 혁명적인테리,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적인테리로 만드는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포괄하며 그것이 도달하여야 할 높이는 로동계급의 혁명의식이며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지식수준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그들을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켜 끊임없이 교육할것을 요구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전반적고등의무교육의 실시에 의하여 현실적으

로 담보되며 공장대학은 고등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형태로 된다.

공장대학이 전민고등의무교육화를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우월한 교육형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고등의무교육실시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는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방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전체 인민을 고등교육체계에 망라시키기 위한 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의 하나이며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공장대학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되는 교육일군들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들을 쉽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은 공장, 기업소에 병설된 대학으로서 우선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는 과학기술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있다. 그들은 이미 고등교육을 받은데 기초하여 공장에서의 생산지도 행정과 혁명적로동계급과의 창조적협조과정을 통하여 리론과 실천을 높은 수준에서 체득하였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었으며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잘 준비된 일군들로 자라났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로동계급들을 혁명화되고 인테리화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대한 사업을 맡아수행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된다.

공장대학은 바로 그들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겸임교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등교육일군들을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장대학은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전민고등의무교육화를 위한 온갖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조건 등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사업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이 전민고등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형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전민고등의무교육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월한 교육형태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사상의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민고등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자면 로력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문제는 언제나 긴장성을 띤다. 사회주의건설이 전진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생산부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에 상응한 로력의 장성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옳게 풀면서 전민고등의무교육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고등교육을 줄수 있는 우월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공장대학은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은 로동계급의 생산활동현지에 병설되여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생산활동에서 유리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게 하면서도 온갖 유리한 조건을 다 보장받으면

Digitized by Google

실천을 다같이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잘 키우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공장대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계급적인테리, 공산주의적인테리들의 풍모와 자질을 다같이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공장대학에서는 다른 모든 학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철저히 진행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주고있으며 그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자기자신뿐아니라 온 사회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킨다.

공장대학은 또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소유하여야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과학기술로 무장하는 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질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을 소유하여야만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공산주의사회를 움직이고 자동화, 현대화된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는 공산주의적인테리로 될수 있다.

공장대학은 바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소유하여야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공장대학은 우선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방도인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월한 교육방법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부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운 리론과 과학기술지식을 실천활동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체득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가장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방법이다.

공장대학은 그가 가지는 특성으로 하여 이 우월한 교육방법을 높은 수준에서 적용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기술인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운다.

공장대학에서는 교수과정과 로동자대학생들의 생산실천과정이 곧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공장대학은 공장의 생산조직에 따라 교수시간이 정해지고 해당 공장의 직종에 따라 학과가 설정되여있다. 이와 함께 교육강령도 공장의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작성되고 집행된다. 또한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대학생들은 자기 생산부문과 직접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하며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배워 생산과 기술의 끊임없는 장성에 이바지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나간다.

생산과 학습을 결합시켜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로동자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공장과 대학은 중요한 혁명초소이며 그들의 생산활동은 곧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소화하고 적용하는 생산실습이며 전공실습이다.

이것은 공장대학의 교수과정과 로동자대학생들의 생산실천과정이 곧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공장대학은 또한 깨우쳐주는 교수방

Digitized by Google

법의 중요한 형태로서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과론문작성, 과정설계, 과학토론회, 과학기술연구발표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서 배운 과학적원리들과 리론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생산발전과 기술혁신에 적극 이바지하게 한다.

참으로 공장대학은 과학기술교육에서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가장 밀접히 결합시키며 모든 과목교수의 당정책화를 잘해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내는 위력한 기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공장대학은 이렇듯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가장 빨리 질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교육형태로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오늘 공장대학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해방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를 세워주신데 이어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공장대학을 창설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공장대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공장대학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공장대학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로동계급을 인테리대군으로 키워내는 혁명적교육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위력한 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길을 걸어온 공장대학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장대학사업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새로운 공장대학들을 더 많이 내오며 공장대학에 고등전문학교를 병설하고 공장관리일군들을 양성하는 학과를 새로 내오도록 하며 교육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워주었다.

뿐만아니라 교육내용을 더욱 완성하며 현대적인 기술수단들과 실험설비들로 그의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당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공장대학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공장대학은 우리의 로동계급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새로운 혁명적인테리로 키울수 있게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공장대학들은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냄으로써 민족기술간부문제를 원만히 풀고 나라의 인테리대군,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의 관리일군들과 기술일군들중에는 공장대학을 나온 로동계급출신의 혁명적인테리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공장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참다운 충실성의 산 모범을 보여주면서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오늘 공장대학을 나온 로동계급출신의 혁명적인테리들은 혁명과업수행에서

Digitized by Google

높은 책임성을 발휘함으로써 인테리들속에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고있다.

공장대학을 나온 기사,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능률적인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고 새로운 생산기술공정들을 도입하여 생산의 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고르롭게 분포되여있는 공장대학들이 지방에 현대적인 기술문명을 보급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문화수준에서 지역들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지방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공장대학운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성과들은 앞으로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을 대대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펼쳐주고있다.

참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은 사람들을 유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우월한 사회주의적교육형태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교육형태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 단행본, 8～9페지)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가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공장대학들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공장대학일군들은 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당정책화하고 완성하며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로동계급의 특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워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교육학적과정을 철저히 거치게 하여 모든 학생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공장대학의 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치사상적, 과학리론적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미 있는 공장대학들의 양성규모를 늘이는 한편 새로운 공장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을 더 많이 내오며 룡양광산 금산갱 로동계급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며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공장대학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숭고한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개조사업

김 재 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진행하고 공업화를 실현하며 3대기술혁명을 벌리는 과정에 낡은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는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착취와 빈궁의 뿌리를 영원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헐하게 일하고 많이 벌며 모두가 잘살수 있도록 기술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갈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533페지)

근로인민대중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이 숭고한 의무를 다하자면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는 인민들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다양한 물질적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하는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낡고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는 또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어렵고 힘든 로동과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것은 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고르롭게 장비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

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는 문제는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국방력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는것은 그에 필요한 수단과 조건을 어떻게 마련하고 리용하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수단들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이 사업에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경제발전수준,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기술개조문제를 풀기 위한 옳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사업을 밀고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97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혁명투쟁을 계속해나가며 전진도상에서 나서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이겨내면서 기술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사업을 진행하는것은 자기 나라 내부의 힘과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기술개조를 주동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는데는 수많은 기술수단과 자재, 기술기능로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조건들을 옳바로 마련해야 기술개조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빨리 다그치며 경제건설을 주동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건설에 동원리용할수 있는 자금과 자원, 기술수단 등 자체의 내부원천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매개 나라가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기술발전에 리용할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조건들을 어떠한 수준에서 갖추고있는가 하는것은 해당 시기까지 그 나라가 내부원천을 어느 정도로 장악하고 개발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지금 리용하고있는 인적 및 물적 조건들은 그 나라가 가지고있는 생산적잠재력의 절대적규모를 보여주는것은 결코 아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속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옳게 조직하면 기술개조에 필요한 자체의 내부적기술력량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또한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성과에 의거하여 자연부원을 적극

Digitized by Google

탐사개발하고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하는 자체의 중공업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기술개조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나갈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주로 자체의 내부적원천에 의거하여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나라에나 다 마련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쳐나가자면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에 의거할 때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을 주로 자체의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 방법으로 마련할수 있으며 재생산의 모든 환절들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면서 전반적경제부문들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를 진행하는것은 또한 기술개조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목적은 주로 생산에서 더 높은 경제적효과성을 얻자는데 있는것이다. 기술개조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과 기계설비물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적조건들과 기술력량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것이다.

나라의 경제구조와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고려함이 없이 새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덮어놓고 그것이 생산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기여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자기 나라의 기술수단과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기술개조를 진행하여야만 생산공정을 선진기술로 장비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그 경제적효과성을 계속 높여나갈수 있다.

기술개조에 필요한 선진기술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 때에는 그것을 능숙히 다룰수 있는 국내기술력량을 빨리 준비할수 있으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품, 부속품 및 그밖의 물자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새로 조업을 시작하는 대상들의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되며 결국 새로 받아들이는 기술수단들이 제대로 은을 내게 할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조를 진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는것은 단순히 해당한 생산공정과 단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하게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기술개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간다면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방법이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생산부문들인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부문들을 창설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이 있어야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주로 자기 나라의 힘과 기술에 의거할 때에는 기계제작공업과 그와 관련된 중공업부문들을 자체로 창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가 절실하게 제기되며 따라서 그러한 생산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또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일군대렬을 자체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되며 많은 국가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위한 기술수단생산에 힘을 넣을수

Digitized by Google

있게 된다.

자체의 힘으로 기술개건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기술경제적교류를 배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디까지나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건을 위한 사업을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로력에 의거하여 자체로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통채로 받아들이는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만 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자기 힘으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한다면 그 어떤 기술개조문제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기술개조사업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는 무엇보다도 생산자대중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기술개조에 참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게 된다.

자력갱생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근로자들은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기술개조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밀고나갈수 있는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시종일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였으며 기술개조에 필요한 기술수단들과 자재, 로력, 자금 문제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왔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그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다는것은 기술개조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경험이다.

* *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을 밝힌데 기초하여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위한 방도를 옳게 밝혀야 이 사업에서 편향을 없앨수 있으며 있는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그를 위한 사회경제적전제를 확고히 마련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기술의 개조에 앞서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기술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으며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46페지)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전제를 마련하는것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기술개조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전제를 마련하여야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경제적요인들을 없애고 기술개조사업을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사회경제적전제를 마련하는 사업은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여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나라들의 경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매우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았을뿐아니라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한 우리 인민은 기술과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전제를 튼튼히 마련해나감으로써 기술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기술개조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술개조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전제를 확고히 마련해나갔다.

우리 당의 경험은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사회주의적개조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기술개조를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보다 빨리 마련할수 있으며 전반적기술개조과정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그를 위한 단계와 순차를 옳게 정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부터 그리고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현대화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8～49페지)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오랜 기간에 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자면 막대한 자금과 기술수단이 요구될뿐아니라 그것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믿음직한 민족기술일군대렬이 준비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짧은 기간에 단꺼번에 해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마련되여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단계와 순차를 정확히 설정하고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조과정을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 마련되여있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수준이 낮으며 자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수 있는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술개조를 하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이 방침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부문들에서 기술개조를 다그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재와 자금,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조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고 힘든 일이 많은 채취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생산공정을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실천적경험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기술개조방침으로 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수준을 가장 빨리 높일수

Digitized by Google

있게 하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의 가장 중요한 방도는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은 기술자나 전문가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간부들과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악하게 달라붙어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178페지)

기술개조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기술혁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며 기술개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내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기술이 오직 수백만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발전된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며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된다. 근로인민대중은 기술개조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이것은 기술개조가 근로인민대중자신이 해야 할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개조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개조가 낡은 사회의 유물인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할것을 목적으로 하는것만큼 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생산공정, 작업대상들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실현된다. 기술개조사업의 전면성과 그 실현의 높은 속도는 여기에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충분히 동원할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술혁신운동에 커다란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첫시기부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면서 그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의거하여 기술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기술개조자체의 본질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개조의 직접적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인것만큼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야만 기술발전에서 일대 혁신이 이룩될수 있다. 다른 한편 기술개조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가지는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이끄는데서 또한 대중의 창발성과 과학기술을 옳게 결합시키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경험과 과학기술의 결합, 로동자, 농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기술개조사업에서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거대한 물질적력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무시하고 과학과 기술만을 절대화하며 신비화하는것은 우

Digitized by Google

경적편향이며 반대로 기술개조사업에서 파학과 기술을 무시하는것은 좌경적편향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편향들을 다같이 철저히 경계하면서 경험과 과학, 기술을 옳게 결합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실천적경험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술개조를 추진시켜나갈 때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설비와 기술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된 결과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실시되였다. 특히 힘든 작업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채취공업부문에서 채굴설비들이 대형화, 고속도화되고 종합굴진기, 원통식채탄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채굴작업의 종합적인 기계화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금속, 화학, 세멘트 공업을 비롯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남아있던 공업부문들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적극 추진되여 근로자들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계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조국 땅에 펼쳐진 이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며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이룩된 귀중한 경험을 살려 경제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조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려면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더 많이 창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술개조를 적극 다그쳐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하는것을 그 본질적내용으로 하는만큼 기술개조를 적극 다그치는것이 곧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며 또한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현대적인 기술수단의 도입을 전제로 하며 그것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군중적운동으로 기술개조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앞당겨 실현하여야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농업생산 발전의 중요한 요구

리 영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지도적지침이다.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바로 여기에 농업의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조국강토를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문을 이룬다. 농업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을 생산보장하며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그러므로 농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농업원료에 대한 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없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에서 토지가 노는 역할과 관련된다.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자체가 생물체인 농작물의 자체증식과정으로 되여있다. 농업에서 토지는 생산이 진행되는 장소로뿐아니라 농작물이 자라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이 기계설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을 리용하여 로동대상을 가공해내는 공업생산과는 달리 농업에서는 토지라는 생산수단에 의거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에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근본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나가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농업생산에서 토지가 담당하고있는 기능을 다른 생산수단이 대신할수는 없다. 토지가 없이는 농업생산 그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잘 리용하여야 하며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으로 되는 토

Digitized by Google

지는 다름아닌 부침땅이다. 부침땅의 넓이와 비옥도는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아직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려면 중요하게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한다.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농업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는 물질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식량과 농업원료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것은 곧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이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는 농업생산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 제기되고있는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업생산이 고도로 집약화되여있는 오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부침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자》, 단행본, 5~6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였다.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1979년에 벌써 알곡 정보당수확고가 논벼는 7.2톤, 강냉이는 6.3톤에 이르렀으며 900만톤의 알곡고지가 성과적으로 점령되였다. 농업생산이 빨리 늘어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전체 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고도 많은 예비를 가지게 되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혹심한 식량위기, 농업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농업이 실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농업이 고도로 집약화된 오늘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을 계속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물론 앞으로도 영농방법을 보다 개선하면 농업생산을 더 늘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 알곡 정보당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바로 부침땅면적을 늘이는데 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일 때 영농방법개선에 의한 농업생산장성의 일정한 제한성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농업을 계속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으며 먹는 문제에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1,500만톤의 알곡고지는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것을 예견한 전례없이 웅대한 목표이다. 이 방대한 알곡생산목표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부침땅면적을 늘이지 않고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에만 의거해가지고서는 알곡생산을 빨리 높일수 없다. 부침땅면적을 늘여야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켜 알곡 1,500만톤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부침땅면적을 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때 우리의 조국강토는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게 될것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하

Digitized by Google

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고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우리가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면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주고 그들을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조국이 통일된 다음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니히 공급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있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이 농업생산을 계속 빨리 장성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문제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우리 나라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시였으며 해방직후에 벌써 대자연개조사업을 부강하고 풍요한 새 조국건설의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1952년에 몸소 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던 평안남도 순천군 백송리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에게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이시면서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를 내대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조사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부터 간석지개간사업을 시험적으로 전개하도록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다락밭건설과 토지정리, 간석지개간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십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마련되였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버림받아오던 땅들이 옥답으로 전변되고 농업의 생산토대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당 제6차대회 결정에 따라 30만정보의 간석지와 20만정보의 새땅을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간석지물문제를 풀기 위한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4대 건설과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벌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는것은 국토를 넓히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며 더욱 위력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다. 우리가 대자연개조사업을 적극 벌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면 지금 있는 알곡작물총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한 부침땅면적이 새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발전에서 획기적인 의

Digitized by Google

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이 과업이 수행되면 우리의 농업생산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전략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우리에게는 부침땅을 늘이는데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자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사회주의공업이 있고 우리 당이 키워낸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가 있으며 간석지와 새땅을 개간하는 보람찬 사업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이 있다. 우리에게는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영웅적인민이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마련되여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어떻게 동원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이 지닌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있고 수많은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이 살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군의 인적 및 물적 력량을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를 맡고있다.

군당위원회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군의 전반사업을 옳게 이끌고나간다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온천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이후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 군은 넓은 간석지를 끼고있는것만큼 부침땅면적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의 일군들속에서는 간석지를 부침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은 국가에서 로력과 설비, 자재를 대주어야만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조금만 품을 더 들이면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도 자체로 개간하지 못하고있었다. 걸린 고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이후 이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대주면 더욱 좋고 안대주면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가지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렸으며 군의 물질기술적력량을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이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짧은 기간에 토지정리와 물길공사, 양수시설보강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작업량을 해제끼고 부침땅면적을 760여정보나 늘이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대로만 해나간다면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못해낼일이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경험은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성과의 비결은 바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자연개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

Digitized by Google

계 벌려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체인민이 달라붙어 힘찬 투쟁을 벌린다면 대자연개조를 위한 웅대하고 거창한 4대 건설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페지)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부침땅을 늘이기 위한 사업은 방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거창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군중의 힘과 지혜는 실로 위력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전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부침땅을 늘이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로력을 충분히 대줄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부침땅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생산자대중을 적극 발동시켜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키고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부침땅을 늘이는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전투지휘를 잘하는데 있다.

작전과 전투지휘를 잘하여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것처럼 부침땅을 늘이기 위한 자연개조투쟁에서도 일군들이 조직사업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대자연개조를 위한 전투장들에 내려가 기술지도와 설비관리, 자재보장과 로력관리를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있는 밑천을 더 잘 리용하고 작업방법을 혁신하도록 전투지휘를 잘해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특히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건설대상을 바로 설정하고 건설의 선후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건설을 모가나게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부침땅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30만정보의 간석지와 20만정보의 새땅을 개간하기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 속에 부침땅면적을 늘이는 사업의 중요성과 그 거대한 의의를 깊이 해설침투하여 모두가 다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도록 깊은 당적관심을 돌리며 지도일군들이 대자연개조전투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도와주고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하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건설장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본성

경 룡 일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은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민족의 흉악한 원쑤이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상전의 조종밑에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떠받들면서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고 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길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있으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추악한 매국노이고 분렬주의자이며 인간백정인 전두환파쑈도당은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가운데서도 가장 악독한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미제를 등에 업고 감행하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극악한 매국배족적책동은 씻을수 없는 엄중한 죄악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영원한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　　*

남조선의 전두환역도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의존정책으로 저들의 《정권》을 부지하려는 추악한 사대매국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권세욕을 충족시키고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24페지)

사대와 외세의존은 제국주의식민지괴뢰들의 생리이며 주되는 본성이다.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례외없이 외세에 의존하여 저들의 추악한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아왔으며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추구하여왔다. 매국역적 전두환도당도 그 본성에 있어서 선행괴뢰들과 조금도 다른것이 없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적지배를 합법화하고 놈들의 조선침략정책을 정당화하며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대사상을 부식시키는데서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제의 신임을 받는것을 《립신출세의 비방》으로 삼아온 전두환역도는 미국에서 앞잡이로 길들여질 때 벌써 《미국을 섬기는것은 우리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죽어서 백골이 되여도 미국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뻔뻔스럽게 뇌까렸다.

전두환역도의 사대매국노적본성은 이자가 총칼을 휘둘러 권력을 탈취한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전두환도당은 괴뢰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자마자 미국의 새 상전을 찾아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남조선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생명선》이라느니,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라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강점의 《중요성》을 력설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전초기지》를 지키기 위하여 《반공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할 속심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이 역적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계획》을 백지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골자로 하는 매국문전을 조작하여 그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전두환도당의 이러한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남조선인민들은 끝없는 노예살이의 운

Digitized by Google

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미제에게 나라를 팔아먹고있을뿐아니라 일본반동들과의 공모결탁을 강화하는 범죄적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일본반동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매국과 침략의 홍정판을 벌려놓고 남조선과 일본이 《같은 령토》이고 《같은 운명체》이며 남조선은 《일본안보의 방파제》라고 꺼리낌없이 줴치면서 놈들에게 아부굴종하고있다.

지금 전두환파쑈도당이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탁을 로골적으로 강화하고 일본에 거액의 《원조》를 애걸하는 추태까지 벌리고있는것은 외세에 빌붙어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놈들의 추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전두환도당은 또한 남조선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가들에게 송두리채 내맡기고있다. 이 역적은 외자를 많이 끌어들이는것이 마치도 《경제성장》의 그 무슨 《방도》라도 되는듯이 떠벌이면서 외래자본에 대한 제한조치마저 없애고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자본투하의 무제한한 《자유》와 최대한의 리윤획득을 허용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의 민족산업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남조선은 300억딸라가 넘는 외국의 빚더미에 짓눌려 허우적거리고있다.

사대매국노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외세의존정책과 매국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예속 밑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있는 전두환도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더러운 매국노이다.

민주, 민권을 교살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야수적으로 탄압말살하는것은 전두환역도의 매국배족행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현 군사파쑈분자들이 감행하고있는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여넘고있습니다. 력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륙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6페지)

파쑈폭압은 괴뢰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정권》욕을 실현하고 식민지파쑈통치를 부지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괴뢰들은 례외없이 상전에게는 비굴하게 아부굴종하지만 인민대중앞에서는 무서운 폭압자로 군림하여 온갖 파쑈적전횡을 일삼는다.

괴뢰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지 않고서는 식민지파쑈통치를 유지할수 없으며 저들의 더러운 목숨도 부지할수 없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파쑈몽둥이를 휘두르며 저들의 파쑈통치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말살하기 위해 온갖 발악적인 책동을 다하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일신의 더러운 《정권》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 남조선땅을 참혹한 피바다에 잠그는것도 서슴지않는 극악한 파쑈교형리이며 민족의 백정이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폭압책동은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뛰여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광주대학살만행은 피에 주린 흡혈귀 전두환군사파쑈도당만이 감행할수 있는 인간살륙의 극치로서 놈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여 평화적시위에 떨쳐나선것은 너무도 정당하며 의로운 애국투쟁이였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나 전두환파쑈도당은 그들의 정당한 요구에 총칼로 대답해나섰으며 시위군중들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살인귀들은 시위군중에게 총포탄을 마구 퍼붓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장갑차를 내몰아 무한궤도로 깔아죽이고 군용트럭의 뒤에 매달아 끌고다니면서 죽이였는가 하면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죽이였다. 지어 놈들은 녀학생들을 분수대에 매달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고 가슴과 배를 란도질하여 죽이였으며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여 대들 처 죽이는 등 귀축같은 야수적학살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전두환살인악당의 광주대학살만행을 현지에서 체험한 한 목격자가 《도저히 믿을수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이 처절한 현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고개를 돌리고 몸서리를 치며 이를 갈았다.》고 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전두환파쑈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살인귀적만행은 천추에 용납못할 동족살륙만행으로서 력사상 최악의 야만행위이다.

온 남조선땅을 피바다에 잠그고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은후 전두환역도는 제놈들의 파쑈통치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말살하기 위해 온갖 발악적인 책동을 다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저들의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부지하고 개인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파쑈악법과 방대한 폭압기구들을 만들어내고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놈들은 《국가안보》란 구실밑에 《유신헌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무려 5천여건의 파쑈악법들을 개악 또는 새로 조작해냈으며 《정치풍토쇄신》이란 이름밑에 모든 정당들을 해산하고 관제화하였으며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봉쇄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여지없이 말살하였다.

또한 놈들은 악명높은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하여 군대, 경찰, 검찰 등 방대한 폭압기구와 폭압력량을 남조선도처에 거미줄처럼 늘여놓고 인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탄압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도 《란동분자》로 몰려 감옥으로 끌려가고 평화통일을 주장하여도 《공산주의자》로, 《용공분자》로 몰리여 처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전두환파쑈도당이 1980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75만 3천 500여명의 죄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여 악독한 고문과 형벌을 가하는 만행을 감행한 사실만으로도 놈들의 폭압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전두환파쑈도당의 이러한 야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에서 류혈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모든 살인폭압만행은 전두환파쑈도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못할 극악무도한 폭군이며 민족의 백정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 앞에 저지른 전두환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가운데서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은 가장 큰 범죄이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통일의 길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철저한 민족분렬주의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남북분렬의 현상태를 고정화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21페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다. 분렬

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여야 우리 인민은 전국적판도에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로 나오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통일은 곧 애국이며 분렬은 곧 매국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그가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 살건, 어떤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든 관계없이 다같이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러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전두환도당은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반공대결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에 더욱 피눈이 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후 《이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 1980년대는 《북과의 승패를 가름하는 시대》라고 떠벌이면서 공공연히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부르짖고있다. 이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그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겠다는 수작이다.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전두환일당의 책동은 우리 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이 나간후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새롭게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그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국제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당황망조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에서 급속히 퍼져가는 인민들의 평화통일기운을 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놈들은 우리의 새로운 통일방안이 《적화통일계략》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련방국가창립방안을 헐뜯는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어떠한 요소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전두환파쑈도당은 비방중상과 파쑈폭압으로써는 우리의 새로운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막을수 없게 되자 주제넘게도 그 무슨 《상호방문제의》니, 《보충제의》니 하는것들을 들고나와 마치 저들이 통일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 동족의 피로 손발을 적신 전두환역도가 그 무슨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은 전민족적인 대화의 실현을 가로막고 대화를 저들의 군사파쑈통치를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삼으려는 기만적인 모략책동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와 민족 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대죄를 저지른 극악한 민족분렬주의자인 전두환역도는 나라의 통일과 관련되는 민족의 중대사를 론의하는 마당에 나올 자격이 없으며 통일대화의 상대로 될수 없다.

최근 전두환도당이 해외동포들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악랄한 비방중상과 비렬한 폭압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은 놈들이 떠벌이는 《인도주의》니, 《리산가족찾기》니, 《대화》니, 《평화통일》이니 하는것들이 다 거

Digitized by Google

식어고 우리의 자주이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고있다.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전두환파쑈도당의 범죄적책동은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해보려고 날뛰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illegible] 이전 독재자가 물러나기전에 세계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은 《유엔동시가입안》과 같은 분렬안을 내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이번 전두환도당이 이른바 《2천년대통일론》을 서슴없이 들고나온것은 놈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매국역적 전두환도당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2천년대통일론》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통일기운을 말살하고 미제상전의 계략에 따라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행위이며 저놈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전 남조선괴뢰도당은 《70년대후반기통일》을 떠들다가 《80년대통일》을 외워댔는가 하면 통일문제를 《100년전쟁을 치르듯 대를 두고 다루어야 한다》고 떠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그 보다 한수 더 떠서 통일문제를 십년이나 이십년도 아닌 백수십년을 두고 숙제로 남겨놓자고 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무시하고 통일의 날을 무한정 뒤로 미루자고 하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의 통일을 뒤로 미루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반대로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촉진시키야 할 절박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있다. 해내외동포들속에서 민족적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분렬의 장벽이 무너질 전망이 밝아지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통일할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통일을 무한정 뒤로 미루려고 하는것은 놈들이야말로 선행 독재자들보다 더 악랄하고 파렴치한 통일방해자이며 분렬광신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인 영구분렬책동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더욱더 큰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강력한 배격을 받고있다.

전두환도당이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것은 놈들의 매국배족적본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함으로써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누리며 권세욕을 충족시켜보려 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놈들은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그처럼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모든 사실들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야말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더러운 매국노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탄압학살하는 극악한 민족의 백정이며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철저한 분렬주의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전두환파쑈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고 조선에서 전쟁의 화근을 없앨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일삼고있으나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오래동안 부지할

Digitized by Google

수 없다.

외세에 의존하여 살아나가려는 사대매국노들은 불피코 상전으로부터도, 인민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기 마련이며 멸망하기 마련이다. 세계력사를 보아도 사대매국과 폭압을 일삼던 독재자들이 오래간 제가 없다. 사대매국노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의 비참한 종말이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인 전두환도당의 운명도 결코 달리는 될수 없다. 매국역적 전두환도당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온갖 매국배족적책동을 일삼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을 극악한 매국배족의 무리로 락인찍고 놈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정권》은 남조선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여있으며 놈들의 지반은 수습할수 없이 뒤흔들리고있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도 전두환도당을 단죄하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정권》의 자리에서 즉시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극악한 매국역적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마땅히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고 반역의 길로 나가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멸망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며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분렬주의자들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전두환도당을 타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는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본인

김 웅 렬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은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공공연히 무력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9~90페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것은 매개 민족들과 인민들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모든 인민들은 참다운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여왔으며 또 투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이 지향과 요구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교살하고 그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것을 저들의 주되는 대외침략정책의 하나로 삼고있다. 놈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영원한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유린말살하기 위한 책동은 특히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제는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교살하며 인민들의 사회적진보와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본인이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무력으로써 진보적나라들의 독립과 자주적발전을 반대하는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총칼로 인민들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흉악한 침략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은 미제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가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그것을 해외에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있는것은 바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힘》으로 억누르고 그들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지금 미제는 세계의 100여개의 나라들과 지역들에 2,500개에 달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51만여명의 침략무력과 핵무기를 해외에 배치하고있다. 미제는 해외에 있는 저들의 이러한 군사기지와 침략무력을 중요한 《거점》으로 하여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총칼로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탄압말살하고 그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놈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전후에도 계속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태평양주둔 미군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병력과 수많은 핵무기를 항시적으로 배치해놓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계획》을 백지화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남조선전역을 새로운 군사시설망으로 뒤덮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민주,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억누르고있으며 극악한 매국역적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을 정치군사적으로 뒤받침하면서 인민탄압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로 내몰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엄중한 장애를 받고있다.

미제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계속 강점하고 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해방된지 37년이 되도록 아직도 나라의 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횡포하게 유린하고 있기때문이다.

미제의 군사적책동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과 아랍 만 지역에서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더욱 보강확장하고 이 지역에 수많은 침략무력을 투입하여 침략과 간섭, 전쟁 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또한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비롯한 저들의 앞잡이들에게 현대적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면서 그들을 이 지역의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강화하도록 적극 부추기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놈들이 말로는 《중근동문제의 평화적해결》이요 뭐요 하면서 중동문제의 평화적《조종자》로 자처하고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군사적간섭과 위협공갈로써 아랍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이 지역에서 반제전선을 허물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중근동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적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있으며 일련의 아랍나라들의 민족적자주권과 령토완정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음흉한 정치군사적모략책동과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까리브해연안에서 저들의 무력을 증강하고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는것도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이다.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무력간섭책동은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복, 파괴 활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 정부전복음모와 각종 파괴암해책동은 민족적독립을 교살하고 사회적진보를 가로막기 위한 극히 비렬한 범죄적책동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정부들을 뒤집어엎고 저들

Digitized by Google

의 추종자들과 괴뢰들을 그 자리에 들여앉혀 이 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우경에로 돌려세워보려 하고있다. 이 흉악한 목적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미중앙정보국을 비롯한 수많은 첩보모략기구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나라들을 반대하는 전복파괴활동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다. 미국의 출판물들이 폭로하고있는바와 같이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신흥세력나라 지도자들을 살해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부들을 전복하는것은 미중앙정보국활동의 기본임무로 되고있다. 놈들은 미국의 정책에 《방해되는자는 죽이라.》는 침략적교리에 따라 국가지도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살해하고 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며 정부를 전복하는 등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피비린내나는 파괴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100여차례의 군사정변들은 그 모두가 미중앙정보국의 검은 마수에 의하여 조작되고 감행된것이다.

특히 미제가 캄보쟈와 칠레에서 감행한 군사정변들은 놈들의 악랄성과 야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미제는 비행기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빠나마의 국가경비대총사령관을 살해하였으며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가 꼬리를 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미제의 악랄한 전복, 파괴 활동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은 커다란 장애를 받고있다.

미제의 모략책동은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각개격파하려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미제는 력사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 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초래된 령토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이 지역 나라들의 정치적리념과 신앙의 차이, 경제적조건과 발전수준의 차이, 인종관계 등 일련의 문제들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지역 나라들과 민족들 사이에 쐐기를 박고 서로 반목질시케 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여 각개격파하려 하고있다.

미제의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국부전쟁이 계속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혁명투쟁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경제적침투는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쓰고있는 악랄한 침략수법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27페지)

미제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예속의 중요한 수단이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은 민족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긴 악독한 후과로 하여 이 나라들은 자금, 원료, 자재가 부족하며 인민들의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난관들을 악용하여 제놈들의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다국적회사들의 침투를 통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자주, 자립에 대한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지난날과 같이 로골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라들을 략탈하고 지배할수 없게 되자 그들의 《벗》으로, 《협조자》로 가장하면서 이른바 《원조》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미제는 《원조》의 간판밑에 국가독점자본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는곳마다에서 민족자본을 희생으로 하는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을 탈취하고있다. 미제는 《원조》자금을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국가예산체계에 밀어넣음으로써 이 나라들의 국가예산을 틀어쥐고 재정금융체계를 장악하며 경제의 주요부문을 거머쥐고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3,000여개의 략탈기지를 설치하고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 동, 아연, 우라니움, 천연고무등 주요자원들을 략탈해가고있는 사실은 그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는 또한 《원조》의 명목으로 자기 나라에서 팔리지 않는 잉여상품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들이밀어 국제시장가격보다 평균 12～15% 지어 1.5배～3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고있는 반면에 이 나라들의 원료는 아주 눅은 값으로 략탈해가고있다. 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원조》를 주고 그것을 미끼로 다국적회사들을 설치하여 본국에서보다 몇배나 더 가혹하게 착취하여 해마다 수백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특히 미제의 경제《원조》는 놈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미제는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원조》에 대한 각종 정치군사적부대조건을 내걸어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위협공갈해나서고있다. 미제는 신흥세력나라들이 미국독점체들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게 되자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200마일령해권을 선포하고 그 수역안에 기여든 미제해적선들을 붙들어 징벌하자 《경제원조》를 중지하면서 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인 나라의 경제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략탈당하고 롱락당하는곳에서 참다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미제의 악랄한 경제적예속화정책은 신흥세력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적발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참으로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진보적인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흉악한 원쑤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민족적《독립》과 《자유》에 대하여 떠벌이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은 더욱더 교활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세계제패의 흉악한 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의

Digitized by Google

범죄적책동은 놈들의 침략적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쫓겨나지 않는 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결코 버리지 않을것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우와 같은 문헌, 245~246페지)

제국주의는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예속시키고 략탈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걸어온 천력사는 바로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유린말살하여온 저주로운 침략의 력사이다. 세계인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감행하는것은 미제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것으로서 그것은 놈들이 멸망할 때까지 결코 변할수 없는것이다.

미제가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그처럼 악랄하게 가로막아보려 하고있는것은 또한 놈들의 처지가 안팎으로 더욱더 어렵게 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최근년간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반제혁명력량이 비상히 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앙양되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그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되고있다. 미제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당하고있으며 자본주의세계안에서도 독점권과 지휘권을 거의다 잃어버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활개치고 주인행세를 하며 세계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지금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미국을 휩쓸고있다. 미국에서의 경제위기는 생산의 침체와 급격한 감퇴, 통화팽창과 실업의 증대로 하여 파국적인 상태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신흥세력나라들, 블럭불가담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과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반대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에 따라 더욱더 심각해지고있다.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미국에서의 경제위기는 미국사회의 계급적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정치적불안정을 가져오고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안팎으로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간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는데서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말살하고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며 이 지역에서 이미 잃어버린 저들의 옛지위를 다시 차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 것이다.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은 놈들의 힘이 강대한것이 아니라 그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는것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진보적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말살하고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나 이로부터 놈들이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차례질것은 오직 더 큰 참패뿐이다.

우리 시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

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그 누구도 남에게 읽매여살아가는것을 원치 않고있으며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책동으로서 파멸을 면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침략책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더욱 세찬 항의에 부딪칠것이며 저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저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법이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아직도 많은 죄악을 저지를수 있다.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고 자주적발전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없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에 대하여 옳바른 립장을 가지고 견결하게 투쟁하는것이다.

미제는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며 지배하려고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이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청산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도 약화될수도 없다. 제국주의에 있어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이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똑바로 보고 놈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배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쟁탈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31페지)

단결과 협조는 신흥세력나라들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무기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과 협조는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을 반대하는 분렬리간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놈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의 민족적멸시와 천대,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고 오늘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Digitized by Google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러므로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신흥세력나라들은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야하며 공동투쟁으로 미제에게 압력을 가하고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곳에서 놈들의 팔다리를 뜯어내며 나중에는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신흥세력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경제적예속과 략탈 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는 담보로 된다.

신흥세력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협조할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미제를
들의 그 어떠한 침략
저히 짓부시고 나라
지켜나갈수 있으며
압박이 없는 자주적
사회, 새 세계를 성
갈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민족적
을 이룩하기 위하여
있는 신흥세력나라들
인민들의 성스러운
원하는것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고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나라 인민
미제의 침략책동을
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손에 튼튼히 틀어쥐
사회 건설을 위하여
는 신흥세력나라 인
을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적독립과 자주
려는 미제의 악랄한
할수 없으며 놈들은
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1호(루계 477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2년 1월 3일 발 행 • 1982년 1월 5일

ㄱ—15205 주소 •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는 사회제도와 정견, 신
결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로 미제에게 압력을 가
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단의 팔다리를 뜯어내며
잘라버려야 한다.

...은 정치적으로 굳게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
다.

...이 경제기술적협조를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
과 략탈 책동을 짓부셔
로 된다.

...은 경제적으로 협조할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풍부한 자연부원을
로 교류할수 있는 좋
가지고있다.

...이 단결과 협조를 강
의존하지 않고도 자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
을 이룩할수 있다.

...,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들의 그 어떠한 침략과 간섭 책동도
저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
지켜나갈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착취
압박이 없는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사회,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
갈수 있을것이다.

우리 당은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
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는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
원하는것을 자기의 대외정책의 일관
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신흥세력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으로써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주, 독립,
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위
을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으
려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은 파탄을
할수 없으며 놈들은 종국적으로 멸망
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1호(루계 477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2년 1월 3일 발 행·1982년 1월 5일
ㄱ—1520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APR 26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2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제 2 호(47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영광스러운 투쟁과 전진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 백전백승의 위력과 전투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오랜 력사와 위대한 승리로 찬란히 수놓아온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지금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와 혁명발전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세련된 지도와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신심, 투지기백이 차넘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영예가 빛난 때는 일찌기 없었다.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융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인민은 오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고있다.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만이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는 참다운 향도자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 바쳐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혁명과 건설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당이 있고 당에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 있음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1)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위대한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된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인민이 이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공산주의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Digitized by Googl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위대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이며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존엄은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과 위력이 수령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인민들은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곧바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66~67페지)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조직령도하는 최고령도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집대성되며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할수 있으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조직하며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을 결속하여 당을 창건하고 당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모든 투쟁을 조직령도한다.

따라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은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것이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당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유력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력사는 백전백승의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과 현명한 령도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우리 나라에서 강유력한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투쟁의 앞길에는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그 모든 난관을 진두에서 타개하시여 백전백승의 당을 세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정확한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으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종파주의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시면서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우리 주체형의 당의 창건은 혁명의 전위부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숭고한 사명을 지닌 위대한 향도적력량의 탄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이 제기하는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령도해나가시는 행정에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게 된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이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하여온 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Digitized by Google

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이 당사업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에는 당건설원칙으로부터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방도와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와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것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근본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밝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의 기치로 되게 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옳게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투쟁의 무기이다. 특히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새 제도를 세우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창건첫날부터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옳게 수행하는데서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러한 혁명적령도는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한 결정적요인이였으며 우리 당으로 하여금 주체의 혁명위업을 튼튼히 보위하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자라나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로정에 아로새겨져있는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에 우리 당의 영예가 빛나고 자랑찬 승리의 력사가 있다.

참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로동당이 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이 모든 로선과 방침을 세우는데서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는데서 드팀없는 원칙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기 위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이 사

Digitized by Google

업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렸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여기며 그것을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조로 삼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업하고 생활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에 차넘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자라났고 전당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대오로 다져진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린 우리 당의 위대한 공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당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당의 활동에서 근본핵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이 있으며 백전백승하는 위력의 원천이 있다.

(2)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당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영예, 우리 당의 위대성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다. 이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며 승리적으로 전진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은 그 당의 성격과 위력을 규정하는 근본징표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04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기치이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져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주체형의 당이다.

우리 당의 높은 영예와 존엄, 그 불패성과 위력은 바로 우리 당이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과 당사업, 당활동의 초석을 이루는 근본사

상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인민대중의 참다운 향도자로서의 우리 당의 위대성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는 것을 시대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삼고 오랜 기간에 걸쳐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에서 억세게 투쟁하여왔다.

조선혁명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주체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한 결과 우리 인민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자력갱생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실패와 우여곡절도 없이 끊임없는 앙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우리 당은 지금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반세기에 걸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의 총화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한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총적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이 위대한 방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튼튼히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그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운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며 전투적강령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강령을 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더 힘차게 전진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의 시기였던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지금 끝없이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이 땅우에는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과 민족적륭성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당의 력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불멸의 위훈으로 아로새겨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오랜 력사에서 오늘처럼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가 높아진 때는 없었다.

우리 조선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주체사상의 조국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일수 있게 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력사적공적이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행정에 이룩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주체의 기치따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앞장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전위부대로서의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영예

Digitized by Google

는 바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여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당의 높은 영예와 긍지가 있는것이다.

(3)

조선로동당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위대한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은 우리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제2권, 660페지)

통일과 단결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근로대중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수 있다.

당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당은 하나의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만 혁명의 앞길을 과감히 헤쳐나가는 강유력한 전위부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실현하고 그것을 고수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참다운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완강하고도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이 과정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의지적단합이 실현되였으며 자기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이룩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순탄한 환경속에서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결실들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간고한 항일의 불길속에서 그 뿌리가 내리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며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튼튼히 고수되고 반석같이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문제로 보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하였으며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 부르죠아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조직진행함으로써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특히 당 제5차대회로부터 당 제6차대회에 이르는 1970년대의 지난 10년간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높은 단계에서 더욱 튼튼히 다진 새로운 력사적시기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기초를 더욱 반석

Digitized by Google

같이 다지고 전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 대렬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당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대중속에서 활기있게 움직이고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 모든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다. 인민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당과 잇닿아있으며 당조직의 활동에서 당의 숨결을 느끼고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전당과 온 사회에는 자기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려는 강철같은 의지가 차넘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이다.

당대렬과 혁명대오가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며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4)

우리 당은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위대한 령도력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헤쳐온 준엄한 투쟁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3페지)

당의 위대성과 위력은 난관을 뚫고나가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형성되고 높이 발휘되게 된다.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을 이겨낸 당만이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그 간고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험난한 투쟁행로였으며 그 한걸음한걸음이 피어린 투쟁으로 이어져있다.

우리 당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가장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과정에 백전백승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능숙하고 령활하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으며 그것은 치렬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속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속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려운 과업들을 다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

Digitized by Google

가는 높은 령도력을 지닌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여온 길은 모든것을 새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초행길이였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앞에 나선 모든 과업들은 기존공식과 명제, 이미 이룩한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풀어나갈수 없는 복잡한 과업이였으며 그것은 오직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만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이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도 모두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아무리 부족한것이 많고 어려워도 인민들을 자주와 자립의 길로 확고히 이끌었으며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강의한 혁명적 원칙성과 전개력으로 풀어나가는 강철의 의지를 지닌 혁명적당으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 탁월한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싸워나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혁명과업들을 수행하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새생활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었으며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주동적으로 밀어제끼고 혁명과 건설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차게 벌어져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혁신자들과 영웅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집단적위훈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생활은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모든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이야말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가장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적중한 구호를 제시하여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내미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혁명은 원래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요구한다.

준엄한 투쟁속에서 세련된 전투적위력을 지닌 우리 당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내세우는 투쟁목표는 보통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원대한 구상과 높은 요구를 담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과업들은 어느것이나 중도반단되거나 위대한 결실을 맺지 않는 것이란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의 완강한 실천력을 과시해주고있다.

끊임없는 높은 목표와 웅대한 전략을 펼치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례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경제와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력사적위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위력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그 어느 세대도 누려본적이 없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걸머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쌓은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시대의 앞장에서 생소한 길을 개척해온 우리 당은 남달리 어려운 시련을 수많이 겪었으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었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마자 인민정권과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예술,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다 링도하여왔다. 그리고 준엄한 현대전쟁도 해보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도 해보았다.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당건설과 국가건설, 근로단체건설, 경제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투쟁경험을 쌓았으며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대중령도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하고 령도예술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현대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는 간고하고 오랜 투쟁의 불길을 뚫고오는 행정에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모든것을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만능의 령도예술을 지니게 되였다. 우리 당이 지닌 세련된 령도예술은 전진도상에 겹쌓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력사무대에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력사가 흘러갔으나 조선로동당과 같이 그렇게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풍파를 헤쳐왔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풍부한 경험과 업적을 쌓은 강유력한 혁명적당을 알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동요할줄 모르며 그 어떤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으며 오직 승리와 전진만을 아는 가장 로숙한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승리의 한길로만 이끄는 가장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로숙하고 세련된 위대한 당으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이러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다.

(5)

우리 당은 혁명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이다.

인민들이 전도양양한 혁명적당을 가지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혁명의 미래를 개척하는데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혁명의 미래가 당의 전도에 달려있기때문이다. 공산주의운동의 오

Digitized by Google

해 력사는 당이 밝은 앞날을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할 때 인민들이 신심과 투지에 넘쳐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과 혁명의 전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을 어떻게 계승하며 완성해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끝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전부터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여왔다.

우리 당은 지금 이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조직령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과 실천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위업을 확고히 고수하며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의 혁명적당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3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사명은 수령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는 사업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 당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당의 기초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을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보고 이 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고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대렬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치사상적토대가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

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이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문제로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이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받고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 하여 오늘 주체의 혁명전통은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그것을 초석으로 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에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데 대한 당의 결심과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 전투적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가 튼튼히 이어지고있으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발휘되였던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룩하신 모든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오늘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며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은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길로 이끄는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따라서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그에 모든 힘을 돌리고있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인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여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찬란히 빛내여나가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항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더욱 반전 풍부화되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더 잘 구현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투쟁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전도가 더욱 양양해지고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보다 휘황한 전망이 펼쳐질수 있었다.

지난 1970년대는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관철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수행에서 실로 의의깊

은 사변들로 가득찬 력사적시기였다.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건설과 주체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1970년대 우리 당사업과 주체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았다. 당 제6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이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는것이 온 누리에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되며 전체 인민과 온 민족이 그처럼 열렬히 바라던 절실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으로 된다.

* *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 길에서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한 만년터전을 다져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먼고 험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며 혁명투쟁을 쉼임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해주신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반제자주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을뿐아니라 세계혁명과 로동계급의 국제적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팀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처럼 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여야 한다.

당의 향도따라 쉼임없이 전진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지진것은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가장 귀중한 진취물이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계속 튼튼히 다지는것을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적 전위부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주체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쉼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강령

김 중 린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으며 전례없는 앙양속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장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조국은 유구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이미 우리 인민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았으며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로 끝없이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1)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위대한 위업은 위대한 강령을 요구한다. 뚜렷한 투쟁목표와 명확한 투쟁방도가 없이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위대한 강령이 없이는 위대한 위업이 이룩될수 없는것이다.

로동계급과 피압박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선 첫날부터 올바른 투쟁강령을 가질것을 요구하여왔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시작되던 첫 시기 그들의 탁월한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된 《공산당선언》은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대중의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기치였다. 당시 로동계급과 그 전위당들은 이 강령을 지침으로 삼고 공산주의를 그려보면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벌려왔다.

장구하고도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멀리 앞으로 전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지난날 력사밖에서 버림받고 억눌리오던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으며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한 실천적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된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는 그에 맞게 공산주의강령을 새롭게 밝히는것을 절실한 력사적과제로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과 시대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전투적강령으로 제시

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중대하고도 절박한 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새롭게 제시된것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은 그 본성과 사명에 맞는 혁명적강령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밝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위대한 강령이며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폐지)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최종목적이다.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는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예속과 구속이 청산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학설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 그리고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사람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으로 사회를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강령이다.

자주성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근본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나 사회생활의 개별적측면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여야 한다.

인류력사는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 력사적인 투쟁행정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확대발전하고 그들의

Digitized by Google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끊임없이 높아진다.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러 근로인민대중은 마침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였다. 이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경제적, 물질문화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야 할 가장 높은 단계의 과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혁명이며 비할바없이 심각하고 철저한 혁명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완전히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인류의 리상사회건설을 현실화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위업입니다.》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 단행본, 5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거창한 변혁과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위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야 한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계승하며 완성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이 좌우된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하여나갈 때 수령의 위업,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위업은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바로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며 완전히 실현하기 위

한 혁명적강령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성격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설계도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전개되여온 주체사상화과정의 계속이며 그 완성을 위한 높은 단계의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개되여온 우리 혁명의 전과정은 다름아닌 주체사상화과정이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고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개되여온 주체사상화과정의 직접적인 계속이고 전면적인 심화발전이며 그 완성을 위한 높은 단계이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혁명적기치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여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길을 휘황하게 펼쳐준 우리 당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충실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여나가는 과정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의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계승하며 완성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하며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혁명적강령으로서 그것은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의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이 불멸의 강령에는 주체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토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는 충성으로 받들며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다 헤치고 주체의 한길만을 따라나가려는 우리 당의 철석같은 신념이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모시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하며 우리 사회를

Digitized by Google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며 우리 나라를 영원토록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으로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구현되여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는것이다.

(2)

위대한 강령은 탁월한 령도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혁명위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위대한 혁명이며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탁월한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을 옳게 규정하고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생소한 사업이며 력사의 초행길이다. 그것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를 확립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생명으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내세우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모두다 우리 식대로 하여 주체적인 경제, 주체적인 문화를 건설해나가고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 식대로 하는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은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과 투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내세우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명확한 전략전술과 투쟁방침이 있어야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과 투쟁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내놓는 전략전술과 투쟁방침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이며 투쟁방침들이다.

우리 당의 전략전술과 투쟁방침들은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고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히 한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린 또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것이며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철하게 밝히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사업을 당건설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당원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 당건설과 당활동이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참신하게 전개되고있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사회의 심장이며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추진력인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그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우리 당을 통하여 주체형의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온 사회에 더욱 힘있게 뿜어줄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치적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으로, 기본열쇠로 규정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고있는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방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규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Digitized by Google

앞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로 제기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화를 다그쳐나가도록 조직령도하고 있다.

인간개조, 사상개조는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넣어주는 동시에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개조과정의 합법칙성을 깊이 분석하고 사상전을 사상혁명의 위력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사상개조사업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려나가는 사상전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와 활동방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인간개조, 사상개조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의식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개조의 주체인 사람들의 사상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가져오게 한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든든히 다져지고있는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 끊임없이 올려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고있으며 특히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고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올바른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는것은 대중령도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우리 인민을 주체위업의 완성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투쟁구호들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조직동원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들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우리 당

Digitized by Google

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이 발기하고 이끌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직접 투쟁 목표와 과업으로 전면에 제기하고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판을 벌리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의 고유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단순한 경제실무적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보고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틀어쥐고 힘차게 밀고나갈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속도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제때에 일반화하여 온 나라에 속도전의 힘찬 진군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력사적인 총진군운동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이 장엄한 진군속에서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의 찬란한 빛발아래 인간개조사업과 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전변들과 조국의 위용을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주는 뚜렷한 상징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는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위대한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며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는것이다.

(3)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위대한 현실을 창조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대 전환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폐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자체를 주체형의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는 사회의 면모를 규정짓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공산주의적인간개조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오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으로, 확고한 사상의지로 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은 드팀없는 신념으로써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진변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오직 주체사상만이 지배하고 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사고와 실천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혁명할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되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 온 나라가 충성의 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은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언제나 여기에 큰 힘을 넣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로 끌어올린 여기에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하나가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도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주되는 과업으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인 진군속에서 우리의 경제와 문화는 더욱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되고 발전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매우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장성하였으며 그 자립성과 주체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창조와 건설의 보람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방대한 6개년계획이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되였고 오늘은 제2차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또한 우리 당이 지펴준 자동화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올라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기술혁명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오늘은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의 새로운 령마루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교육방침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는 참말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문학예술이 개화발전되여 우리 나라에는 인류문화사에 일찌기 없었던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문예사상과 그를 구현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이 활짝 꽃피여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련이어 일어남으로써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으며 주체의 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서 우리 인민의 생활은 언제나 혁명적랑만으로 충만되여있다.

우리 나라에 혁명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된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의 정력적인 령도가 가져다준 자랑찬 결실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에 이바지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이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쌓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는 사업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진 결과 우리 당의 전투력과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은 조선로동당이 참다운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온 빛나는 과정이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놓은 영광의 로정이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강염한 진군길에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력사적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Digitized by Google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도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우리 당을 조국통일의 향도성으로 우러르면서 민주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을 무한히 존경하고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펼쳐진 찬란한 현실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실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우리 당은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나갈수 있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에 넘치있으며 우리 당에 혁명의 미래도, 민족의 장래운명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을 높이 받들고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며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당의 손길아래 더없이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이 제시한 위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영광의 길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연 형 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으며 이 영광의 길우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들가운데서 귀중한 재부의 하나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것을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져놓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고수해나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정치적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심각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운동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여 혁명대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의 력사이다.

력사무대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실현할수 있는 올바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한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성격과 본질, 그것이 혁명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거대한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의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시대가 제기한 절박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하고도 준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로정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머리가 없이는 사람이 죽은 몸이나 같고 사람구실을 할수 없듯이 현명한 지도부, 당중앙위원회가 없이는 우리 당이 활동할수 없으며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하루도 살아갈수 없고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148페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하나의 조직적중심과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하며 정신도덕적바탕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조직적중심과 사상적기초, 정신도덕적바탕은 혁명대오의 참다운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강철같은 조직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직적 통일과 단결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기본요구이며 그것은 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집대성하고 대중을 진일적인 대오로 묶어세우는 조직적중심이 있을 때에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단결의 중심은 전대오를 하나의 력량으로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핵이다. 뇌수가 없는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중심이 없는 조직적단결이란 결코 있을수 없다. 단결의 중심이 없으면 대오가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굳게 결속될수 없는것이다. 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전적으로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대오의 조직적통일단결의 중심은 로동계급의 수령과 당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단결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여야 하며 혁명적 핵심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조직화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요인들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운다.

수령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의사와 리익의 최고체현자이며 유일한 대표자이다.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은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대표되고 실현된다.

수령은 또한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창건하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에 결속시키는 혁명대오의 조직자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이끄는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이 없이는 대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조직화될수 없고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향도적력량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참모부가 없는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적참모부인 당이 없이는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통일된 력량으로 결속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과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당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조직적중심으로 되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뭉치는것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또한 혁명대오의 철석같은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치는것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기본요구의 다른 하나이며 그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집대성하고있는 혁명의 지도사상이 있을 때에만 실현

Digitized by Google

될수 있다.

사람들의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다름아닌 사상의식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활동의 목적과 성격, 방향과 방도를 규정한다.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져야 하나의 대오로 뭉칠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단결은 바로 사상의지적단합에 있다. 사상이 다르면 투쟁과 활동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되며 따라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고 분렬을 피할수 없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인것만큼 그 사상적기초인 지도사상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혁명대오의 조직적단결은 사상의지적통일을 전제로 하며 또 그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의 총적목표와 방향, 그 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이 뚜렷이 밝혀져있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시대의 정신이 체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삼게 된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되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뭉치는것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근본요구로 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혁명대오의 도덕의리적통일단결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조직사상적통일과 도덕의리적단결이 결합되여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참다운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도덕의리적통일단결의 사상정신적바탕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당과 수령은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가로서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주는 은인이며 스승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당과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받들어나가는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게 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확고히 지켜나간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에는 수령과 인민대중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사상감정,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그 바탕에 놓이게 되며 이것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당은 이처럼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유일한 조직적중심으로 되고 그 사상적기초와 정신도덕적바탕을 마련하는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그것을 참으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게 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며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은 혁명적수령관의 원리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당이 노는 령도적역할에 관한 리론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대오

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감으로써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에 의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혁명적인 길이 명시되게 되였으며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전진하여온 반세기 이상의 오랜 력사는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공고발전시켜온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3페지)

돌이켜보면 지난날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렬되여있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그 요람기부터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신성한 조선공산주의운동에 끼친 기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적인 책동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시는 첫시기부터 종파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

조선혁명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 항일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마침내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종파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당이 창건되고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게 되자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당과 혁명대오를 분렬시켜 저들의 추악한 반혁명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끊임없이 책동하였다. 안팎의 정세가 어렵고 우리 당앞에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앞에 나선 절박한 력사적과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시기에 벌어진 반종파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시면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을 청산하고 그들의 사상여독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운동을 통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도록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다단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심각한 반종파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정치사상적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내외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당에 도전하여나섰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말끔히 청산하였으며 수정주의와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퍼뜨리면서 당을 반대하여나섰던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자기 발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가 완전히 청산된 기초우에서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로정에서 1970년대는 새로운 승리와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찬 영광의 시기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데 기본을 두고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그 어떤 규약상의무감에 의한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라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바탕을 둔 숭고한 도덕의리적인 결합으로 되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뭉치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우리 당은 또한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고수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확고한 립장을 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나 기회주의적경향도

용납하지 않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이 사업을 수령의 위업 계승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수호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도록 한데 있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이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가는 과정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그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승리해나가는 과정이며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여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수령이 이룩한 고귀한 업적의 하나인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수령이 이룩한 통일단결을 고수하지 못할 때에는 당이 변질되게 되며 수령의 위업은 중단되게 된다. 오직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여야 당을 불패의 힘을 지닌 수령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이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적원칙성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불패의것으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대오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뭉친 전일적인 조직체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결합된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온 사회가 굳게 단합된 도덕의리적인 유기체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정치사상적으로 가장 공고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으며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의 지적순결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뭉쳐진 충성의 결정체, 바로 이것이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참다운 모습이며 그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가고있는것이며 주체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자랑떨치고있는것이다.

자주의 기치밑에 첫걸음을 떼던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는 불과 몇십명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로 이루어졌던 충성의 혁명대오가 오늘 수천수백만의 대부대로 자라나 주체의 위업을 굿굿이 이어나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영광이고 끝없는 자랑이며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사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Digitized by Google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공고발전된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공산주의자들이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온 한세기이상의 혁명투쟁력사에서 류례없는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이 뭉친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맑고 깨끗한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통일단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전당이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철석같이 뭉쳐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여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4페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오늘 그 공고성과 생활력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수령과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다.

당과 수령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 인민의 신념과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여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되고있다.

당, 수령, 인민의 혼연일체, 이것은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당이 있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인민이 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대를 이어 옹호고수되고 계승되고있는 이러한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기에 우리 당이 위력하고 우리 조국이 강대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이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과 당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과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대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있는데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그 중심을 이루는 수령과 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수령과 당을 떠나서 결코 혁명대오의 공고한 통일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가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인민을 찬란한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기수이다.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왔으며 그 미래도 수령님께서 계시고 당이 있음으로 하여 휘황찬란한것이다.

조선혁명이 처음으로 개척되던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우러르

Digitized by Google

며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충성의 대오로 뭉쳤던것처럼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를 이루고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대오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얼마나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 사상적기초가 어떠한가 하는데 의해서도 규정된다. 시대와 혁명을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불패의 위력을 가질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며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에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이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여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근본방도가 집대성되여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사상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밖에는 없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나가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이 고귀한 진리를 신념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항일의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그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였던것처럼 오늘도 이 위대한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며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참으로 우리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숨쉬고 행동하는 사상의지의 전일체로 되게 한 기본요인이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숭고한 혁명적의리,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에 그 뿌리를 두고있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는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생활력을 담보하는 정신적원천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이러한 숭고한 사상감정을 정신적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에만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치않는 고상하고 순결한 통일단결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는 반만년의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그날부터 우리 인민의 심장속 깊이에 뿌리내리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굴함없이 싸워온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억세게 다져진 가장 고귀한 사상감정이며 혁명적량심이다.

우리 인민의 이 고결한 사상감정과 혁명적량심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

Digitized by Google

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신들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수 있는 혁명의 품은 오직 당의 품이며 우리 당만이 인민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 조국의 륭성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향도성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절대적신뢰는 당과 함께 시련의 길을 헤치며 고락을 같이해왔으며 당이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의지로 되고 신념으로 된것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뿌리내린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과 인민을 그 무엇으로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되게 한 근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이러한 신념화된 절대적충성심과 혁명적의리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깨뜨릴래야 깨뜨릴수 없고 허물래야 허물수 없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것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는것은 그것이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되고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다져진 통일단결이라는것과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그 불패성과 위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가장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통일과 단결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포악한 제국주의자들과의 판가리싸움속에서 무장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이였고 혁명대오를 안으로부터 파괴하려는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으로부터 대오의 사상의지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전체 인민을 한덩어리로 묶어세워야 하는 가장 복잡한 투쟁이였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삼엄한 지하혁명투쟁과 간고한 무장투쟁의 혈전속에서 튼튼한 뿌리가 내려지고 치렬한 계급투쟁과 현대전쟁의 불길속에서 강철로 다져졌으며 보람찬 창조와 건설의 쉬임없는 전진속에서 불패의것으로 공고발전된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의 사상의지로 뭉쳐지고 당과 수령에 대한 일화같은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로 결합되였으며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다시진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류례없이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변혁과정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그처럼 간고한 시련과 준엄한 난관이 겹쌓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 혁명을 굳건히 고수하고 힘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을 성과

Digitized by Google

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과 창조의 력사를 수놓아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불패의 생활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들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적사업이다. 심각한 계급투쟁과 사회적변혁을 동반하는 이 어렵고 복잡한 사업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는 날마다 달라지고있다. 전인민적인 공산주의적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여나가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불패의 위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억세게 다져진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된 힘은 우리 당과 혁명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4)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혁명의 길우에 있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의연히 멀고 간고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대오를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견결히 수호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중요한 구호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중심인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은 수령과 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과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던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시대의 발전,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사회도 인간도 자연도 모든것이 변하였으며 세대도 교체되고있다.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통일단결의 중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확고한 중심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신념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려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철옹성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폐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인민대중이 이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 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 당은 력사와 인류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 길이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최고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사상적기초를 계속 튼튼히 쌓아야 한다.

우리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계속 튼튼히 다지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인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참말로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도덕의리적인 단합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형성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낸 일이 없다는 혁명적신념으로 공고화된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당과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신념화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실성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상투쟁이 없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그 어떤 절대적담보란 결코 있을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제때에 철저히 극복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점차 자라나 당과 혁명에 엄중한 해독을 끼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사소한 현상이나 표현과도 제때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피로써 쟁취한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숭고한 의무는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되고 옹호고수되여왔는가를 잘 알아야 하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견결히 수호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수령을 맞이한 첫순간부터 높이 들었던 위대한 통일단결의 기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단결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필승불패이며 이 위대한 통일단결을 가진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

리 찬 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우리 당은 세련된 령도로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면의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이 땅우에 민족적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은 우리 당의 위대한 업적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우리 당이 주체위업수행에 쌓아올린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일사상교양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고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유일사상교양을 심화할데 대한 방침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이 발양되고있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1)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상사업은 로동계급의 당의 기본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사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하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사업을 벌리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그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당의 성격과 사명,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투쟁과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에 따라 각이하게 설정되며 혁명이 심화되는데 따라 그것은 끊임없이 개선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상사업에서 당의 전략적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가자면 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시종일관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혁명발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옳바른 목표를 가지고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으며 사상사업

Digitized by Google

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다. 그리하여 사상사업이 당의 전략적과업을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사상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공산주의적인간을 육성하는데서 선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6~117페지)

유일사상교양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전당과 온 사회에 꽉 들어차게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다.

유일사상교양은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건설의 본성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5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는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당에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며 당대렬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여있는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이 있으며 수령이 창건한 혁명적당으로서 영생하는 참된 길이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을뿐이며 그와 다른 사상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와 같이 뭉쳐진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이룩되지 못하고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없으며 사분오렬되여 나중에는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 유일사상교양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된다.

유일사상교양은 당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워줌으로써 당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으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기본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참된 붉은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4페지)

사상사업의 기본사명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이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자질 형성의 합법칙성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벌려야 한다. 사람들이 공산주의혁명가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자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그것은 혁명적세계관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사람들의 다른 모든 정신도덕적품성과 자질을 규제하고 그것이 높이 발현되게 하는 기본핵으로, 바탕으로 되기때문이다.

유일사상교양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세계관과 기본품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게 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유일사상교양은 우선 사람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가장 옳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그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며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준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옳바른 혁명적 관점과 립장을 가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유일사상교양은 사람들에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주어 그들이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한다.

유일사상교양은 사람들이 주체의 세계관을 가지게 할뿐아니라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서 가져야 할 혁명가적품성

Digitized by Google

을 지니게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 풍모를 규제하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여야만 공산주의혁명가는 수령이 안겨주고 당이 빛내여주는 정치적생명을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게 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뜨겁게 간직할 때에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견결한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과 인민적품성을 소유할수 있다.

유일사상교양은 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워줌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풍모와 자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체현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켜나가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근본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밝힌 독창적인 방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하나의 사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온 사회에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시켜야 한다.

유일사상교양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이 본질적요구, 주체의 요구대로 인간개조와 사회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우리 당의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킨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동시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방침은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수행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높이 발양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몸바쳐투쟁하려는 그들의 혁명적 자각과 열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우리 당을 주체의 전통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당안에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

Digitized by Google

든 분야에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요구를 더 잘 구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성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게 되였다.

유일사상교양을 심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에 의하여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과 그 형성의 합법칙성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고 그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상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대로만 일하며 생활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고 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이 발양됨에 따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밝힌 유일사상교양을 심화할데 대한 방침에 의하여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이 밝힌 유일사상교양을 심화할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준 또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사상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고 전당과 온 사회가 충성의 대오로 자라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사업, 유일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온 결과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1970년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빛나는 년대이다.

이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은 당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사상사업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특히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새롭게 밝혀주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 유일사상교양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전진하고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당사업,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며 대를 이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전당과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원칙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당과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이 혁명적원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혁명적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확고한 목표와 방향,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벌려나가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혁명적원칙을 밝힌것은 당의 기본로선과 총적과업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한 커다란 업적으로 된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는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당사상사업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교양, 유일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고있으며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기동성있게 진행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7～108페지)

사상사업의 성격은 사상교양의 내용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며 인간개조의 질적수준은 사상교양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상교양의 내용을 옳게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를 끊임없이 심화시키왔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전투적구호로 전면에 내세운 1970년대에 와서는 유일사상교양의 내용을 그에 맞게 새롭게 규정하고 그 구현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의 내용이 뚜렷이 밝혀지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밝혀준 유일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본질과 내용, 그 위대성과 창조성,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오직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양육성하는 가장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유일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되는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때만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키워 그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게 할수 있다.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커다란 힘을 넣은것은 주체사상교

Digitized by Google

양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것이였다. 우리 당이 주체사상의 원리교양을 심화시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원문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 결과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의 영양소를 끊임없이 붐어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키기 위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수 있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정연한 교양체계를 세우고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도록 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의도가 우로부터 아래까지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유일사상교양에서 우리 당이 특별한 관심을 돌린것은 충실성교양에 모를 박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 일관되여 있는 근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이 전당과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혁명적인 방침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충실성교양을 심화시켜나갔다.

충실성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고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자기의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원리교양, 덕성교양, 충실성의 산 모범을 통한 교양과 옳게 결합시키고 모든 교양사업이 충실성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당사상사업의 전과정이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고 거기에 철저히 복종되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에 의하여 유일사상교양의 내용이 옳게 규정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며 사상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밝힌 유일사상교양의 내용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사상사업의 근본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담고있으며 그것은 당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한 우리 당의 크나큰 공적이 있는것이다.

사상사업의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사상교양의 강력한 거점과 수단들을 마련하는것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였다.

사상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규정된 다음 그 성과여부는 사상사업을 어떻게 진개하고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아무리 사상사업의 방향이 옳게 서고 내용이 훌륭히 세워졌다고 하여도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그대로 미칠수 있게 하는 사상사업체계가 바

로서지 못하고 교양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수단과 거점들이 튼튼히 꾸려지지 못한다면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높일수 없으며 인간개조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사업에서 선전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교양 수단과 거점들을 꾸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매 시기 제시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교양망과 강연망을 조직하고 누구나 다 거기에 망라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방침,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이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까지 지체없이 정확히 침투되여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숨쉬고 움직이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곳에서는 언제나 유일사상교양이 줄기차게 진행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의 사명과 내용에 맞게 유일사상교양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한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튼튼히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력사의 땅 보천보와 삼지연 일대를 포괄하는 백두산지구의 대로천박물관 그리고 조국의 북단인 왕재산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 가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훌륭히 꾸려져 온 나라가 말그대로 하나의 유일사상교양의 전당으로 전변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유일사상교양은 이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에 의거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게 되였으며 높은 실효성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 산 교양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거점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당정책에 대한 학습과 연구토론회, 강연과 강습, 회상기, 덕성실기 발표모임과 실효투쟁모임 등 유일사상교양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력력히 수놓아져있고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높은 은덕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견학을 통하여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발기하고 그를 현명하게 이끌어 온 사회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뜨겁게 끓어번지게 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 유일사상교양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Digitized by Google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당의 구령에 따라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이런 위대한 당, 이런 위대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59 페지)

우리 당이 유일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새기고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크나큰 영예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유일사상교양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도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더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을 위하여 충직하게 일해온 숨은 영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전당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켜온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자기의 실지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으로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당이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대중이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이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에서 모든 충성을 다해나갈 확고한 결의로 가득차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유일사상교양이 심화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꾸준히 일하고있으며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시대의 인민답게 혁명적으로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언제나 희망과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해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주체시대를 자랑하는 거창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웅장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언제나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불굴의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유일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은 유일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의 진군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록 크지 않은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건화하고 제때에 타협없는 견결한 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사상교양사업에서 요구성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낡은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일사상교양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원래 사상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인것만큼 형식주의는 사상사업에서 최대의 금물이며 형식주의보다 사상사업에서 더 해로운것은 없다.

그러므로 유일사상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를 이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며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고리

문 성 술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불면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지난 1970년대는 우리 당 사업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자랑찬 력사적시기였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정력적이며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당안에 정연한 당생활지도체계가 서고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화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사업이 더욱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1)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당사업은 당원대중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며 당사업의 성과는 그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당원대중과의 사업은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당사업은 결국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옳게 보장할때만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은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의 전투력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마비되고 당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5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방침은 혁명적당생활의 본질과 당건설의 원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탁월한 방침이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원들의 당규약상의무를 수행

하는 혁명활동이다.

당원들이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사업, 당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당원들이 비록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당대렬에 들어온 계급의 선진분자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어느 한 당조직에 소속되여 규약상요구에 맞게 당조직사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모든 유기체가 세포들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같이 당도 그를 구성하고있는 매개 당원들의 당생활이 강화되여야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당조직들의 지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강화될수 있으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고리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당대렬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대렬을 공고히 하는것은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대렬의 질적공고화는 중요하게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진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철저히 준비될 때만이 당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조직된 선봉부대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당과 운명을 같이할것을 맹세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선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성은 고유한 본질적특성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성을 떠나서 권위있고 존엄있는 조선로동당의 당원된 높은 칭호와 영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원들의 당성은 혁명적인 당생활을 통해서만 단련되게 된다.

당조직생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당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원은 당조직의 체계적인 지도와 정상적인 교양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되며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징표인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게 된다.

당원은 당조직생활과정에 자기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도 하게 되며 이 과정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며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게 된다.

당조직생활이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사상단련의 용광로로 되게 하자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잘하여야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 당 대렬을 불패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릴수 있다.

이와 같이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움으로써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부대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또한 당

Digitized by Google

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10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이색적인 사상요소나 기회주의적경향이 생기는 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참다운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있고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해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원들은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밑에 조직사상생활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당의 지도사상이며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된다.

당생활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속하여 하나의 규률과 조직원칙에 따라 생활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이 당안에 철저히 서게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과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제때에 물리치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당생활지도를 잘하여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적원칙에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당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이와 같이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철저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또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 당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만 우리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이 제대로 보장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제2판, 512페지)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당을 구성하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옳게 수행할 때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원들은 우리 혁명의 가장 믿음직한 핵심력량이며 선봉투사들이다. 우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사업의 담당자, 주인들은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은 그들이 혁명적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끊임없이 받는 과정을 통하여 높아지게 된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로 하여금 당원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신성한 의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그들이 당규약상요구대로 생활하고 당적분공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대중속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잘해나갈 때 그들이 모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대중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선봉투사가 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의 기본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전반적당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2)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생활지도의 근본원칙으로,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이에 기초하여 당생활을 지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는것만큼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수령이 창건한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반드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만일 당이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킨다면 당을 혁명의 전위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갈수 없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데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그들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생활지도의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왔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뚜렷한 방향과 방

Digitized by Google

도를 가지고 당생활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옳게 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은 당생활지도의 전과정을 철두철미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으로 일관되게 하고 당원들의 당생활이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되도록 하는데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생활지도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모든 당조직들이 주체형의 당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당사업, 당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며 혁명적당건설의 기본로선을 가장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으로 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 태도를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건전하게 잘 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지 않고서는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없으며 당원의 혁명적본분을 다할수 없다.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져야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당생활지도에서 원칙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진심으로 속을 주며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는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고 당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혁명의 한길을 따라 영원히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참으로 당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당원들이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 새로운 당생활체계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7페지)

당생활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실속있게 지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정연한 당생활체계를 세워야 당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당생활지도에 집중시킬수 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우리 당이 바라는대로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당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전당에 튼튼히 세워놓았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세운 새로운 당생활체계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하는것은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며 언제나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당생활지도방법이다.

당원은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

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과 당원대중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 밑에서 사상수양과 조직적단련을 쌓아나가야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정치사상적풍모를 훌륭히 갖출수 있다.

우리 당은 개별학습과 집체학습, 강연회 등 정규화생활체계를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여기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벌어진 결과 그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이 내놓은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할데 대한 방침은 당원들이 당안에 세워진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조직사상생활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당생활총화제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마련하여주었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당생활총화제도이다.

혁명적인 당생활총화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고 그들의 당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과 부족점을 묵여두지 않고 제때에 고치며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여 당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생활지도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당이 지닌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 당의 투쟁목적과 사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실현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당사업과 당활동은 철두철미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당원들의 당생활이 맡겨진 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당성을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순수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원들의 당생활이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우리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제기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키고있으

Digitized by Google

며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진행하고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정규화생활일면만 강조하고 혁명과업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혁명과업수행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당조직사상생활을 게을리하는 두가지 편향을 다같이 극복하고 당생활을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서 우리 당이 커다란 관심을 돌린것은 당위원회들의 조직부의 역할을 높이면서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배합작전을 강화하도록 한것이다.

전반적인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조직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와의 련계가 밀접해짐으로써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에 대한 지도가 실속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모든 당조직들은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혁명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현명한 조치들과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들은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혁명적당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에 의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당생활지도문제가 전면적으로 해명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3)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의 당생활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섰으며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7페지)

우리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튼튼히 서고 그들의 당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생활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크나큰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그들의 확고한 생활기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고있으며 언제나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들은 누구의 강요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가며 순간을 살아도 조직속에서 살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이다.

로당원들로부터 우리 당 대오에 갓 들어온 젊은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원들이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당원들의 당조직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이며 당생활기풍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오늘 우리 당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된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Digitized by Google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원칙적 요구대로 당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있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고있다.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것을 당생활의 첫공정으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과 생활을 진행하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오직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게 된것은 당조직생활을 옳게 지도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준다.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환은 또한 그들속에 강한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세워진것이다.

우리 당의 규률은 자각적인 규률이며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규률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당안에 세워진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지키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되게 되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전체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고있는것은 오늘 우리 당의 자랑찬 모습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의 하나이다.

우리 당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관철하는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오늘 모든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지시를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관철하고있다.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당과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이며 고상한 품성이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자기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똑똑히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앞장에 서서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원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고 진격의 나팔수가 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생활지도가 개선되고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난 결과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가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새로운 높이에서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970년대는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자랑찬 시기로 빛나고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끊임없이 심화함으로써 우리 당 대렬을 주체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이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도록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여야 당원들이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부단히 단련할수 있으며 당원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끝까지 빛내여나가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에 적극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여 누구나 다 거기에 담겨져있는 당원의 의무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생활규범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정규화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세워준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요구에 맞게 당생활총화수준을 높임으로써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본신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우며 당이 준 임무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거점이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야 당원들에 대한 혁명적인 교양과 조직적인 단련을 강화할수 있고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육성할수 있다.

당세포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참된 길이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받들고 그것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전투적위력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전환

서 윤 석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조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을 우러러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향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당은 정력적이며 세련된 령도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풍부화하여왔으며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온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확히 밝히고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함으로써 사업방법에서도 명실공히 주체형의 당의 성격을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에 관한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어떤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며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완성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에 관한 리론을 구체화하고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고있는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형의 당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1)

당사업방법에 관한 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건설, 당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적인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인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가질뿐아니라 옳은 령도방법, 당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히 세워진 다음 그것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달려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옳은 당사업방법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대중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없으며 광범한 인

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거창한 혁명위업은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수행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스스로 자연과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사업방법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확한 투쟁 강령과 목표를 가지도 옳은 령도방법, 당사업방법을 세우지 못한다면 혁명투쟁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고 당이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전진함에 따라 혁명적 개조와 변혁이 심각해지며 대중운동,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대중의 범위도 보다 확대되고 그들의 의식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야 대중에 대한 령도를 현실적요구에 맞게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하나의 목표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당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여 대중지도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 발전에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건설, 당활동을 철저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이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성격과 사명을 끝까지 고수하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모든 당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워 당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원형으로 하여 그것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주체형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다. 그래야 또한 전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일색화하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우리 당이 자기의 주체적 성격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대를 이어 수행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Digitized by Google

합게 주체의 사업방법을 구현함으로써만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전통적인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그래야 또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참으로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로 되며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2)

우리 당은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문제를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빛나게 해결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전기간은 몸소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의 력사를 창조하여오신 영광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혁명투쟁에서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고 대중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주체적인 혁명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바로 여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에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의 모든 요구들과 그 구현방도들이 밝혀져있으며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한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혁명적사업방법의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진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창건된 첫날부터 인민대중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우리 당의 사업방법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9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

방법을 구체화하고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당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당사업방법에서는 실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구현됨에 따라 오래동안 우리 당 사업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던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고조가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 주체의 당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1970년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제5차대회로부터 제6차대회에 이르는 기간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를 취하였다.

당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혁명적조치는 한마디로 말하여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던 재래식사업방법을 뿌리빼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당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에서는 재래식사업방법이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당사업발전을 저애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낡은 관료배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페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업이 전면에 나선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방법에서도 주체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안에 기여들었던 반당종파분자들이 퍼뜨려놓은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은 오랜 근원을 가지고있었으며 그것은 당사업에서 의연히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이 력사적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당이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우리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였다.

우리 당은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확고한 결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5페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은 틀과 재래식사

Digitized by Google

업방법을 철저히 마스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며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심속있게 관철하여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뿐아니라 방법까지도 몽땅 받아안은 완전무결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안에 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도록 하였다.

전당에 주체의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당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형식이며 질서이다. 당사업방법은 당사업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을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제기하고 새로운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가 한결같이 움직이는것은 우리 당 사업체계에서 기본을 이룬다.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활적문제이다.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립하는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서는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웠으며 전당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튼튼히 확립하여놓았다.

우리 당은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란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체계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업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이다.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인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각성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부대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 당사업 전반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사람과의 사업체

Digitized by Google

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왔다. 특히 하부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운것은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

우리 당이 세워준 하부지도체계는 각급 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장악한데 기초하여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는 체계이다. 이 사업체계는 웃단위로부터 아래단위로 내려가면서 사람과의 사업대상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며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교양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체계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혁명적인 체계에 따라 모든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내려가 일정한 기간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하부지도를 실속있게 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밖에도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 전반을 장악하는 조건에서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한 방침, 당안의 부서들 사이, 파들 사이에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고 그것이 당사업과 당활동에 성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이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의 당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서 전환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안에는 정연한 조직지도사업체계와 함께 선전선동사업체계가 세워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교양, 강연 체계에 망라되여 자신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끊임없이 준비해나가고 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전당에 주체의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사업을 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준것이다.

아래에 내려가 군중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것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의사를 들을수 없고 실정도 알수 없으며 사업을 옳게 추진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울수 없다.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알려주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발양하여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군들속에서 항일유격대지휘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일깨워주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업방법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으로 된다.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당사업은 명령이나 지시만으로써는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그 추동력인 대중의 높은 정치적각성과 창조적지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일군들이 정치사업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법으로 일한다

Digitized by Google

면 대중의 심장을 움직일수 없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할수 없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대상의 수준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실속있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당일군이나 행정일군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광범한 대중속에 더 빨리, 더 잘 침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기대와 발머리, 배전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우리 당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취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

당사업은 다양한 대상과의 창조적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능력, 성격과 취미가 서로 각이하며 혁명초소도 다르다. 또한 그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사업 조건과 환경도 다르다. 그런것만큼 당사업을 하나의 틀에 얽매여놓을수 없으며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낡은 틀에 매달리지 말며 언제나 일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통이 크게 벌리고 전투적으로 밀고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도록 한것은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나아가는 혁명의 앞길에는 언제나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게 된다. 따라서 시대의 앞장에서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일에서나 대담하게 생각하고 일판을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언제나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인민대중이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으며 기백있게 일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오물쪼물 앞뒤를 재면서 수공업적으로 일판을 벌리게 되면 대중은 용기와 신심을 잃고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수공업적으로 소소하게 일판을 벌릴것이 아니라 언제나 잡도리를 크게 하고 설계하며 전격전, 섬멸전을 들이대여 일을 진공적으로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혁명적열정과 사업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내걸도록 하였으며 일단 작전한 문제는 결단성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리하여 우리 당 일군들속에서는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판을 크게 벌려 언제나 패기있고 정열에 넘받쳐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일본새가 튼튼히 서게 되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한것은 우리 당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령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된다. 더우기 당사업은 그자체가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옳은 방법론을 세우지 않고서는 바로해나갈수 없다.

혁명실천에서 방법론을 세운다는것은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잘,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묘술을 찾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도일군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져야 사람들의 수준과 준비정도, 사업조건과

Digitized by Google

환경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능숙하게 조직지휘해나갈수 있다.

아무리 주관적욕망이 높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옳은 방법론과 묘술이 없이 일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우리 당은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을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원칙으로 규정하고 당일군들이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줄 때에는 혁명임무와 함께 반드시 방법론도 같이 주는것을 비롯하여 당사업방법론을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매개 사업 조건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내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나가는 묘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특히 우리 당은 일군들이 주선을 틀어쥐면서도 전반사업을 놓치지 말며 언제나 원칙을 강하게 지키면서도 절대로 극단으로 나가지 말며 당면한 일을 끝장을 볼 때까지 해제끼면서도 전망적인 사업을 예견하며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놓치지 말고 투쟁하면서도 긍정적인 것을 제때에 찾아내여 일반화하는 등 사업방법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르쳐주었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전당에 주체의 당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혁명적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는것은 그 어떤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바로잡기 위한 심각한 투쟁과정이다.

낡고 뒤떨어진 사상에 의거하고있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쉽게 고쳐질수 없으며 그것은 한두번의 교양과 투쟁으로써 극복되는것도 아니다.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함께 심각한 사상투쟁을 거쳐서만 극복될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의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 사업태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그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철저히 극복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있으며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일군답게 모든 일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의 당건설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3)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의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면모이며 사업기풍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9페지)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이 확고히 세워지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

Digitized by Google

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비상히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강철같은 규률이 확립됨으로써 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전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합되게 되었다.

또한 당원들속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수립되게 되었다. 오늘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 당의 결정과 지시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정확히 관철하고있다.

전당에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질서가 확고히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 당안에는 모든 당조직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원칙에 따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며 모든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세워지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대렬은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결정체로, 주체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된것으로서 우리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이다.

사업방법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당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지고 모든 당조직들이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었고 그들속에서 활기있게 움직이고있다. 군중이 있는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 당조직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사회의 자랑찬 모습이다.

당사업방법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은 전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주체의 당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지배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당의 따사로운 손길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만이 자기들의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라는것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영원히 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충성다하려는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당은 희망의 등대이고 마음의 기둥이다.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행복할수도 없다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들의 심장깊이 자리잡은 혁명적 의지이며 신념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당의 향도따라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그처럼 뜨겁고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은 철통같이 강한것이다. 또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조선로동당이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권위있는 불패의 전위부대로, 당원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어머니당으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에서 일어난 근본적전환의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당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 당

Digitized by Google

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혁명로선을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다그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3페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이 계승발전시킨 혁명적령도리론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나가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귀감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사업방법을 바로세울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주체의 대중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승발전되고있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전당에 주체의 당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며 낡은 사업방법은 낡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은 곧 새로운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이며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정이다.

우리는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집권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해야 할것은 당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이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며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다.

인민의 충복인 우리 당 일군들에게 있어서 관료주의적인 사업방법은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인민대중속에서 나왔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야 할 우리 당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사업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

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다른 하나는 모든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사람들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 일군들의 머리가 비고 능력이 없으면 자연히 그릇된 방법과 작풍에 매달리게 된다.

비할바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과 높은 요구를 담고있는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체득하고 실천에 능숙하게 구현해나가자면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불타는 충성심에 실력이 안받침되고 높은 열성과 자질, 굳은 사상적각오와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다같이 겸비하여야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 일군들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이 낮으면 당의 요구와 빨리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학습을 많이 하여 당의 로선과 방침을 환히 꿰뚫고 자기 부문의 지식에 정통할뿐아니라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 경제사업을 원만히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더욱 개선하여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김 환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준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자립적민족경제는 더한층 튼튼히 다지졌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기를 열어놓았으며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서도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에 대하여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1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하여주는것은 바로 경제건설이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경제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지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생활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마련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없으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은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에로 현명하게 령도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당의 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8폐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정확히 해명되고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투쟁이 조직화되며 경제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기 위한 담보가 마련된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그것은 생소한 길을 개척하면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로선을 가져야 한다. 만일 경제건설에서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정책상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여러가지 편향을 범하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력사적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오직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밝혀주는것은 당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것도 다름아닌 당이다. 당에 의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확히 분석평가되고 경제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로선과 방침들이 제시되며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진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한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경제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에는 경제건설의 목적과 근본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총적목표뿐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들과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까지도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은 그 정당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광범한 대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령도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근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령도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우리 당의 령도는 또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Digitized by Google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현대적인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경제이며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이 서로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자연발생적이며 무계획적인 요소들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며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당의 옳바른 령도는 국가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보장하며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다.

우리 당은 국가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에 맞게 경제사업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세워졌다. 우리 당이 창조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경제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또한 전사회적규모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해나간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은 더 큰 은을 나타내게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가 마련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는 또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답게 일하여야만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1폐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경제건설과업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을수록 그들은 경제건설에서 온갖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치게 되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다.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더욱 의식화하고 조직화할수 있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광범한 생산자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세련된 령도자이다.

우리 당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적극 조직동원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며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제기된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아래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광범한 대중이 생산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이끌어나간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광범한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현명한 령도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올바른 령도를 받지 못할때에는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귀중한 진리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올수 있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킬수 있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것은 그 심도와 폭에 있어서 아직 력사가 알지 못하는 거창한 사업이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직접 제시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철저히 개조하여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앞당겨건설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경제건설분야에서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경제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빛나게 점령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불패의 힘

Digitized by Google

의 원천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2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의 전로정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로 빛나는 자랑찬 행로이며 위대한 승리로 수놓아진 위훈의 력사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고 모든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이끌어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당적지도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정확히 규정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다. 경험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밝힘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120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이다.

당이 경제건설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경제사업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이끌어주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힘있게 떠밀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경제기관들에 사업방향을 제때에 정확히 제시해주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이끌어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에 맞게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은 정치적지도기관이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에 사업방향을 제시해주고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곧 당이 경제사업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당경제정책을 원만히 관철할수 있으며 행정경제기관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만일 당조직들이 행정을 대행한다면 정치적지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갈수도 없다. 이렇게

Digitized by Google

되면 당일군들이 당내부사업도 잘할수 없으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옳게 할수 없다. 당조직들이 행정대행을 철저히 없애고 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여 행정경제일군들에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때 생산과 건설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극복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려운 경제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밝힌데 기초하여 모든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을 옳게 이끌어나가도록 조직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였다.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중요하게 각급 당위원회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경제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로 하여금 사업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분공을 정확히 조직하며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지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당위원회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과 유능한 기술자들, 핵심적인 로동자들로 튼튼히 꾸리고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당위원회들이 튼튼히 꾸려짐에 따라 당사업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 경제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었다.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가 보장되고 경제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경제정책을 훌륭히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때에 정확히 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데 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방침은 당사업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현명한 방침이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당사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있다. 당이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바로 경제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경제사업을 떠난 순수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당사업의 성과는 반드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에서 나타나야 하며 그러자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켜야 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킨다는것은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 당사업을 복종시키며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당사업을 경제사업과의 완전한 통일속에서 진행함으로써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당조직들로 하여금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고 해당 단위의 경

제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도록 옳바르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생활을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며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서로 떼여놓고 그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하나는 홀시하는 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사업이 경제사업과의 완전한 통일속에서 진행되게 되었으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건설에 관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온것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기술장비수준이 빨리 높아지는 새 환경에 맞게 경제건설에 관한 정확한 방침들을 제시하여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속도전에 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그대로 실증하여준다.

속도전은 우리 당이 제시한 방침으로서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보고 그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여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늦잡지 않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빨리 해제끼면서도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본질적특징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것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바로 여기에 속도전의 방침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속도와 질의 호상관계가 새롭게 해명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종전까지만 하여도 속도가 빠르면 질을 보장할수 없고 질을 보장하자면 속도를 높일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속도전은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적이며 소극적인 견해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립장에 서서 일해나갈 때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것을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고리로 규정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빨리 높이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에 관한 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일대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

Digitized by Google

로자들을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8페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선전과 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상사업이다.

당경제정책선전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경제정책의 진수와 내용, 그 수행방도와 과업을 원리적으로 깊이 파악시키는 사상사업형식이라면 경제선동은 군중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사업형식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경제정책선전과 함께 경제선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야 사회주의건설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경제정책선전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적극 이끌어주었으며 특히 경제선동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당이 [illegible]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들 [illegible] 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결 [illegible]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 [illegible]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illegible] 나갈수 있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방침,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방침, 작업반 일 생산 및 재정총화방침들은 모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현명한 방침들이다. 우리 당의 이 방침들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고 경영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진행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방침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계속 다그쳐나가는데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언제나 대담한 목표와 혁명적인 구호들을 제시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해나가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 방대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자면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투적인 구호들을 제때에 내놓아야 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정확한 투쟁 목표와 구호를 내놓지 않고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광범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더구나 소극적이며 수공업적인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경제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창조와 혁신의 안목으로 고찰하고 제때에 대담한 투쟁목표와 혁명적인 투쟁구호들을 제시

Digitized by Google

하였으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제기된 과업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왔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투쟁 목표와 구호들은 혁명의 근본리익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철저히 구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일단 결심하고 설정한 목표는 끝까지 달성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이러한 령도의 현명성을 잘 말해준다.

우리 당은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직접 발기하고 그 수행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함으로써 긴장한 고리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기적들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운동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3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훌륭히 완수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도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페지)

위대한 령도는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결실을 가져온다.

우리 당의 능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 성과들과 기적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당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고조가 일어났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은 인민경제를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시킨것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공업은 나라의 경제적규모가 날로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복잡하고 밀접해진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

Digitized by Google

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고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지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생산발전의 매우 높은 속도를 예견한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도 매해 넘쳐수행하고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던 1960년대에 매해 평균 12.8%의 속도로 장성하였던 우리의 공업은 1970년대에 와서는 해마다 15.9%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확고히 견지되있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을 2～3%만 늘여도 큰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알곡생산을 30%이상 장성시키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계속 늘여온 우리는 지난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엄중한 원료난, 연료난과 식량위기, 농업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높은 발전속도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며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들과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이 수많이 일떠선것이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인민경제는 최근년간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그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확장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였다.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세멘트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중요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공업의 생산능력은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또한 짧은 기간에 은률광산과 검덕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이 건설되여 채굴공업의 생산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한 결과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물질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는 존엄있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되였을뿐아니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아로새기며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인 락원거리가 일떠섰고 웅장화려한 창광거리도 1년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다. 오늘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만수대예술극장과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과 청류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은 바로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창조된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대건축물들을 그토록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운 이러한 성과들은 오직 크나큰 담력과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있는 우리 당만이 창조할수 있는것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중요한 업적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킨것이다.

우리 인민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높으신 뜻은 주체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에 의하여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온갖 근심걱정을 모르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고 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이 이룩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은 더욱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완성되고 농촌의 수도화, 뻐스화가 실현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도 훨씬 줄어들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굽임없는 전진이 이룩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온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고 향도자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마련된다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불패의 령도력과 위력을 지닌 영광스러운 당에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당면하게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Digitized by Google

문학예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

리 창 선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문학예술이 오늘처럼 아름답게 꽃피여나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치며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준 때는 일찌기 없었다.

문학예술분야에서의 이 위대한 전변은 문학예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왔다. 이 과정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계승하면서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의 위대한 승리와 주체예술의 대전성기, 실로 이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의 하나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1)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이 제시한 독창적인 방침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41페지)

혁명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당의 수중에 쥐여진 힘있는 교양수단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동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커진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찬란히 꽃피워왔다.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의 필연적요구와 그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나선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령역에서 지난날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온갖 낡은 유물들을 철저히 없애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Digitized by Google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이 건설하고 창조하는 문학예술이다. 로동계급과 그 당이 새로운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낡은 문학예술가운데서 가져올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비록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진 문학예술유산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을수는 없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본성과 리념에 맞게 문학예술을 혁명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학예술혁명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된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시대는 영광스러운 주체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이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문학예술은 선행시대의 문학예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학예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힘있게 반영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이며 현시대와 공산주의의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그것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적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이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혁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또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투적강령으로,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위대한 혁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놀아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문학예술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자면 문학예술혁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문학예술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의 력사적필연성과 함께 문학예술혁명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문학예술혁명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의 내용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사상적내용은 문학예술의 성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비록 예술적형식이 새롭다고 하더라도 사상적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문학예술작품은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아무 쓸모도 없다. 문학예술작품은 사상적내용이 좋아

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진정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향유하게 될 문학예술은 그 내용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에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사상적내용과 함께 예술적형식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고상한 내용과 세련된 형식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잘 결합된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킬수 있고 그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비록 내용이 새롭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미학적정서에 맞지 않는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은 시대에 뒤떨어진 온갖 낡은 형식을 철저히 극복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좋아하며 그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것은 바로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게 구현한 문학예술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과 함께 그 형식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문학예술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는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는것이다.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올바로 세우는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워야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문학예술창조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문학예술의 성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들과 그것들의 호상관계, 문학예술발전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본질과 주되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된것은 실로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문예 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여나갈수 있게 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떠나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개화발전과 그 혁명적역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예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방향과 과업,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제시하여준것으로서 우리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은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우리 문학

Digitized by Google

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만년초석이다.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당의 방침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혁명적 미준기를 따라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서 주체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히고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시작된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욱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또한 우리 시대, 주체시대 문학예술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학예술을 건설해나가는데서 불멸의 의의를 가진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고있다. 이것은 문학예술분야에서도 혁명적본보기를 창조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며 온갖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기회주의적인 문예조류들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높이 올릴수 있게 되였으며 공산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자랑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이 밝힌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우리의 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의 면모를 완전히 갖출수 있게 하여준 탁월한 문예강령이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혁신할수 있게 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2)

우리 당은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로 문학예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고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내세웠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페지)

문학예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고 문학예술사업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간것이다.

문학예술혁명은 주체의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례없이 거창한 사업이며 생소한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력사적위업이다.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을 조직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과 원칙들을 밝힘으로써 우리 식의 문학예술리론을 확립하였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에서 중추적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그 창작원리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옳게 건설하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그 혁명적본질과 창작원리들을 옳게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창작원리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세계

Digitized by Google

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서만 과학적해명을 볼수 있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이 주체의 인간학,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학이라는것을 밝히고 그 본질과 창작원리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여주었다.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인간학은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학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공산주의적인간학은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인간학이다. 공산주의적인간학에 의하여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형상하고 그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옳바로 천명할수 있는 길이 밝히졌다.

실로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적인간학에 대한 리론은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공산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과 요구, 그 형상방도를 완벽하게 해명해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적창작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자에 관한 리론이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작품의 종자란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기본핵인 종자가 발견된것은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재, 주제, 사상등의 미학범주들을 알고있었으나 이 모든것이 작품이라는 하나의 생명체에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하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종자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작품의 기본핵이 밝혀졌으며 현실속에서 종자를 똑똑히 쥐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밝힌 새 인간학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적인 영화예술리론, 《피바다》식혁명가극리론, 《성황당》식혁명연극리론을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매 종류와 형태들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수많은 독창적리론들과 속도전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에 관한 리론 등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사상, 리론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독창적인 문예 사상과 리론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문예사상, 문예리론이다. 그것은 주체의 문예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이며 문학예술혁명과정에서 창시되고 창작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적문예리론이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이 위대한 문예사상과 리론들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급속한 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었다.

문학예술혁명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언제나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한 단위, 한 고리에서 모범을 창조하고는 련이어 다른 단위, 다른 고리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문학예술의 전반적분야를 일대 창작적앙양에로 이끌

어준것이다.

영화예술은 문학, 연출, 촬영, 배우연기, 음악, 미술 등 문학예술의 여러 부문들을 포괄하는 종합예술이다. 특히 영화예술은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호소성이 높으며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하는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이다.

우리 당은 영화예술의 이러한 특성과 인식교양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는것을 문학예술혁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였다. 이리하여 영화부문에서 일대 사상적전환과 창작적고조가 일어났으며 우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영화부문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에 기초하여 만수대예술단을 본보기단위로 만듦으로써 음악, 무용 창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켰으며 련이어 가극혁명, 연극혁명, 미술혁명, 교예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문학예술전반에서 일대 혁명적전환과 창작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문학예술혁명을 위한 령도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한것은 속도전의 원칙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의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창작적성과를 올릴수 있게 하는 기본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을 벌려야 작품의 질과 창작속도를 다같이 높이여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의 원칙은 영화혁명시기부터 빛나게 구현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그 본보기가 마련되였으며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가 창조되게 되였다.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는 당의 지도밑에 창조된 새로운 공산주의적창조기풍이며 여기에서 핵을 이루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지도하는데서 또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밀접히 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창작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언제나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작품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작품창작에서 부닥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창조한 성과작들은 그 어느 하나도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일부 창작가들의 사상예술적미숙성으로 하여 열매를 맺을수 없게 되였던 작품들까지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마침내는 성과작으로 완성시켜주었다.

우리 당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는 전기간 언제나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작가, 예술인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갔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을 믿어주고 아끼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기주신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을 모두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상전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하는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실천과 혁명화과정은 서로 떼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

Digitized by Google

수 [illegible]도로 근본으로부터 달을뿐아니라 [illegible]문학예술창작의 본보기로 되는 가장 [illegible] 현실적인 방법으로 되었다.

당은 작가들이 [illegible] 방법을 습득하기 [illegible] 되게하고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의 전과정에서 혁명가적인 [illegible] 살며 일하도록 [illegible]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가 [illegible]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의지적으로, 예술기량적으로 [illegible] 강성할것을 [illegible] 부단히 [illegible]강화되었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혁명을 조직령도하면서 예술인후비양성사업을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주체적인 예술교육방침을 [illegible]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예술교육기관들이 예술인후비양성의 원종장으로, [illegible] 기지로 튼튼히 꾸려지고 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체계와 질서가 새원칙에 따라 새세대 주체예술 명인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었다.

문학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에 대한 당의 방침과 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도 재능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키워졌으며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문학예술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우리 당은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의 령도밑에 영화촬영소들은 그 어떤 어려운 [illegible]과제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장비와 야외촬영장까지 갖춘 영화예술의 대전당으로 꾸려졌으며 만수대예술극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극장, 영화관들이 수많이 마련되였다.

당의 세심한 지도와 굴함없는 배려속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열의와 예술적재능은 남김없이 발양되고 문학예술혁명에서는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참으로 문학예술혁명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령도는 우리 나라에 주체예술의 찬란한 개화기가 열리고 자랑찬 열매를 맺은 영광의 행로로 빛나고 있다.

(3)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예술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2페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인민은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으로 력사를 빛내이게 된다. 문학예술혁명과정은 혁명발전의 이 움직일수 없는 진리를 실천을 통하여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방침은 빛나게 관철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문학예술혁명과정에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들을 통하여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재현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원형이며 빛나는 본보기이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원작에 철저히 의거하며 각색작품의 형태적특성을 옳게 살리는 원칙에서 훌륭히 재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피바다》, 《꽃파는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을 비롯한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 소설 등 여러 형식의 예술적화폭들을 통하여 생동하게 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고전적본보기작품들을 우리 문학예술의 전형으로 첫자리에 내세우고 혁명적문예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킨 자랑찬 성과이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 력사적과제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한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 당은 이 사업을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문학예술혁명의 성과가 집대성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한 영상을 가장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정중히 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수많은 기념비적대작들을 긍지높이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삼지연, 왕재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세워진 대기념비와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 《조선의 별》과 그리고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근거지의 봄》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대작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인식시키며 그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문학예술작품들에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할수 없었던 중요하고도 절박한 력사적과제의 빛나는 실현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소망과 기대를 성취시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뜻깊은 경사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당이 독창적으로 밝혀준 공산주의적인간학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형상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산정의 수리개들》, 《초행길》, 《이름없는 영웅들》, 《열네번째 겨울》과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평양시간》, 《새봄》, 《생

Digitized by Google

명수〉, 시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장식한 작품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수령관, 혁명적인생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사상적내용에서뿐 아니라 예술적형식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정서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으며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독특한 형식과 방법으로 가장 훌륭하게 반영하고있는 주체적인 영화예술로 자랑떨치고있다.

새로운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절가화된 노래와 다양한 방창의 도입, 립체적인 흐름식무대미술과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무용, 배합관현악의 유기적인 결합 등 독창적인 형식으로 하여 종래의 가극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이다. 실로 〈피바다〉식혁명가극의 탄생은 여러 세기동안 내려오던 가극의 낡은 전통을 깨뜨리고 세계가극예술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당의 지도밑에 〈성황당〉식혁명연극이 창조되어 연극부문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극은 연기형상에서 진실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립체적인 흐름식무대미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음악을 적절히 배합한 새로운 혁명연극으로 개화발전하였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이 탄생함으로써 연극예술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올라서게 되였다.

음악과 무용, 미술, 교예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자기의 특색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우리의 노래와 음악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수많은 명곡들로 하여 인민들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있으며 무용은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적률동을 살림으로써 고상하고 우아한 생활의 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명곡과 민요를 편곡하여 만든 우리 식의 교향악, 우리 식의 합창과 관현악 그리고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사시극 등 새로운 형식의 작품들은 풍만한 문학예술의 대화원에서 이채를 띠고 독특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우리의 미술은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새롭게 발전하였으며 조각, 벽화, 공예, 수예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의 훌륭한 재능을 보여주고있다.

주체교예는 지난날 착취계급의 엽기적이고 저속한 취미를 만족시키던 낡은 교예의 흔적들을 말끔히 가시고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춤으로써 근로자들을 체육문화적으로,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처럼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문학예술로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혁신적성과는 또한 주체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 훌륭히 마련된것이다. 문학예술혁명과정에 온갖 낡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우리 식의 창조체계, 창조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으며 모든 창작일군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문학예술 창작과 활동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식의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확립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고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발전을 다그치는데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화만발한 주체의 문학예술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대중화가 실현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우고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기고있다.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로, 향유자로 되였으며 문학예술이 그들의 생활과 뗄수 없는 참다운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 되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의 주체예술을 보고 흥분과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주체예술은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이다.》, 《조선은 단연 세계에서 으뜸가는 예술의 나라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예술이 주체의 예술로 세계에 자랑을 떨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탁월한 문예리론가이시고 예술의 거장이신 전체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서 나라의 문학예술을 친히 이끌고나가시기때문이다.》, 《진심으로 조선의 예술, 조선의 가극에 영광을 드리며 그처럼 세계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신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다함없는 존경을 표시하고있으며 주체예술의 대화원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현실은 문학예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향도아래 개화만발하는 주체예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위업의 초행길을 헤쳐온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이름없는 영웅전사들 그리고 오늘의 숨은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를 이어 충성다하며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혁명적인 당

김 영 남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위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이 걸어온 전행정은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의 길을 개척하면서 힘있고 존엄있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 당은 창건의 첫날부터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지면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어려운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여왔으며 가장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준엄한 전쟁에서도,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들을 짓부시는 심각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준엄하고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 부닥치도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한길을 꿋꿋이 개척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쳐물리칠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자라났다.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당건설과 인민정권, 혁명무력 건설문제, 인간개조와 경제문화건설문제 그리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략전술문제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갈수 있는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투쟁경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특히 지난 1970년대는 가장 의의깊은 시기로 빛나고있다. 이 력사적기간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전위부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한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당의 향도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조국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가져올수 있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으며 세계혁명위업에 더욱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당인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향도자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을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것이다.

(1)

우리 당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가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88페지)

당의 위대성과 권위는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위대성과 그 당이 어떠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진 당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옳은 립장과 원칙을 견지할수 있으며 혁명의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고 인민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혁명적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은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줌으로써 각이한 혁명발전단계에 놓인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아무런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주체는 우리 당의 기치이며 혈통이며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없다. 전당이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숨쉬고 움직이며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이 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는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언제나 주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으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서 모든것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때문에 인민들은 당의 령도밑에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면 사람이 머저리가 되고 나라가 망하며 혁명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처음부터 주체를 세우는것을 우리 혁명의 생명선으로,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웠으며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이 크고 정세가 복잡하면 할수록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우리 당은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는것이라면 기성관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갔으며 일단 결심한것은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관철해나갔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줄수 있었고 헤아릴수 없이 복잡하고 생소한 혁명의 길을 헛갈림이 없이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더욱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거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키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튼튼히 고수하고 충실히 계승하지 못하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주체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풀어나갔으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주체사상을 순결하게 옹호고수해왔다.

오늘 우리 당안에 그 어떤 잡사상도 침습해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전당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된것은 우리 당의 이러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특히 우리 당은 당자체를 주체사상화하는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을 영원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과 권위를 높이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틀어쥐고 당대렬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대렬로 튼튼히 꾸리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당활동과 당사업을 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앞에는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더욱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불결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주체의 요구대로 자주의 길을 따라 싸워나가는것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감, 이것은 곧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다.

지금 세계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한 사회활동가는 《오늘 조선로동당이 권위있고 강유력한 당으로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고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기때문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아프리카의 한 정치활동가는 《조선로동당은 바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위력있고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

Digitized by Google

고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당인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존엄을 지닌 위대한 당으로 되고있는것이다.

(2)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 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자면 혁명실천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위업에서 빛나는 업적과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은 중첩되는 난관과 간고한 시련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굽임없는 승리에로 이끌어 일반적으로 수세기동안 걸려야만 할수 있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각종 형태의 투쟁을 한세대동안에 수행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우리 당은 포악한 미제를 때려부시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하였으며 어려운 두 단계의 사회혁명,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짧은 기간에 완수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이룩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을 고수하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의 두 단계의 사회혁명의 승리는 지난날 뒤떨어졌던 나라 인민들이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기초하여 공업화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빨리 수행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당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자주적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이 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적인 공산주의건설강령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전력사적로정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대오, 사람과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된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와 공산주의운동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깊이 분석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적당의 본성에 맞는 명확한

Digitized by Google

전략적목표를 가질수 있게 되였고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의하여 지도되며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나간다는것이 더욱 뚜렷하게 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이 제시된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에게도 커다란 고무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인민들은 공산주의리상사회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과학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종목표로, 총적임무로 내세운 우리 당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기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방도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같은 새로운 대중적운동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한결같이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의 요구대로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지금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가들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본새와 사업기풍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어떤 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의 명예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숨은 영웅들처럼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고있으며 승리의 신심과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명적열정과 패기에 넘쳐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우리 당은 또한 경제와 문화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투쟁목표와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속도전의 힘찬 진군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위력한 경제로 강화되였으며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의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모든 념원들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활짝 꽃펴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락원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모든 혁명적변혁들과 자랑찬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재부이다. 특히 그것은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에서 쌓아올린것으로 하여, 현대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다 이겨내면서 마련되고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하고 값있는것으로 되며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고무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비방중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실제적으로 구현한 결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조선과 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혁명위업의 수행을 통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의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우리 당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는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반제자주위업에 수많은 귀중한 공헌을 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에로 령도하면서 언제나 반제자주의 기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전세계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인류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전세계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자기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세계적범위에서 자주성을 유린하는 온갖 반동세력을 때려부시고 모든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게 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때 완성되게 된다.

오늘 세계의 크고작은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우리 당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제자주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운동이 자주의 기치밑에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들을 반대하고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력량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로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88페지)

우리 당은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반제반미투쟁을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이 로골화되고 국제정세가 복잡하면 할수록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견결히 맞서 싸웠으며 올바른 투쟁방침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세계 혁명적인

Digitized by Google

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왔다.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목적과 광범한 혁명력량이 투쟁무대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는 가장 올바른 세계혁명력량편성방침이며 세계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세계혁명의 중요한 일환으로 규정하고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참다운 리익을 옹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이다.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국제주의적지지성원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지지파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세계혁명력량의 강력한 지지성원밑에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이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반제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빨리 촉진시킬수 있다.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제국주의와 온갖 지배세력들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93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지향,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자기 대오에 단합시키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세계무대에서 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도처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그러므로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

대하며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며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으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블럭불가담운동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블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을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우리나라가 블럭불가담운동의 당당한 성원국으로서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여러가지 혁명적대책들과 획기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블럭불가담운동이 블럭밖에 있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변함없이 보존하고 자기의 위력과 존엄을 확고히 고수해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은 블럭불가담운동안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이 운동 성원국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활동원칙과 행동규범들을 제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블럭불가담운동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반제자주위업의 완성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끊임없는 발전과정을 통하여 이룩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은 자주성에 기초한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회주의나라 당 및 정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지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형제당, 형제나라들 사이의 의견상이가 더는 확대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여왔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며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립장이다.

특히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대외정책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나라, 모든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간의 자원적이고 공고한 단결을 보장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자주적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외활동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모든 대외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다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제국주의자들의

Digitized by Google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완전한 군비철폐를 실현하며 모든 군사쁠럭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수하며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확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으로 세계혁명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국제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혁명적전위부대로 되였으며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있는것이다.

❀ ❀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지난 행정은 우리 당이 더욱더 권위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로정이며 실에서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방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시대의 새로운 력사를 찬란히 펼쳐놓은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불멸의 위훈의 년대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옹호보위하고 당의 향도따라 나가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은 없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조국의 가장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반제자주위업과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그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어떤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대를 이어 영원히 당의 령도따라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2호(루계 478호)

편 집 위 원 회

편 찟•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82년 2월 1일 발 행• 1982년 2월 5일

ㄱ-2512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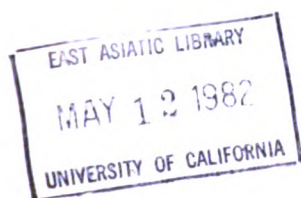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MAY 12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제 3 호(47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불굴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불굴의 혁명정신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지녀야 할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혁명이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으로 가득차있으며 그 과정에는 일시적인 실패와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을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나갈 결심이 확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혁명의 길을 끗끗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면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믿음직한 대오가 있어야 한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란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투사를 말한다.

혁명의 령도자,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문제는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따라서 혁명에 대한 태도는 곧 수령에 대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한세기가 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움직일수 없는 진리로 보여주었다. 하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싸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례외없이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마땅한 혁명적본분으로 여겼다. 그러나 혁명의 배신자들은 겉으로만 수령을 받드는척하면서 속으로는 딴꿈을 꾸며 뒤에서 딴 장난을 하는것을 일삼았다.

그러므로 혁명의 령도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참된 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며 그것은 곧 혁명가의 생명선, 불굴의 혁명정신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멀리 앞으로 전진하여왔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위업을 완성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1)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높이 발양된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Digitized by Google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의 높이가 규정된다.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머리가 없이는 사람이 죽은 몸이나 같고 사람구실을 할수 없듯이 현명한 지도부, 당중앙위원회가 없이는 우리 당이 활동할수 없으며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우리 인민이 하루도 살아갈수 없고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358페지)

수령은 사람으로 말하면 뇌수와 같다. 사람에게 행동방향을 주고 그의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기관이 뇌수인것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방향을 밝혀주며 그들의 혁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령도하는 최고뇌수는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이다. 머리가 없이는 사람이 한순간도 살아나갈수 없는것처럼 수령이 없이는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없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일뿐아니라 단결의 중심이다. 혁명력량이 하나로 단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는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뭉친다는것자체가 하나의 중심을 가진 통일체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대오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합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일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대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로,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만일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대오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하지 못한다면 분파가 생길수 있으며 그 틈을 리용하여 음모가, 야심가들이 당과 혁명을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처럼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이므로 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언제나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만을 받들어나가며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수령을 옹호보위하는데서 높이 발휘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함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지만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혁명투쟁에 인입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수령에 의하여 담보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광범한 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들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대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이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도 로동계급의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어 그들을 의식화하며 혁명조직을 마련하여 인민대중을 조직화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또한 옳은 투쟁로선과 전략전술, 투쟁방도를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간다.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리론적으로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력사는 광범한 대중이 혁명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반동세력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라린 실패를 당하게 된 과의 교훈을 한두번만 남기지 않았다. 사실상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군중은 혁명투쟁에서 큰 역할을 놀지 못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못받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높이 발휘되게 되는것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옳은 자세와 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립장, 수령의 사상을 언제나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석같은 신조로 삼으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옳은 자세는 혁명적수령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표현되며 여기에 공산주의혁명가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반영되는 혁명정신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혁명투쟁에서 령도자와 전사는 뗄수 없는 전일체를 이룬다. 지휘관이 없는 군대란 있을수 없으며 령도자가 없는 혁명전사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의 올바른 령도와 그를 받들어나가는 전사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수령과 인민대중은 혼연일체를 이룬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인민의 최고대표자이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실현해나가는 혁명전사들이다.

이로부터 혁명전사는 인민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과 같이 옹호보위하는것이다.

수령을 모시는 전사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09～410페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혁명동지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혁명투쟁은 동지들의 참된 결합으로부터 시작된다.

혁명과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하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의지적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혁명을 함께 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수령은 올바른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하여 신

Digitized by Google

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혁명동지, 혁명전사들을 찾아내고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사이에 맺어지는 숭고한 혁명적인 동지적의리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높은 형태로 발현된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혁명적의리는 수령이 안겨주는 참다운 삶과 행복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한것이며 수령이 베풀어주는 크나큰 은정에 보답하려는 혁명전사들의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것이다.

혁명전사들이 수령에게 바치는 충성심은 바로 자기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한없이 고마운 정치적생명의 은인에게 바치는 스스로의 숭고한 보답인것이다.

공산주의자들사이의 혁명적인 동지적관계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맺어지게 되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하여 공고화된다.

혁명동지들사이의 관계, 그것은 수령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맺어지는 혁명적인 인간관계이다. 동지라는 말속에는 혁명의 령도자, 수령앞에 다진 맹세그대로 함께 싸워나가려는 혁명전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을 참다운 동지로 결합시키는 정신도덕적기초로 된다.

한 혁명대오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수령을 받드는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꿈을 꾸는 사람은 진정한 동지로 될수 없다. 이러한 가짜동지들사이에는 참다운 혁명적인 사랑이 있을수 없으며 사상의지적이며 도덕의리적인 단합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상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 결백하여야 수령을 받들고 혁명하는 길에서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굳게 단합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적인 동지관계가 이루어지자면 혁명의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립장이 확고하여야 하며 수령의 뜻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 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는 굳은 지조와 절개, 혁명적인 의리가 없이는 수령과 혁명 앞에 다진 맹세에 충실할수 없고 공산주의혁명가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닐수 없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숭고한 공산주의적,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 수령에게 충성다하는데서 그 어떤 가식도 없으며 세월이 흘러도 변할줄 모르는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것이다.

혁명의 령도자,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혁명적량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신념화된것이여야 한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표리부동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충성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망각되고 육체적로쇠와 함께 식어가는 충실성과도 인연이 없다.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충실성이며 단두대우에서도 그리고 죽으면서도 깨끗하게 간직하는 충실성이다.

그러므로 일편단심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수령의 의도와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그 어떤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높은 충성심을 바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진짜배기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혁명전사라고 하는것이다.

(2)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자랑찬 력사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Digitized by Google

혁명정신은 일찍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께 충실한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그 모범이 찬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제2판, 43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실하는데서 높이 발휘된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태양,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었다.

수령에게 바치는 혁명가들의 충실성은 수령의 위대성과 직접 잇닿아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다운 혁명가들을 낳게 한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숭고한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였던것은 바로 수령님의 위대성을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였고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한데 있었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걸으면서 장군님의 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새기게 되였으며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길이 전적으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데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 부패한 봉건통치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끊임없이 벌렸으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하여 그 모든 투쟁은 그때마다 결실을 보지 못하고 비참한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만을 가져왔다.

당시 우리 인민에게는 싸우려고 하여도 이끌어줄 령도자가 없었고 뭉치려고 하여도 단결의 중심이 없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과 수령의 령도를 애타게 갈망하고있던 그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속에서 열혈청년들과 인민들은 마침내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게 되였다.

그리하여 진정한 령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갈림길에서 헤매이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국내각지에서, 수만리 해외에서 사선을 헤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곳으로 찾아갔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당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대의 청년시절이였고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다 나이가 더 많았으나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께 조국과 혁명, 자기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싸우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맞이한 크나큰 감격과 긍지를 안고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부르면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의무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초행길을 헤쳐나가는 첫시기에 벌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혁명의 향도성으로 되여주실것을 바라는 절절한 념원에서 그이의 존함을 한별동지로 불렀고 그후에는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고 높이 우러러흠모하였다.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기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간고한 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것은 결코 앞날에 차례질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였고 더구나 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 짓밟힌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는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로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나간 주체형의 혁명전위들이였으며 그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수령을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자세와 립장, 충성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여준 빛나는 구감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이 곧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이라는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삼았으며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혁명가의 지상의 의무로 여기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사령부의 안전을 지키는것을 곧 혁명의 생명을 지키는 혁명전사의 가장 책임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사령관동지를 옹호보위하는데서 언제나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였었다. 먼발치에서 울리는 한방의 총성을 듣고도 그들은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보위하여 날아오는 적탄도 서슴없이 막아나섰다.

항일혁명선렬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명령, 지시를 목숨바쳐 끝까지 관철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지켜나가신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불굴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데서 발휘한 자기희생성과 용감성, 장군님의 명령, 지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무한한 헌신성,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옹호관철한 견결성, 이 모든것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불굴의 혁명정신의 높은 발현이였다.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고상한 혁명적의리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랑과 은정은 항일혁명선렬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들은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지적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혈전의 길에서 혁명동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여 그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골간으로 키우시였으며 혁명전사들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시는 동지적사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끝

Digitized by Google

까지 지켜나갔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절해고도에서나 적후에서도 결코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갔다.

항일혁명대오안에서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공산주의적의리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는 조선의 참다운 아들딸들에 의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 뿌리내리고 높이 발현되여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항일혁명투쟁로정에서 그 모범이 창조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이어받아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이 고귀한 혁명정신은 온갖 풍파와 시련을 헤치고 주체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빛나는 승리를 담보하여온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해방후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저마다 《영웅호걸》로 자처하여나섰던 그 혼란된 환경속에서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령님을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으며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실로 어려운 시련의 고비들이 적지 않았다.

혁명앞에 엄혹한 시련이 조성될 때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의 일념으로 불탔으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당과 혁명을 옹호보위하며 조성된 난국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항일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온 혁명가들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 믿음직하게 서있었다.

지난날 백두의 밀림에 차넘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더욱 빛나게 이어지고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본받는것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 그 위대한 정신이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있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것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여도 당과 같이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당의 목소리로 말하며 걸음을 걸어도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드팀없이 걸어나가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당

Digitized by Google

과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은 당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시키고 조국땅우에 세기적변혁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3)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원을 열어놓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단행본, 6페지)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 길에서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한 만년리전을 튼튼히 다져놓았다.

그러나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우리는 아직도 멀고 험한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출수 없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이 투쟁은 매우 거창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며 그것은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우여곡절도 없이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간 김혁, 차광수와 같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위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어떤 풍파가 휘몰아쳐온다고 하여도 그것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혁명의 령도자, 자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을 때 혁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모진 진통을 면할수 없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옳게 이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고 견결히 옹호보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지고 그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이며

Digitized by Google

절처적참모부이다.

오늘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지난날의 김혁, 차광수와 같은 불굴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진짜배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백전백승의 불패의 대오로, 강철의 전투부대로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간고한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신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한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고귀한 발현이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변함없이 싸울수 있은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을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바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을 혁명적본분으로, 철석같은 의지로 삼아야 한다.

원래 혁명가들은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당과 함께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을 굳게 맹세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견결한 투사들이다. 혁명가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한번 다진 맹세를 일생동안 변함없이 지킬줄 알아야 한다. 대세와 추세에 따라 변하

는 사람은 당과 함께 고락을 끝까지 같이할수 없다.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닥쳐오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설수록 당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는 사람만이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나갈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당안에 혁명적인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당의 모든 의도가 제때에 훌륭히 관철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규약상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지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우리 당원들의 혁명활동은 곧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떠나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참답게 이바지하게 되며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게 된다.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은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으며 그 과정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비록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생눈길을 헤치며 고난의 행군을 해보지 못하지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면 누구나 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사령관동지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발휘하였던 그 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가장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제날의 김혁이 되고 차광수가 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새로운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들이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키우는 사업도 구경은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이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든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

Digitized by Google

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깊이 체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이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려면 반드시 혁명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으면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지닐수 없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없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혁명투쟁의 합법칙성,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혁명의 원리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혁명전사로 참답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기 위한 조직적인 단련과 혁명적수양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진행되게 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의 지도와 방조 속에서 혁명적인 단련과 수양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조직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조직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사업하며 당생활을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

백 남 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에 관한 문제는 당의 존재와 활동, 그 공고발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관건적문제이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얼마나 철저히 서있는가에 의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전투력의 높이가 규정되고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 당은 오직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에 기초하여 활동할 때만이 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은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하며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수령이 내세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원칙이며 활동규범이다.

혁명적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2페지)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당의 위력은 통일단결의 위력이며 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전투력있는 당이라고 볼수 없다.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없으며 결국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그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체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대오의 강철같은 조직적단결과 행동상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은

Digitized by Google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

당이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조직적으로 공고화되기 위하여서는 그 단결의 중심과 사상적기초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는 정연한 사업질서와 혁명적규률이 있어야 한다.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은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전당이 하나의 구령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이 당안에 튼튼히 서있어야만 이루어질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있지 못한 당은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으며 이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다. 오직 당안에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서고 전당이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만이 사상적단합과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이처럼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기본담보로 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전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여야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이며 수령의 령도는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여야 하며 수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한결같이 움직일 때에만 당은 하나의 조직 원칙과 규률에 의하여 활동하는 전투적인 부대로 될수 있다.

당안에 수령의 령도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비조직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현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의 전투력은 약화되여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오직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당만이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존재와 그 강화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의 원천이 있으며 온갖 기회주의적정당들과 구별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전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일치하게 움직이도록 하는것은 결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조직적으로 담보하는 무기,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규범이 있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무기, 이러한 행동규범이 바로 당규률이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행동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가장 철저하

Digitized by Google

게 실현하자는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여야만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당에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기풍과 규률을 세울수 있다. 당안에 이러한 규률이 확고히 서있어야만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맥박으로 고동치게 할수 있으며 당을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전투적인 부대로 만들수 있다.

이것은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이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 근본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8페지)

당의 전투력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에서 표현된다.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실현하자면 전투력이 강해야 한다. 전투력이 없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올바로 실현할수 없다.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가진 당만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관건적문제로 된다. 당의 령도가 옳게 보장되여야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령도해나간다.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목적도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따라서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이고 당을 하나의 명령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투쟁하는 강철같은 전투부대로 만들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교시,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집행관철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당 사업과 활동은 일정한 행동규범과 질서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런것만큼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가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자면 그것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거침없이 내려가게 하고 무조건 집행되게 하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오직 당의 의도와 규약상요구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확고히 지배하는 당이라야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강철의 전투대오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신

Digitized by Google

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제시하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바로 여기에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의 하나가 있다.

이와 같이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여 그 전투력을 높이게 하는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세우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어떤 풍파와 난관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규률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섬으로써 당의 결정지시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까지 거침없이 쭉쭉 내려가고있으며 그것이 훌륭히 관철되여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백전백승하는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튼튼히 서있고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못해내는 일이 없는 전투적인 당으로,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이 철저히 서있고 모든 당원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충직하게 싸워나가고있는 이것이 우리 당의 자랑찬 면모이다.

참으로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조선로동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계속 튼튼히 쌓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과 혁명 앞에 나서고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더욱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

Digitized by Google

은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져야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전당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다.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된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 모든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주체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의 밝은 전도와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과 높은 령도적권위, 당의 력사적 사명과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면 스스로 당을 받들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게 되며 당규률도 자각적으로 지키게 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사명과 역할, 우리 당의 위대성과 업적, 령도의 현명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깨우쳐주어 그들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한성원으로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은 당안에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교시,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다. 당의 결정과 지시는 누구도 홍정하거나 어길 권리가 없으며 오직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

당의 결정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률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건설에서 규률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는것은 자기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가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당의 규률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하며 당의 결정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을 떠나서는 당의 규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의 결정지시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신념과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따라서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은 결국 당의 령도적권위를 옹호보위하기 위한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시대와 혁명의 세련된 령도자로서의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강철같은 전투적부대로 만들수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것은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잘하여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당조직을 존중하고 조직의 지도밑에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며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일수록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당조직과 토의하여 처리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규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고있는 유일한 규률이다. 우리 당의 조직규률은 직위와 직무, 공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지켜야 할 혁명적규률이다.

당내에서는 2중규률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으며 그 누구도 특전을 바랄수 없다. 사업에서는 상하가 있고 지휘판이 있어야 하지만 당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 당원은 누구나 다 오직 하나의 규률에 따라 움직이고 생활하여야 하며 하나의 기준,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검토되고 평가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특혜를 바라며 당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세도를 쓰는것과 같은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누구나 다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당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전당을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원칙, 유일한 규범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혁명적조직규률의 기초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울수 있다.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며 당규률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만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창발성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당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자의대로 처리하게 되면 당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바로해나갈수 없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 당원들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은 다 당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일단 결론된 문제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당규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원들속에서 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당조직규률을 어기는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당조직규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당안에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할수 있으며 우리 당을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관료주의와 요구성을 엄격히 갈라보고 강한 요구성을 가지고 사업함으로써 당안에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규률을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률을 어기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조직규률을 강화하는 사업은 무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혁명투쟁의 무기인 당의 모든 활동은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투쟁이 없이는 당자체가 존재할수 없으며 불패의 위력을 가진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할수 없다.

우리는 당조직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록 작은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애하며 당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규률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들의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기초하고있는 자각적인 규률이며 모든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혁명적인 규률이다.

모든 당원들이 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만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안에 혁명적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워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당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

리 원 호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야만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으며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은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혁명적인 조직관념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립장과 관점을 말한다. 그것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는 당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당원들은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가져야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할수 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잘하는것은 크나큰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원의 정치적생명은 당생활을 통하여 유지되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당생활을 떠난 당원은 로쇠한 당원이며 정치적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당원들은 원래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것을 굳게 결심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한두끼의 끼니는 건늘수 있어도 당생활은 한시도 중단할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조직사상생활을 잘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은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이 안겨준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

Digitized by Google

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당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사람들이 저절로 혁명화되는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혁명조직의 지도밑에서 끊임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당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원들이 당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공산주의혁명가로 어떻게 준비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당조직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당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원들은 오직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자신을 끊임없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원들은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가질 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혁명적교양을 받고 자체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게 된다. 그들은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워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당원들이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자신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는 문제도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선 당원들은 자기의 모든 사업과 생활, 일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허심하게 보고하고 당조직의 따뜻한 지도와 방조를 받아 사소한 부족점도 바로잡아나가게 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게 된다.

경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적인 당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울 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굳이 지키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상적으로 병들고 혁명성이 마비되여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없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또한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혁명적규률은 당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당안에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워야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는것은 당의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의 결정과 지시는 당의 의사이며 당은 그것을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간다. 로동계급의 당이 당건설에서 규률문제를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는것도 당의 전투력을 높여 당의 결정지시를 가장 훌륭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전투력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데서 나타나며 그것은 혁명적규률이 안받침되여야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확립하는 중요한 방도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있다.

당의 규률은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이다. 그 어떤 강요나 지시에 못이겨 지키는 규률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그러한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은 높은 전투력을 가질수 없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에 기초하여 세워진 규률만이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된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은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당조직관념이 바로 선 당원에게는 오직 하나의 원칙, 당의 결정과 지시를 곧 법으로,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이 있는것이다.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려는 이와 같은 립장과 태도는 곧 당에 대한 립장과 태도로 되며 그것은 당을 받들고 따르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당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확고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이렇듯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의 로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전투적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당의 로선과 방침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투쟁이란 다름아닌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일생동안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갈것을 굳게 맹세하고 당조직의 한 성원으로 된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마땅한 혁명적본분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원들의 혁명활동은 당조직을 통하여 진행된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조직으로부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분공을 받아 수행하게 되며 당조직앞에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게 된다. 당원들이 당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이 곧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활동으로 되며 혁명활동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조직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며 그 과정에 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도 빛내여나가게 된다.

당조직을 떠나서는 당원들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Digitized by Google

서도 말할수 없다. 따라서 당조직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곧 당조직의 위임분공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조직적의사이며 그것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이 튼튼히 선 당원들은 언제나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정중히 대하며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나간다. 바로 이것이 혁명적조직관념을 지닌 당원의 고상한 풍모인것이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열쇠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져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가지고 당생활에 더욱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2페지)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그들의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가 안받침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당조직은 당원들이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당조직사상생활전반을 장악하고 이끌어준다.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만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기풍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당생활지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조직은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당조직은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주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드팀없이 걸어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며 당원들이 일생동안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을 해나가야 하는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원은 당조직이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야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질수 있으며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는 립장과 관점을 바로세울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당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에는 당원이 당조직의 한성원으로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들이 다 밝혀져있다.

당규약상요구와 당생활규범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킬 때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당조직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과 당생활규범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한다는것은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조직사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진행하도록 그것을 제도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생활하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누구나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생활하고 사업하는 혁명적인 기풍을 세울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된다.

당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정규화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특히 당조직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형식이며 정규화생활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당생활총화가 강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조직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것으로 되게 하며 일단 비판한 문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하여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는것이다.

당원들은 당적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며 당조직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키워나가게 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매개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하고 도와주며 분공을 수행한 다음에는 제때에 총화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당조직이 주는 그 어떤 위임분공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다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것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입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

직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바로 당세포에 맡겨져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4페지)

당원들의 당생활은 당세포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이 일생동안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생활을 해나가는 거점이며 당원들이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생활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원활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당생활지도를 잘해나가야 모든 당원들이 옳바른 조직관념을 가지고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할수 있으며 전당에 건전한 당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세포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당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세포비서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비서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첫공정으로 삼고 언제나 군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세우며 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세포비서들은 언제나 격식과 틀을 차리지 말고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여야 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세포비서들은 당의 초급지휘성원으로 된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당세포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당세포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당세포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책임일군들은 세포에 직접 내려가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료해하고 옳바른 대책을 세우며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사소한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는 생기발랄한 혁명적당이다. 혁명적인 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지원》의 애국사상

—조선국민회결성 65돐에 즈음하여—

김 경 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때로부터 65돐이 된다.

우리 인민은 이날을 맞이하여 오로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애국활동과 고귀한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1917년 3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는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한 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하고 그 규모와 활동범위가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광범한 인민들을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하고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혁명의 새벽길을 헤치시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확고한 길을 마련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길에서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1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애국사상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숭고한 애국사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애국사상은 침략과 예속, 압박과 착취를 견결히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며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애국사상이다.

《지원》의 애국사상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뜻을 크게 가져야 하며 원대한 뜻을 이룩하자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굴함없이 싸워야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이 담겨져있다. 그리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코 완수해야 한다는 열렬한 애국심과 견결한 혁명정신이 담겨져있다.

《지원》의 애국사상은 민족적리념이 투철하며 혁명적지향과 견결성에 있어서 이전의 어떤 애국사상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애국사상은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참다운 애국사상이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례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261~262페지)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대미문의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폭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굴욕 속에 몰아넣었다. 우리 인민앞에는 앉아서 영원히 일제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사생결단하고 일어나 싸워서 빼앗긴 조국을 찾느냐 하는 갈림길이 놓여있었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결연히 일떠섰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우리 인민은 반일의병운동과 독립군운동 그리고 애국문화운동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과 투쟁들은 그 제한성으로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총칼앞에서 피의 교훈만을 남기였다.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할 엄숙한 시기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처하고있던 이러한 실태는 애국적인 인사들과 선각자들에게 반일운동의 약점을 시급히 극복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나갈것을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바로 이 력사적시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애국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던 우리 인민의 반일운동에는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지원》의 애국사상은 무엇보다도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을 구현한 참다운 애국사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딜 가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조선독립은 누구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력사는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조선사람의 정신, 민족자주의식을 견지하는것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였으며 그 승리의 중요한 담보였다.

나라의 독립은 오직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자력에 관한 사상, 이것은 《지원》의 애국사상에 일관되여있는 근본리념이며 그 숭고한 높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였다.

《지원》의 애국사상에 관통하고있는 민족자주정신은 사대주의적외세의존사상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그것을 부정하여나온 민족자주의 립장이였다.

력사적으로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사상은 근대에 와서 마침내 우리 나라를 망국의 운명에 처하게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발생한 사대주의는 리조말기에 와서 더 심해져 저마다 외국상전을 등에 업고 추악한 세력다툼을 벌리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말았다.

일제의 강점후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의연히 사대주의의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은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망국의 력사와 민족해방운동의 심각한 교훈은 사대주의, 외세의존 사상이야말로 망국의 길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파국에로 몰아넣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력사의 교훈과 투쟁경험으로부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시였으며 민족자주의 립장과 정신을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애국적신념으로 내세우시였다.

민족자주정신에서 출발한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적신념에는 우리에게 스스로 독립을 선사할 사람은 없으며 우리 민

족의 힘을 묶어세우면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어떤 아성도 능히 무너뜨리고 나라의 광복을 성취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이 담겨져있었다.

《지원》의 애국사상에 힘있게 맥박치고있는 민족자주정신은 민족적리념을 전면에 내세운 애국적립장이였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적리념을 내세우는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근본요구이다. 특히 당시 일제의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민의 민족성이 마비되고있던 조건에서 민족적리념을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반일애국심과 민족단합의 정신을 더욱 북돋아주어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문제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창조와 투쟁의 유구한 력사와 빛나는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강도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힌 통탄할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조국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시였다. 이리하여 선생님의 심장속깊이에는 대대손손 삼천리금수강산을 지켜싸우려는 애국적지향과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시려는 불타는 념원이 간직되여있었다.

《지원》의 애국사상은 이러한 민족적리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이 북돋아주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애국사상은 또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방향과 방도를 새롭게 밝혀준 참다운 애국사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광범한 민중속에 선진사상을 널리 보급하여 그들을 각성시켜야 하며 무산대중을 조국광복의 성전에 힘있게 일떠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하여 많은 《지사》들이 저마다 《애국》을 부르짖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추향은 서로 각이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봉건충군사상에 기초하여 옛 봉건왕조의 복구를 기도하는 복고주의에로 나아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르죠아지의 계급적리익을 대변하여 부르죠아공화제나 립헌군주제와 같은 부르죠아국가를 세우려고 몽상하였다. 그들은 다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을 다스리고 억압착취하는 반인민적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려 하였고 그들자신이 인민의 지배자, 통치자로 행세하려고 하였다.

《지원》의 애국사상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애국사상으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민중의 념원을 반영하고있었다.

《지원》의 애국사상은 우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독립된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새 사회, 새 국가를 건설할것을 열망하고있었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무산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계몽각성시켜 조국광복의 성전에 일떠세워야 하며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투쟁방도까지 밝히고있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처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지으신 이 시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생님의 애국사상

Digitized by Google

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나라잃은 슬픔을 한탄만 하지 말고 무산민중이 잘사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해 용감히 일어나 일제와 싸워야 한다는 혁명적의지와 애국적신념으로 충만되여있었다.

무산민중을 동원하여 일제를 타승하고 무산계급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구상은 민족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을 밀접히 결합시킨것이였다. 그것은 또한 민족자주의식을 계급의식과 결합시킬것을 지향한것이였다. 바로 여기에 《지원》의 애국사상이 가지는 진보성과 혁신적의의가 있으며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는 사상적 연원이 있는것이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지원》의 애국사상에는 또한 조국광복에 대한 확신과 그 원대한 뜻을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는 불굴의 투쟁정신이 깃들어있었다. 이것은 《지원》의 애국사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된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가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준엄한 시련도 뚫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고야말 선생님의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선생님께서는 모진 비바람에 시달리고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변함없이 청청한 빛을 뿌리며 새봄을 맞는 소나무의 꿋꿋한 기상을 그대로 자신의 애국적기개로 삼으시였다. 그러기에 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고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서라도 조국광복을 이룩하시려는 철석같은 신념만을 간직하고계시였다.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과 끝없는 혁명적열정,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굽임없이 투쟁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이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고상한 애국적풍모였다.

《지원》의 애국사상에는 이와 함께 제국주의침략자, 식민지강탈자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반제정신이 담겨져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열렬할수록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강렬한것이다.

열렬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지원》의 애국사상은 민족과 인민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안받침되여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식민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과 기대를 가질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하며 나라의 독립은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쟁취해야 한다는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니시였다. 그러기에 선생님께서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그처럼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험난한 투쟁의 길을 언제나 과감히 헤쳐나가실수 있었다.

실로 《지원》의 애국사상은 당시의 온갖 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진보적이며 참다운 애국사상이였으며 그것은 질식상태에 빠지있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구출하고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오는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2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국애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Digitized by Google

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인것이다. 그러므로 애국주의는 그것이 애국활동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당시 일부 《우국지사》들처럼 나라잃은 설음으로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한탄이나 하여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수 없었고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의 원대한 뜻은 선생님의 적극적인 애국활동을 통하여 그 진가와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만경대로부터 봉화리 그리고 압록강연안과 중국동북지방으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면서 파란많은 시련을 겪고 정치활동과 군사활동, 교육문화사업을 비롯한 애국활동을 정력적으로 끊임없이 이어나가시였다. 오직 온 생애를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고스란히 바치는것이 선생님의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이며 신념이였다.

《지원》의 애국사상을 구현한 김형직선생님의 애국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반일애국력량을 결속하는 사업이였다.

혁명투쟁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인민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의 혁명의식을 북돋아주고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첫공정으로 된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것을 민족자력으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을 선진사상으로 계몽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교육사업은 김형직선생님의 애국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만경대 순화학교와 강동의 명신학교, 팔도구의 조선인소학교와 무송의 백산학교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여러곳에 몸소 학교를 세우시고 청소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키우는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육사업과 교양사업, 글짓기와 연예활동, 독서회, 운동회 등 정력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민족의 넋을 키우고 애국적투지를 배양하며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방도를 깨우쳐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선진사상으로 계몽하고 조직에 결속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이것은 무산민중의 혁명적지향과 새로운 혁명사조를 따라 움직이는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빛나는 애국활동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청수동회의와 관전회의에서 무산혁명의 길로 나아갈데 대하여 밝히시고 민중동원을 무산혁명의 방략실현의 근본요구로 내세우시였으며 이 사업을 적극 이끌어오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력으로 투쟁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중결속과 의식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로동자집결지역과 농촌에서 선진사상침투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무산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국내외의 여러 지방에서 반일대중단체들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선진사상보급사업을 민족개량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벌려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 민족개량주의자들이 들고나온 《민족개조론》이요, 《계급협조》요, 《물산장려》요 하는 궤변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며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무마시키려는 책동이라는것을 까밝히시고 신사조의 대두야말로 민족화목에 리롭고 민족적단합의 사상적기초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력사적인 고경회의에서 민족개량주의와의 투

Digitized by Google

쟁을 강화할데 대한 요령을 제시하시여 선진사상의 보급을 가로막고 무산대중을 혁명의 길에서 떼내려는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민족개량주의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선진사상은 더욱더 큰 견인력을 가지고 애국적인민들속에 침투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그 활동을 정력적으로 이끄신것은 반일력량을 키우기 위한 선생님의 애국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 투쟁 강령과 방도도 없이 산발적으로 활동하는 반일단체들의 본질적약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여 옳바른 투쟁강령에 따라 전민족이 나라의 독립에로 총매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민족단합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놓으시였다.

당시 국내외를 포괄하는 가장 큰 혁명조직으로서의 조선국민회는 반일애국력량의 통일을 이룩하고 혁명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굳건히 꾸려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애국력량을 마련하는데서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 독립운동의 상층에 들어앉은 민족주의자들이 제가끔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고있던 조건에서 독립운동대렬의 통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반일력량을 확대강화하고 반일운동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그들의 반일적요소들을 적극 지지해주시면서 그들의 분파행동에 타격을 가하시고 민족자주정신과 선진사상으로 인내성있게 교양하시여 그들을 민족단합의 길로 꾸준히 이끌어나가시였다.

그리고 민족단체련합축진회를 창설하시여 고루한 민족주의상층들을 고립시키고 독립운동대렬의 통합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독립운동자들의 분파행동은 현저히 극복되여갔으며 삼삼오오 분산되여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이 반일투쟁에서 공동보조를 맞추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지원》의 애국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민족단결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애국활동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것은 또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활동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적들의 류혈적탄압에 적수공권으로 대항하는것은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싸우는것을 조선독립달성의 총요원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무장활동에 관한 선생님의 방침은 민족자력으로 일제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애국사상의 빛나는 발현이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을 무산혁명의 길로 확고히 들어설수 있게 한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온몰화종점화료원》의 전술에 립각하시여 새로운 무장조직을 내오고 무장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대규모적으로 전개할 무장활동의 준비를 위하여 사회중명학교를 비롯한 무관학교들에 조선국민회성원들과 선진적인 청년들을 보내시여 군사간부로 키워나가시였다.

한편 혁명조직들과 무관학교들에서 키우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과 무장대들이 맹렬한 군사활동을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인제놈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이처럼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애국사상과 애국활동에 의하여 조선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새로운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새력사의 려명이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 *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높은 뜻을 구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뜻을 깊이 간직하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따라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수난에 찬 력사는 끝장나고 우리 조국은 새 력사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우에 근로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다그쳐지고있으며 사람과 사회,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날 이름조차 없어졌던 우리 나라와 인민이 주체의 나라, 주체의 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 인민은 투쟁과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것은 전형창조의 기본요구

강 능 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평범한 인간들이 혁명가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한다. 문학예술이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창작가들이 작품창작에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 있다.

공산주의적인간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형성되며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화를 다그쳐야 이루어지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구체적인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는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은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본질과 합법칙성, 그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사상미학적요구와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인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제시하여주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혁명적각오를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려면 먼저 영화에서 취급하는 사건들과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383페지)

문학예술에서 인물은 가장 기본적인 형상요소이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풍부성, 예술적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 그 사상미학적기능은 모두 전형적인 인간형상과 관련되여있으며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 특히 사상주제적과제를 실현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맡고있는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는것은 바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의 전형적형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정치적자주성을 지니고 빛내이는데서 나서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한다.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문학예술로 하여금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세계관이 서야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Digitized by Google

모든것을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평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이라야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혁명가들의 영웅적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의 창조적생활을 그린 혁명적문학예술은 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혁명적문학예술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하거나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를 취급하는 작품들에서만 아니라 모든 주제의 작품들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근로자들의 혁명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전형창조에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고들어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또한 인간학인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문학예술은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문학예술이 다른 사회적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성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형상적으로, 현실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반영하는데 있다.

현실에서 보는것과 같은 산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여야 문학예술을 인간학으로 되게 할수 있다. 산 인간을 떠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있을수 없으며 도대체 인간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인물들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으로 그려야 인간형상이 생동한 개성으로 부각될수 있으며 생활화폭이 자연스럽고 실감있게 안겨올수 있다.

현실에는 혁명의 길에 나서서 생활과 투쟁 속에서 혁명적각오를 더욱 굳게 다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혁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서 새로운 자주적인간으로 태여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에서만 변하는것이 아니라 혁명적세계관이 선 다음에도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운 다음에도 꾸준한 사상수양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야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한길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창작에서 인물을 산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자면 현실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성격의 성장과정을 론리성있게 보여주어야 하며 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이렇듯 문학예술은 생활과 투쟁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혁명가로 자라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 때 그를 전형적인 성격으로 형상할수 있으며 생동한 개성으로 만들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되여야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서 투쟁에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진실로 공감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이란 무엇이고 혁명을 왜 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할수 있고 누구나 결심하면 혁명을 할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할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선 인간으로,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고있는것이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이러한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불굴의 혁명정신을 통하여 높이 발휘된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참된 혁명가로 된다는것은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이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오직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된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자기앞에 나선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문학예술창작의 기본요구로 된다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합법칙성과 그 본질적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옳바른 립장과 태도가 확립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에는 일반적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착취계급과 착취사회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 그에 기초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가지는 단계,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는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공산주의자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추었을 때에라야 비로소 완전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없으며 완성된 혁명가도 없다.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를 완성된 공산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혁명을 해나가는 복잡한 과정에 일시적으로 주저앉거나 동요할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나 투쟁을 벌려나가면서 더욱 튼튼히 단련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참다운 세계관이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숭고한 의리로 간직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여준다.

우리 당에 의하여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그 본질적내용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인간의 산 모범을 빛나는 형상으로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이 밝힌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인간성격의 정신적높이는 사상과 의지, 감정이 하나로 통일되고 어울리여 이루어지는 내면세계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식발전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려면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섬세하게 밝

Digitized by Google

혀내야 한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그린다는것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며 그것이 사람의 사상과 의지, 감정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체험세계를 진실하게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리려면 사람들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속에서 어떻게 강의한 혁명적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적지조를 지키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해나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려면 혁명의식이 싹트고 발전할수 있는 계기, 성격발전의 계기들을 옳게 설정하고 바로 그러한 계기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체험과정을 파고들어 진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문학예술작품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지주의 비인간적만행에 격분하여 한번 맞서 싸우거나 인테리가 로동계급의 시위투쟁을 한번 보거나 한것으로써 곧 혁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투쟁에 나서는것처럼 그려놓는다면 그것은 생활의 론리에 어긋날뿐아니라 사람들에게 혁명가에 대한 옳바른 리해도 주지 못하게 된다.

생활을 통해 인물의 체험세계를 깊이 파고들지 않고 사건만을 따라간다면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없으며 성격성장과정도 의의깊게 펼쳐보일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내면세계는 또한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개성적특성이 뚜렷하게 그려야 한다.

사람들의 혁명의식은 그들의 계급적 처지와 환경, 생활체험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이루어지며 같은 생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체험하고 받아들인다. 혁명가의 전형은 그리는데서 세계관형성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인물의 개성적특성과 그가 처하여있는 구체적인 생활조건들을 무시하고 모든 인물들을 한본새로 그려서는 안된다.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려면 반드시 개성적인 특성들을 모나게 돋구면서 성격의 본질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는 또한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라는 과정에 겪게 되는 우여곡절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히였다.

혁명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비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결심만 하면 능히 할수 있는것이지만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수양을 쌓는 일은 결코 쉽게 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거쳐 혁명가로 자라나지만 이러저러한 곡절이 없이 스스로 혁명가로 되는 법은 없다. 또한 한번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여 한생을 혁명가로 깨끗이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혁명투쟁에서 있을수 있는 우여곡절을 대담하게 보여주면서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혁명가로 자라는 복잡한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사람들에게 혁명적 의지와 신심을 키워줄수 있다.

주인공의 우여곡절에 찬 성장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또한 예술적흥미를 돋구는데서도 큰 작용을 한다. 곡절많은 주인공의 운명선에는 극이 있기 마련이며 극이 있어야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킬수 있다.

실로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인공의 형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독창적인 리론으로서 혁명적문예사상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로 하여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그

Digitized by Google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2페지)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로 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창조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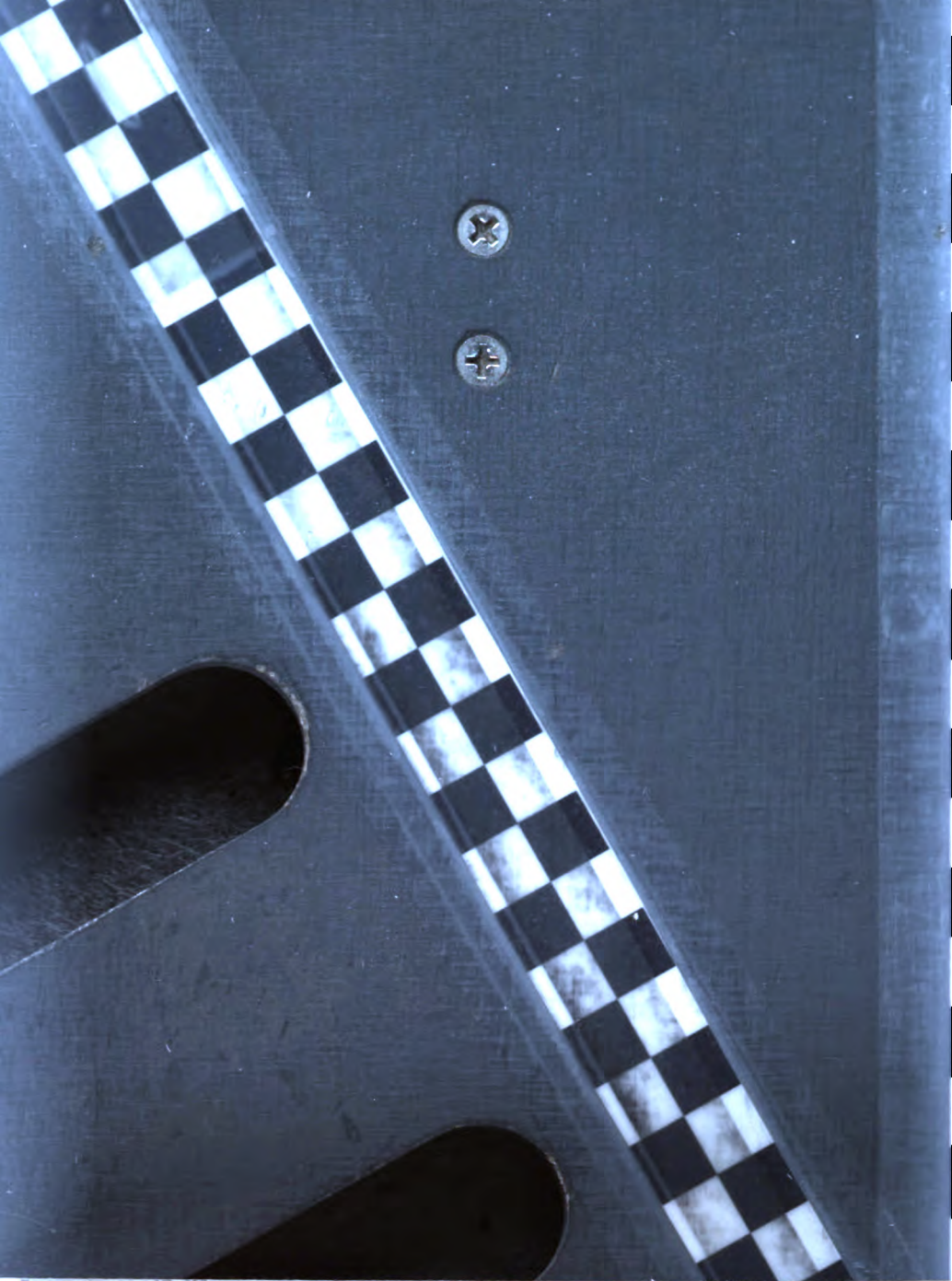
나라와 민족의 발전면모는 물질적부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적측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먼저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정신력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그대로 그 시대의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의 형상속에 반영되게 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웅적인민, 그처럼 짧은 력사적기간에 가난하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운 우리 인민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시대의 찬란한 현실을 영원히 력사에 아로새겨놓았다.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면 주체형의 인간, 그것은 인류의 숭고한 리상을 체현한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으로 된다.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인공들은 그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상한 풍모로 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진리를 가르치주고있으며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수로 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은 무엇보다도 혁명전사는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 하는 참된 혁명적수령관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시기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작들인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와 《두만강지구》, 《근거지의 봄》,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혁명투사들의 빛나는 형상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자라난 이들은 한결같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주체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다.

조선혁명의 길이 처음으로 개척되던 그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수령님을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가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예술영화 《조선의 별》의 주인공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빛나는 형상은 혁명전사는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수령을 모시고 받들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혁명투쟁의 근본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준다. 이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생사를 같이하고 시련의 고비들을 함께 넘어야 하는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있으며 죽어서도 수령님의 길을 떠날수 없다는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자라나는 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은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도 감명깊게 그려졌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주인공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특히 작품의 한 주요인물인 류현민이 쓴 글에서 가장 가슴뜨겁게 그려져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는 그 글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여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걸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라고 절절하게 흠모의 정을 담아 쓰고있다.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뿌리내려지고 공고발전되였는가를 의의깊게 보여주고있으며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나날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그 절절한 념원과 신념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도록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정신세계를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이나 제국주의침략자를 쳐부시는 혁명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로동과정에서도 형성발전된다. 따라서 혁신과 창조로 들끓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 때 그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생동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
활을 끊임없이 탐
신세계를 파고드
있고 사상예술성이
을 창작하기 위한
다.

예술영화 《열네
심장》이 그처럼 시
시키는것도 바로
서 끊임없이 완성
숭고한 정신세계를
형상한데 있다.

예술영화 《청춘
3대혁명소조원 채
자기 개인만을 위
죽은 심장이며 오
을 당에 바칠 때
할수 있다는 심오
밝혀내고있다.

당이 파견한 혁
뒤로 물러설 자리
조가 뒤걸음치면
다는 채숙의 뜨거
얼마나 사람들의
는것인가!

우리 문학예술
과들은 혁명적세
이있게 그림으로
쟁의 본보기로
창조할데 대한 우
예방침의 정당성
여준다.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을 계속 철저히
작가, 예술인들
중요한 과업으로

우리의 작가,
를 높이 받들고
빛나게 구현해
주체사상화에 적
의자들의 전형을
우리 당이 펼쳐
를 더욱 찬란히

Digitized by Google

간에 대한 사랑,
적복무정신을 충
과 다감한 감성,
대한 비타협성,
의 의지와 비범
룡한 자질들이 결
위대한 수령님의
고있다고 하면서
선의 피어린 력
일무이한 걸출한
놀라지 말라!
르는 김일성동지
군이다.》라고 절
아 쓰고있다.
통하여 우리 문
신념이며 의지인
충성심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의의
간고하고 준엄한
산주의자들이 지
과 신념 그대로
우러러모시고 주
을 위하여 대를
길을 걸어나가도
들을 힘있게 고

정을 깊이있게
이 빛나게 구현
술은 또한 우리
혁명전위들과 숨
인간학의 높은
심오하게 반영할

판은 착취사회를
나 제국주의침략
을 진행하는 파
을 정부하고 경
창조적로동과정
따라서 혁신과
위대한 현실과
활을 반영하는 문
들의 혁명화, 로
게 그릴 때 그것

된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새로운 생활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드는것은 철학적깊이가 있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과 《청춘의 심장》이 그처럼 사람들을 뜨겁게 격동시키는것도 바로 자신을 충성의 한길에서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풍부하고 깊이있게 형상한데 있다.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은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 채숙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개인만을 위해 고동치는 심장은 죽은 심장이며 오직 자신의 모든 심장을 당에 바칠 때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의의있게 밝혀내고있다.

당이 파견한 혁명전위인 자기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3대혁명소조가 뒤걸음치면 혁명이 뒤걸음치게 된다는 채숙의 뜨거운 심장의 웨침은 그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로 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보다 훌륭히 창조하여 우리 당이 펼쳐준 주체예술의 대화원에를 더욱 찬란히 빛내여나갈것이다.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과 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김 병 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대자연개조사업에 떨쳐나설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자연개조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연개조분야에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다.

자연개조사업이란 사람들에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한것으로 만들거나 자연의 맹목적힘을 유리하게 복종시켜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연조건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는데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되게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4대자연개조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강령이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이 방침이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에서 공산주의원칙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식량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이며 이 문제는 중요하게 농업발전에 의하여 해결된다.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며 농업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현실은 식량 및 농업생산 문제가 사회주의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먹는 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에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금 적은 부침땅면적을 가지고도 먹을 걱정을 모르고 유족하게 살아나가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쌀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제일 중요할뿐아니라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도 제일 중요하다.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벌릴수 없으며 또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없다.

일찌기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쌀은 곧 공산주의

Digitized by Google

그는 그 글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여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은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걸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라고 절절하게 흠모의 정을 담아 쓰고있다.

바로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인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뿌리내려지고 공고발전되였는가를 의의깊게 보여주고있으며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의 나날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그 결곡한 념원과 신념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의 한길을 걸어나가도록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고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또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 영웅들의 정신세계를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서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투쟁이나 제국주의침략자를 쳐부시는 혁명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창조적로동과정에서도 형성발전된다. 따라서 혁신과 창조로 들끓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 때 그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생동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당이 밝힌바와 같이 새로운 생활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드는것은 철학적깊이가 있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과 《청춘의 심장》이 그처럼 사람들을 뜨겁게 격동시키는것도 바로 자신을 충성의 한길에서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풍부하고 깊이있게 형상한데 있다.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은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 채숙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개인만을 위해 고동치는 심장은 죽은 심장이며 오직 자신의 모든 심장을 당에 바칠 때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의의깊게 밝혀내고있다.

당이 파견한 혁명전위인 자기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3대혁명소조가 뒤걸음치면 혁명이 뒤걸음치게 된다는 채숙의 뜨거운 심장의 웨침은 그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의 본보기로 될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보다 훌륭히 창조하며 우리 당이 펼쳐준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찬란히 빛내여나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과 당 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김 병 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대자연개조사업에 떨쳐나설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으며 올해 신년사에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과 태천발전소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자연개조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연개조분야에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다.

자연개조사업이란 사람들에게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한것으로 만들거나 자연의 맹목적힘을 유리하게 복종시켜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연조건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는데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되게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4대자연개조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강령이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여 방점이 나라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에서 공산주의원칙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식량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이며 이 문제는 중요하게 농업발전에 의하여 해결된다.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키며 농업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현실은 식량 및 농업생산 문제가 사회주의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먹는 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에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그리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금 적은 부침땅면적을 가지고도 먹을 걱정을 모르고 유족하게 살아나가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쌀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제일 중요할뿐아니라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도 제일 중요하다.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벌릴수 없으며 또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없다.

일찌기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쌀은 곧 공산주의

Digitized by Google

라는 새로운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먹는 문제에서부터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산주의원칙을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고 새땅을 많이 찾아내여 부침땅면적을 훨씬 늘이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농법이 관철되여 알곡 정당수확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에서 간석지와 새땅을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부쩍 늘여야 인구의 장성에 따르는 식량수요와 빨리 발전하는 경공업과 축산업에 요구되는 원료와 먹이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알곡예비를 더 많이 마련할수 있다.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으면 여기에서만 해도 우리 나라는 해마다 수백만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게 되고 알곡예비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앞으로 먹는 문제에서 공산주의시책을 실시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된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은 또한 국토를 넓히고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위대한 강령이다.

나라의 자연을 전망성있게 개조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조국강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사람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개조할뿐아니라 자연을 개조하여야 한다.

자연은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환경을 이룬다. 자연을 적극 개조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을 막아내고 자연환경을 사람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개조해나가야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웅대한 4대건설과업은 국토를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조국의 지도를 새롭게 변형시켜 우리 인민에게 끝없이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는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목표가 점령되면 서해안일대에는 륙지로부터 바다쪽으로 국토가 더 넓어지게 되면서 수천년 내려오던 우리 조국의 지도는 새롭게 변형될것이다. 또한 남포갑문이 건설되면 평안남도, 황해남도 일대의 개간될 간석지와 이미 있던 수많은 관개면적에 필요한 물이 해결되며 대동강과 재령강 하류의 수만정보의 농경지가 잔물과 해일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간석지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식대로 건설하는 대천발전소가 완공되면 그 어떤 왕가물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여 우리 나라 서부지구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뿐아니라 서북부내륙지대의 강줄기들이 종합적으로 리용되고 광활한 인공호수들과 저수지들, 수백리에 달하는 운하와 같은 큰 수로가 새로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지대에서 양어업과 수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훌륭한 전망을 열어주게 될것이며 심한 가물이 계속되여도 평안북도일대의 간석지물을 넉넉히 보장할수 있게 되고 대령강물을 다스려 태천, 박천, 운전 지구일대의 농경지가 영원히 큰물피해에서 벗어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이 새롭게 제시한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방침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가 4대자연개조사업을 잘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고무를 주고 그들을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다.

또한 우리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예비를 많이 가지고있어야 조국이 통일된 다음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히 공급하고 그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국토를 넓히고 조국강산을 인민들의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휘황한 설계도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현명한 방침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평안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를 위한 4대전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4대자연개조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데서 평안북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평안북도에서 진행되는 간석지건설전투는 현재 도의 논면적과 맞먹는 방대한 부침땅을 새로 얻어내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지난 기간 평안북도당위원회는 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

지난 기간 자연개조사업에서 평안북도가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은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고 그들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조직동원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특히 지방들에서 당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도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인간개조사업과 함께 자연개조사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의 하나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라는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자연개조사업에 대한 당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이 옳은 집행대책과 방도를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당위원회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대자연개조사업도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립장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대책과 방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우리는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당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회의들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을 당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광범히 토의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우선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앞으로 개간될 간석지와 새땅, 태천발전소공사 대상에 대한 현지답사를 조직하여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간석지개간과 새땅찾기, 태천발전소건설을 위한 대책을 과학적으로 세웠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는 건설대상들을 조사장악하는데서 건설대상주변의 실정, 교통운수조건, 공사에 필요되는 흙과 돌 원천, 설비 및 동력, 부재생산 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호상련관속에서 면밀히 조사장악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건설의 선후차와 중심고리, 과학적인 력량편성계획, 자연개조사업의 당면목표와 전망목표, 단계별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세워가지고 광범한 토의를 거쳐 도의 실정에 맞게 건설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에 대한 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에서 우리가 모름박은것은 자연개조사업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한것이다.

모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개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4대자연개조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거창한 사업이다.

도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자연개조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이 당의 4대건설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날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대주면 더 좋고 안대주면 자기 힘으로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게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지난 시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은 처음에는 자체의 힘으로 소철레루를 놓고 뜨락또르광차를 끌다가 그다음에는 뜨락또르엔진으로 견인광차를 만들어 돌과 흙을 날라 간석지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갔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야만다는 이러한 높은 자각을 가지고 대자연개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우리는 선전선동사업도 자연개조투쟁의 성격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바다에서 경제선동을 벌려야 할 구체적조건에 맞게 방송차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바다우에서 경제선동을 벌리기 위한 방송배를 만들어 바다우에 띄우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을 적극 고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았던 외진 섬과 간석지건설현장에 현대적인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보내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렸다.

경험은 일군들이 생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생산자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자연개조사업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술문화혁명수행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자연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연의 힘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자면 위력한 기계기술수단들과 자연개조에 필요한 과학지식을 가져야 하며 과학적인 건설공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연개조사업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며 자연개조투쟁에서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30만정보간석지개간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새로 넓은 령토를 얻어내는 간석지개간은 바다와 싸워야 하는 어려운 전투이며 자연환경을

변경시키는 거창한 사업이므로 간석지개간사업에 기술혁신을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이고 진행하게 되는 간석지개간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이로부터 도당위원회는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연개조사업에서 기술혁신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당적관심을 높이며 그것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였다.

우리는 자연개조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 한편 해당 기업소 건설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지난날의 부선보다 5배이상의 수송능력을 가진 자동부림배와 30톤급 대형광차, 배굴착기들을 더 많이 만들며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여 자연개조사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는 기술자들이 대자연개조투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지혜를 다 바치도록 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생산자들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는 기계, 선박, 채취, 설계 부문 기술자들과 발파전문가들의 협의회를 여러번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40만산대발파를 해제껴 단번에 수천정보의 대계도간석지를 막는데 필요한 막돌량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돌실는 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할수 있는 콘베아식상선대와 종전보다 2~3배의 굴착능률을 가진 팔이 긴 굴착기를 창안제작하며 부선굴착기의 바가지를 대형화하는 등 대자연개조투쟁에서 새로운 기술적혁신을 이룩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에서 주기로 되여있는 일부 기계설비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도 평안북도가 맡은 간석지건설계획을 1년이나 앞당기면서 1만 2,500정보의 간석지를 더 개간할수 있는 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설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과학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자연개조사업을 벌리며 주어진 작업조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앞선 건설공법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하였다.

경험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높은 기술이 안받침되여야 자연개조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작전과 지휘,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0페지)

대자연개조를 위한 공사 방향과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기가 충천한 조건에서 건설을 얼마나 빨리 다그치는가 하는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이 작전과 지휘,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깐지게 짜고드는가에 달려있다.

작전과 전투지휘를 잘하여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것처럼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작전과 지휘를 잘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해야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연개조사업을 담당한 모든 행정경제일군들이 언제나 당의 의도대로 목표를 높이 걸고 통이 크게 궁리하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여기에 능숙하고 령활한 지휘와 면밀한 행정경제조직사업을 안받침해나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도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이 자연개조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 경제조

직사업을 잘하도록 적극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었으며 자연개조를 위한 정연한 지휘체계를 세우고 포치한 사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행정규률도 세워줌으로써 행정경제일군들의 자립성과 창발성, 책임성을 더욱 높이였다.

우리는 방대한 작업량에 비하여 공사기일이 짧은 조건에서 년차별로 빨리 할수 있는 대상부터 힘을 집중하여 해제끼며 공사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작업조건을 잘 마련하여 일단 시작한 대상은 반드시 계획된 기일안에 끝냄으로써 농업생산에 적극 리용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 달려나가 로동자들과 같이 새해 첫전투를 벌린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은 대담하게 바다를 단번에 막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대계도간석지 마감막이공사를 단번에 해치울 통이 큰 작전밑에 행정경제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듦으로써 건설자들이 270만산대발파준비에서 종전보다 6배의 작업능률을 올리는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또한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적 지도방법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현장에 늘 내려가 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자연개조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특히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지도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관철을 위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며 설비관리, 로력관리, 자재관리, 재정관리, 협동생산 등 제반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4대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내용과 규모의 방대성에 있어서, 그 건설속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있어서 류례없이 높은 목표인 4대건설과업을 우리 당의 의도대로 전격적으로 내밀어 빨리 끝내자면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며 인민경제의 모든 단위, 모든 부문에서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일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전군중이 동원되여 이 사업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할 때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낼수 있으며 제기된 온갖 난관들과 걸린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도당위원회는 지난 시기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체 군중이 발동되여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둔것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4대건설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나서도록 하였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대자연개조전투는 그것을 맡은 몇몇 건설기업소들이나 일군들만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가 주인다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 전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였다.

대자연개조전투를 지원하는데서 도당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토지건설사업소 등 자연개조사업을 담당한 전문기관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그 기업소들이 제발로 걸어갈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적극 지원하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 기업소들이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이 기업소의 선박진조수리기지, 채석기지, 부재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자재를 지원하도록 모를 박았다. 그리고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자체의 이러한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기전까지는 이 기업소가 자체로 해

Digitized by Google

결하기 힘든 기계설비들과 기타 기술적 수단들을 도안의 기관, 기업소들이 달라붙어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간석지개간에 필요한 각종 소공구들과 부속품들도 대중적운동으로 만들어 매개 단위마다 한달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세웠다.

우리는 도경제지도위원회와 지방당, 정권기관 일군들이 대자연개조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무조건 제때에 보장하도록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매개 단위들에서 일군들이 자기 부문 생산전반을 틀어쥐고나가면서도 자연개조사업을 위하여 자기 단위에 분공된 지원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조직사업으로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게 하였다.

오늘 도안의 여러 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당의 요구대로 간석지개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으며 생산을 부쩍 늘여 대자연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자재들, 여러가지 물자들을 제때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의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신의주시내 기관기업소들에서는 간석지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동원사업을 잘하여 짧은 기간에 여러대의 굴착기와 고속도굴진기, 기계부속품들을 계획외에 더 생산하여 간석지건설장에 보내주었으며 경공업부문 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증산하여 간석지건설자들에게 실어다주었다.

또한 우리는 새땅찾기에서 규모가 큰 대상들은 토지건설사업소들을 조직하여 전문기업소가 맡아 건설하게 하면서 작은 규모의 대상들은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맡아 군중적운동으로 개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안의 여러 부문 기관, 기업소들에서 해마다 농사일을 돕듯이 한개 대상씩 맡아 새땅찾기를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난 기간 도당위원회가 대자연개조를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한 결과 우리는 자연개조투쟁을 판이 크게 벌릴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몇달동안에 제방공사작업도 많이 추진하여 능히 올해에 예견한 간석지공사를 초과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새땅찾기도 힘있게 추진하여 최근 몇달동안에 이미 근 1,600정보의 새땅을 개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험은 당의 의도대로 각급 당조직들이 대자연개조전투를 당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힘있게 벌려 그것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4대자연개조과업수행을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해전투가 시작된 지금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조국의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대담하고 통이 큰 설계도이며 이것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곧 우리 당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높은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의 독창성과 위대성, 전군중적운동으로 대자연개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하고 대자연개조전투를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

유 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건설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에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공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옳게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공업은 로동도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생산해내는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이다.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은 중요하게 공업의 발전정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속도가 규정되게 된다.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공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옳게 세워야 한다.

공업지도체계를 옳바로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공업지도체계를 바로세워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공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는 결코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그것은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공고발전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지도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켜 아래를 똑똑히 장악하며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경제의 규모는 전례없이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지며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적련계도 대단히 복잡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면 일군들이 경제지도에서 주관주의적, 관료주의적 오유를 범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것을 불가능한것으로 단정하고 경제

Digitized by Google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과 기업소들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를 약화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것이며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저버리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아래를 철저히 장악할수 있도록 경제지도체계를 옳바로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새로운 환경은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공업지도체계를 개선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공업지도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함께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들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를 세우심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해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업지도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신년사》, 1982년 1월 1일, 단행본,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지난날의 경제지도체계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들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지역별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부문별지도를 옳게 결합시키고 있는데 있다.

지역별지도와 부문별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지역별표징에 의한 경제지도체계와 생산기술적표징에 의한 부문별경제지도체계는 서로 다른 우점을 가지고있다.

지역별표징에 의한 경제지도체계의 우점은 지도를 현지에 접근시키며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반면에 부문별표징에 의한 경제지도체계는 해당 부문의 생산기술적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도와 기술지도를 심화시키고 중요한 공업부문들과 기업소들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별지도와 부문별지도를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지역적표징에 의하여 조직된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다 틀어쥐고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하며 도의 공업생산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리고 정무원의 부문별공업위원회들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맡아 지도하지 않고 자기 부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경제기술문제들을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잘 풀어나가도록 방조한다.

이것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지역별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부문별지도를 옳게 결합시킨 경제지도체계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생산기술적표징에 의하여 조직된 정무원 위원회, 부들이 자기 맡은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틀어쥐고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하던 지난날의 공업지도체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특징은 또한

Digitized by Google

그것이 공업에 대한 지도에서 전망적인 문제와 당면한 문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경제지도체계이라는데 있다.

경제발전의 전망적인 문제와 당면한 문제를 다같이 틀어쥐고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경제지도의 전과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건설의 전망적인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에 따라 나라의 경제를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반대로 경제건설과정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지 않게 되면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속도를 이룩해나갈수 없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정무원의 부문별 공업위원회들이 생산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복잡한 현행사업에서 많이 벗어나 전망계획에 대한 연구사업,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사업, 생산에 대한 기술준비사업과 같은 공업발전의 전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리고 생산과제수행을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문제들은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직접 맡아 수행하는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풀어나가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업에 대한 지도에서 전망적인 문제와 당면한 문제를 독특한 방법으로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것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지난날의 공업지도체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경제지도분야에서 당적지도체계와 행정기술적지도체계를 일치시킨 경제지도체계이라는데 있다.

지난날의 공업지도체계에서 공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지역별로 조직된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 의하여 실현되였으며 행정기술적지도는 생산기술적표징에 의하여 조직된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도당위원회들이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당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있었으나 거기에 행정기술적지도체계가 안받침되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편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말은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행정기술적지도를 실현할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있었지만 그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안받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도별로 경제지도위원회들이 조직됨으로써 경제지도분야에서 공업에 대한 당적지도체계와 행정기술적지도체계가 일치되게 되였다. 도경제지도위원회가 행정적으로는 정무원에 직속되여있으면서 당적으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하는 여기에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지난날의 공업지도체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이와 같은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고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경제지도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한다는것은 그에 구현되여있는 원칙적요구들을 관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이다. 그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지도

Digitized by Google

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여 객관적경제법칙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러한 원칙적요구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러한 원칙적요구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의 기초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 일관되고있는 기본사상은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것이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정무원에 직속되여있는 도경제지도위원회가 도안의 공업생산전반을 조직지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지도 력량과 수단들이 실지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현지에 최대한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정무원이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 있는 도경제지도위원회를 직접 대상하여 공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실현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이처럼 공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킴으로써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

생산조직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아래를 똑똑히 장악하며 협동생산을 옳게 조직하는것이다.

경제지도에서 아래를 장악한다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늘 환히 꿰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래를 똑똑히 장악하여야 생산지도에서 주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산 지도를 줄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지도기관의 지도적권위를 높여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울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생산조직을 객관적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이 경제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생산지휘에 복종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현지에 접근되여있는 도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이 늘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생산자들과 사업하며 그들에 의거하여 생산의 실태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준다. 그리하여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또한 협동생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한다.

협동생산은 사회적생산조직의 기본형태의 하나이며 그것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경제지도기관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된다. 협동생산을 바로 조직하지 못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협동생산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의 전문화가 끊임없이 심화되여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경제지도기관일군들이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생산과 수요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그것을 밑으로부터 올라오면서 현실성있게

Digitized by Google

세부적으로 맞물림으로써 협동생산을 빈틈없이 과학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또한 지역적표징에 의하여 조직된 도경제지도위원회들에 의하여 협동생산이 조직되므로 지역안의 협동생산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지역안에서 해결할수 없는것에 한하여 다른 지역과의 협동생산을 조직하게 된다. 이것은 역수송과 반복수송, 원거리수송과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고 수송조직을 합리화할수 있게 하며 협동생산의 수속절차에서의 번잡성을 없앰으로써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가장 성과적으로 조직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야말로 경제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공업지도체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다.

여기에서 기본은 중앙의 통일적지도,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로동계급적원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없으며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도 없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경제지도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으며 지방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생산에 대한 지도를 바로해나갈수 없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공업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였으며 그것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고르롭게 배치된 오늘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과 중앙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문제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이 절실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혁명적인 경제지도체계이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 생산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기능은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담당수행한다. 그런데 도경제지도위원회는 지방정권기관에 소속된 지방경제지도기관인것이 아니라 정무원에 직속되여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자기 활동을 전개하는 경제지도기관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직접 현지에 접근하여 경제지도를 실현하는것으로 된다.

도경제지도위원회는 또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그러므로 도경제지도위원회는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에 엄격히 의거하여 자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도경제지도위원회에 의한 지역별지도가 정무원 부문별공업위원회들에 의한 부문별지도와 결합됨으로써 지방본위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또한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도앞에 맡겨진 경제과업을 자체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경제지도체계이다.

경제지도에서 지방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자면 지방들에 지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맡아 지도할 권한을 주어야

Digitized by Google

하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경제지도력량과 그밖에 필요한 수단들과 조건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지방들에 지역안의 공장, 기업소를 맡아 지도할 권한을 준다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맡아 조직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완전히 책임지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방들에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 지방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맡겨진 경제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게 할수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당의 통일적인 지도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밑에 도가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경제지도체계로서 공업생산에 대한 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도경제지도위원회는 우수한 경제지도력량으로 구성되여있으며 도안의 공업생산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할수 있게 기구체계를 갖추고있다.

이것은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맡겨진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원만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한 우월한 경제지도체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행정적지도와 당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하는데 있다.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행정적지도와 당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경제지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다. 이 요구를 옳게 실현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모든 문제를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옳게 조직하고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정치사업을 통하여 앙양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킬수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을 지도하는 당적지도체계와 행정기술적지도체계를 도를 단위로 하여 일치시키고 도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적, 정치적 지도와 행정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중앙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경제지도분야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잘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공업지도체계이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를 관철하는 여기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더욱 큰 앙양을 일으키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

Digitized by Google

법을 개선하여 경제지도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0~11페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도경제지도위원회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가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도경제지도위원회 일군들은 늘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 정무원 위원회, 부들 앞에는 매우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정무원 위원회, 부들은 기술지도사업과 설비, 자재를 공급하고 조절하는 사업, 협동생산을 맞물려주는 사업, 전망계획을 연구하는 사업과 같은것을 맡아 수행하면서 도경제지도위원회들을 적극 도와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경제지도체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광범한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위력은 경제지도를 현지에 접근시키고 아래를 철저히 장악한데 기초하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며 모든 지방, 모든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이러한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각급 당조직들 특히 도당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도들에 지워져있는것만큼 도당위원회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경제정책과 그것을 구현한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세우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당정책집행정형을 철저히 장악통제함으로써 도앞에 나선 경제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 잘 관철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경제지도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숭고한 임무

배 의 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면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인류사회에 계급이 발생하고 빈부의 차이가 생겨난 때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다 행복한 생활을 충분히 누리는 리상사회를 애타게 그려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이 세기적념원은 결코 실현될수 없었으며 그것은 한갖 리상으로만 남아있을수밖에 없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가 전적으로 그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뿐아니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도 충분히 보장받는다.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물질적부의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며 그러자면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데서 지도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실로 무겁고도 중대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제는 간부가 해결합니다. 간부는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당과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을 내놓아도 간부들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4권, 364페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은 지도일군들을 믿고 그들에게 공장,

Digitized by Google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단위들을 맡겨주었으며 경제를 잘 관리운영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주었다. 지도일군들은 마땅히 당의 이러한 높은 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것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당의 핵심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은 없다.

우리 지도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인민의 충복들이다.

지도일군들은 모두다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다짐하고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다. 지도일군들은 결코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아니라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심부름군들이다.

인민의 충복인 우리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가장 숭고한 임무로 되며 영예로 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결코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마땅히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사람,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지도일군이며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된 지휘관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제기하고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지난날의 중산층이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할 때에라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근본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지난날의 중산층

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지난날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도 동요하지 않고 사회주의제도를 진심으로 지지하게 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신년사》, 1982년 1월 1일, 단행본, 9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준다는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로동보호제와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모성로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로동능력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뿐 아니라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에서 옷을 공급받고있다.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농민들도 국가에서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생활하고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폐지되고 전반적무상치료제와 가장 높은 형태의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금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 등 온갖 근심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록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는 더욱 높아진다. 지금 우리의 근로자들은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래일을 그려보며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질좋은 식료품과 일용필수품들을 더 넉넉히 공급해주고 보다 좋은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보장해주어 그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계속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록 그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느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계속 높이 발휘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기적

Digitized by Google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특히 건설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아가는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주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우리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면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이렇듯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데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 우리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가 마련되여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직한 인민이 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한 경제토대는 대단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 위력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이미 마련된 조건과 가능성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기만 하면 인민들의 복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인민들을 훨씬 더 잘살게 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10페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은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진다는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일군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충복답게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려는 튼튼한 각오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없다. 그 어떤 사리와 공명도 모르고 오직 인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 성실하게 일해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일군이 인민에 대

Digitized by Google

한 옳바른 관점을 가진 일군이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다.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진 일군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식들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기 위하여 애쓰는 어머니다운 심정을 지녀야 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득바득 노력해야 한다.

일군들은 자신이 배부르고 더울 때에도 아래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울수도 있다는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봐준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의 요구와 인민생활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낼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갈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더 높이기 위한 좋은 궁리도 할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상애로를 느끼지 않고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이미 마련해놓은 경제적밑천과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다.

인민들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을 빨리 늘이며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수산업에 힘을 넣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전군중적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계획화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일군들은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밀접해지고 복잡해진 현실에 맞게 농업생산계획과 소비품생산계획을 비롯한 모든 생산계획을 빈틈없이 맞물려야 하며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생산계획과 함께 소비품공급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특히 농촌상점들에 더 많은 상품을 넣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계획화사업을 잘하는 한편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그에 만부하를 걸어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일군들은 화학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금속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농업과 수산업,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소비품생산에 쓸 원료와 자재를 다른데 돌려쓰거나 필요없이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과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재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Digitized by Google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또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면 그만큼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보탬을 줄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영농물자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있는 로력과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있는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해냄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힘있게 밀어주며 경제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20페지)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자면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만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고 농업과 수산업,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지도일군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드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며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지도하는것은 우리의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다.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생산과 인민대중에 대한 공급사업에서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지도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일군들에게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나타나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 온갖 예비를 다 동원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는데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 인민들의 생활상요구가 더욱 높아지고있는 오늘 우리의 지도일군들의 책임은 참으로 무거우며 그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빨리 증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전 금 진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우리 인민의 이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은 의연히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강토에서 같은 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며 참을수 없는 비극이다.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있는 이러한 가슴아픈 현실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과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오직 민족의 단합과 투쟁을 통해서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장래발전을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는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민족자주적인 통일력량을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과 그 거족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느 한 계급, 계층이나 북과 남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이룩될수 없는 거족적성격을 띠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며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을 위한 민족공동의 위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특히 우리 당의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적통일을 위한 방안이며 따라서 그것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전제로 한다. 민족의 합작과 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수 없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평화애호적인 국가로서 통일하자는것이다. 이 방안에는 우리 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가 반영되여있으며 북과 남, 두 지역의 리해관계가 공정하게 고려되여있다.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문제는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그 어떤 소수집단이나 몇몇 특정인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며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수 없다. 련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사업에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하며 온 민족이 떨쳐나서야 한다.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오직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사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이며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념에 기초한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련방국가창립에서 어느 한쪽의 주의주장과 고집, 편견을 없애고 나라와 전체 조선민족의 전반적리익을 도모해나갈수 있게 한다. 특히 민족대단결에 의해서만 련방공화국창립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은 이룩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 조국통일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자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옳바른 립장에 서야 합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는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각이한 세력들이 하나의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단결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된다.

사상과 리념, 정견은 일정한 계급의 립장과 리해관계의 반영이며 각이한 계급들사이의 사상과 리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는 계급적립장과 리해관계에서 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실현하는데 앞설수 없다. 각이한 계급, 계층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리념, 정견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 바탕을 두고있는것만큼 응당 나라와 민족을 먼저 놓고 생각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떠난 사상과 리념이란 한갖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이 없이는 도대체 사상이나 그에 기초한 제도와 정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따라서 각이한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은 서로 자기의 사상과 리념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그것을 민족적념원을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더우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통일을 이룩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각이한 사상과 리념을 신봉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고집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그것이 하나의 사상과 제도로 바뀌여질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가지고있는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만을 내세울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립장에 선다면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민족의 통일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언어와 문화, 풍습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의 테두리안에서 단란하고 화목하게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소수민족도 없으며 우리 민족은 언제나 자기의 단일성과 고유성을 보존하여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모두가 다 조국통일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날이 가고 해가 바뀌울수록 더욱더 통일을 절절히 바라고있다. 우리 민족모두에게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이 절절한 념원은 나라의 일시적분렬로 하여 생긴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더 귀중한것이며 또 그것은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공고한 기초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민족적공통성을 살리고 하나의 민족적리념을 내세운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민족대단결을 실현할수 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당파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민족의 통일을 저애하는 조건으로 될수 없다.

물론 한나라안에 유일적인 하나의 제도가 존재하는것은 리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만 될수 없다.

한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

사실 한나라안에서 사람들사이의 단합과 통일을 저애할수 있는 요소로서는 사상이나 제도만이 아니다. 언어, 인종, 신앙의 차이 같은것도 각이한 동기에 대립과 충돌을 빚어내는 요인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 나라안에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것으로 하여 일시 풍파와 우여곡절을 겪을수는 있으나 그보다도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각이한 민족들과 인종, 서로 다른 신앙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단합하여 함께 살아가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립장에 선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는 또한 사상과 리념,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한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다.

해방후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1948년에 있었던 4월남북련석회의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견을 가진 56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견을 가지고있었지만 분렬의 위험에 직면

Digitized by Google

한 조국의 운명과 그리고 력사와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로 하여 민족공동의 리념에 기초하여 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던것이다.

지난해 11월 오지리에서 진행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는 오늘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었다.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에 참가한 동포들로 말하면 지난날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였던탓으로 하여 북과는 단결합작할수 없는것으로 생각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동포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것을 깨닫고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에서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손을 잡을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용약 우리와 합작단결하는데로 떨쳐나섰던것이다. 이것은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가 단결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으며 오직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립장에 선다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한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살려나간다면 능히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을 위한 사업은 그 기초와 현실적가능성을 가지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야 하며 민족공동의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민족대단결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대련합을 이룩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력량편성에서 분렬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게 한다.

민족대단결이 실현되여 해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면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으로 될것이다.

민족대단결은 민족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동시에 통일을 반대하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게 된다.

분렬세력을 고립약화시키야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미제는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매국분렬세력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와 간섭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때문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사람들이 굳게 단결하여 놈들에게 공동으로 압력을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안팎의 분렬세력이 발붙일수 있는 사회정치적지반을 없앨수 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

이처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온 민족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 강력한 민족주체적력량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마련하여준다.

오늘 북과 남, 해외동포들 앞에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야 할 매우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세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청산하고

Digitized by Google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없애며 민족적 단결과 화목을 이룩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됨으로써만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통일운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사업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의 사회정치적환경은 인민들이 련방국가창립을 위한 애국사업에 자유롭게 나설수 없게 되여있다.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가장 가혹하고 파렴치한 군사파쑈통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지향하는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와 비호밑에 음모적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살인악당은 남조선에서 민주와 통일운동의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교살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온갖 치떨리는 살인만행과 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살인악당 전두환파쑈도당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은후 남조선에서는 민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으며 온 남녘땅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더욱더 전변되였다.

남조선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야수적인 인간살륙만행과 파쑈적탄압책동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는 인민들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참다운 애국사업에 발벗고나설수 없으며 민족내부의 화목과 단결이 이루어질수 없다. 때문에 남조선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련방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면 전두환군사파쑈악당을 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고있는 각종 파쑈악법들을 페지하고 극악한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해야 한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여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근원이 없어질 때에만 북과 남의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남조선괴뢰들이 감행하고있는 반공대결정책이 중지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남조선에서 반공이 아니라 련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전두환괴뢰도당은 우리의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외면하고 《2000년대통일론》을 들고나오면서 반공, 《멸공》소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이 떠벌이는 《2000년대통일론》은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뒤받침밑에 《실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며 저들의 권세욕과 부귀영화를 추구하자는것이다.

한편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은 최근에 《팀 스피리트 82》라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조선에서 평화를 교란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전두환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모든 반공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대련합을 실현

Digitized by Google

(정기간행물 번호
제 3 2 0 6 호)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JUN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제 4 호 (480)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새시대를 개척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벗어났으며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을 없애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참다운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사상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랜 기간의 간고하고 영광에 찬 투쟁로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 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마련될수 있다는것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투쟁과 생활의 위대한 진리로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며 우리 인민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히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다.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예속과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온 강토가 일제의 총칼밑에 짓밟혔던 그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말그대로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

한 리론과 전략전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의 본질과 그 력사적지위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폐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옳게 밝히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총적방향과 목표를 밝히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을 없애야 하며 그러자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라는 본질적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변혁의 구체적 내용과 과업, 그 력사적지위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된다.

민족해방투쟁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계급해방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어느 한 사회적변혁의 단계만을 거쳐서는 그 종국적승리가 이룩될수 없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의 순차적인 혁명발전단계를 거쳐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의 본질과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그 매 혁명단계에서의 전략과 전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를 똑똑히 알고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민족해방을 이룩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민족적 억압과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족적예속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근본요인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모든 나라들은 생겨날 때부터 자주권을 가지고있다.

민족의 자주권은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것처럼 민족의 생명을 이룬다. 자주권이 없는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다.

특히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는것은 계급적예속을 청산하고 인간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선결조건으로 된다.

민족적예속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당하게 되는 계급적 착취와 압박, 민족적 멸시와 불평등을 낳는 사회적근원이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질곡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새롭게 규정하시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민족해방의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민족, 식민지 문제의 본질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 무장투쟁과 전인민적항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민족해방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에 관한 문제, 새로운 정권형태로서의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문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해방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전략전술적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인간에 대한 온갖 계급적 착취와 예속을 청산하고 완전한 계급해방을 이룩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착취계급사회에서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온갖 인격적인 멸시와 모욕을 받으며 사회가 침체상태에 빠져 발전하지 못하는것은 결국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해방을 이룩할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계급적예속을 청산하는 과업은 민족적예속을 청산하는 과업과 서로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착취계급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착되여있는것만큼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국내 봉건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은 바로 식

Digitized by Google

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해방과업과 계급해방과업을 밀접히 결합시키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토지혁명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을 수행할데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들이 제국주의적,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지체함이 없이 사회주의혁명에로 계속 이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계급해방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원리에 기초하시여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한 다음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수탈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개조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밝히심으로써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가지다주는 쓰라린 진통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참다운 길, 완전한 계급적해방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앨뿐아니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을 없애고 인간해방의 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며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됩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페지)

인간해방의 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그들이 낡은 사상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과업이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인간해방의 과업은 사상, 기술, 문

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혁명문제를 새롭게 해명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계속하여 인간해방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학설을 마련해주시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우리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해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상대로 하는 두 차례의 매우 간고한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민족해방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반혁명적무력에 의거하여 계급적지배를 확립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며 자기의 반혁명무력이 완전히 격파되기전에는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64~16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20여성상에 걸치는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난의 력사를 겪고있던 때에 무장투쟁만이 식민지민족의 해방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일대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강도 일본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고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승리,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위대한 사변이였다.

1950년대초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실로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우리 인민이 피로써 찾은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혹한 시련이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Digitized by Google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적통치와 봉건지주의 계급적착취와 압박이 겹쳐있었던 지난날의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형편을 과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지탱하기 위하여 예속자본가들과 봉건지주들을 앞잡이로 리용하였고 봉건지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봉건적착취관계를 보존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일제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투쟁과의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수행되여야 하였다.

일찌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적과업과 반봉건적과업을 다같이 수행하여야 했던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해방후 제때에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세우시고 토지혁명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시여 새 사회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고 공화국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곧바른 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지만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다 없애지는 못한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온갖 계급적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그리하여 지난날 온갖 민족적 멸시와 수모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인 참다운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의 손에 틀어쥐고 정치적자주권을 떳떳이 행사하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 전후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계급해방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거창하고 심각한 두 단계의 혁명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조사업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기술혁명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적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과업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과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71페지)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간이 자연의 맹목적힘을 복종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사회에서나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로동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것이지만 착취계급사회에서는 그것이 고되고 힘겨운것으로 되여왔다.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근로인민대중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혁명에서는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이 기본혁명과업으로 된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과 함께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 주되는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로동이 그들자신을 위한것으로 되지만 근로대중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아직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근로인민대중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벗어나게 하는 인간해방의 과업으로 새롭게 규정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새 사회 건설이 시작되던 첫 시기부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Digitized by Google

되으며 근로자들은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날로 늘어나는 그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여 우리 인민을 낡은 생활양식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457페지)

문화혁명은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과학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가려는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한다면 자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혁명은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인간해방위업의 주요구성부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에서 교육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밝혀주시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후대교육사업,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벌리며 문화혁명을 가일층 심화시킬수 있는 획기적계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한데 기초하여 문화혁명의 최종단계의 과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지식수준을 대학졸업정도로 높여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정신로동을 하는 인테리들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게 함으로써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로동의 온갖 차이를 없애며 사람들이 일을 헐하게 하고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려면 생산을 고도로 자동화하는것과 함께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문화분야에서까지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근본적

으로 달라졌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교체하며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은인이실뿐아니라 낡은 사상, 낡은 기술, 낡은 문화에서까지 우리 인민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인간해방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로 자주의 새시대를 빛나게 개척하시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우리 조국이 무궁토록 번영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0폐지)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간해방의 위대한 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생소한 사업이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위업이 수행된 다음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야만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 유물들을 없앨수 있으며 인간해방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만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전망, 명확한 방도를 가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이 성스러운 임무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높은 령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인간해방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확고히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할수 있는 참다운 길이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의 력사적지위와 특징

황 장 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우월성은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력사적시대,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 력사를 전진시켜왔다. 그러나 력사발전의 매 단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같은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으며 이에 상응하게 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왔다. 이것은 이미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사회주의사회에 이르는 인류사회발전과정이 확증해주고있다.

인류력사발전에서 로동계급의 출현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은 과거의 모든 근로계급들과는 비할바없이 높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하고있으며 강한 조직성과 단결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출현한 첫시기에 그들은 아직 착취와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그들에게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마련되여있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그 시기에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 앞에는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는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또한 당시 로동계급은 아직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높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때에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것을 생각하는것보다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가져다주는 사회경제적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고 력사무대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시대의 면모는 달라지게 되였다.

우리 시대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에 일떠선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Digitized by Google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67페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현시대에 와서 력사발전의 방향을 결정하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추동하는 주도적력량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인민대중이다. 다시말하여 력사의 주도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아오던 낡은 착취계급에게 쥐여져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에게 집중되어있는것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 민족에 의한 민족의 억압과 략탈을 정당화하는 낡은 생활리념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반면에 인민대중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투쟁리념이 전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으며 승리하고있다.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지향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려는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마땅히 우리 시대 인민들의 이러한 새로운 지향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이 요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재조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여야 하였다.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절박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1920년대,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는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와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교조주의가 혹심하게 작용한것이 본질적 약점으로 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의 새로운 근본원리를 발견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을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전진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길을 개척하시는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과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령도해오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 완성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한

Digitized by Google

신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력사무대에서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에게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시키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자주시대가 제기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는 혁명학설로 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그들자신이 세계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자신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진로를 밝혀주는 혁명학설을 요구하였으며 바로 주체사상은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지도사상으로서의 력사적지위를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본특징은 그것이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로 일관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해답을 주는 새로운 철학적원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밝혀준다.

사람의 모든 인식의 근본목적은 자기의 운명개척을 위한 길을 밝히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인식하려고 하는것도 결국은 자기 운명이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미약하여 그들의 운명이 자연적인 또는 사회적인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있었던 옛날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운명을 사람자신이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밖의 그 어떤 다른 요인이 지배한다는 견해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었다. 사람밖에서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다고 보는것이 다름아닌 종교적세계관이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장성함에 따라 종교적세계관을 극복하는것이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종교적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신이 없다는것을 론증하며 사람의 운명이 신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또 그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밝히는것이 필요하였다. 신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것을 밝혀야 하였으며 사람의 운명이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론증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물이 변화발전한다는 원리를 밝혀야 하였다. 이로부터 오래동안 종교적세계관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사상과 종교를 합리화하려는 반동적인 사상과의 투쟁은 세계의 본질을 물질로 볼것인가, 정신으로 볼것인가 하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으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볼것인가, 고정불변하다고 볼것인가 하는 변증법과 형이상학사이의 대립으로 일관되게 되였다.

장구한 기간에 걸친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로 종결짓게 되였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적원리야말로 선행한 진보적세계관이 발전시킨 철학적사유의 주되는 총화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Digitized by Google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이 밝혀진 조건에서 물질세계의 이러한 일반적특성과 함께 세계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자신이 물질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해명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원리가 무엇인가를 옳게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것과 변화발전한다는것을 인식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야 한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물질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독창적인 철학적 해명을 주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 다시말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을 창시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유일한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에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와 의사에 복종시켜나갈수 있으며 세계를 개조발전시키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할수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니라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여기에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지금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는 사람의 목적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더욱더 사람에게 복종하는 세계로 개변되고있으며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은 날을-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능력이 장성함에 따라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과정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으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끊임없이 높아져가고있다. 이것은 사람이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준다.

사람은 물질세계의 자연발생적인 발전과는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자신을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창조적힘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장성될것이며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더욱더 결정적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사람이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사람의 창조적역할에 의하여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이 끊임없이 확대되여나간다는것을 밝히는것은 사람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사람이 살고있는 현실세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해하는데서도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람이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이 밝혀져야만 물질세계는 그 발전의 최고절정을 이루는 사람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위주로 하여 정확히 해명될수 있으며 사람이 물질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 밝혀져야만 세계는 사람의 지배권이 확대강화되는 방향에서 변화발전하며 그 변화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힘이 사람자신에게 있다는것이 옳게 해명될수 있다.

물질세계발전의 높이와 방향, 추동력이 무엇인가 하는것까지 알아야 현실세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운명개척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원리로 될뿐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근본원리로도

Digitized by Google

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서만 사람의 운명과 물질세계에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를 가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으로 되는 리유가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철학적원리로부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 흘러나오며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나오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이라는 점에서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혁명학설이라는 점에서 또한 자기의 본질적특징을 가지고있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준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혁명의 근본원리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근본원리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사람과 자연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주체의 철학적원리를 사회적운동에 적용하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사회력사적원리로 구현된다.

혁명운동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력사적운동이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그것을 구현한 주체의 사회력사적원리는 혁명운동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과 혁명의 호상관계문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며 혁명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정확히 세우게 한다. 혁명의 이 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된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혁명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인것만큼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혁명투쟁의 근본원인과 목적, 그 추동력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것과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는 자주적립장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창조적립장이 흘러나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나오는것이다. 또한 혁명의 이 근본원리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이러한 주체적인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해명해준다.

Digitized by Google

인 혁명적당을 가져야 하며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혁명의 주체적요인이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승리의 객관적요인이 성숙되는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물질적으로 담보할수 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조건이 성숙되며 혁명의 대상인 지배계급이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제대로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것이다.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인것은 주체적요인이다. 주체적요인이 튼튼히 준비된 조건에서는 어떠한 반혁명세력의 반항도 능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을 먼저 장악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거기에서 결정적인것은 정권인것만큼 인민대중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정권을 장악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여야 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할수 있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과적으로 마련해나갈수 있다. 주권에 관한 문제가 혁명에서 기본문제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권을 장악한 인민대중은 그것을 무기로 하여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게 된다는것이 혁명운동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정권을 수단으로 하여 혁명운동을 계속 전진시켜나감으로써만 생산수단까지 틀어쥐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으며 나아가서 낡은 사상, 낡은 문화와 자연의구속에서까지 해방되여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을수 있을 정도로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혁명승리를 위한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의 성숙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지체없이 정권부터 장악하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객관적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나가는 방법으로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학설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현시대가 제기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지도적지침을 안겨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주체의 혁명리론과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위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뿐아니라 우리 세대가 제기하는 모든 형태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데로부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민족적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혁명의 중요한 형태로 규정하고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완성할수 있게 하였으며 계급적해방을 위한 문제에 전면적해명을 줌으로써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리론을 완성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계급해방을 위한 리론뿐아니라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의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해방에 관한 문제 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리론과 전략전술을 폭넓고 심오하게 밝혀준 여기에 주체의 혁명리론의 독창성과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마련해준다는데 있다.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운동의 합법칙성과 거기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밝힌뿐아니라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옳바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령도방법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따라서 령도방법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없다. 대중에 대한 령도는 주권을 잡기 위한 혁명투쟁에서뿐아니라 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령도방법은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혁명학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의 목적은 그들이 혁명투쟁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 있다. 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하려면 자기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과 그것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설계하고 이끌어나가는 최고뇌수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로부터 대중속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원칙이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주체의 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학설이다.

(3)

주체사상의 본질적특징의 하나는 혁

Digitized by Google

명실천의 종국적목적인 참다운 인간생활에 대한 리념을 정확히 밝혀준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폐지)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는데로부터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속성으로서의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적속성으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생명유기체의 유구한 진화발전과정에 가장 고급한 생명체로서의 사람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도 다른 생물학적존재와 마찬가지로 생명유기체로서의 생명을 타고난다. 이것이 사람의 육체적생명이다. 사람이 육체적생명을 가지는것은 생물학적존재로서 가지게 되는 특성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속성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는 사회적존재라는 본질적특징을 가진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결합되고 사회적실천에 참가함으로써 순수 생물학적존재만으로서는 가질수 없는 고급한 생활적요구와 생활능력을 지니게 되며 생물학적존재의 생명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생명활동,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생물학적속성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생명,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물질의 속성이 운동으로 발현되는것처럼 생명유기체가 어떤 생명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것은 그 생명유기체의 생명활동,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다.

생물학적존재는 생활환경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타고난 본능적인 생물학적요구를 실현해나가지만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을 목적의식적으로 실현해나간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생활할수 있는것은 육체적생명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건장한 육체는 인간의 지적 및 실천적 활동의 육체적담보이지만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혁명적인 생활리념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없다.

개별적인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근로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집단이 불멸하듯이 정치적생명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한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육체적생명은 한세대에 끝나지만 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은 살아서 가장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지니는 생명이며 세대가 바뀌여도 후대들에 의하여 이어져나가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육체적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더럽히는것을 비인간적인 행위로 여기며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육체적생명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속성인것만큼 부모들로부터 넘겨받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속성인것만큼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는 과정에 목적의식적으로 지니게 된다.

참다운 사회정치적생명은 탁월한

Digitized by Google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사회적집단속에서만 받아안을수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모든 성원들의 정치적생명을 키워주고 보호하며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며 집단의 매 성원들은 사회적집단의 자주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운명을 같이해나감으로써 영생하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인민의 수령을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라고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람의 참다운 생활은 인민의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때에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25페지)

사회적인간의 근본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는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자주성인것만큼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보다 더 귀중하고 값있는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사람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 떳떳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짓밟힌 자주성을 찾아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몸바쳐싸우는데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특징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사람들의 참다운 활동방식, 생활방식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삶의 참된 보람은 사람이 자기 본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투쟁속에 있다고 하는것이다. 혁명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투쟁에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데 인간생활의 리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으로 될뿐아니라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여야 한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자료를 수요에 따라 공급받게 되고 로동이 부담으로부터 필수적인 생활상요구로 전환되게 되면 사람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기만 하면 리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된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물질적생활조건을 마련하는것은 그자체에 근본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사람이 물질생활일면에만 치우친다면 그것은 벌써 물질적부의 주인으로서의 생활인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속된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인간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낡은 사상에 포로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이 보장되여도 그것을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옳게 리용할수 없으며 자기의 행동조차도 자주적으로 조절통제할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자신의 주인으로도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은 사람의 리상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사람의 자주적 요구와 지

Digitized by Google

향에 맞게 개조할뿐아니라 사람자신을 자주적인 존재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리상적인 생활은 마음으로 창조적인 생활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근심걱정없이 살아나가는것만을 리상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사람이 자기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창조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창조적인 투쟁과정에서만 자기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체험할수 있으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니며 그때에 가서 사람들의 로동은 더욱더 창조적이며 보람있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로동의 창조적인 성격이 비상히 증대되고 로동이 부담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로동에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리상적인 생활은 또한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굳게 결합되여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집단주의적생활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인류력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의 통일이 더욱 강화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통일이 가장 리상적으로 실현된 사회이다.

사회의 통일이 리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고 모든 사회적운동을 지휘하는 유일적인 최고지휘부가 있어야 하며 그 두리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사회의 조직성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여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적인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완전무결하게 서게 된다고 본다.

주체사상은 사회적평등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할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지적인간관계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혀준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것만큼 사람들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자면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적집단으로 굳게 결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동지적단합은 평등의 원리를 전제로 할뿐아니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칙에 기초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사람들사이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 민주주의적관계를 훨씬 초월한 보다 높은 차원의 인간관계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이 침해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들의 사회적집단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여나가는것을 본성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부모처자들사이의 사랑으로부터 조직과 집단에 대한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지적사랑과 충실성이 그 어떤 평등한 대가를 받을것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당과 수령께 충성다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혁명가들의 신념과 숭고한 의리는 자기가 받은것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본성적인 요구의 발현인것이다.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 오래동안 수난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해방의 은인이시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시며 끝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새생활의 창조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Digitized by Google

두리에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쳐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데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으며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생활의 보람과 행복의 높이와 심도를 깊고 밝은 생활리념을 가지고서는 잴수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생활을 꽃피워나가는 길만이 인류의 리상사회를 실현해나가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는 리상적인 생활의 진면모와 그것을 누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완성된 철학적세계관이며 혁명적학설이라는것을 남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감으로써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두 차례의 엄혹한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복잡한 사회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며 전진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혁명적신념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혁명적의지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고있으며 그것을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이 땅우에 일대 륭성과 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투쟁강령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끝없는 행복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의 세련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

김 종 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으며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학설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자주위업수행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31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통하여 실현되는 력사적위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옳바른 지도사상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지도리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방향,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새로운 혁명리론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력사무대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로

Digitized by Google

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멀리 전진하여 전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새로운 혁명리론을 창시하는것은 인류해방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시대가 제기한 이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혁명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과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의 근본특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는가 하는것은 그 과학성과 혁명성, 심오성과 생활력을 규정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혁명적인 리론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리론으로 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정확히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혁명리론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고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접적담당자이며 그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존재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되려는 자신의 근본요구로부터 혁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며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해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일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이다.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를 다그쳐나가는데서 유리한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이나 물질적조건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은 객관적요인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적요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있다.

자연을 정복하여 물질적부를 창조하

Digitized by Google

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이처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있는 혁명원리이며 혁명투쟁의 발생과 발전의 근본리치를 집약적으로 담고있는 혁명원리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바로 혁명의 이러한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총적 방향과 목표, 그 수행의 근본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될수 있었으며 그 전체계와 내용이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리론으로 관통되고 일관된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될수 있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혁명원리를 구현한 리론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을 자연과 사회를 자신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될수 있었다.

이렇듯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학설로서의 주체의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위력의 담보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의 전략전술작성의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는데 있다.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 혁명의 전략과 전술 작성의 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리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풀어야 할 이 근본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을 위주로 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력사발전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혁명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이 일어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혁명투쟁의 합법칙성도 근로인민대중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위주로 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하는것은 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히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근본속성이다.

자연과 사회에는 력사발전단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인민

Digitized by Google

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이러저러한 질곡과 요인들이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이러한 질곡과 요인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적 및 자연적 환경과 조건을 창조해나감으로써만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결국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진리가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으로 보는 가장 옳바른 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이것은 혁명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놓은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혁명의 원인을 새롭게 밝혀준다.

모든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짓밟히고 구속당하는데 있다. 계급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은 반동적지배계급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짓밟히는데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이 계속되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데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구속당하는데로부터 일어난다는것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계급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이 계속되게 되는 필연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발전법칙에 대해서도 심오히 밝혀준다.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전하고 승리해나간다.

혁명을 요구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담당수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자신이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목표를 내세우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준비정도, 다시말하여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능력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발전과 승리는 객관적요인의 성숙정도보다도 혁명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을 사활적요구로 내세우고있는가, 그것을 맡아수행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며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승리해나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해명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완성의 합법칙성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종국적으로 완성되여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근로인민대

Digitized by Google

중을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최고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가장 높이 체현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혁명사상을 창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린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또한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세련된 령도예술로 근로인민대중을 투쟁과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 혁명위업완성의 합법칙성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수령의 령도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전술작성의 원칙을 새롭게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결정적요인이며 혁명의 전략전술을 실현하는 주체적력량이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을 작성할데 대한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맞는 옳바른 투쟁목표와 혁명력량편성계획, 투쟁 형태와 방법, 시기를 옳게 규정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힌 전략전술작성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적요구와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에 맞게 혁명의 주타격방향과 투쟁목표를 규정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 계층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킬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또한 이 원칙에 의하여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를 위주로 하여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옳게 규정하며 근로인민대중의 각오정도와 준비된 혁명력량에 맞게 투쟁의 결정적시기를 바로 선택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리론의 독창성과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혁명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혁명단계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옳게 밝히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때까지의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처음으로 식민지,

Digitized by Google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혁명은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자체의 힘으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쓰라린 진통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없애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것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주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하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비롯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유물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이 밝혀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것과 함께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을 청산하고 인류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세계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세계혁명의 본질과 합법칙성, 세계혁명의 력량편성과 기본전략 등 세계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줌으로써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일반적합법칙성과 전략전술적원칙,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인 공산주의혁명리론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정에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58페지)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혁명실천속에서 검증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과학적인 혁명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한탓으로 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가슴아픈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민족수난의 가장 엄혹한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오래동안 갈 길을 몰라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혁명의 참다운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간고하고도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이 사소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데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은 간고하고 준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이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온데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개된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주체의 혁명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도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제때에 자주적인 인민정권을 세우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의 길에 곧바로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고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을수 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은 현대력사의 가장 힘난한 길을 헤치면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이였으며 이 길우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혁명리론의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Digitized by Google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혁명리론의 정당성과 위대성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은 주체의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인민은 무엇보다도 정치생활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지난날 나라잃고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마저 짓밟혔으며 굴욕과 천대만을 강요당하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경제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튼튼히 마련되였고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인민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도 많이 벗어나게 되였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사고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상혁명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인민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의 사상적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은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울데 대한 주체의 혁명리론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화혁명에 관한 리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되고있다. 또한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고있다.

수천년에 걸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고 우리 인민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Digitized by Google

경지를 개척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위대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리론과 방침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자주위업을 위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1페지)

주체의 혁명리론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그리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견인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주체의 혁명리론을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인류가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 불멸의 홰불》, 《인류사상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학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참된 교과서이며 백과전서적인 학설》로 높이 칭송하면서 열렬히 신봉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실천투쟁은 주체의 혁명리론이야말로 비할바없이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며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데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0페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하여 전체계와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

Digitized by Google

리론을 근로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새로운 과학적 토대우에 올려세웠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그 실현의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혁명리론으로 전환시켰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혁명운동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혁명의 전략전술작성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져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답이 주어져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리론, 전략전술을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력사의 일정에 오른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하였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함께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해명해주고있는 위대한 혁명리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을뿐아니라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법과 묘술까지 다 밝혀져있다.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한 여기에 주체의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그 불패의 위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리론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혁명리론의 사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실천에 복무하는데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일으킨 혁명적전환의 폭과 심도에 의해서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노는 역할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자주,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자주위업수행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혁명과 건설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하여 개척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것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Digitized by Google

그들을 외세의존과 사대주의사상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또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의 객관적 환경이나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면서 혁명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렇듯 근로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무기로 된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위대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하신 우리의 혁명위업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연히 멀고 험난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옹호고수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다.

위대한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우리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투쟁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령도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

정 준 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에서 언제나 세련된 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우리 혁명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의 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시원으로 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가장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그 사상리론적기초로 보나 창조된 경위와 전면적확립의 과정으로 보나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올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 번영과 흥성의 대전성기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우리 당과 우리 조국 력사에 길이 빛날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1)

령도방법을 옳게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71페지)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옳은 령도방법을 가져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고있다 하여도 인민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Digitized by Google

로 옳게 조직동원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가지지 못할 때 혁명은 수많은 시련과 곡절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는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건설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나서게 되며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역할도 또한 높아져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대중령도문제를 보다 원숙하고 세련되게 풀어나가야 할 객관적요구가 제기되는것과 함께 일군들속에서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도 커진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을 무시하고 군중을 다스리려는 관료주의적경향과 손쉬운 행정적방법으로 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령도방법문제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이것을 정확히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투쟁의 범위가 전례없이 넓어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조건에서 대중령도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주체의 령도리론, 령도방법을 창시하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대중령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창시하는 문제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또 누구나 다 해결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내놓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 풍부한 경험을 지닌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창시될수 있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이고도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의 빛나는 결실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대중령도 리론과 방법은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서만 나올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령도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자신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립장을 가지는것은 대중령도 리론과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근본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령도방법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과 혁명리론이 밝혀졌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참다운 대중령도방법의 근본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새롭고 독창

Digitized by Google

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중령도방법확립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의 본질적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그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은 오직 거창한 혁명실천과 심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지닌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도 이룩할수 없었던 위대한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가장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투쟁경험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으신 빛나는 경험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등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고귀하고 심오한 경험이며 폭력적투쟁과 비폭력적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업과 당 및 국가 활동 등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한없이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면서 대중령도의 풍부하고 심오한 경험을 쌓아오신 빛나는 로정은 새롭고 독창적인 대중령도방법, 주체의 령도방법이 창조되고 심화발전되여온 과정이였다.

이처럼 주체의 령도방법은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형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풍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대중령도방법이다.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 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숭고한 인민적 풍모는 주체의 령도방법의 정신도덕적 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대중령도방법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품성을 지닌 인민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창조되고 완성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로동계급의 리익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이렇듯 고결한 인민적풍모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에 빛나게 구현되여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고계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혁명적인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실수 있었다.

참으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전면적구현이며 그 빛나는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대중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이 창조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전일적인 체계와 풍부한 내용을 갖춘 과학적인 학설로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령도방법문제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본질과 기본요구, 령도원칙과 령도체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등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지도방법을 갖춘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방법이 밝혀짐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의 령도방법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혁명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령도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이다.

령도방법은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령도방법의 본질과 특징은 그것이 어떤 사상,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적인 지도사상,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옳바른 령도방법을 세울수 없으며 그것은 대중령도의 참다운 무기로 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령도방법은 대중지도에서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령도방법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튼튼히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령도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혁명은 오직 그 주인인 인민대중자신이 자각적으로 떨쳐나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모든 사업에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주적립장에 의하여 담보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창조적립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는 반드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의 근본

Digitized by Google

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며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따라서 주체의 령도방법은 대중을 다스리거나 명령, 지시하는 방법과는 달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참다운 대중령도방법으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령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을 동원하여 혁명을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사업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0페지)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가들이다. 인민대중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위업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군중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은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을 떠난 그 어떤 혁명사업이나 혁명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어야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알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령도방법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활동방식에 맞는 참다운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령도방법이라는데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

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교양하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일깨워주어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키워나가는 힘있는 대중령도방법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가는 창조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일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생소한 사업은 기성리론이나 낡은 방법에 매달려서는 성과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생동하고 참신하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열의와 규모에 있어서나 혁명적변혁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도 인류력사상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력사적위업이다. 이처럼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주관적욕망이나 수공업적방법으로는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모든 일을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조직령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가장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키고 객관적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옳은 판단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게 한다. 그것은 또한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한다. 그리하여 주체의 령도방법은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재래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극복하고 사업을 창조적으로, 정일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주체의 령도방법은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며 대중지도에서 과학성과 창조성을 훌륭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령도방법이라는데 있다.

대중령도방법의 위력은 그 혁명적성격과 사상적높이에서뿐아니라 여기에 포괄되는 내용의 풍부성과 다면성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 적용되고 실천에서 검증된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대중령도방법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참다운 령도방법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와 각이한 력사적환경에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

로 밝혀준다.

주체의 령도방법은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령도원칙을 제시하여줄뿐아니라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밝혀준다. 그리하여 일군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총화하는 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방법,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고 대중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방법 등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과 방법들이 여기에 다 집대성되여 있다.

주체의 령도방법에는 또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되여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혁명투쟁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각이한 형태의 투쟁 그리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창조적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일반적원칙과 구체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여기에 주체의 령도방법이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의 령도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영광의 로정은 주체의 령도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행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대중령도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그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7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만을 겪던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따라서 그들의 혁명적각오를 높이고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한다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였다.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진행해나가는 새로운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원형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항일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 속에서 그것을 일반화하시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대오안에는 언제나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튼튼히 세워지게 되였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격식과 틀이 없이 참신하게 사업하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내밀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혁명대오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광범한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적로정은 주체의 대중령도방법의 억센 뿌리가 내리고 그 귀중한 전통이 마련되여 참다운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이 완성되여가는 자랑찬 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을 해방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되자 인차 정권을 잡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군중공작방법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속에서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새 사회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당세도,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였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없애며 그들의 사업태도와 활동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일제가 남겨놓은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이끌어나가심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새 조국 건설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새로운 혁명적사업방법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안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 그 결과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사업태도,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도 당, 국가 및 경제 기관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당과 인민대중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을 전쟁승리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전후에 이르러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해독성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과 혁명 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5년 4월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의 새로운 임무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며 특히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

Digitized by Google

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온 나라의 모든 지역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하여 현지지도를 하시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창조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방법은 혁명적사업방법과 탁월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이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과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빛나게 정식화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늘 아래에 내려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격식과 틀을 마스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할데 대한 방침, 아래에 내려가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일데 대한 방침, 방법론을 옳게 세우고 사업을 전개해나갈데 대한 방침, 사상전의 방법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을데 대한 방침들도 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모든 일군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며 생활하고있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이 마사지고 당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당사업전반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빛나게 구현되여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됨에 따라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명적전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방법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되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는 주체의 령도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대중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행정에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의 령도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의 령도방법과 어긋나는 온갖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뿌리뽑고 전당과 온 사회에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혁명적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늘 현실에 침투하여 아래사람들을 친근하게 가르쳐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태도이며 생활기풍이다.

일군들은 벅찬 현실에 깊이 들어가 인민대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군중을 아량있게 대하고 따뜻이 보살펴주며 언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당의 령도적 권위는 더욱 높아지고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것이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질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주체의 령도방법,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

림 춘 추

오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력사적인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오직 주체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으며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바로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과정에 귀중한 투쟁경험과 혁명업적을 쌓았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68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력사적시기에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마련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혁명이 승리적으로 발전하는 행정에서 창조되는 모든 재부들이 곧 혁명전통으로 되며 그것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곧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과정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일찌부터 시작되였지

Digitized by Google

만 탁월한 지도자, 현명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탓으로 하여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을 가질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해야 할 그 어떤 사상리론적재부도 이룩될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떠나서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저마다 자기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파행위에 매여달림으로써 혁명대오를 사분오렬시키고말았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청년학생들과 군중들이 그릇된 사상에 오염될수 있었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은 더욱더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갈수 있었다.

조선혁명을 어느 길로 어떻게 이끌어나갈것인가 하는것은 시대와 혁명의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우리 혁명이 커다란 진통을 겪고있던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모대기던 조선혁명은 참다운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의 력사적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 자주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인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꾸려지게 되였고 혁명운동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힘있게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사변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실천투쟁속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을 교양육성하시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시였으며 불멸의 혁명업적과 귀중한 투쟁경험들을 이룩하시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행정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우리

Digitized by Google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모든 내용들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집대성되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의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85페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영원한 재부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혁명을 오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해나가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는데 있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고 완성하려면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할수 있도록 떠밀어주는 항구적요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선행세대와 다음 세대를 련결시켜주는 혁명의 피줄기가 있어야 한다. 만일 혁명을 계속 떠밀어주는 항구적요인이 없다면 혁명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가 없다면 혁명은 중도에서 멈춰서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바로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할수 있게 떠밀어주는 튼튼한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의 대를 변함없이 하나로 이어주는 피줄기인것으로 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하고 완성해나가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주체의 길을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전통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이러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며 주체위업의 전과정을 하나로 련결시켜주는 혁명의 명맥으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영광스러운 전통임으로 하여 혁명의 단계와 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불패의 생명력을 가진다.

항일혁명투쟁은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확립한 력사적투쟁이였으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사대와 교조가 지배하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켜드신 주체의 기치는 참으로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원해준 휘황한 등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민은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영원히 소생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오늘은 물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주체의 명맥으로 튼튼히 이어주는

Digitized by Google

혁명의 피줄기이며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며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로 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전로정에서 언제나 원형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귀중한 내용들을 집대성하고있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완성되여간다. 혁명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의 투쟁과업들을 수행해나가자면 그 원형과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원형과 본보기가 있어야 혁명은 아무런 편향도 없이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으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바로 이러한 원형과 본보기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에 집중적으로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귀중한 원형과 본보기들로 가득차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창조된 항일혁명투쟁은 단순히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만 머무른것이 아니라 시대와 혁명의 앞길,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같이 해결해나간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이끄시는 행정에서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경험들과 그리고 새형의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에서의 경험과 업적, 정권기관, 대중단체,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경험과 업적,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비롯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귀중한 재부들을 마련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로부터 문화와 예술에 이르는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이룩된 경험과 업적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모든 귀중한 업적들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원형으로, 훌륭한 본보기로 되며 우리 당과 인민이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원한 재부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그 원형과 본보기로 하여 창조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도 바로 항일의 혁명전통에 구현되여있는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경험, 고귀한 업적들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로 되는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애로와 난관, 시련이 닥쳐와도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항일빨찌산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커다란 긍지와 책임감을 간직하고 난관과 애로에 부닥칠때마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업적에 고무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91페지)

착취사회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새 사회, 새 제도를 건설하는 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대중을 낡은 사상과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며 자연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거창한 혁명사업은 결코 아무런 난관도 없이 헐하게만 진행될수 없다. 혁명의 길에는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며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온갖 난관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만이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휘하는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적후방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강도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은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며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교양육성하신 항일유격대원들은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보람으로 여기였으며 언제나 혁명적 락관과 정열에 넘쳐있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가들은 아무리 간고한 조건에서도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굽히거나 더럽히지 않았으며 언제나 승리를 굳게 믿고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이처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높은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혁명의 량식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어려운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항일의 혁명전통에서 크나큰 신심을 얻고 투쟁방도를 찾아냈으며 어떤 풍파와 시련도 용감히 뚫고 굳세게 싸워나갔을뿐아니라 오늘도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은 이렇듯 조선혁명발전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승리의 근본요인으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재부이다.

(2)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혁명전통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끊임없는 생기와 활력을 주는 영원한 재부로 되자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그

과정에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인 주체의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창건하고 당의 인전대들을 창립할수 있었으며 혁명무력을 튼튼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령도해오시는 로정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실현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기적인 변혁과 영웅적인 사실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면서 이룩하신 모든 고귀한 업적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며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키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로 더욱 굳게 다져지고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항일의 혁명전통을 우리 혁명의 억년드놀지 않는 만년초석으로 내세우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19페지)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룩된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을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기간에 걸쳐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오직 하나의 전통, 주체의 혁명전통만을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하고있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근본문제이다.

만일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시킨다고 하면서 그 순결성을 고수하지 않고 거기에 오가잡탕을 끌어들인다면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흐려지게 되며 결국에는 혁명의 명맥을 옳게 이어나갈수 없게 된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혁명이 계속되며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이 본래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에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전통,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만을 확고히 계승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안에 오직 주체의 혁명전통외에 그 어떤 다른 전통이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전통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인연이 없는것이 티끌만치도 섞여들지 못하게 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똑바로 찾고 그것을 철저히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는데서 우리 당이 취한 혁명적조치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에서 항일의 혁명전통은 자기의 본색을 잃지 않고 순결성을 확고히 보존하면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억세게 뿌리내려지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전통의 민음직한 계승자로, 주체위업의 튼튼한 담당자로 철저히 준비시키고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목적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게 하자는데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전통의 빛나는 계승반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유일사상교양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것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다그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우리 혁명이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여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민음직한 계승자로 철저히 준비시키고있다.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을 정중하고 튼튼히 꾸리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 가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정중히 꾸려져있으며 온 나라가 말그대로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되고있다. 백두산지구인대의 대로천박물관과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찾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의 그날 조국광복의 해볕을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며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주체의 혁명전통이 철석같은 신념으로 깊이 간직되게 된것은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온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여기에 또한 혁명전통을 계승반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이 쌓아올린 빛나는 공적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또한 주체의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계승반전시키는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는 사업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전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그

Digitized by Google

불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끊임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항일의 그날에 창조된 귀중한 업적과 경험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에는 혁명전통의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니라 투쟁정신으로부터 사업기풍과 사업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정신적재부들이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하는데서 언제나 혁명전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빛나게 이어나가도록 하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모든 혁명업적들은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전당과 온 사회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백두의 혁명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이어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약동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은 바로 항일의 혁명전통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또한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전통교양의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위력한 거점들과 수단들이 튼튼히 마련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국각지에 정중히 꾸려져있는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귀한 혁명업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방송과 출판물, 문학예술작품들은 혁명전통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문학예술분야에서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되였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들에 재현하는 사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인 숨은 영웅들이 수많이 배

Digitized by Google

출되고 그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항일의 혁명전통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심화발전시켜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온 결과 당사업과 당활동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으며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난 결과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당의 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로정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창시되고 그것이 해방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가져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 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주체위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굳게 다지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9페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영원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첫공정이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언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데서 기본은 주체의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떠나서 결코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 혁명활동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빛나

는 혁명활동력사를 심오히 학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이다.

일찌기 주체위업이 개척되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이것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보여준 숭고한 혁명정신이였다.

주체위업이 개척되던 우리 혁명의 첫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해온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실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구감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언제 어데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잘 꾸리고 혁명사적물들을 정중히 보관관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더없이 귀중한 국보이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체현하고있는 력사적증거물이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물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펼쳐주신 거룩한 자욱이 그대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전당으로, 어년재부로 꾸리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숭고하고 보람찬 의무이다.

우리는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꾸리는 사업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는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물들을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로 더 정중하고 튼튼하게 꾸려야 한다.

우리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전통의

Digitized by Google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들과 풍부한 업적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전통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성심과 혁명적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데서나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당의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만 완성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의 계승자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

서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을 강위력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빛나는 업적의 하나로 된다.

주체의 당건설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적당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요구하였으며 혁명적당건설문제도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의 이 중대한 력사적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새로운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며 탁월한 당건설리론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것을 강위력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리론실천적으로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0페지)

당을 자주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창건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땅한 요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로서 누구의 권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선 투사들이며 남의 힘을 바라고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당창건사업에서도 응당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는것이다. 당창건사업에서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특히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힘으로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으며 창건된 다음에도 당이 급속히 강화발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

Digitized by Google

건준비사업에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밝히시면서 당창건의 믿음직한 조직적 골간을 꾸리며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였다.

당시 당창건준비사업은 항일무장투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룬에서 참신한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핵심들로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으며 이를 모체로 하여 각지에 기층당조직들을 내오시고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확대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첫 당조직의 결성은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며 새로운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조직과 대중단체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후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조직령도하시여 인민혁명군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각지방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시였다. 그리하여 비록 당중앙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통하여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하신 이러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는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해방직후 당을 빨리 창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의 전도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당시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서는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이 모든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미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적기초가 닦아지고 믿음직한 조직적골간이 꾸려져있었기때문에 해방후 그에 의거하여 각지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포섭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큰 규모의 당을 재때에 창건할수 있었으며 당을 옳은 궤도우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었기때문에 우리 당은 처음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한 옳은 정치로선을 내세우고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었으며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당이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 창건될수 있은것도 바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튼튼한 토대우에 창건될수 있었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창건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위력한 주체의 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공산당을 창건하신 다음 당을 확대강화하여나가시는 행정에서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은 로동자들속에서만 자기의 력량을 확대하는 당으로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진보적인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많이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적당으로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18～319폐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이란 로동계급만이 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광범히 망라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 근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면서 그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을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선봉대로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리론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당과 다른 근로자당과의 합당을 통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시였다. 그리하여 여러개의 근로자당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는것을 미리 막을수 있게 되였고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합을 강화할수 있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당의 구성성분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의 성격에 맞게 규정하시고 당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계급적지반을 결정적으로 넓히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적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널리 당에 받아들이고 대중이 있는 모든곳에서 당조직을 꾸릴수 있게 되였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대중적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출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시면서 그 량적강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는 문제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 특히 신입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는 한편 당핵심육성에 관한 적극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핵심을 키울데 대한 사상은 새로운 당건설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핵심을 키울데 대한 사상은 당안에서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수준상차이를 해결해나가면서 당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도를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당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대중속에서

Digitized by Google

선발된 핵심들이지만 그들속에서도 여러모로 차이가 있게 되며 따라서 사상적으로 앞서고 조직적으로 단련된 당원들의 주도적, 핵심적 역할이 있기마련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핵심을 키우고 확대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의 수준을 빨리 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당핵심을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대렬을 빨리 확대하여나가면서도 그 질적공고화를 급속히 따라세워나갈수 있었다.

실로 당창건을 위한 충분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새형의 당인 주체의 당을 창건하시고 그것을 강위력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의 이러한 강화발전과정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빛나게 수행하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도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관련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0페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당이 이러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할수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당의 통일단결을 빈틈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결국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만일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못할 때에는 당건설과 당의 모든 활동이 뚜렷한 총적목표와 근본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목적지향성을 잃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도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질수 없게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특히 우리 당과 혁명의 총적임무인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기본

Digitized by Google

요구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수 있으며 당건설과 당의 모든 활동,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이에 기초하여 해결함으로써 당건설에서나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중심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철옹성같이 강화하는데 두고 그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방해하는 온갖 경향들 특히 종파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언제나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철저히 세워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가장 견고한 통일단결로 되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따르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끝까지 충성다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의 위대성을 확고히 인식시키도록 한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인식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있다. 수령의 위대성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수령을 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질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없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왔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대오로 강화발전되게 되였으며 당건설,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 주체사상의 영양소를 힘있게 뿜어주는 사회의 심장으로서의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더한층 높일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때로부터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Digitized by Google

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내세우시였으며 우리 당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에 이룩된 그 무엇과도 바굴수 없는 가장 고귀한 열매인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힌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1페지)

사람과의 사업이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곧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고전적명제는 당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밝혀주는 명제이다. 여기에는 당사업의 본질과 대상, 당사업의 목적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당사업의 이 근본원리가 해명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당사업의 근본방향이 명백하게 되였으며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 참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주며 이 원리로부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가 나온다. 주체사상의 근본 원리와 요구로부터 당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에 놓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당사업의 근본원리인것이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는것은 사람들이 뭉친 선봉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기도 하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정치조직이며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은 경제사업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행정경제기관과는 달리 혁명과 건설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조직적으로 보장하는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임무로 삼게 되는것이다. 사실상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당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원래 당이란 사람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나온 정치조직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된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당사

Digitized by Google

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근본지침이 똑바로 세워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사람들을 료해평가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활처지, 성격과 취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과의 사업을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벌리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검열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이러한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당사업을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벌려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전투대오로 꾸려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뚜렷한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일군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혁명적관점을 세울데 대하여서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주체적당건설리론은 당사업의 방향과 대상 문제에서뿐아니라 당사업의 체계와 방법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당사업의 체계와 방법 문제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완성하여야 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 특히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사업의 체계와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당사업을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행정을 대행하거나 당사업을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 진행하는 온갖 편향을 제때에 극복하도록 하시고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도록 힘있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당사업의 대상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없이 포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사업대상을 정확히 규정해주었으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당사업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의 방법,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가장 실속있게 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당일군들속에서 행정대행, 행정식방법 등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Digitized by Google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세워놓았다.

우리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된 결과 언제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고 아래당조직에 대한 지도가 참말로 실속있는 산 지도로 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는 제도가 서게 되고 우가 아래를 정확히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상하가 합심하여 걸린 고리를 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여 당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주목을 돌리고 간부들을 선발배치하고 교양하는 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간부대렬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려놓았다.

우리 당은 또한 당원들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면서 그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당원들의 당성이 더욱 단련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 당은 광범한 비당원군중을 당사업의 중요한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각계각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 당의 대중적지반을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놓았다.

우리 당은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데 대한 사상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내부사업과 함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발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인것이다.

(4)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사업의 중요한 측면이며 당의 령도가 없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옳은 방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할수록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당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9페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면 할수록 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끊임

Digitized by Google

없이 제기되며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도 더욱더 커지게 된다.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수 있고 당의 인전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해나갈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조직들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이로부터 당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언제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을 지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당의 령도를 더욱더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정치적지도로 규정하신 독창적인 사상은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가장 옳은 방향에서 강화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것은 당의 령도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당적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개선완성하며 특히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22페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해당 단위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집체적지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활동의 기본형식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인 지도방법이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위원회들은 해당 단위에서 당정책집행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다. 따라서 해당 단위에서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의 당위원회들의 활동에 중요하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급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령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대한 당적지도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이에 따라 전당적범위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정

Digitized by Google

연한 지도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또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지도에서 개인의 독단과 주관을 방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 경제, 문화 기관들이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사업을 제때에 검열총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81페지)

행정경제사업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하는것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당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행정경제사업전반을 틀어쥐고 장악지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급 당위원회의 기본부서들과 경제부서들이 늘 협의하여 행정경제사업을 장악하고 조직정치사업을 공동으로 벌리며 힘을 합쳐 걸린 고리를 찾아내고 해결방도를 정확히 세워나가는 협동작전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가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된 결과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행정경제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편향들도 제때에 바로잡을수 있게 되였으며 당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당의 령도체계와 함께 옳은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령도의 근본요구와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 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 방법은 외곽단체들에 대한 당적령도, 특히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명백히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이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에 관한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령도를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주체의 당건설사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훌륭히 관철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당건설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하

Digitized by Google

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에서 성과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여나가고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에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당건설의 기본전략적 목표와 과업 그리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사람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전당에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 당의 명령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을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이 이룩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규률이 확립된것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주체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새형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을 가진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에 넘쳐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전체 인민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 그리고 우리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그것이 우리 당건설에 구현되여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리론과 혁명투쟁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빛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더욱 발전풍부화되고있는 주체의 당건설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불패의 생활력

박 성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전인민적인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차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숭고한 혁명위업에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의 전로정에는 이 땅우에 자주적인 주권국가를 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불멸의 업적이 그대로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피압박대중이 리상으로만 그려오던 참다운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국가건설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이다.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는 계급사회가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천년동안 언제나 심각하고도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로 나서고있었다. 그것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지위가 결정되며 국가문제에 계급들의 리해관계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주권문제, 국가건설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탐구로 독창적인 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가건설리론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국가건설학설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국가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국가건설리론은 일정한 시대적조건과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한다. 해당 국가건설리론의 혁명적성격은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어떻게 반영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가건설리론은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독창적인 국가건설리론이다.

우리 시대는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있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성의 시대는 다른 모든 분

Digitized by Google

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건설분야에서도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였다.

자주성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원리에 기초하여 국가학설을 새롭게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발전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 국가학설을 새롭게 세우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였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학설을 세우고 국가건설을 진행하여야만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자주성의 시대는 또한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은 완성된 국가건설리론을 요구하였다.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히 일떠섰으며 혁명운동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과업을 다같이 제기하면서 전례없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는 실정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의 주권문제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국가건설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국가건설리론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바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한 이러한 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국가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히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국가건설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국가건설리론으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혁명적기치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국가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러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혁명리론을 전개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69～170페지)

모든 국가학설은 다 일정한 세계관적인 기초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된다. 해당 국가학설의 기초원리는 그 학설의 성격과 사명, 특징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관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국가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된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건설의 근본문제들을 제기하고 국가에 관한 견해와 립장을 세우고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우선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행사하며 국가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담당자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사회를 이루고 사회관계를 맺

Digitized by Google

는 기본성원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새 사회 건설을 담당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또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국가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인민대중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기본원리가 흘러나온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또한 국가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국가의 모든 활동이 귀착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이 밝힌 이러한 원리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국가정권은 바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인민대중자신이 만든 정치적권력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주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으며 따라서 국가정권의 모든 활동은 인민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로 지향되여야 한다.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국가정권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원리들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국가건설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국가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들을 밝혀준다.

이렇듯 국가건설에 관한 새로운 혁명적인 원리에 철저히 의거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중요한 특징과 독창성이 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 내용이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라는데 있다.

국가건설리론이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실천에 복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자면 가장 정확한 기초원리에 의거해야 할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들에서 나서는 국가건설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바로 이러한 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무엇보다도 국가주권의 본질과 혁명에서 주권문제가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국가주권에 의하여 모든 사회정치적관계가 규정되며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도 바로 국가주권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것도 그들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주권이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새롭게 정식화한 여기에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 독창성이 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또한 혁명투쟁의 본질과 국가주권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에서 주권문제란 다름아닌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주권문제해결의

Digitized by Google

근본목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주권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새롭게 밝혀졌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국가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객관적로정에 맞게 로동계급국가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국가건설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주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대중의 투쟁은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기본방도로 하여 폭력적방법으로 진행되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세우게 되는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형태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독창적인 리론에 의하여 로동계급은 물론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열리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된 다음에는 사회주의혁명의 임무에 맞게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공고발전시키나가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때로부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 전기간에는 물론 과도기가 끝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국가발전의 전로정과 그 혁명적성격이 명확히 해명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과업과 실현방도를 정확히 세울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국가건설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이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사회주의국가의 근본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건설의 근본원칙과 국가활동의 근본방식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에서는 로동계급의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수령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것을 국가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정권이 진정으로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65페지)

국가건설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한다는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국가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가기구와 국가기관일군들, 인민대중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가건설에서의 수령의 유일적령도원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로부터 흘러나온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는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는 중심이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령도자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여야만 자체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국가

Digitized by Google

건설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원칙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여기에 로동계급의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고리가 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또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밝히고 자주독립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에 맞게 국가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이와 함께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에는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를 자기의 기본활동방식으로 삼아야 한다는것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활동의 구체적임무와 수단, 방법을 비롯한 모든 실천적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져있다. 이리하여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에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임무와 기능에 관한 문제, 국가기구체계와 그것을 개선완성할데 대한 문제, 국가기관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 등 사회주의국가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여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이야말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국가건설학설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로동계급의 국가학설을 새로운 내용으로 풍부히 한 위대한 국가건설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건설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하나가 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주권문제를 해결하고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는 안팎의 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부시면서 생소한 길을 따라 전진해야 했으며 낡은 반동적통치기구를 청산하고 빈터우에 인민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처한 구체적환경을 깊이 분석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겹쌓인 난관들을 타개하시면서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137폐지)

국가건설분야에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주권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독창적인 인

Digitized by Google

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유격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그 활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시고 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혁명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전망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권의 새로운 원형을 마련하신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새 조국 건설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며 그에 기초하여 새형의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정권건설방침은 해방후 조성된 정세를 옳게 리용하여 반동세력을 소탕하며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처음부터 튼튼한 지반우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수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권전취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자기의 참다운 주권을 가져보려면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개혁과 시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시면서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물론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창설은 주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으로 되지만 그것으로써 결코 주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충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신 다음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지체없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시키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탄생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며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9월에는 마침내 통일적인 국가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더욱 위력한 혁명의 무기를 가지

Digitized by Google

계 되였다.

이렇듯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여기에 국가건설분야에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이 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 있는것이다.

국가건설분야에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은 또한 우리의 국가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데 있다.

주권문제의 해결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첫걸음에 불과하다. 주권을 전취하고 인민의 국가를 세우는 목적은 결국 그것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의 총적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공화국정권이 갖추어야 할 면모와 우리 인민정권앞에 나서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지반과 자립적인 경제토대, 자위적인 무력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일대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화국정권의 최종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들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우리 국가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를 뚜렷이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인 국가정권은 반드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자기의 최종목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할뿐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3대혁명을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낡은 사회제도를 개조하는것이 전면에 나섰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에는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방향에서 3대혁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근로자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수행해왔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주권을 전취한 다음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생소한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가건

Digitized by Google

설분야에서 이룩하신 또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있다.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것이다.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언제나 계급적원쑤들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한다.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제때에 진압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게 벌어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성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독재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사회안전, 사법검찰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전체 인민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법규범과 규정들을 완비하고 대중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

하도록 이끌어주
이렇듯 위대한
명한 령도가 있
은 계급적원쑤들
부시고 혁명의
호할수 있었으
도와 질서, 건
세워놓을수 있
사회주의국가
및 문화교양자
야 한다. 국가의
교양자적 기능을
건설을 다그치
새와 물질적요
기 위한 필수적
위대한 수령
조직자적기능을
국가의 경제활
시고 경제지도
기 위한 현명
위대한 수령 김
에 기초한 혁명
구현하시여 대
농업지도체계,
로운 공업지도
의 일원화, 세
써 국가의 경제
수 있는 확고한
위대한 수령
의 문화교양자
인민정권기관들
서 나타나는 낡
투쟁을 강화하
계급교양을 기
양을 꾸준히 진
분야에서 낡은
히 극복하고 새
식을 전면적으
게 령도하시
김일성동지께서
자들의 문화적
반대하는데 깊
교육, 과학, 문
의민족문화건설
토대우에서 빨

Digitized by Google

적인 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이리하여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의 자주권은 자체의 강력한 무장력에 의하여 튼튼히 옹호보위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의 대외적기능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이 확고히 견지되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진출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정치실무적자질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을 국가기관들에 배치하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를 정확히 세우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국가기관체계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지도가 아래에 더욱 접근되게 되였다. 또한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국가기관일군들의 사업상특성에 맞게 관료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더욱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정권을 공고히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사업과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국가정권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적무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기관들이 당의 지도와 통제 밑에 자기 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을 조직정치적으로 공고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신 이 모든 조치들은 우리의 국가정권으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의 옹호자, 그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국가건설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의 생

Digitized by Google

활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날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활짝 꽃피는 지상락원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위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운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8페지)

우리 나라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이 빛나게 구현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존엄있는 사회주의나라로 강화발전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판단하고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공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문예정책, 사법정책 등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내부문제에 외부사람이 간섭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존엄은 바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있다.

공화국정권의 정치적자주성은 강력한 정치적지반에 튼튼히 의거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며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전체 인민의 이러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우리 공화국의 공고한 정치적지반을 이루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튼튼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는 날로 늘어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발전된 자립적경제로 전변되

었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위력한 경제로 되였다. 지난날 농쟁기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대형기계와 정밀기계들도 다 만들어내고있으며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처지로부터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 지난날 가대기를 끌며 피눈물로 농사짓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흥겹게 일하면서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 당의 문화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민족문화도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와 공산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서고 민족간부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으며 10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자라났다. 나라의 과학기술수준도 빨리 높아졌으며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이 활짝 꽃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또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온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튼튼히 지키고있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공화국은 공고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가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그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국가건설분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8폐지)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보람찬 삶의 터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정책도 근로대중의 의사에 맞게 실시되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국가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있으며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보장해주고있다. 국가의

Digitized by Google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일할 나이가 되면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있으며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서 힘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8시간로동제와 로동보호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의 혜택으로 안전한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인민들이 조세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무료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받을뿐아니라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농민들도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생활하고있다.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병이 나면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치료받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거정도 모르면서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국가로부터 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는 우리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으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의 륭성발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모든 해외조선동포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날로 륭성번영하는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강력한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됨으로써 그 국제적지위가 또한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으로 높이 칭송받고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이렇듯 우리 공화국은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대번영기를 맞이하였다.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잇닿아있으며 공화국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께 조국과 민족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빛나는 구현

윤 기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에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일떠설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적 대번영과 륭성의 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한 생활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경제건설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다.

경제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은 경제건설을 통하여 마련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힘든 로동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한 로동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옳바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경제건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인 경제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이며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Digitized by Google

튼튼히 쌓아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에서 기본핵을 이루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10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한편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해주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쳐 그들로 하여금 물질문화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 중요한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날로 늘어나는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물질적으로 확고히 보장해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방향에서 경제건설의 근본문제들을 제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하는 사람중심의 경제건설사상,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안받침될 때 확고히 보장된다. 경제적자립이 없는 정치적독립,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정치적자주성이란 한갖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예속은 정치적예속을 낳으며 경제적불평등은 정치적불평등을 가져온다.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혁

Digitized by Google

명과 건설을 계속 전진시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이렇듯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경제건설의 방향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독창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민족적불평등을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천대받고 억압받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류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모든 인민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것이였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킬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사회주의법칙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방도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오늘과 같이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매개 나라가 자기의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았다고 말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인민생활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불평등을 없애는것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민족적불평등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자마자 곧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저절로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민족적불평등은 오직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그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해야 완전히 없어질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의 최대한의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할수 있는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민족적불평등을 없애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모든 민족들이 참다운 평등을 누릴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Digitized by Google

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경제건설사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경제건설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6페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옳게 타산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며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로선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며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빨리 없애고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없애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업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준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업화로선의 독창성과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기술혁명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단계와 방도들을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을 사회주의공업화와의 통일속에서 벌릴데 대한 사상과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건설시기의 기술혁명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경제와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Digitized by Google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로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나가기 위한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방도를 밝혀준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것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이야말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이며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경제관리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규정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일원화, 세부화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화체계, 최근시기에 다련하신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들은 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고있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도가 뚜렷이 밝혀졌으며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경제건설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하나가 있다.

(2)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는 자랑찬 행로이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기초를 닦지 않으면 안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파괴되고 보잘것없는 기형적인 공업과 운수, 세기적으로 락후한 농촌경리, 극

Digitized by Google

도로 빈궁한 생활만을 남겨놓았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파괴되여버렸다. 전쟁으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말그대로 재더미로 되였으며 우리는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하였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긴장한 정세에서 경제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시였으며 과도기 첫시기의 우리 당 경제정책을 뚜렷이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민족경제를 복구하며 나라의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닦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는 한편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후경제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전후시기 우리 나라의 형편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경제의 복구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단계들을 정확히 규정하시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3대기술혁명을 적극 추진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2페지)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력갱생하여야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나라의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건설할수 없고 또 빨리 발전시킬수도 없다.

자력갱생하는것은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했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섰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는 치렬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였다.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데 습관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

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안팎의 원쑤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반대하여나선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시고 자력갱생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 나라의 자원으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키며 특히 자체의 위력한 기계제작공업기지를 창설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온갖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불도젤, 굴착기와 같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한해에 관개면적을 100만정보나 늘여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게 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근로자들이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힘차게 전진한 결과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나섰던 기술문제와 자금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이 땅우에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심각한 경제위기와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안전한 토대우에서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생활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원칙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가장 혁명적인 원칙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자력갱생할 때 그 어떤 난관과 애로도 이겨내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여 혁명적군중로선을 견지하여왔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224～225페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힘과 지혜를 굳게 믿으시고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안팎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하고 아직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웠던 시기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원회의이후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톤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의 영웅적건설자들은 한해 남짓한 기간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대규모의 현대적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이 세차게 벌어져 한해동안에 국가계획외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가 생산되였으며 지방의 유휴자재와 유휴로력으로 3～4개월동안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우리의 경제는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실상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규정하시고 3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여 경제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전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적극 벌어졌으며 오늘은 그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3대혁명이 힘차게 벌어져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은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속도전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그것을 조직화, 적극화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지도하여 인간개조사업과 경제건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있는것도 바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Digitized by Google

발휘하고있으며 온 나라에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가 가져다준 자랑찬 열매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은 그처럼 위대하고 공고한것이며 한없이 값높은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일떠서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는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영원히 벗어났으며 이 땅우에는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터전이 확고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 자체의 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이 구현되여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민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첫시기부터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온 우리의 공업은 그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공업화의 기초축성시기에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된 1961년—1970년사이에도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2.8%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1970년—1980년사이에는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6.1%라는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시킴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도 매해 넘쳐수행하고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확고히 견지되였다.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가 2년이나 앞당겨 점령되고 1979년에는 이미 900만톤의 알곡고지가 점령되였으며 오늘은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있고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높은 발전속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데서 또

Digitized by Google

한 투쟁이 나타나고있다.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의 공업은 자체의 원료원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경제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 자재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분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없던 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고 약한 부문들이 보강되여 우리의 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부문의 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전력공업,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을 다 갖춘 자립적인 현대적중공업으로 발전되였으며 특히 기계제작공업이 빨리 발전하여 여러가지 대형기계설비와 정밀기계는 물론 현대적인 공장설비들을 일식으로 생산해내고있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이 관철된 결과 경공업이 또한 빨리 발전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자체로 마음대로 생산해내고있다.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설비와 기술공정이 현대적으로 개조되고 중요공업부문들에서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적극 추진되여 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이 중로동과 유해로동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였다.

자립적인 생산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투쟁은 농촌경리분야에서도 적극 벌어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위대한 주체농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농업이 매우 공업화, 현대화되고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게 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흥겹게 일하면서 해마다 대풍년을 이룩하고있다.

이렇듯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놓은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성과로 되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는 또한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29페지)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물질적담보로 되고있다.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에 태여나자마자 먹을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페지되여 인민들이 조세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농촌의 수도화와 뻐스화, 온 나라의 텔레비존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더욱 줄어들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Digitized by Google

갈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이야말로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우리 인민에게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가장 정당한 경제건설사상이며 주체의 경제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조국이 통일된 다음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 건설된 강력한 주체공업과 그것을 골간으로 하여 반석같이 다져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위력한 물질적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으며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이고있다. 또한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경제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심으로써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을 자랑하고있으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당면하게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

김 영 남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그이께 다함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을 오직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는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의 궁극적목표를 옳게 규정하시고 모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그 정당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거대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투쟁에로 굳임없이 고무추동하고있다.

(1)

세계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전략적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모든 혁명력량을 조직동원하여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세계혁명의 력량편성원칙을 정확히 밝히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의 범위가 비상히 넓어지고 그 투쟁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각이한 혁명력량이 진출하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추세와 조성된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시대가 요구하는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혁명의 본질을 새롭게 밝히시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세계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인류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혁명투쟁은 그 류형이 다양하고 발전단계와 투쟁과업이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본질적공통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세계혁명력량에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포함되며 그것을 어떻게 강화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세계혁명의 승패여부가

Digitized by Google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혁명운동에 참가하고있는 매개 력량들의 주체적힘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세계혁명력량 전체를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혁명의 본질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세계의 모든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투쟁무대에 떨쳐나서고있는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세계혁명력량편성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으로 된다.

세계혁명에 합류하고있는 매개 력량들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전반적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해방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이다.

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이한 혁명력량들의 력사적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옳게 밝혀야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옳바른 투쟁 방향과 방도를 제시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 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20페지)

우리 시대에 와서 반제민족해방운동은 국제프로레타리아운동의 단순한 후비군이나 소부르죠아운동이 아니라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혁명투쟁으로,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전변되였다.

수세기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혁명력량과 반동세력이 대결하는 치렬한 투쟁무대로 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은 제국주의에 직접 심대한 타격을 주어 그 멸망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혁명투쟁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시였다.

그리하여 민족해방운동의 혁명적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홀시하는 그릇된 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세계혁명력량편성문제들 옳게 해결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및 전략전술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민족해방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바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이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는것은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민족해방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믿음직하게 준비하며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워야 한다. 이와

Digitized by Google

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지키며 자주적으로 나가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 쁠럭불가담운동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수 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할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오랜 성원국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으나 그들은 다같이 쁠럭불가담운동의 동등한 성원국으로서 세계혁명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고있다. 따라서 쁠럭불가담운동안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나라들의 특권적지위가 허용될수 없으며 다른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생명이며 힘의 원천이다. 단결을 떠난 쁠럭불가담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킬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속아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는것이 필요하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새생활창조과정에 이룩한 좋은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있고 풍부한 자원과 자금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거하지 않고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선을 끊어버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다그치게 하는 동시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자연부원과 제반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자주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혁명적원칙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의 위력과 영향력을 더욱 증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전반적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투쟁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오늘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력량에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력량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8페지)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강력한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존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매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들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계급적련대성에 의하여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동시에 무엇보다먼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독자적인 민족부대들이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며 그 성과로써 세계혁명에 기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을 강화하는것은 바로 전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그들이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더욱 큰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주의운동의 민족부대들이 자기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다시나갈 때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고 세계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력량의 분렬을 막고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력량전체를 옹호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국제주의적의무라는것을 밝히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조건에서 서로 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 각이한 계층과 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민주주의운동과 반전평화운동에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사상과 혁명적방침들은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에 합류하고있는 모든 력량들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세계혁명의 력량편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전반적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세계혁명력량총체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통일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는 근본원칙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세계적범위에서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제국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반제자주의 기치길여 나가는 모든 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02페지)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는 어느 한 개별적나라의 혁명력량만이 아니라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 인민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것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것이다. 인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것이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이 공통된 지향과 념원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들,모든 혁명조류들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합될수 있다.

단결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손에 장악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그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은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단결된 힘으로 싸워 승리하였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각개격파당한다는것은 혁명투쟁력사가 보여준 귀중한 교훈이다.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하면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단결은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자들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접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반혁명적량면전술과 각개격파전략에 의거하여 진보적인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며 나아가서는 반제자주력량전체를 말살하려고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켜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넣기 위한 쟁탈전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리권보호》요, 《안전보장》이요 하면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침략적군사기지를 계속 늘이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틀어쥐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전반적국제정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하여 단결의 전략으로써 놈들에게 집단적인 타격을 가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격파해버릴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목적과 지향, 광범한 혁명력량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단결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세계적판도

Digitized by Google

에서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혁명력량의 집단적인 반격으로 제국주의반동세력에 타격을 가하며 그들을 고립약화시켜 전반적세계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매개나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나라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바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확고히 실현하자는데 있다.

만일 혁명하는 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자기 나라 혁명과 민족의 리익을 지켜낼수 없게 될뿐아니라 외부세력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할수 없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망쳐버리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 세계혁명운동에 합류하고있는 인민들은 사회제도와 정견, 신앙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다같이 제국주의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크고작은데 관계없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옳게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호상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하는 나라들과 [illegible]들은 자주성을 [illegible]히 견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호상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할 때에만 단결과 협조 관계를 진실로 [illegible] 원칙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illegible]

[illegible]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illegible]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illegible]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다.

[illegible], 다른 [illegible] 자주성을 유[illegible] 예속을 십[illegible]에 대한 [illegible]

현하려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자체가 소멸되지 않는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의침략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고 언제나 반제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대오에서 동요없이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가는 모든 나라들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혁명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분렬, 리간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혁명적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철저히 폭로규탄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여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이 실제적인 투쟁을 통하여 단결을 공고화할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중요한 혁명적원칙의 다른 하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들이 서로 지지성원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

Digitized by Google

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4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한 부대들인 사회주의나라들이 민족해방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모든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세계혁명에 대하여 지니고있는 중요한 국제주의적의무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지원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세계혁명력량을 보위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으로써 세계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지지를 주어야 하며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강력한 국제적련대성을 이룩해나갈 때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아성도 무너뜨리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원칙들은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독창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강화하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지하며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8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세계혁명의 2대력량의 하나를 이루고있는 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알제리인민의 투쟁,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 앙골라,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정신적 및 물질적 지원을 보내주시였다.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1960년대이후시기에 와서 3대륙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Digitized by Google

반혁명적공세를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해나섰다. 놈들은 세계도처에서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한편 이미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한 위협공갈과 회유기만 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첨예한 문제로 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3대륙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벌리며 광범한 반제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방침들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들은 세계혁명의 근본요구와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하여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그들을 반제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적독립을 쟁취하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완전한 정치적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 그들을 지지성원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우리 대표단을 수많이 파견하시여 그들의 자주적인 정책들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도록 하시는 한편 신흥세력나라의 대표단들을 초청하시여 반제투쟁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함께 의논하시며 우리의 성과와 경험으로 그들을 고무해주시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자주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운동이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위험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고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정책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며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련합회의 보도를 내도록 하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교부장회의들에 큰 대표단을 보내시여 쁠럭불가담운동의 분렬의 위험을 막고 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쁠럭불가담운동이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자기 대렬에 단합시키면서 공동투쟁을 강화하고있는 시기에 몸소 아프리카 및 구라파 나라들에

Digitized by Google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시여 뽈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진행하신 대외활동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뽈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실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모든 행동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 전체를 옹호하고 공동으로 보위하며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단결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자주, 친선, 평화를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로선으로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우리 시대의 요구, 현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리념이다.

우리 당이 자주, 친선, 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삼는다는것은 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수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국제관계발전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된다.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으신 권위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전례없이 활발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대외관계분야에서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에 와서는 세계의 100여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에 260여개의 조선통일지지위원회가 조직되여있고 세계의 모든 대륙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는 현실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

정자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세계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으며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분야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이며 우리 나라가 세계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실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혁명사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앞에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며 그들의 두터운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인류해방의 구성》,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발전추세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시여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바쳐 오시였으며 시대와 인류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다.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며 크나큰 자랑이며 더없는 행복이다.

우리들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로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갈때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와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으며 세계반제자주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에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할 보람차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선인민군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5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으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인민군대가 걸어온 반세기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군건설방침, 탁월한 령군술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해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며 주체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성스러운 길에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숭고한 본분과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웅적위훈으로 가득찬 자랑찬 년대기이다.

오늘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다.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할 확고한 결의에 차넘쳐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던 시기에 몸소 그 첫페오를 꾸리시고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도 역시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군대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후신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후 조선인민군으로 발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68페지)

로동계급이 자기의 참다운 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은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제국주의는 반혁명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맞서야 하며 반혁명적폭력은 혁명적폭력으로 격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반제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야 하며 그 실현을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새형의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으로부터 제기된 필수적요구였으며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지 못하였던탓으로 하여 민족적자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이 요람

Digitized by Google

기에 말살된것도 자체의 약점과 함께 일제가 반혁명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인민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참다운 혁명무력이 없이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으며 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문제를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주체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주체위업을 굳건히 보위하고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혁명무력이 탄생하게 되였으며 오랜 기간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자기의 강력한 혁명군대를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나가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한 여기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자위적인 혁명무력을 가지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강력한 현대적정규무력을 가져야 승리한 혁명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보위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현대적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이 필연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또한 로동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면 수령의 령도밑에 자체의 혁명무력을 강력한 정규군으로 건설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마련되게 된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에게는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간부양성과 대렬보충을 계통적으로 실현할수 있고 군대에 현대적인 군사장비와 필요한 물질적수단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반제민족해방혁명단계에서 창건된 혁명무력을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새롭게 나서는 혁명 과업과 임무를 군사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현대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심오히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Digitized by Google

신 정규무력건설방침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밝히신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로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제국주의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이 높이 추켜들었던 불멸의 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을 변함없이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된 참다운 혁명적무장력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끝까지 고수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되고있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되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야만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강화발전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군대이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군대가 당의 군대로 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군대를 조직하고 강화발전시키는것은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옹호보위하기 위해서이다. 로동계급의 혁명군대는 당이 내세운 혁명임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고 대를 이어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주체형의 혁명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바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당의 군

Digitized by Google

대, 혁명의 군대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형의 혁명무력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을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2)

조선인민군의 반세기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련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로정이다.

조선인민군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에서 언제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군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511페지)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무력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혁명군대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에만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본성을 지키고 당과 혁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혁명무력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군대안에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안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이 강화되고 혁명전통교양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사상의지의 결정체로, 주체형의 피만이 순결하게 맥박치는 충성의 전투대오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한편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적군사로선과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빛나게 실현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위적군사로선이 빛나게 실현되고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5대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전투적위력을 완전무결하게 갖춘 일당백의 현대화된 간부군대로 자라나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무력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군건설,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주인은 자기 나라 인민이며 군인대중자신이라는 확고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견지하시고 혁명무력의 불

간을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무장장비를 갖추는데 이르기까지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성판례와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무력의 조직형태와 편제, 군사 규정과 교범, 훈련지도원칙과 부대지휘관리를 비롯한 군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규정하시고 풀어나가시였으며 군사전법도 철저히 우리 식의 주체전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원쑤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적무장력으로 그 위력을 떨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로정에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여온 인민군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력사적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전투적로정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튼튼히 옹호보위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로정이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인민군대로 하여금 주체형의 혁명군대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군대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은 바로 당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군대라는데 있다.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감으로써만 주체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는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가 대를 이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군건설방침과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 전군주체사상화방침은 모든 인민군군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출수 있게 하는 군건설의 총적임무이다. 이 혁명적인 군건설강령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이 더욱 뚜렷해지고 투쟁목적과 과업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으며 인민군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본성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진 근위대, 결사대로 키우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과 혁명적의지가 구현되여있는 혁명적구호

Digitized by Google

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전군주체사상화방침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는 인민군대가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숭고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우리 당의 옳바른 방침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충성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군대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고있다.

혁명군대가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원만히 준비되여있어야 어떠한 원쑤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력과 능숙한 조직적수완,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은 인민군대의 위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은 전군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안의 당정치사업, 정치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군인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이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됨으로써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적군사로선과 일당백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뚜렷이 밝히고 군대안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전투정치훈련과 군사규률의 확립을 비롯한 군사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원쑤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군사적으로 굳건히 옹호보위하고 있다.

실로 당의 령도는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주체형의 군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인민군대의 자랑찬 풍모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있다.

(3)

조선인민군은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군대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 넣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페지)

인민군대가 창건되여 오늘에 이르는 로정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숭고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훈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인민군대가 쌓아올린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한데 있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투쟁의 근본요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군대가 지닌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혁명무력의 생명이며 인민군대가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세상에 태여났으며 건군초기에 벌써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대오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우러러모시고 한목숨 바쳐 보위해온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무어졌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실지 투쟁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장군님따라 싸워나갈 때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신조,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받들며 옹호보위하는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건군초기에 뿌리내린 이러한 충실성의 위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반세기의 장구한 나날 당과 수령을 받들고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추호의 동요를 몰랐으며 그 충실성은 가장 순결한것으로 빛나고있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데서 우리 혁명무력이 발휘한 충실성이 얼마나 견결하고 진실한것인가 하는것은 인민군대가 력사적으로 이어받고있는 충성의 구호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그 터전이 닦아지던 시기에 벌써 청년장군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자는 숭고한 구호를 높이 추켜들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추켜들었던 이 구호의 정신은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자는 구호로 그대로 이어졌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웨치며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과 수령을 철옹성같이 옹호보위하였다. 오늘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혁명적의지로, 드팀없는 신념으로 삼고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굳이 지켜나가고있다.

우리 혁명군대가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되고 굳건히 다져진 전통적인것일뿐아니라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오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변치 않는것이다.

주체위업이 개척되고 우리의 혁명무력이 창건된 때로부터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혁명은 여러 단계를 거쳐 멀리 전진하였으며 세대도 교체되고있다.

혁명의 전진, 세대의 교체와 함께 인민군대오안에서 초소의 주인들도 바뀌여지고있지만 우리의 혁명군대가 지닌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을뿐아니라 그것

Digitized by Google

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뜨겁고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건군초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맹세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한목숨 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할 충성의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 전대오안에 차넘치고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다. 이것은 인민군대가 지닌 충실성이야말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참다운 충실성이며 우리 혁명무력의 력사가 앞으로도 영원히 충성의 력사로 빛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해주고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주체가 철저히 선 이 충성의 대오가 있기에 우리 당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언제나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되여있는것이다.

인민군대가 주체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입적은 또한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인것이다.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는것은 혁명군대가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지켜냄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한것은 우리 혁명군대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에게 민족적자주권을 빼앗긴탓으로 하여 오랜 세월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절절한 민족적숙망이였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숙망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그를 이끄시여 항일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고 조국을 광복하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군대가 걸어온 항일혁명전쟁의 나날은 가장 준엄한 투쟁의 로정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겹쌓인 난관과 시련의 고비들을 억세게 뚫고나감으로써 마침내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과 인민의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일대 사변이였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이룩한 우리 혁명무력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미제를 타승하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낸것은 인민군대가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은 우리 인민이 피흘려 되찾은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이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 준엄한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미제침략자

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현대의 가장 파렴치하고 야만적인 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였다.

인민군대는 전후시기에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일당백으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였으며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내였다.

조선인민군은 세계혁명위업에도 적극 이바지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군대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창건된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의 혁명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린접국가의 혁명적무장력과 힘을 합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승리한 혁명을 무장으로 적극 옹호보위하였다. 인민군대는 오늘도 반제투쟁의 전초선에서 세계혁명을 굳건히 보위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일떠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으로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것으로 하여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그 이름을 빛내이고있다.

반세기의 장구한 로정을 빛나는 승리와 영웅적위훈으로 아로새기고 주체위업의 년대기우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필승불패의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　　*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튼튼히 보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인민군대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인민군대의 존재와 그 강화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군주체사상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은 군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전통과 업적은 인민군대를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고귀한 재부이

Digitized by Google

다. 인민군장병들은 이 영광스러운 전통과 위대한 업적을 귀중히 여기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하며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군대가 주체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군사로선과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5대방침, 열가지 고상한 공산주의적전투도덕적품성과 군무생활의 10대준수사항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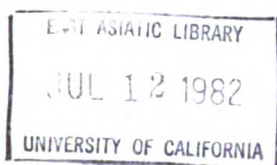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방도는 정치사상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인민군대안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안에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군대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4호(루계 480호)

편 집 위 원 회

편집•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2년 4월 1일　　발 행•1982년 4월 5일

ㄱ—256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JUL 12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5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481)

차 례

Digitized by Google

김 일 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2년 4월 14일)

존경하는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외국의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대표단들, 저명한 인사들이 이번에 우리 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서와 오늘 우리의 이 뜻깊은 회의에 참석하여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외국의 귀중한 손님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인민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손님들이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손님들의 이번 방문을 통하여 국제적벗들의 형제적우정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대표단들, 저명한 인사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선거는 전체 인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온 나라가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정열로 들끓는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우리 혁명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정치행사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공화국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훌륭히 행사하였으며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힘있

Digitized by Google

제 시위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의 혁명력량은 한층 더 강화되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새로 선거된 대의원동지들이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나에게 공화국정부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맞게 자기앞에 맡겨진 모든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공화국정부의 력사적사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움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1

동지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입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락원이 건설됩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입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입니다. 정치가 없이는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어느 사회에나 있게 되며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치는 일정한 형태의 정치조직에 의하여 수행되며 정치조직의 성격과 역할은 사회제도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는 사회에서는 정치조직이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는 계급사회에서는 정치조직이 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입니다.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입니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인민정권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인민정권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입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습니다.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큰 힘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고 협력하여야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됩니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하고 교육교양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을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만듭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룹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인민정권의 역할을 높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잘 조직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입니다.

Digitized by Google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실현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남아있으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위험도 남아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할수 없습니다.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은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의 책동이 있는 한 계속 있어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입니다.

공산주의건설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회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계속혁명의 내용입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혁명의 내용이 달라지는것만큼 혁명을 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또 그들자신이 하는 사업인것만큼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을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3대혁명은 끝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람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사상,

Digitized by Google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될것이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길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으로서 력사상 처음으로 나온 새로운 형태의 혁명정권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단계에 맞는 정권일뿐아니라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에도 맞는 가장 우월한 정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혁명정권을 가지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공화국정부의 유일한 지도사상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것을 요구합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 이것은 우리 혁명의 지도원칙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조국을 주체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입니다. 인민정권의 활동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워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때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것이며 전체 인민이 공화국정부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공화국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것입니다.

Digitized by Google

근로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으며 풍부한 실천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고 대중과 의논하여 그 수행방도를 찾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투쟁할 때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사회는 더욱 조직화되며 사회생활이 보다 다양해집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각급 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인민봉사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관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의 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은 혁명의 선행관입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고 밖으로부터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Digitized by Google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
켜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
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수 있습니다.

오늘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
술을 개조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
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
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기발한 착상, 적극적인 발기, 대담한 실천으로 끊임없는 기술혁
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에 이르기까지의 로동의
온갖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
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모두다 지덕
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
키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인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체 인민을 3대혁명수행에 힘
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야 할것입니다.

2

동지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입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혔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에 따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하며 당면하여서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알곡고지와 수산물고지를 점령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물질생활분야에서 가장 절실한것은 먹는 문제이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식량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을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갑니다. 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쌀을 수요에 따라 공급할수 있게 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부터 점령하여야 하며 인민들에 대한 쌀공급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 제6차대회가 내세운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4대자연개조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고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알곡생산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는 부침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당이 제시한 4대자연개조과업을 관철하여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고 새땅을 많이 찾아내며 간석지물문제를 풀기 위한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건설을 끝내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전력생산도 많이 늘일수 있습니다.

Digitized by Google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우에 유족하고 행복한 락원을 건설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과 공산주의적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4대자연개조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떠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와 창조적힘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커다란 잠재력을 남김없이 리용하여 간석지개간을 비롯한 4대자연개조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끝내야 하겠습니다. 간석지와 새땅을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새로 개간한 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사를 잘 지을수 있도록 내부망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여러가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더욱 늘여야 합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하여 단위당수확고를 높이는것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특히 농작물의 육종사업을 잘하여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며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알곡작물의 정보당평균수확고를 벼는 9톤, 강냉이는 9.5톤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수산물고지를 점령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강하천이 많고 세면이 바다를 끼고있는 우리 나라는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며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먹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고기배생산을 늘이고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5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수산물생산을 다각화하면서 명태잡이에 힘을 집중하여 1980년대말에 가서 한해에 명태를 250만톤이상 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가공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수산업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고지와 천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화학공업과 경공업이 높은 수준에 올라서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여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화학공업에 큰 힘을 넣어 7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를 반드시 점령하며 화학섬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지금 있는 화학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

Digitized by Google

이드생산공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생산기술공정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화학비료와 화학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생산을 적극 늘여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자재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발전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어김없이 점령하며 식료품과 가정용품, 문화용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전력고지와 석탄고지, 금속고지,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반적성과는 인민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기간공업부문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전력공업과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력공업과 채취공업, 금속공업, 세멘트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 1,500만톤의 강철고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은 생산의 기본동력입니다. 전력생산을 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새 전망기간의 높은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동력기지건설방침에 따라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

수력발전소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동력기지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특히 강하천들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는 새로운 수력발전소건설방식에 따라 수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고 태천발전소와 보천발전소, 금강산발전소를 비롯한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며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소와 함께 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북창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를 확장하여 그 생산능력을 훨씬 늘이며 안주지구와 같이 석탄이 많이 나는 지대와 중요도시들에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중요한 원료이며 연료입니다.

우리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안주지구, 순천지구, 덕천지구와 북부지구의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특히 질좋은 석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는 안주지구의 탄광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여 앞으로 한해 석탄생산량을 7,000만~1억톤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Digitized by Google

와 함께 생산전망이 크고 개발조건이 좋은 지대들에 큰 규모의 새로운 탄광들을 많이 개발하며 중소규모의 탄광들도 적극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탄광작업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굴진기와 착암기를 비롯한 굴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용하여 굴진과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며 여러가지 능률적인 채탄기를 널리 받아들이고 운반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탄캐기작업과 운반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강철고지는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10대전망목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지의 하나입니다. 강철고지를 점령하여야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금속공장들을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금속공장들을 건설하여 강철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김책제철소를 개건확장하여 700만톤 능력의 대야금기지로 꾸리고 황해제철소와 성진제강소, 강선제강소를 확장하여 그 생산능력을 훨씬 늘이며 우리 식으로 300만톤 능력의 대동강제철소를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 나라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야금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쇠돌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무산광산, 덕현광산, 덕성광산을 비롯하여 생산전망이 큰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쇠돌매장량이 많고 개발조건이 좋은 지대들에 새로운 철광산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지금 있는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새로운 광산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유색금속생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지금 있는 광산들에서 생산을 계속 늘여나갈수 있도록 채굴원천을 넉넉히 확보하고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후보지들을 많이 마련하여야 하며 다량채굴, 다량운반,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우리 식의 새로운 소성방법에 의한 생산공정으로 개조하여 세멘트생산을 빨리 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순천세멘트공장과 2.8세멘트공장,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하여 기술경제적조건이 좋은 세멘트공장들에 현대화된 새로운 소성로들을 더 건설하며 여러곳에 지방원료를 리용하는 중소규모의 세멘트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몇배로 늘이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

Digitized by Google

시키기 위한 매우 어렵고 방대한 투쟁과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능히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기계공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현대적인 발전설비와 채굴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있으며 금속공장설비, 세멘트공장설비를 비롯한 공장설비들을 일식으로 훌륭히 생산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수력자원과 석탄자원,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현대적인 기계공업이 있고 자체의 무진장한 자원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 전망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전망목표들은 방대한 기본건설을 전제로 하는 경제건설과업입니다.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발전소와 탄광, 광산, 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건설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와 현실적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투자방향과 건설대상을 바로 정하고 건설의 선후차를 옳게 가려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방대한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새로운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철도수송과 자동차수송, 배수송을 발전시키고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련대수송과 집중수송, 집합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커다란 예비는 바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더 잘 실현하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바로하며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공업의 규모가 커지고 공업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가 다양

Digitized by Google

하여진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기 위하여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내오고 공업지도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경제지도사업에서 새로운 공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도경제지도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며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담당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며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데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과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근로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조직사업을 잘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실심과 뜨거운 혁명적열정을 안고 힘과 지혜를 합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3

동지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입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갑니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없으면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실현될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습니다.

Digitized by Google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자주적인 정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됩니다. 자주적인 정권이 있어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성을 잃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자주독립국가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참으로 자주적인 정권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왔습니다.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도 자주적으로 하고 경제건설과 문화건설도 자주적으로 하였으며 조국방위와 대외활동도 자주적으로 하였습니다.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 사회주의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에 이름을 떨치며 오래동안 무권리와 천대 속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것은 바로 공화국정부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온 결과입니다. 공화국정권이 견지하고있는 자주로선의 정당성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공화국정권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고 자연개조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여 조국땅우에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사회를 훌륭히 건설할것입니다.

오늘 공화국정권앞에는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의 내부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인민은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외부세력은 조선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Digitized by Google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태도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내보낼데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여도 그것은 다 사회의 여론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기전에 먼저 미군철거의 구호를 들고나와야 합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민족의 내부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으며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참한 처지를 면할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집권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외세의존정책은 다름아닌 매국배족행위입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어긋나게 계속 외세의존의 길, 매국배족의 길로 나간다면 조국과 인민 앞에서 영원히 씻을수 없는 더 엄중한 죄를 짓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이제라도 조국과 인민 앞에서 저지른 지난날의 죄과를 조금이나마 씻고 옳은 길로 나가려 한다면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자주적립장으로 돌아서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과 간섭책동을 반대하고 자주적립장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마주앉아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방안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뚫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뿐아니라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도 변함없이 자주의 길로 나갈것입니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

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될것입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으며 자주성의 거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있습니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뿐아니라 일부 자본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고있습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입니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 어떤 강권이나 지휘봉도 통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을 민족은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평등하며 자주적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도 말고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 세계에는 지휘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도 없어지고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도 없어질것이며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될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Digitized by Google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운동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습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데로 창끝을 돌려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힘차게 싸워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는 더욱 빨리 실현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굳게 단결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서 언제나 이 운동의 원칙과 리념에 충실할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기세찬 조류에 합류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자부심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인성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친선단결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기치따라 나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하게 된 확고한 신념이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이다.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는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와 지도적원칙, 주체사상의 력사적의의가 과학적으로 정식화되고 심오히 전개되여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론문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과 과학적인 명제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주체사상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교과서이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론문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　　　　*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요구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창시되였으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완성된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지도사상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완성하신 력사적과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했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에 기초하여 창시되였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

싸움과 파벌싸움을 일삼고있었으며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이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혁명을 하는 참다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이며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여나올수 없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력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 기간의 투쟁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완성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이를 일반화하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이처럼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의 력사적경위와 그 발전완성과정에 대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심오히 천명하고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또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가장 옳은 견해와 관점, 립장을 세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0페지)

사람들은 세계를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파악하며 자기의 리해관계로부터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운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관을 세우는것은 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고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를 옳게 해명하는것이다.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세계가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져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운동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것이 해명된 조건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해명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갈수 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되는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을 새롭고 진보적인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나간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더욱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사람의 활동인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세우게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줄뿐아니라 세계를 대하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준다.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무엇을 놓는가 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야 세계관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의 이 중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옳바로 진행되게 하려면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고찰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여야 객관적대상을 분석판단하는데서 사람들의 리해관계, 다시말하여 사람에게 리로운것과 해로운것을 옳게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사람의 리익에 맞는것은 조장시키고 해로운것은 극복하는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또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이다.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

Digitized by Google

를 실현하는 담당자는 다름아닌 사람이다. 세계는 사람의 요구와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개변된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척도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가장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리롭게 만들기 위한 인식과 개조의 위력한 무기를 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의 존재와 운동의 근본특징, 그 진면모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수 있게 하며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된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를 전면적으로 해명해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는 옳바른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한다.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가지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는 세계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사회력사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해를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481~482페지)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는 주체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물론 사회도 물질세계에 속하는것만큼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에는 자연과는 다른 자기의 고유한 운동법칙이 있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창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적진보와 력사발전이 이룩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과 불평등이 생겨난 이후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은 소수의 억압자들의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서 력사밖에 서있었고 자기 운명의 참된 주인으

로 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에서 주인행세는 소수의 반동적착취계급이 하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숙망으로 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쥠으로써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력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라는것을 밝혀준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가는것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과정은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사회력사적운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을 밝혀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하며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사회를 개조하며 사람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고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력사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의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

Digitized by Google

은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질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할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밝혀줌으로써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독창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가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지도적원칙을 밝혀준다.

혁명을 옳게 하려면 립장문제와 함께 방법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는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방법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근본방법이다.

창조적방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은 자연과 사회를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사업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대중의 창조력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창조적활동자체가 있을수 없다.

이와 함께 창조적활동을 벌리자면 자체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주어진 조건과 대상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객관세계를 개조할수 없다. 실정에 맞지 않는 주관주의적행동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창조적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면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는것과 함께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조건과 자체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을 밝혀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지도적원칙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만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여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은 모든 사업에서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워 주인다운 립장과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Digitized by Google

혁명관을 가지고 오직 혁명의 한길에서 꿋꿋이 싸워나갈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력사적의의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주는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중요한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이 력사적과제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밝힘으로써 그 초석을 이루는 독창적인 철학적원리를 내놓게 되였으며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혁신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것은 주체사상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한 중요한 력사적공헌의 하나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리론들을 새롭게 밝힐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데 대하여 천명되여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혀주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가장 가까운 길로 전진하여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주의 새세계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매개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주견에 따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사상리론발전에서나 혁명실천에서 거대한 력사적공헌을 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데서 실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들과 풍부한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개괄되고 리론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심오하게 전개되여있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이 힘있고 명백한 론리로 론

Digitized by Google

장되고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더욱 확증되게 되였다.

본문은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공헌을 한 력사적문헌이다.

본문에는 주체사상을 리해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이 과학리론적으로 명철하게 해명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과학적명제들이 심오히 정식화되여있다. 그리하여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지위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주체사상은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력사적경험들을 총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체사상을 학습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할수도 없고 전진할수도 없다. 주체사상을 학습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주체사상학습에서의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우리 당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당문헌들에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제반 원리들이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저작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우리 당문헌들을 깊이있게 학습함으로써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모르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데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사상정신적량식, 혁명실천의 무기를 얻자는데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 자연을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창조성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3대혁명소조운동은 위력한 혁명지도방법

리 길 송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강화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1)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온갖 형태의 구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 혁명을 통하여 실현되며 그들을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는 과업은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일정한 지도방법, 지도형식을 통하여 실현된다. 지도방법, 지도형식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옳게 실현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법, 지도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은 3대혁명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이미 3대혁명소조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형식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전면적으로 다그쳐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로운 형식의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Digitized by Google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페지)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적군중로선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에는 대중지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하는 옳은 방도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기본방법, 기본형식의 하나이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있는것만큼 정치사상적지도는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는 조건에서 당의 지도는 정치사상적지도와 함께 과학기술적지도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가 밀접히 결합되여야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는 반드시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가 옳게 결합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의 지도에서 나서는 이 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소조원들의 구성상특성으로 하여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3대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훌륭히 실현하게 한다.

3대혁명소조에는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이 망라되여있다.

3대혁명소조의 이러한 구성상특성으로 하여 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전당적, 전국가적 견지에서 3대혁명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3대혁명을 당의 의도와 구상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이다. 이 투쟁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의 사상의지에 따라 일치하게 사고하고 움직일 때에만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이렇게 되자면 웃단위의 지도성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단위를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우가 아래를 적극 도와주는것은 당적지도의 근본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이다.

아래단위에 대한 실속있는 당적지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침투되게 하며 현지에서 걸린 문제를 훌륭히 풀어주고 일군들을 당적으로 잘 도와주게 함으로써 3대혁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Digitized by Google

3대혁명소조운동은 큰 규모의 지도력량이 중간다리를 거치지 않고 아래에 직접 내려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당의 의도를 대중속에 제때에 침투시키고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게 한다. 때문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지도방법은 3대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또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가장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은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3대혁명수행에 적극 떨쳐나서야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3대혁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 방법만이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으로 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혁명적지도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위력은 바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3대혁명수행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게 한다는데 있다.

3대혁명소조들은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당의 방침과 당의 결정, 지시들을 해설하면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구체적 환경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기때문에 소조가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언제나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훌륭히 관철되고있다.

이처럼 3대혁명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를 결합시키고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따라서 이 지도방법은 한두사람이 아래에 내려가서 수공업적으로 사업을 지도하던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많은 지도력량이 내려가 3대혁명을 조직화하고 적극화하는 우월한 현대적인 혁명지도방법으로 된다.

(2)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19페지)

우리 당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처음으로 파견하던 그때에 3대혁명소조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매 시기마다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원칙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었으며 이 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는 3대혁명소조운동이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으로서의 그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Digitized by Google

당의 령도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이 보다 적극화, 조직화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전위투사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앞장에 서서 적극 옹호하고 관철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근위대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었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들이 활동하는 모든곳에서는 언제나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으며 그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태도에서는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나가는것을 확고한 생활신조로 삼고 투쟁하고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투쟁기풍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당의 모든 결정과 지시들이 언제 어디서나 철저히 집행되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는 당의 구상과 의도가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깊이 침투되고있으며 전당과 온 사회가 당의 부름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고있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3대혁명의 기치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또한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그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소조원들이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각급 당조직들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고 해당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당적으로 책임지고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지도와 과학기술적지도가 옳게 결합됨으로써 당사업이 경제사업과 밀착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또한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게 되었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군중이 있는 모든곳에서는 어디서나 당조직이 움직이고있으며 당조직이 움직이는데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

치고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비할바없이 강화된것은 우리 당의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비상히 높이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졌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더욱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세워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다 국가, 경제 기관들을 통하여 집행된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은 간부들을 적극 일깨워주고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과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패기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현대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그들이 해당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국가, 경제 기관들의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친위대, 근위대로 자라난것은 우리 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수많은 3대혁명소조원들은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났다.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청년인테리들이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높은 충성심을 지닌 혁명적인테리로 자라난것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이다. 그것은 우리 당의 간부대렬을 훌륭히 보충할수 있는 커다란 밑천으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당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함경남도에서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도당위원회는 3대혁명소조사업을 중요한 당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갔으며 모든 소조들이 해당 단위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혁명소조와 합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힘있게 벌림으로써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온 도가 당의 사상의지에 따라 한길같이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부터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싸워나갈 굳은 결의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소조운동이 심화발전되고 3대혁명수행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3류산직장의 현대화와 비료하조장의 종합적기계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카바이드로들을 밀폐식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리고 도안의 모든 화학공장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져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화학공업부문에서 힘든 로동과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앨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대유색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산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힘찬 진군속에서 수천척지하막장까지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련결되고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가 실현되여 생산에서 새로운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믿음직한 생산기지의 하나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들은 4천마력고압가스압축기를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대상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하여 또한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룡양광산금산갱의 영웅광부들은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의 지도와 방조 밑에 모두가 이미 준기사의 자격을 받았으며 지금은 전원이 광산대학에 입학하여 기사로 자라나고있다.

룡양광산금산갱의 영웅광부들이 추켜든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첫 봉화는 지금 우리 도는 물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져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생활은 3대혁명소조운동이 혁명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　　＊

3대혁명소조운동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3대혁명소조들이 지닌 숭고한 의무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것은 그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웅대한 전략적구상을 실현해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당의 령도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소조와 합심하여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찾고 구체적인 대책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현지에 파견된 3대혁명의 전위라는 자각을 깊이 가지고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위력한 혁명적지도방법으로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조 재 선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밝혀주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이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바로 그러한 높이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데 대한 목표이다.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 청년들 속에서 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각오와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사상사업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1)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제일생명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표징이며 그가 지닌 사상정신적풍모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근본특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의 핵을 이루는 기본정신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03페지)

혁명가는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나가는 창조적활동가이며 자각적인 투사이다. 혁명가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있는 사람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주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이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을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주체의 혁명관을 지

Digitized by Google

니게 된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혁명운동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의 혁명관의 핵이며 그것은 곧 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를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사람만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신념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제일생명으로, 기본품성으로 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는 근본적인 사상정신적특질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근본특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이기때문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혁명투사들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사회와 자연과 사람까지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과 창조의 과정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하게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또한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 투쟁의 기수로, 선봉투사로 될수 있는것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근본바탕으로 하고 그에 기초할 때에만 높이 발휘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끝없는 충실성을 지닐 때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어떤 원쑤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질수 있다.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녀야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헌신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수 있고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조직을 가장 존엄있게 대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 규률성을 지닐수 있다.

따라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사명을 다하는데 필요한 모

Digitized by Google

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들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닐수 있게 하며 가장 높이 발양시켜주는 근본바탕이다.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사람만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정신인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근본특질로 된다.

우리 당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혁명적인 사상교양사업의 원칙을 새롭게 확립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밝혀낼수 있었다.

(2)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근본특질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불굴의 혁명정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불굴의 혁명정신, 이것은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혁명적실천활동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떤 높이에서 어떻게 구현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구현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혁명적실천과정,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간고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책동과 반항을 극복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준엄한 계급투쟁과정이다. 이 과정은 세계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세력들의 필사적인 발악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일뿐아니라 당과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반당반혁명적요소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하는 심각한 혁명투쟁이다. 혁명의 원쑤들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를 헐뜯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데 주되는 공격의 화살을 집중한다. 원쑤들의 온갖 공격과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 령도자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실현을 위한 준엄한 계급투쟁은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강의한 의지와 헌신성, 자기희생적정신을 요구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곧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구현되여야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실천활동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구현되여야 하는것은 또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의 장기성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고 완성되여나가는 혁명의 력사적과정에서 준엄한 계급투쟁은 계속되며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투쟁도 계속된다.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충실성, 수령의 혁명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혁명가들의 충실성도 대를 이어 영원히 변함없이 간직되여야 한다.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도 구애되지

스승이며 보호자이다.

혁명전사가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길인 동시에 한없이 고마운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다.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과 혁명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이러한 정신도덕적관계의 표현이며 가장 숭고한 의리이다.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을 위하여 살며 수령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혁명적의리, 바로 이것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으며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의 원천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끝없는 충실성은 이러한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인것으로 하여 어떠한 변심과 가식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철저한 혁명정신으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뿐아니라 그것을 가장 열렬한 혁명적동지애로 간직한다.

불굴의 혁명정신, 이것은 수천수백만의 혁명가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가장 위대한 혁명동지, 수령에 대한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동지적사랑의 숭고한 표현이다.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는 혁명대오안에서의 사상의지적결합의 견지에서 볼때 혁명동지들간의 관계이다. 수령과 전사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력사적위업을 위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합된 혁명동지이며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대오의 성원들이다. 이로부터 수령과 전사들사이에는 참다운 혁명적동지들간의 관계, 가장 위대한 혁명동지와 전사들간의 동지적사랑이 맺어지게 된다.

수령과 전사간에 맺어지는 이러한 동지적사랑은 년령과 세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령도자를 한결같이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드는 사랑이며 그 어떤 사리와 공명도 바라지 않고 역경과 순경을 가리지 않는 가장 순결하고 열렬한 동지적사랑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여기며 수령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수령에게 바치는 이 숭고한 동지애야말로 수령과 혁명전사를 영원히 결합시켜주는 정신적뉴대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혁명동지들간의 원칙적인 단합의 기초이다.

이와 같이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을 지니고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살아도 오직 수령을 위하여 살며 죽어도 영원히 수령의 품을 떠나지 않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충실성은 이처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는 확고부동한 정치적신념이며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의 은인을 모시고 받드는 순결한 혁명적의리이며 위대한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동지적사랑이다.

혁명의 최고뇌수, 최고령도자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리로 다져지고 가장 열렬하고 숭고한 동지적사랑으로 바쳐지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이라는 바로 이것으로 하여 불굴의 혁명정신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과 사명을 굳건히 지키고 수령의 혁명위업 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칠수 있게 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기로 된다.

(3)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위업이 개척되고 발전되여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속에서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소유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출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기 위한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숭고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7권, 103페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는것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나가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길에서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는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우리 혁명에 영원한 활력을 주는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였다. 그들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한 민족의 기쁨을 한몸에 안고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남김없이 보여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같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은 특히 오늘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에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의 위치와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20년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

Digitized by Google

여 견결히 투쟁한것처럼 80년대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의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20년대의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서있던 바로 그 자리에 오늘은 당과 수령을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나선 8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자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투쟁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이력사적지위와 사명의 공통성으로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고귀한 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 매우 중요한 실천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기 위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고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조직의 지도를 받으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되게 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만들게 된다.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 또한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당의 의도와 방침대로 혁명적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실천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이다.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게 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실천활동을 강화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을 받드는 《80년대의 김혁이가 되자》, 이것이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성숙된 요구이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의 청년들이 다지고 또 다지는 억센 결심이며 혁명적각오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리 성 갑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혁명적 방침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일수 있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는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illegible] 관점과 립장이 가장 정확하게 [illegible] 있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illegible] 과학적방법이 전면적으로 [illegible] 있다.

[illegible]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 [illegible]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 [illegible]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다.

[illegible]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illegible] 있다.

[illegible]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 [illegible] 결정한다는 주체사상 [illegible] 활동의 근본원칙입 [illegible] 집》 제7권, 84페지)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어떠한 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있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할 때에만 당활동의 근본원칙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과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과학적방법론을 집대성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과 같은 당활동의 근본원칙은 오직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해명해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뚜렷이 밝혀질수 있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이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오래동안 모진 착취와 압박, 온갖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오던 근로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내세운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정확히 밝혀지게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의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이다.

군중로선이 밝혀주는 대중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혁명적 원칙과 방법들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근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이다. 주체사상은 이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근로인민대중이

Digitized by Google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사회력사원리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혁명적군중로선은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힌 주체의 사회력사원리, 혁명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이 밝혀주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흘러나오는 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이며 립장이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을 책임지고 떠밀어나가는 직접적 담당자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사람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하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이 밝혀주는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을 반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한 방법론적원칙들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 사회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원칙들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기본요인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오직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것을 요구하며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는것은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사고하고 행동한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권리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은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권리를 견결히 옹호고수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 원칙이다. 또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을 반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갈데 대한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은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데 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요구를 구현한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은 이처럼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 숭고한 리념과 혁명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우리 당 활동의 근

Digitized by Google

본원칙이다.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목적과 근본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준다는데 있다.

당의 활동이란 다름아닌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당활동의 성격과 내용, 방향은 결국 당이 어떠한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따라서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목적과 방도를 밝혀주는 로선만이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바로 우리 당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목적과 근본방도를 정확히 밝혀준다.

군중로선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밝힘으로써 우리 당의 활동목적을 뚜렷이 제시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웠으며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3페지)

당활동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력사적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활동목적이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의 진정한 대표자인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우리 혁명과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나가며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삼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여기에 우리 당 활동의 근본특징이 있는것이다.

혁명적군중로선은 또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들을 수행해나갈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어렵고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가장 보람차고 거창한 사업이다.

이 력사적위업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광범한 대중의 힘과 지혜를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군중은 결코 혁명과 건설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조직동원하는것이 바로 정치이며 그렇게 하여야 자

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

이렇듯 우리 당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목적과 근본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혁명적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옳바른 방법론을 밝혀준다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 정책적 지도이며 그것은 곧 당이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책 작성과 관철의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는 원칙만이 당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속에 들어가 힘과 지혜를 얻을데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당이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으로 인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의사를 옳게 반영한 정책이라야 인민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대중이 그것을 잘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권, 527페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며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보다도 혁명과 건설을 직접 담당수행하고있는 인민대중자신이 더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야 인민의 지향과 리익 그리고 객관적현실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뿐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아무리 대중의 리익과 현실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옳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상공문에 지나지 않으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게 함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어나가는 추동력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가장 믿음직한 혁명력량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방도는 인민대중을 발동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인이며 결정적력량인 인민

Digitized by Google

대중이 떨쳐나서지 않고서는 결코 당의 어떠한 로선이나 정책도 현실에 제대로 구현될수 없으며 철저히 관철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하자면 그들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구현방도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야 한다.

광범한 근로대중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그 수행방도를 심장으로 파악하고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때 당이 내세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이처럼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은 우리 당이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방법론을 준다.

군중로선이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우리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는데 있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당의 모든 활동은 대중을 묶어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리져야 한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운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당이 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는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자기 활동의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이다.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당만이 대중속에서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결코 그 어떤 행정적 조치나 일반적호소에 의하여 당을 따르고 당의 두리에 뭉치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에서 당의 현명성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당의 헌신적복무에 대하여 심장으로 느낄 때 비로소 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은 우리 당이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고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군중로선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혁명적원칙을 밝힘으로써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혁명의 편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울수 있게 한다.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기본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것이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다.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 당이 기본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키우는것과 함

계 각계각층 군중을 자기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당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매우 복잡해진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여야 적대적요소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이처럼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은 우리 당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목적과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와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군중로선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군중로선을 관철할것을 강조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7권, 366폐지)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로선인것만큼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있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언제나 확고히 견지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군중로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인 구호를 내놓으시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에서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당이 정권을 잡으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보다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나서게 된다. 또한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관료주의를 부리고 대중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편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구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

방대하고 어려운 건설사업들을 대중운동을 벌리는 방법으로 수행할데 대한 방침,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독창적인 방침들을 내놓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또한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되고 그것을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나고 군중로선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군중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우리 인민은 생활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당만이 자기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살펴준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자랑찬 풍모가 있으며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군중로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참으로 지난 반세기가 넘는동안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사회주의건설이 전례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할바없이 높아진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하여야 지혜도 생기고 방법론도 찾아내게 되며 신심과 용기도 얻게 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방해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없애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킬 때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 하 명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대화원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대작들이다. 이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투쟁하며 생활하는 더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이 이렇듯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작들을 창조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한 영상을 가장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모시는것을 우리 문학예술의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였던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창조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사업을 령도하여 이룩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 *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학예술은 수령의 사상으로 광범한 대중을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여나간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시켜 위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며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이끌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지만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서는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사상적무기인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수령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할 때 신념으로 간직되게 된다. 여기에서 혁명적문학예술은 커다란 인식교양자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공산주의적풍모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 수령의 위대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수령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간직하게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령도하는 수령을 형상한 혁명적대작은 준엄한 계급투쟁과 혁명발전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함으로써 그 어떤 다른 주제의 작품에 비해서도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크게 이바지하며 광범한 대중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들을 배워주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이처럼 수령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은 거대한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키워주며 그들을 혁명적세계관과 혁명투쟁의 방법과 경험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한다. 바로 여기에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또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 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454페지)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혁명적문학예술은 생활을 현실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그려냄으로써 혁명투쟁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뚜렷이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 결합된 현실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낸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따라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인식교양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거창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방도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이 수령의 령도밑에 진행되며 거창한 투쟁을 통하여 마련된 현실자체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것이기때문이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모두 수령의 이름과 잇닿아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옳게 밝힌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을 창작하자면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수령의 형상창조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를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써 비로소 혁명의 올바른 길을 찾을수 있었으며 준엄한 시련의 년대들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인간해방의 숭고한 위업을 다그치나가고있다.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우리 인민은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더욱 몸가까이 모시려고 절절히 갈망하여왔다.

우리 당은 바로 전체 인민의 이러한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문학예술작품들에 모시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미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밝혀준 문학예술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이다.

이 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새롭게 밝히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시고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로 우리 인민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사실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내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미학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대중속에서 힘과 신심을 얻었으며 혁명적의지를 단련하고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42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진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세기적인 변혁과 이 땅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소 구상하시고 실천해오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문학예술작품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감명깊고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기적의 비결과 위대한 현실을 마련한 힘의 원천을 옳게 밝혀낼수 있으며 한평생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다 바쳐 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력사를 가장 정당하게 반영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밝힌 수령의 형상창조에서의 기본요구는 또한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작품의 핵을 똑똑히 쥐고 예술적으로 형상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작품들에서는 허구를 마음대로

Digitized by Google

설정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느 주제의 작품창작에서보다도 자료작업을 충실히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창작에서 허구를 설정하는것은 사실자료들을 전형화하여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 사실들은 그자체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커다란 감화력과 전형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작품들에서는 허구를 마음대로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력사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작품창작에서는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해야 생활과 투쟁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형상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작품에 대한 믿음과 공감을 줄수 있다.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을 바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면서도 거기에서 핵을 똑바로 찾아쥐고 예술적으로 잘 그려야 한다.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문학예술작품으로 하여금 력사문헌적의의를 가지면서도 인간학적요구를 철저히 실현하여 크나큰 예술적감화력을 가진 참다운 예술작품으로 되게 할수 있다.

력사적사실에 충실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력사적 사건과 사실을 라렬하는것으로써는 그것이 수령형상창조의 목적을 옳게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 방침을 실현해나가는 혁명투쟁의 력사적현실은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극적인 사건들과 그지없이 풍부한 생활들로 충만되여있다. 그러므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대부대선회작전이나 해방후 토지개혁과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수행된 력사적인 투쟁들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그 많은 관계자들가운데서 어떤 인물들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어느 사건들과 사실자료를 가지고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력점을 찍어 형상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서게 된다. 다시말하여 작품에서 취급하는 력사적사실, 사건에서 본질적특성을 띠는것으로서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예술적화폭으로 결합시키고 통일시키는 핵, 종자를 바로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작가가 현실속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생활자료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작품의 핵으로 되는 사상적알맹이, 종자를 바로 탐구파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낼수 없다. 심오한 철학적인 종자를 탐구하지 않고 생활자료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은 하나의 미담이나 력사이야기로는 될지언정 사람들에게 예술적감흥을 가지고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작용할수 없으며 그만큼 사상교양의 기능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거기에서 핵을 바로잡아쥐고 예술적으로 형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생활자료를 선택하여 그려나가는데서 공식화하거나 격식화하지 말고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형상을 깊이있게 창조하는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수령

Digitized by Google

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어디까지나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면서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형상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령의 위대성이 바로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며 인민대중을 한품에 안아 거대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밝혀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권위를 보장하며 수령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이 바로 구현되도록 정중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것이다.

이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과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창작가가 비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바로잡아쥐였다고 하더라도 불타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정중하게 형상해내려는 옳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사실그대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따라배우고있는 인민들에게 예술적감동과 참다운 혁명적량식을 주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수 없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며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면서 거기에서 핵을 똑바로 잡아쥐고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생활적으로 깊이 그려내며 끝없는 충성심을 담아 최대의 정중성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할데 대한 이 모든 요구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 요구들가운데서 그 어느 한가지라도 창작실천에서 소홀히 한다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가장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창조할수 없게 된다.

이처럼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요구들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주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기념비적대작들을 훌륭하게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체적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빛나게 장식한 바로 여기에 문학예술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 있는것이다.

* *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이 창작실천에 구현됨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백두산》,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영화들과 《1932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근거지의 봄》을 비롯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 그리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의 대기념비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주체시대의 영웅서사시를 펼쳐보여주는 불멸의 혁명적대작들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영화 《조선의 별》(1~6부)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위대한 령도자로 추대되시는 력사적과정을 실재한 사실에 의거하여 진실하게 형상하면서 혁명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핵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하여 거창한 력사적전환의 시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인민의 참된 령도자로서의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뚜렷이 부각시키였다.

이 혁명적대작은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 공산주의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고있다. 이 혁명적대작은 또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주체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따라배워 모두가 다 19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전진해나가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장을 차지하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일제침략자들의 악랄하고 음흉한 《토벌》작전계획을 간파하시고 예견성있게 물질적 및 사상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며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대부대선회작전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시여 일제침략자들이 그렇게도 발악적으로 달라붙었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라는 《특수작전》계획을 여지없이 파탄시키시는 로정을 기본줄거리로 하였다. 작품은 실재한 인물들을 원형으로 하는 오중흡련대장을 비롯한 조선인민혁명군 주요군정간부들과 최인관의사 등 인물들로 인간관계를 설정하여 생활을 깊이있게 전개하였다. 소설은 실재한 력사적사건과 인물자료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세우신 대부대선회작전의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은 바로 사람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굳게 믿으신데 기초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도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감동적인 예술적형상으로 확인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는 기념비적인 혁명적대작들은 실로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자랑찬 송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옳은 길을 밝힌 주체사상의 참다운 교과서이며 가장 높은 예술적경지에 오른 주체예술의 빛나는 정화이다.

주체의 문학예술사를 빛내이는 이러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수령의 형상창조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창조에 관한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임무를 다하는 참된 길이 있으며 당의 문예전사된 영예와 보람이 있다.

Digitized by Google

객관적경제법칙의 정확한 리용과 경제조직사업의 개선

원 창 수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잘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현대적인 대규모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그에 고유한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한다.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과 같은 경제법칙들은 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발생함에 따라 작용하는 사회주의경제의 고유한 법칙들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상품생산이 존재하므로 가치법칙도 작용한다.

모든 경제법칙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은 객관적성격을 띤다. 그러나 경제법칙들의 객관적성격은 자연법칙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사람의 활동밖에서 작용하는 자연법칙과 달리 경제법칙은 사람과 그들의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수도 없으며 작용할수도 없다. 사람은 경제법칙의 객관적인 작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시키는 의식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으로 하여 경제법칙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으로 나타나지만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나설뿐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 거대한 우월성이 있다.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것은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하며 계량계측제도를 바로세우고 경제계산을 정확히 하며 기업관리에 전자계산기, 산업텔레비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들을 널리 받아들여 경영활동전반을 높은 과학적로대우에 올려세워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1페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경제조직사업이란 생산자대중이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하며 생산의 전과정을 장악하고 지휘하는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과의 사업이라면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제기술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

Digitized by Google

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인것만큼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치사업이 자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에 경제조직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진행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서로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게 된다. 발전된 분업과 협업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사회적생산의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통일적으로 맞물리며 경영활동의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요구는 바로 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 설비관리와 자재보장, 로력관리와 재정관리는 다 경제조직사업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이러한 사업을 잘해나갈 때 나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것이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도 보장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해야 한다.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 여기에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것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계획화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경제법칙에 기초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 독립채산제와 수익성 문제, 원가와 가격 문제,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과 같은 경제법칙들과 경제범주들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95페지)

인민경제계획화는 경제조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 첫공정으로 된다.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설비관리와 자재보장, 협동생산과 기술지도, 로력관리 같은 경제조직사업의 전행정을 더욱 짜고들수 있으며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계획화사업을 잘한다는것은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뚜렷이 제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계획화사업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미리 설정하며 그에 따라 경제를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간다. 그런데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사람들의 단순한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균형은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히 구현함으로써만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는것이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은 경제적 현상들과 과정의 본질을 표현하며 그것들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련관관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경제법칙의 요구를 잘 알고 옳게 리용하여야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다. 만일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비롯한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옳게 구현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지 못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랑비하게 되며 나아가서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정확히 리용하는것이 계획화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말해준다.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는것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제조직사업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다. 경제기술적조건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경제조직사업의 수준이 평가되며 생산에서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경제기술적조건을 잘 보장하지 않고서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하지 못하여 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으며 객관적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대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도 없게 된다.

경제기술적조건을 보장한다는것은 기계, 설비, 원료, 자재 같은 생산수단과 로력, 자금을 원만히 대주며 기술지도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대중으로 하여금 능력껏 일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장악하고 설비관리와 자재보장, 로력조직과 기술지도, 재정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들을 옳게 구현하는것이다.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관리, 재정관리와 같은 사업들은 다 그에 고유한 합법칙적요구들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모두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의 기술공학적특성에 의하여 규제된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은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비롯한 생산요소들사이의 련관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를 밝혀준다. 따라서 객관적경제법칙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요구들을 지켜야만 생산에 필요한 경제기술적조건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원단위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비롯한 경제기술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합리화할수 있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나가는 여기에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며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있다.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것이 경제조직사업개선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에 대한 지휘를 잘해나가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데 있다.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바로 생산에 대한 지휘를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을 관리운영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을 지휘하여 그 기업소에 맡겨진 전투임무를 집행한다는것을 말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35페지)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게 된다. 계획화사업을 아무리 잘해나간다 해도 생산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다 타산하고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것이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이는 부문과 단위들이 있을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부문과 단위들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단위들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원료, 자재를 대주는것을 비롯하여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경제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요구들이 나서게 된다. 생산지휘는 바로 이러한 요구들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생산지휘를 잘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여야 한다.

생산지휘에서 기본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지휘함에 있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진것만큼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나라의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지휘에서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만일 생산과정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다고 하여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무시하고 원료, 자재의 추가적인 공급사업 같은것을 잘하지 않는다면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많은 사회적로동을 랑비하고 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도 보장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생산을 지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협동생산조직과 수송조직, 원료, 자재의 추가적인 공급사업 같은것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합리화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인식리용하는것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실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1페지)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침으로써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당면하게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해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방대한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설비관리, 자재관리,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

Digitized by Google

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이 나서고있는 조건에서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하는데 더욱 큰 힘을 넣지 않고서는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할 때 경제조직사업을 옳게 짜고들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인식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여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본질적내용과 그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을 새롭게 발견하시였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에 관한 가장 정확한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객관적경제법칙을 옳게 인식리용할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상품생산과 관련한 경제법칙과 경제범주들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수단으로 옳게 리용할데 대한 사상이다. 경제법칙의 인식리용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미리 막고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경제조직사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객관적경제법칙을 정확히 리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객관적경제법칙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의 발전법칙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줍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9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는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방침들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들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들을 정확히 인식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

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인식리용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 부문의 경제실태를 제때에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이다.

자기 부문의 사업, 자기가 맡은 단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지 않고서는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조직사업을 잘해나갈수 없으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도 없다. 자기가 맡은 부문과 공장, 기업소의 실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계획을 현실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울수 있으며 달라지는 조건과 정황을 정확히 분석판단하고 제때에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다.

아래의 실태를 정확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우에 앉아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나 받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일군만이 자기가 맡은 단위의 실태를 손금보듯 꿰들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더욱 짜고들수 있다.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상품화폐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형태가 남아있기때문에 상품생산이 존재하며 따라서 경제관리에서 상품화폐적공간을 잘 리용하는것이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독립채산제, 원가, 가격, 리윤,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공간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계설비와 원료,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의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전과정에서 상품화폐적공간들을 옳바로 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고 모두가 다 맡은 경제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객관적경제법칙들을 리용하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지도일군들이다. 지도일군들의 경제실무수준과 지휘능력에 따라 객관적경제법칙들을 옳바로 인식리용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가 많이 좌우되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지식을 깊이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인민경제부문별 관리규범들을 환히 꿰들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에 대한 총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을 객관적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객관적경제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정당한 통일방안

리 완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국내외에서 계속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이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그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는 기운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의 유일한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의 숭고한 리념에 그 기초를 두고있으며 오늘의 구체적현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가져온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통일문제를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의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힘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이 근본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이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되고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엄숙히 선포되였으며 내외에서 그 정당성이 공인된것이다.

따라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간에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이 원칙들을 떠나서 그 어떤 통일방도를 모색하겠다는것은 비현실적일뿐아니라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3페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련방국가에 관한 사상과

Digitized by Google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여기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핵을 이루는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온 민족의 근본리익에 맞게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그 전제와 기초, 내용들이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규정하고있다.

련방국가형성방안은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련방국가를 형성하고 분렬된 북과 남을 두개의 자치지역으로 그 지위를 규정할것을 밝히고있다.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대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주, 중립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 어느 대국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어느 군사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명백히 하고있다.

이것은 련방국가창립방안이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이 민족주체적힘에 의하여 해결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에서 천명된 지역자치제도 다른 련방국가들에서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내용들로 규제되여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정부들에 의하여 실시되며 따라서 북과 남은 련방국가의 테두리안에서 정책집행의 독자성을 가진다.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전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내정책들을 결정, 집행하며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 존재하는 련방제와는 달리 철저히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형식이다.

한나라, 한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두 지역을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형성하는것은 지난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련방국가들에서의 지역자치제는 련방성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주권을 행사하며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제도의 한형태이다. 이러한 지역자치제는 련방국가안의 같은 사회제도우에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밝혀진 지역자치제는 두개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민족안에서 실시되는 자치제이다. 이것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발전을 념원하는 민족의 요구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서로 다른 제도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련방국가형성방안은 이처럼 자주의 원칙의 근본리념에 부합되게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또한

Digitized by Google

온 민족이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는 평화통일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렬되고 놈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 우리 민족은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이 일어나 재난을 당하게 되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그 차이는 날이 갈수록 더 커가고있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항시적인 긴장성이 조성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되지 못할것이며 반대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평화통일의 국면은 언제 가도 열리지 않을것이다. 련방국가형성방안은 우리 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기된 가장 합리적인 평화통일방안이다.

나라의 두 지역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북과 남에 있는 현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것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한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수 있고 하나의 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제도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것이다.

사실 우리 민족은 오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제도에서 살고있지만 한조상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으로서 분렬과 대결보다 통일과 화목을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단일한 우리 민족이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러한 조건과 리유도 없는것이다. 조선인민은 전쟁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이것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도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능히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가질수 있는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배제하고있으며 서로의 합의와 리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제적인 방도를 마련하여주고있다.

이 방안은 통일정부의 구성으로부터 그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고있으며 서로의 리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지향하고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대립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의 리해와 합의를 이룩하면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련방국가가 실시하게 될 정강에는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체하며 정규무력을 줄이고 단일한 민족군대로서의 민족련합군을 조직할것을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련방국가가 중립로선을 취하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는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조약을 페기하고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외국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통일된 조선을 영원히 평화지대, 비핵지대로 전환시키는 등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련방국가형성방안은 이처럼 분렬된 두 지역에 존재하는 상반되는 두 제도를

Digitized by Google

그대로 두면서도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따라서 이 통일방안이 실현되면 조선의 평화는 확고히 담보될것이며 그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는데 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실현하자면 우선 통일방안자체가 온 민족의 리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여 북과 남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을 근본원칙의 하나로 삼고 모든 구체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련방국가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통일정부와 지역정부를 내올것을 규정함으로써 온 민족의 근본리익을 통일국가창립의 출발적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이 방안은 련방국가창립의 근본문제들인 정부의 구성과 기능, 임무와 활동원칙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리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온 민족의 합작과 단결, 호상 신뢰의 원칙에서 그것을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통일국가의 정강에는 나라의 전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독재정치와 정보테로정치를 허용하지 않고 사회성원들에게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남북으로의 사람들의 자유래왕과 임의의 지역에서의 그들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정강에는 또한 련방국가의 통일적인 관할하에 이루어지게 될 남북간의 기본관계로서 다각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이것은 련방국가창립방안이 민족적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아량있게 제기하고있으며 사상과 제도가 다른 북과 남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들을 현실성있게 제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적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련방국가창립방안이 제기하고있는 모든 원칙들과 내용들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것으로서 오래동안 분렬로 말미암아 초래된 북과 남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합작과 단결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모든 사실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그 근본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새로운 통일국가방안으로서 북과 남의 두 지역과 두 제도, 북과 남에 있는 각이한 계급계층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리정표이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앞에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조선로동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높이 받들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련방국가창립방안은 그 정당성과 현

실성, 합리성과 공정성으로 하여 대내외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은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시대의 요청과 민족의 갈망을 훌륭히 반영한 가장 공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이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해외에 있는 교포단체들과 민주인사들,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도 새로운 련방국가창립방안을 《가장 현실적이고 광명정대한 구국방안》이라고 한결같이 지지하고있으며 그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여나서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 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개별적인사들이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지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최근에만도 《조선통일지지세계대회》에 이어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기자대회》, 《조선의 통일을 위한 세계언론인대회》를 비롯한 큰 규모의 국제적련대성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리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는 련방국가창립방안은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과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는것이다.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위업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분렬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새로운 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우리나라의 주변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조선에 대한 분렬정책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엄중한 정세하에서 더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인민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분렬로 말미암아 다같이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 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공통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서로 신뢰하고 리해하며 모든것을 통일문제해결에 복종시킨다면 능히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는 련방국가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인 나라의 통일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우리의 정당한 방안을 외면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있다.

전두환일당은 외세에 의거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송두리채 팔아먹고있는 추악한 매국노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는 파쑈교형리이며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영구분렬의 길로 나아가는 철저한 분렬주의자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후 《이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이였으며 그후에는 이른바 《2천년대 통일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2천년대 통일론》은 본질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십년이나 이십년도 아닌 백수십년을 두고 숙제로 남겨놓자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통일기운을 압살하고 미제상전의 계략에 따라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범죄적행위이며 저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이다.

최근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평화통일기운을 막아보려고 갖은 반악을 다하고 있다. 놈들은 조국통일의 빠른 길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허황한 《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마치 저들이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거대한 견인력을 막고 내외의 이목을 딴데로 돌림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오며 이 땅우에 분렬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기 위한 정치적기만술책이며 범죄적 모략책동이다.

전두환도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매국배족의 무리이며 통일의 극악한 원쑤이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위업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민족의 중대사를 공동으로 론의할수 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정세를 의연히 긴장시키고 남조선의 파쑈분자들을 대결과 분렬에로 부추기고있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분렬, 리간 책동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증오와 규탄을 받고있다.

미제는 조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 미제는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되며 미국자체의 리익에도 맞는 분별있는 행동으로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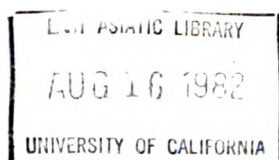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힘찬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그리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82년 제5호(루계 481호)

편집위원회

편찬•근로자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2년 5월 1일　발행•1982년 5월 5일

ㄱ—258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51
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482)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깊이 학습하자—

Digitized by Google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은 그 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은 주체의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실현을 위한 위대한 정치대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내용과 방식으로서의 3대혁명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공산주의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위대한 명제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폐지)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이 명제는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위대한 발견이며 공산주의건설원리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정식화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공산주의를 동경해왔으며 지난 시기 국제로동계급의 수령들에 의하여 그것은 비로소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이 공산주의의 붉은 기치를 들고 력사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시대와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은 세계적범위로 확대되였으며 공산주의사회는 먼 장래가 아니라 가까운 앞날로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두단계의 사회혁명이 빛나게 수행되였고 오늘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옳바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투쟁과업을 밝혀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

Digitized by Google

채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해나가시는 과정에 공산주의건설리론을 새로운 내용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내놓으신 공산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식화는 공산주의건설의 총적목적과 투쟁과업에 맞게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는 과학적원리를 가장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에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수요에 따라 분배를 실현하리만큼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만으로는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없다.

경제를 발전시켜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는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사상적요새와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실천적경험을 과학리론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인민정권과 3대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인민정권은 공산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이며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이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것을 정치적무기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게 되면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게 된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새롭게 정식화하신 공산주의에 대한 명제의 혁명적본질이 있으며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위대한 공적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새로운 명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공산주의원리를 집대성한 독창적인 과학리론적명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지도적지침이다. 이 위대한 명제가 발견됨으로써 수많은 선진사상가들이 세기를 두고 모색하고 탐구해오던 공산주의건설의 근본원리는 마치 수학공식과 같은 과학적원리로 명료하게 정립되게 되였다.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근본조건과 근본방식을 가장 정확히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위업이다. 이 위업은 사람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때 빛나게 완수될수 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3대혁명을 힘있

게 벌려야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생활, 물질생활, 문화생활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수 있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아무런 편향없이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실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혁명적원리의 발견, 이것은 일찌기부터 인류해방위업을 필생의 위업으로 삼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총화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인류의 리상을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인민정권이 공산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폐지)

혁명과 건설의 정치적무기, 정권문제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에서도 의연히 혁명의 기본문제로 제기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정권을 틀어쥠으로써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여 곧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자기의 계급적리익에 맞는 사회 제도와 질서를 세울뿐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 과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광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정치적지배권인 국가정권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시기만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강화되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건설시기의 정권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라는 새로운 정식화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정권의 성격과 사명을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다.

인민정권에 대한 이러한 정식화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시기까지도 포괄하여 일관하게 있게 되는 국가정권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확립할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이다. 국가정권이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참다운 정치적무기로 되자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목적에 맞게 그 성격과 사명이 옳게 규정되여

Digitized by Google

야 한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는 계급사회에서 정권은 어느 한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지만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권이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이다.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조직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인민정권밑에서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이 원만히 보장될수 있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이 마련될수 있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심으로써 국가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훌륭히 복무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인민정권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준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는 그들의 자주적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의 제일생명이다.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집대성되고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비롯하여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일할 권리,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모든 권리를 책임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해준다. 인민정권밑에서만 인민대중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단합되여야만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창조적힘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하고 교육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되게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하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하며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는 인민정권의 기본임무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인민정권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잘 조직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그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나아가서 생활상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인민정권은 또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

Digitized by Google

보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정치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국가정권을 강화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혁명과 건설에서 정치가 노는 역할은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강화되며 그에 따라 정치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더욱더 높아지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인민정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같이 높이는것은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국가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만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변화된 정권의 역할을 보지 않고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운다면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문화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게 되며 또한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였다는것만을 내세우면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정권의 역할을 홀시한다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옳게 세울수 없고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제도도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치적무기로서의 국가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공산주의건설시기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으며 국가정권이 공산주의건설의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인민정권의 성격,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장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치적무기라는 새로운 정식화는 미래 공산주의사회에 있게 되는 정치조직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는 어느 사회에나 있게 되며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여야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정권으로서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는 전력사적기간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정권이다.

오직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킴으로써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실로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근본방도로, 혁명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시였다.

공산주의건설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

Digitized by Google

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혁명이다.

력사에는 인류해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사회적변혁들이 있었으나 공산주의혁명위업처럼 그토록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은 일찌기 없었다.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려면 그 변혁적성격에 맞게 투쟁내용과 투쟁방식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야 정확한 공산주의건설방도를 세우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거창하고 심각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는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과정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방도를 마련해주시였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계속혁명의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계속혁명의 내용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리론실천적문제로서 이것을 옳게 해명하여야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혁명의 내용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혁명의 과정으로 보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중단함이 없이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공산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이 단순히 낡은 사회관계로부터 벗어나는것만으로써는 실현될수 없다.

착취계급의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은 영원히 청산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혁명이 끝나게 되는것은 아니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완수되는것도 아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혁명의 내용으로 규정하시여 사회혁명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리해를 확립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공산주의건설을 편향없이 완성해나가는데서 실로 거대한 기여로 된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되는 혁명투쟁의 기본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Digitized by Google

와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페지)

혁명투쟁은 그 내용과 함께 방식이 옳게 확립되여야 승리의 길로 성과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혁명방식은 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혁명의 성격과 대상이 변화되는데 맞게 달라져야 한다.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에 맞는 고정불변한 혁명방식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까지의 로동계급의 모든 혁명투쟁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착취제도를 뒤집어엎는 투쟁방법으로 혁명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사회력사적조건이 달라지며 투쟁대상과 혁명의 임무도 그 이전시기와 결코 같을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는것이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으로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투쟁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는 달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이것은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이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기본방식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한다. 자신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다음것 누리려는것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3대혁명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며 또 그들자신이 하는 사업으로 된다.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의 이러한 특성을 구현한 가장 정확한 혁명방식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방법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혁명투쟁의 고유한 방식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미래의 공산주의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방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정확히 해명되게 되였다.

물론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3대혁명은 끝나게 될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실현된 다음에도 사람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되여야 하기때문에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것이다.

이렇듯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혁명투쟁의 내용과 방식을 다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시고 체계화하심으로써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우리 당과 인민이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정권을 정치적무기로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길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9페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깝게 바라보는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정권이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군중로선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는 주체의 대중령도원칙이다.

인민정권은 모든 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인민정권활동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인민정권의 정치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가 더욱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보다 다양해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지향대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상혁명은 혁명의 선행관이며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인간개조사업을 성과

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개조사업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서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향도적력량이며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우리 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설계도가 펼쳐지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의 력사가 창조된다.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광명한 미래, 우리 조국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우리 혁명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간고한 시련과 위대한 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에서 이룩된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가 오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위대한 현실은 바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으며 일편단심 당의 령도따라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겨나갈 확고한 결의로 가득차있다.

참으로 우리 당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위대한 상징이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이 영원히 승리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 당에 자신과 후대들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Digitized by Google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

박 주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인민정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명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정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정식화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인민정권의 근본사명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준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고 정치생활, 물질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시켜준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으로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국가주권을 쥔 계급은 사회를 지배하는 지위를 차지하며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한 계급은 지배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극소수의 착취계급의 무제한한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지배권이다. 이 사회에서 착취계급은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며 그들의 자주성은 여지없이 유린당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주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철저히 담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Digitized by Google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보장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자주적권리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자주적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주성의 법률적표현이다. 국가주권은 사람들의 자주적권리의 내용을 규정하며 그 실현을 권력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인민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집대성한 정치,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는 정치생활과 밀접히 련관되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자면 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직접 실현하는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하여야 참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수 있게 되며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행사에 참가하는 기본형식은 선거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다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성원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자기자신이 그 성원으로 선출되여 주권행사에 실제적으로 참가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또한 인민정권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신소청원제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국가사업에 널리 참가시킨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모든 면에서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행사할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 무기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로서 인민대중에게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5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루는 창조성의 발현이며 그들의 창조적능력의 구현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창조성,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벌리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주적권리에 관한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관련되는 문제이라면 창조적활동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내용과 수준은 그들의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규정되며 창조적능력은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될 때 높이 발휘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그들이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존재로서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사람들은 혼자서는 큰 힘을 발휘할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통일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조직되고 단결되여야만 개별적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힘에 비길수 없는 거대한 창조적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뭉쳐야만 모든 활동에서 통일성과 일치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집중시켜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조직들에 의하여 조직화되며 여기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지배권을 실현하는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을 다 망라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창조적능력을 조직화하고 창조적활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있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하고 교육교양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운다. 이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힘을 비상히 증대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창조적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여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에서 주인이 될뿐아니라 경제, 문화 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여야 더욱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물질문화적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고 근로인민대중을 그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창조적능력을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고 창조적활동을 적극 보장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인민정권은 또한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로서 응당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것과 함께 행복한 물질문화생

Digitized by Google

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회생활의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이 정치생활뿐아니라 물질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때에만 높아질수 있다. 사람들이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할 때에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도 제대로 행사할수 없으며 결국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인민정권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는것은 그의 투쟁목적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인민정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들을 잘살게 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게 된다.

인민정권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와도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적소유에 의거하여 일하고 사회주의국가에 의탁하여 생활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살림살이 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조직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호주가 되여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자들에게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며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모든 조건을 책임적으로 마련하여준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모든 면에서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뿐아니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6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고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물론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게 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 사회경제적지반도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은 의연히 남아있게 되며 그놈들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저들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반혁명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제국주의자들도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진다. 이런 조건에서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

Digitized by Google

호할수 없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힘있는 무기이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활동에서 혁명적립장과 계급적원칙을 견지하고 민주주의와 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독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가해지는 혁명적제재이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대중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파괴하기 위하여 갖은 모략과 파괴책동을 감행한다.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짓부시는가 짓부시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튼튼히 보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 그들의 근본리익을 옹호실현하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따라서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튼튼히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한편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며 그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하여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치적무기로 된다.

참으로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워주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보장하여주는 위력한 정치적무기이며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인민정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인민정권의 본질과 성격이 더욱 뚜렷이 해명되고 인민정권하에서 누리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방도가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인민정권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정치와 국가에 관한 혁명리론을 더욱 완성시킨 고귀한 재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빨리 다그치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거기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과

Digitized by Google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9페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혁명정권을 가지고 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주체사상은 공화국정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것을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민정권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국가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회에 대한 그의 통일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인민정권의 위력을 강화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령도된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전투적참모부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위력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게 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

한 희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데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성을 밝히시고 경제건설분야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준 경제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성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근본목적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모든 사회적 진보와 변혁들이 이룩되며 력사가 발전한다.

인류사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인민대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리상사회를 한결같이 갈망하여왔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결코 실현될수 없었으며 인민들은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면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던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

면된다.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완성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인민대중이 온갖 사회적불평등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회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여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인민정권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전체 인민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사업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페지)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존재로 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면서 풍족한 물질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완전히 충족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다는것은 중요하게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부를 충분히 생산공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질생활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도 없다. 착취와 압박이 없고 정치생활분야에서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물질생활분야에서 구속과 제한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기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물질생활분야에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마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바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 공

Digitized by Google

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할 때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5~16폐지)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 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점차 공산주의적원칙을 완전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들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주되는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이러한 낡은 사회의 유물들을 청산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 력사적과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생활과정을 통하여 형성발전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한측면으로는 사회의 물질적생활의 반영으로 형성되며 다른 측면으로는 교육과 교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형성의 이러한 합법칙성으로부터 그것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게 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조하지 않고 사상교양사업 하나만으로는 사상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는것이다. 공산주의교양을 잘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Digitized by Google

느끼게 하는 바로 여기에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뿐아니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공산주의적문화를 창조해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일떠세우고 기술수단과 생산공정들을 더욱 개선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그러한 현대적인 공장들을 운영하고 신식적인 기계설비들을 다루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체득하게 되며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보장하여준다.

선진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리용하는것은 문화생활분야에서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려면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한 높은 생산력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 발전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생산공급하게 하며 따라서 문화의 공산주의적개조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기술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기술개조사업을 중요구성부분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술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가 공산주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증대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은 곧 기술개조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으로 되며 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경제건설이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야말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 사업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차이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이러한 차이들과 그로부터 생기는 사회적불평등은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과 함께 사회의 경제발전수준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이는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온갖 형태의 차이와 사회적불평등을 없앨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더욱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성스러운 투쟁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또한 인민대중의 자

Digitized by Google

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튼튼히 견지해야 할 전략적로선과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에 따라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하며 당면하여서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여기에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이다. 이러한 물질기술적토대란 다름아닌 주체성과 자립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경제토대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고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되지 못한 경제는 날로 늘어나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없게 된다.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의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된 경제,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물질적부를 풍족하게 생산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이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선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화되고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경제를 건설하여야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매개 민족국가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요에 따르는 분배를 실시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비롯한 온갖 차이를 없애고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의 정당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우리의 주체적인 원료, 연료, 동력 기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나라의 경제가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보다 강화되게 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게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면서도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투쟁과업을 바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데 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시여 쌀을 풍족하게 생산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부터 완전히 해결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알곡고지부터 점령하여야 하며 인민들에 대한 쌀공급에서부터 먼저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사회의 물질생활분야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먹는 문제이다. 먹을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되여나갈수 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쌀은 곧 공산주의이다.

쌀을 풍족하게 생산공급하는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의 하나로 된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는 없는것이다. 수요에 의한 분배는 무엇보다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4대자연개조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이와 함께 5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어김없이 점령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다양하게 해야 한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알곡고지, 수산물고지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전력고지, 석탄고지, 강철고지, 유색금속고지, 세멘트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보다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 공동의 숭고한 위업

차 봉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것을 바라는 인류공동의 념원과 리상에 맞게 자주적인 새 세계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혁명적방침이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탁월한 방침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리론적해명을 주고 세계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투쟁전략을 명시한것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류해방위업에 이바지하신 또하나의 불멸의 력사적 공헌으로 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면서 자주화된 새세계의 면모와 본질적 특징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4페지)

자주화가 실현된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자주화된 세계는 무엇보다도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다.

자주화된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지배와 예속이 없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적관계, 자주적관계가 확립된 세계이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이러한 자주적관계는 지구우에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지배세력이며 현시기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예속과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는 주되는 요인이다.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있는곳에는 언제나 예속과 불평등,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자주적인 관계를 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지구우에서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여야 한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청산된 세계인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Digitized by Google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와 떼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되면 제국주의와 지배주의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원래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자주적관계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관계이다. 따라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자주적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할수 있다.

비록 지배주의,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였다 하더라도 매개 나라, 매개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도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주견없이 남을 따르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게 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때 세계에는 지휘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없어질것이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보장되는 자주의 새세계가 건설될것이다.

자주화된 새세계의 건설은 새 세계전쟁을 미리 막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에 맞게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빨리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3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은 무엇보다도 새 세계전쟁을 막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요구이며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념원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여야 인민들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집단주의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적진보와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더우기 오늘 조성된 복잡한 국제정세는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진보적인류앞에 새 세계전쟁을 막는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길은 온갖 형태의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데 있다.

현시기 새 세계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세력이다.

지난날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이 시장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재분할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전쟁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며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들을 틀어쥐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커가고 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작은 분쟁과 무장충돌들은 거

의가 다 그 지역에서 벌리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관련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 세계전쟁을 미리 막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면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온 세계를 자주화하여야 한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여 지배주의, 식민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항시적인 근원이 제거될것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게 되면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그 어떤 강권이나 지휘봉도 통하지 않게 되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블럭에 말려들거나 그들에게 군사기지를 내여맡기는것과 같은 현상도 없어지게 될것이며 지금과 같이 신흥세력나라들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참으로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길이 바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참다운 길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마치도 군사블럭이나 렬강들의 이른바 세력균형에 의하여 유지될수 있는것처럼 떠드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가리우고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은 또한 그것이 모든 나라들에서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인민들의 최대의 리상이며 공통된 념원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도 궁극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민족국가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은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잇닿아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해방을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존엄과 영예를 기대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되면 우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세우고 자기 힘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되면 또한 나라와 민족의 모든 잠재력을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된다.

오늘 인민들의 창조적로동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그 결과로 거대한 물질문화적 재부들이 창조되고있다.

그러나 지구우에 지배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있고 침략과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인류가 이룩한 이 귀중한 물질문화적재부들이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돌려지지 못하고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 원만히 리용되지 못하고있다.

만일 인민들의 창조적로동과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다 새 사회 건설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회발전과 력사적전진이 이룩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여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자주적관계가 확립되면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군사비지출에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에 전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될것이며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은 그만큼 빨

Digitized by Google

타지게 될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또한 그들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는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조건이 다르고 소여단계에서 매개 나라의 생산발전수준도 다르며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량과 품종도 다른것만큼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참다운 단결과 협조의 공고한 기초이며 따라서 나라들사이에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되여야 정치적단결과 경제기술적협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자주화된 새세계의 건설은 모든 나라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커다란 리정표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34～35페지)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인민들의 자주적인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도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현시기 복잡한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면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더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게 될것이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또다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어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게 되면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게 될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생겨날 때부터 자주권을 가지고있으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나라들사이에 령토가 크고작거나 인구가 많고적은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따로 있을수 없으며 나라들사이에 발전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을 민족은 따로 있을수 없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높

Digitized by Google

고낮은 관계, 지배하고 지배받는 주종관계가 허용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성의 원칙은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할뿐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할것을 요구하는만큼 모든 나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결코 다른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여야 세계에는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도, 지휘하는 나라와 지휘받는 나라도 없게 될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은 참답게 자유로운 세계, 자주화된 세계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나가게 될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매개 나라는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최대한으로 옹호할수 있으며 인류공동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5페지)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운동이다. 이 운동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있으며 반제자주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고있다. 반제자주,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리념이며 목적이다. 또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그 어떤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독립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과 호상불가침의 원칙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공인된 활동원칙으로 되고있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은 쁠럭불가담이라는 조직적형태를 가지고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리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의 위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고있으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력량으로 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흥세력의 위력은 곧 쁠럭불가담운동의 위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통일단결된 위력은 필승불패이지만 분렬된 힘은 언제나 패배를 면치 못한다. 통일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을 분렬, 리간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이 빨리 확대되고 더욱 강화되여가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운동의 영향력을 막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으며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려면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데로 창끝을 돌려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Digitized by Google

협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가운데는 새생활창조과정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고 풍부한 자원과 자금을 가지고있는 나라도 있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힘차게 싸워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는 더욱 빨리 실현될것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세계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세계의 혁명적개조의 근본방향과 합법칙적로정, 과학적인 투쟁전략을 새롭게 밝혀준것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킨 귀중한 리론적재부로 된다.

세계혁명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인류의 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위업이다. 여기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류형의 혁명운동이 포괄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력량이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혁명의 리해관계와 력량관계들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지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투쟁전략에 의하여 지도될 때에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와 착잡한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에 심오한 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력량관계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사회주의력량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가 전일적인 세계적체계로 존재하지 않게 된 때로부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국제무대에서 근본문제로 되였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력량이 세계 혁명적개조의 기본동력으로 되였다.

이러한 전제밑에서 식민지예속국가들과 제국주의사이의 대립과 투쟁도 포함하여 세계의 여러가지 류형의 혁명투쟁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력량의 투쟁임무와 리익에 합류시키며 사회주의력량을 세계혁명의 주력군으로 하는 전략로선이 제기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국제혁명력량관계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이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게 되였다. 다른 편으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세력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력량과 대결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자유와 진보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의 주되는 원쑤로 된 반면에 사회제도에는 관계없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맞서싸우는 진보적력량으로, 억압과 예속이 지배하는 낡은 세계를 개조하는 혁명력량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이러한 추세와 조성된 국제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주성을 나라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내놓으시고 세계적범위에

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대상을 제국주의세력으로, 그 동력을 자주세력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리론적전제의 하나를 새롭게 해명한것으로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은 국제혁명력량관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주체적립장에서 해명한데 기초하여 세워진것이며 바로 여기에 이 방침의 독창성과 정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특성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지난 시기에는 세계적범위에서 민족주체적력량이 아직 미약하였고 국제로동계급과 사회주의력량이 제국주의에 대치하는 유일한 혁명력량으로 되여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민족적리익과 민족해방의 과업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해방의 과업에 복종시켜 해결하는것이 중요한 전략로선으로 제기되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가고있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는 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게 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한 임무로 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이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에 맞으며 신흥세력나라들은 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목적과 리해관계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힌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방침은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이 주체가 되여 진행되고있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추세와 세계혁명에 참가하는 력량들의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이 방침이 가지는 또하나의 정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과 근본방향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세계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투쟁전략이 새롭게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새 세계 건설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 세계의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평등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아갈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불멸의 업적

영광스러운 조국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마흔다섯해가 지나갔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강도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준 력사적전투였으며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 위대한 사변이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족치고 원쑤들의 아성에 불을 지름으로써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계속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인민혁명군이 존재하는 한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38페지)

국내에로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적인 전략적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식민지통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이 항일무장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하며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시고 그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시기 위하여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조선혁명군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여 혁명조직을 꾸리고 대중을 결속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여러차례 온성일대에 나오시여 국내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지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대중적지반축성사업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들을 항일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대전을 개시하신 첫시기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근거지를 두만강연안일대에 창설하시였으며 1933년 3월에는 친히 한 대오를 이끄시고 왕재산에 진출하시여 력사적인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및정치공작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급속히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인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국경지대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조직망을 국내 깊이에 확대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시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을 위한 조건을 성숙시켜나가시였다.

조국진군작전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서강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1937년 6월 4일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여 일제의 전략적요충지의 하나인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조직지휘하시여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긴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보천보전투승리의 력사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조국땅우에 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새로운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린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88~289페지)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식민지통치에 단호히 항거하여 침략자들을 조선땅에서 몰아내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고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었다.

보천보전투를 전후한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강도적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말살하기 위하여 류례없는 파쑈적인 악법들을 조작하고 식민지통치기구를 증강하면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은 애국적인민들을 무참히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들과 농산물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아갔으며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조선은 말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하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우리 민족의 명맥이 영영 끊기우느냐 아니면 보존되느냐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올리신 보천보의 불길은 삼천리강토를 밝게 비치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준 불멸의 홰불이였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른 혁명의 홰불은 일제의 갖은 억압과 천대, 멸시속에서 신음하던 전체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길을 환히 밝혀주었으며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고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씨,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승리를 통하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흠모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으며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성으로 더욱 높이 우러르면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항일성전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보천보에 타오른 광복의 홰불을 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안고 반일항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전국적범위에서 급속히 확대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떠밀고나갈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보천보전투승리의 의의는 또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하였다는데 있다.

무장한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무장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것은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일제는 항일무장투쟁이 국내에 미치는 혁명적영향을 막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경경비진을 강화하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놈들은 특히 1936년 10월 《도문회담》이후 압록강, 두만강 연안일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는 한편 물샐틈없는 경비체계를 세워놓고 후방의 《공고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벌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직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대륙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일제놈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놈들은 무서운 공포와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파쑈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파시즘에 의한 세계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던 때에 조선인민혁명군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아세아돌격대》였던 강도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피압박인민들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과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한것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력사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의 승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보천보에로의 진공작전은 방대한 군사적잠재력과 수백만의 현대적무력을 가진 일제침략군을 상대로 하여 조국땅에서 진행된 대부대에 의한 첫 무장대결이였다.

물샐틈없다는 적들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고 원쑤들의 군사적요충지를 순식간에 쳐서 놈들을 일격에 소멸함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은 그처럼 대담무쌍한 군사작전을 펼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과단성, 령활한 지략과 독창적인 전법을 그대로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병서에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에서 부단히 변화

Digitized by Google

발전하는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변시키는 대담무쌍한 전략전술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쉴새없는 타격을 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을 배합하면서 집중, 분산, 이동으로 원쑤놈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며 적은 력량으로 원쑤놈들을 유인하여 대적을 불의에 타격하며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가 재빨리 빠져 원쑤놈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며 멀리 이동하는척하다가 적의 코밑에 돌아앉기도 하며 단숨에 천리를 내달려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들이치는 등 기묘한 전술을 창조하시고 능숙하게 적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전술앞에서는 침략전쟁에서 이골이 난 일제의 파쑈두목들과 살인장군들도 패전장군의 몰골을 면할수 없었으며 《정예》를 자랑하던 일제침략군도 쓰디쓴 참패를 맛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은 실로 강자를 약자로 만들고 적들을 언제나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었으며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일제의 백만대군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온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유격전술앞에서 일제침략자들은 전률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만 들어도 놈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승리였다.

온 민족이 한결같이 우러러 받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일제의 그 어면 파쑈적폭압도 짓부시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로써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길이 곧 민족재생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한 우리 인민은 그처럼 참담한 수난속에서도 오직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승리의 신심과 희망을 안고 조국광복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굳세게 살며 싸워나갔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이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있었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살며 싸워나갈수 있었으며 투쟁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여도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혁명의 절개를 꿋꿋이 지켜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명성과 수령님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의 정으로 하여 항일유격대는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살며 싸워나갈수 있었으며 언제나 승리할수 있었다.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강의한 의지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었다.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려는것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깊이 간직하신 혁명적 의지였으며 신념이였다. 남호두로부터 보천보에 이르는 험난한 원정의 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밀림의 깊은 밤에도 압제와 천대 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여 잠못이루시며 조선혁명의 전도와 광복의 대강을 구상하시고 수많은 전투들로 온 민족의 원

한을 풀어주시고 조국광복을 앞당기시기 위한 투쟁으로 엮어진 불면불휴의 나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으로, 불굴의 의지로 되였으며 그들이 언제나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겨나가도록 고무추동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우에 끝없이 융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

리 수 근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옳게 밝혀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으며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전면적으로 밝히면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 있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힌 철학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힌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철학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한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적이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에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람에 대한 견해, 인간에 대한 주체적리해가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다.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방법, 전체계와 내용은 인간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자주성을 견지하자》, 단행본, 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2페지)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은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

자주성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존엄있게 살려는 지향과 요구로서 특징지어진다.

사람은 자주성,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게 만들어나간다. 그리하여

Digitized by Google

사람은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된다.

창조성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리롭게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사람은 창조성,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때문에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사물현상들의 리치를 파악하는 리성적인 인식능력과 자신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실현해나가는 사상정신적능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의식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가장 고귀한 속성이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기관인 뇌수의 기능이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식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지휘한다.

사람은 사상과 지식, 사유능력과 의지력과 같은 의식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는 달리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기에게 복종시키면서 생존하며 발전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리해를 옳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호상관계를 옳게 파악하는것이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여야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통일적인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호상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밀접한 통일적인 련관은 그것들이 형성되고 작용하며 발전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의 자주성은 창조성을 안받침하고있으며 창조성은 자주성에 기초하고 있다.

자주성을 떠난 창조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떠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자주성을 떠나서 창조성을 충분히 발양할수 없으며 창조성을 떠나서 자주성을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사람은 자주성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창조성을 발양하게 되며 창조성을 체현하고있기때문에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된다.

결국 사람은 자주성이 있어야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창조성을 발휘하여야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다. 이처럼 자주성과 창조성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통일적으로 발현되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은 의식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자각하게 되며 그러한 자각을 가졌을 때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자주성이 있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담지 않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란 있을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높아지는 과정

에서 자주성이 발전하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의 높이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높이에서 표현된다.

사람의 의식성은 자주성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창조성의 전제이기도 하다.

창조성이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그자체가 창조성이 의식성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사람에게 의식성이 없다면 세계와 자기 운명을 목적의식적으로 개변해나가는 창조성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사람의 창조성, 창조적활동은 의식성이 높아지는데 따라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의식성의 발전을 떠난 사람의 창조성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의 의식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의 전제일뿐아니라 그 담보로 된다.

사람의 자주성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면 창조적활동은 사람의 의식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람의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람의 속성으로서 현실적으로 발현될수 없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과 같은 사람의 의식성이 높이 발휘되여야 자주성과 창조성은 확고히 담보될수 있으며 사람들의 합목적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성과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이와 같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호상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없어도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이루어질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통일을 이루고있다.

사람은 이처럼 유기적으로 통일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속성으로 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이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는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력사적속성인가 아니면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속성이 발전완성되여 이루어진 생물학적속성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존재와 자연적존재, 사람과 동물의 본질적차이, 그 근본적인 계선과 관련되는것으로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는가 아니면 그것을 생명물질일반의 수준으로 낮추어놓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론문에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자연적속성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그 성격에 대한 가장 옳바른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이거나 생명물질일반이 가지고있는 단순히 유기체를 보존하려는 생물학적인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여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되고 끊임없는 사회적실천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속성이며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속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본질적특성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의 요구이며 반영이라고 말

Digitized by Google

할수 있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물론 사회적속성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사람의 육체적기관은 자연의 장구한 진화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된것이다.

자연의 진화적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의 발전된 육체적기관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닐수 있는 물질적바탕을 이룬다.

사람은 고도로 발전된 육체적기관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사람의 특유한 기능인 사유기능과 로동기능을 가질수 있으며 따라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발전된 육체적기관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자주성이 스스로 생겨난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발전된 육체적기관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형성될수 있는 생리적기초로 될따름이다.

사람이 아무리 발전된 육체적기관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회를 이루고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본래의 의미에서의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이 생물학적개체로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발전된 생물학적속성을 지닐수는 있어도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속성인 사회적속성은 체현할수 없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이루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와 동떨어진 고립적인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의하여 결합되고 사회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리용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나간다. 사람은 이처럼 사회관계속에서 살아가기때문에 사회적존재로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그 어느 발전된 고등동물에게도 없고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자연적존재와 구별하여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특징짓는 일반적인 속성으로 되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이룬다.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때 그것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의미한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그런것만큼 자주성은 자기 개체의 육체적생명을 보존하려는 생물학적속성인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사회적속성으로 된다.

사람의 자주성은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게 됨으로써 동물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였으며 사회적으로 결합되여 생활하게 되고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실천투쟁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사회생활, 사회적실천과정에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지향을 가지게 되고 자주성을 지닐수 있게 되였다.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과 의식성도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지니고있는 속성인것만큼 철저히 사회적성격을 띤다.

세계와 자기 운명을 목적의식적으로 개변해나가는 창조성은 사람의 창조적능력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떠나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적활동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의 창조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안받침하는 과학기술지식과 물질기

Digitized by Google

술적수단들은 어느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협력에 의하여 창조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력사적으로 발전되여온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성이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의식성은 사람의 뇌수의 기능과 직접 관련되여있지만 그것은 자연적속성인것이 아니라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의 뇌수의 기능에는 생리적기능과 사유기능이 있으며 여기에서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여 사상과 지식을 형성하는데 작용하는것은 뇌수의 사유기능이다. 사유기능을 할수 있는 뇌수를 가졌다고 하여 결코 사람의 의식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식성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사회력사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사회적속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1페지)

사람의 발전된 유기체의 한 부분인 뇌수는 자연의 산물이지만 사상과 지식은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것이 아니다. 사상과 지식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과정에서 가지게 되며 사회적인 교육을 통하여 체득하게 된다.

사상과 지식은 그 발전에서도 사회력사적으로 계승적련관을 가진다. 언제나 새로운 사상과 지식의 발생은 전 세대가 창조한 일정한 유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의 의식성이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은 의식의 형식이며 수단인 언어가 사회적성격을 띤다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은 언어의 도움으로 사유하여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객관세계를 파악하여 사상과 지식을 형성하며 그것을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서로 교환한다.

언어는 어느 한 사람의 창조물도 아니며 어느 개인의 독점물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 창조되고 대를 이어가면서 더욱 보충완성되여간다.

사회적존재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회력사적범주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속성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와 그 력사가 인간에게 부여한 사회력사적인 속성이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자연계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속성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으로 획득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속성이라는것은 이처럼 과학리론적으로 확증된 엄연한 진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속성은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속성의 발전완성이거나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생물학적속성이 아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가 형성되기이전에는 그 어떤 맹아적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수도 없었다. 그런것만큼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생명물질일반의 자연적속성의 발전완성으로 볼수 없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속성이 본질적속성을 이루며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다른 생명물질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이다.

사람은 주위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함으로써만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주위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데서 나타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속성이며 사람의 존재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하게 나타나는 사회적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실현할 때 사회적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높이 보존될 때 세계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진화론적견지에서가 아니라 사회력사적견지에서 보고 리해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사람의 사회적속성을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올바로 풀어나갈수 있다.

사람의 유기체가 자연의 진화적산물이라고 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자연적속성의 발전완성으로 보아서도 안되지만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속성이라고 하여 사람이 물질적존재가 아니라고 보아서도 안된다.

사람이 물질적존재이라는것을 부정하게 되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라는것을 대비적으로 옳게 리해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세운 주체철학의 본질적특징을 제대로 인식할수 없게 된다.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속성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사람이 물질적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일정한 련관성이 있지만 같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물질적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수한 산물이다.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하고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는 사회적속성을 지닌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특출한 물질적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이라는것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를 옳게 세울수 있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심오히 리해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철학사상발전에서의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해명을 주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세계의 주인이 누구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원리적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답이 주어지게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철학사에는 《신앙》이나 《리성》에서 인간의 본질적특징을 찾으려고 한 철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이나 《악》에서 또는 《성애》나 《성욕》에서 인간문제를 해명하려고 헛되게 시도한 철학자들도 있었으며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로동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별의별 주장을 다 내놓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철학은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하고 인간의 활동에서 물질적생산과 사회경제관계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문제에 대한 철학적해명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리해가 전일적

Digitized by Google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사회적성격을 부정하고 사람을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로 보며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온갖 그릇된 주장의 부당성과 비과학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으며 세계에 대한 과학적리해와 혁명적변혁을 부정하고 비애와 염세,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고취하는 부르죠아인간철학의 반동성이 철저히 분쇄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속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인 자주성의 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철학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속성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옳게 발양시키는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을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리론으로 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힌것은 인류철학사상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심오히 학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

박 승 덕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세계관이다.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다시말하여 이 원리는 사람의 활동을 제약하는 객관세계나 물질세계와 동떨어진 신비화된 정신이 아니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위주로 하고있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여있다.

론문은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여기에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의 특징이 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인만큼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리익을 내세우고 그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대하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나가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리해관계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람이 벌리는 모든 활동의 기초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사람의 리익은 세계를 대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식과 개조 활동을 벌려나가도록 한다.

인식과 개조 활동은 사람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기본활동분야이다. 사람은 인식과 개조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인식과 개조의 목적을 옳바로 세우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인식과 개조의 주체가 사람인만큼 그 목적은 사람자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식과 개조는 사람과 객관세계의 호상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인식과 개조를 요구하는것도 사람이며 인식과 개조 활동을 떠밀어나가는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인식과 개조의 목적은 객관세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설정된다.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인식과 개조의 목적에는 바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게 된다. 사람은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상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변하기 위한 활동을 벌린다.

Digitized by Google

사람이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며 자연을 파악하고 정복하는 사람의 활동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경제생활을 하기 위한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개조하는것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존재로 참답게 살며 발전하려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목적은 결국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 밝혀주는대로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는것은 인식과 개조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근본목적을 두어야 인식과 개조의 목표와 대상을 선택하는것으로부터 그 결과를 처리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사람의 자주적리익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고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울 때 인식과 개조 활동에 주동적으로 떨쳐나설수 있고 자연과 사회를 사람에게 복무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막연하게 그저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목표를 제기하였으며 그 실현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은 경제건설이나 기술혁명이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평가하도록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에게 리롭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워야 하며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73폐지)

사람은 세계의 사물현상들이 자신의 생활에 어떤 의의를 가지며 어떻게 소용되는가를 알아야 자연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와 사물현상을 평가하는 옳바른 기준을 가지는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물현상을 평가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리해관계와 관심으로부터 사물현상을 주동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자기의 객관적법칙에 따라 존재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속에서라야 가치를 가진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기때문에 사람의 리익은 세계와 사물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척도로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의 리익이며 사람의 리익보다 더 높고 귀중한것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불필요하고 해로우며 부정적인 사물현상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결국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게 되는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사물현상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다. 리해관계가 대립되는 계급들은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는 세계와 사물현상을 평가하는 가장 옳바른 기준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참답게 체현하고있는 사회적존재이며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선진적력량으로 된다.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혁명운동이 일어나며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부를 만들어내는 근본요인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은 모든것을 평가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반동력량이며 인구의 소수를 이루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척도로 하여서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옳바른 평가를 내릴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력과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가장 옳바른 평가를 내릴수 있다. 자연을 개조하는 힘인 생산력과 기술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평가되게 된다. 생산력과 기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되여야 참된 가치를 가진다. 생산력과 기술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게 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게 하고 생산자들의 지적 및 육체적 능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는것으로 되여야 가치있는것이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력사의 진보와 사회발전의 객관적행정에 맞게 사물현상의 가치를 옳바로 평가할수 있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 밝혀주는대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척도로 하여 사물현상을 평가하는것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기초하여야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실현에 리롭고 긍정적인가 아니면 해롭고 부정적인가 하는 견지에서 사물현상을 옳바로 판단하고 평가할수 있으며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세계의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더 잘 복종시킬수 있다.

이처럼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식과 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사물현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또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인만큼 사람은 자기의 활동과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게 된다. 세계에서 창조적힘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데로부터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데서는 사람의 활동이 기본으로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사람에게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다는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

하도록 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세계를 지배하는 령역을 넓혀나가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람이 자기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령역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다고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사람만이 세계를 개조할수 있다.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인 사람은 객관세계에 순응하여 사는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이며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위력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만들어내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적요구와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자신의 정신적 및 육체적 능력과 물질기술적수단의 힘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목적실현을 위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사람의 활동은 외부세계의 변화발전에 종속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벌어진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변화발전과정을 자기에게 복종시켜나간다.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람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사람에게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은 끊임없이 넓어진다. 한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사람의 요구가 높아지고 다른 편으로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사람의 창조적능력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세계의 더욱더 넓은 령역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한다. 인류의 매 세대가 창조하고 변혁한 세계의 령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지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들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없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이 밝힌대로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사람에게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다는 견지에 서는것은 세계를 사람에게 복무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견지에 서야 세계를 개조발전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끊임없이 넓혀나갈수 있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세계를 사람에게 리로운 방향으로 개조발전시킬수 있다는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도록 한다.

사람은 객관적법칙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세계를 자기에게 리로운 방향으로 개조하여야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나갈수 있다. 객관세계를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리로운 방향으로 개조발전시킬수 있다고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것은 세계를 사람을 위한 세계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를 실현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이 주는것을 그대로 리용만 하는 동물과는 달리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요구에 맞게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면서 세계를 개변할것을 지향한다. 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할데 대한 사람의 지향과 요구는 세계를 개조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의 원천을 이룬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를 요구할뿐아니라 자기의 주동적활동으로 자연과 사회의 변혁을 실현한다. 사람은 자기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자주적요구에 맞지 않는것은 그에 맞게 개조하며 낡고 반동적인것을 없애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발전

Digitized by Google

시켜나간다. 세계는 오직 사람의 자주적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변되게 된다.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은 세계를 사람에게 리로운 방향으로 개조발전시켜나가는 결정적요인이다.

사람의 활동은 객관적법칙의 작용을 받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지배하여야 한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에 의거하여 객관적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주동적으로 활용하면서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를 능동적으로 개조발전시켜나간다. 물론 사람은 객관적법칙을 창조하거나 페절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법칙앞에서 무력하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 리해관계에 비추어 객관적법칙을 대하며 이 법칙의 작용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 복종시켜나간다.

사람은 객관적법칙이 존재하게 되는 조건에 주동적으로 작용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법칙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종식시키고 유리한 법칙의 작용을 조장촉진시킨다. 또한 법칙의 작용과정을 능동적으로 조절통제하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주적인 생활에 불리하거나 무관계하던 객관적법칙이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세계를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발전시킬수 있다고 보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공정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자연법칙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엄혹한 자연이 길들여지고 맹목적인 자연력이 인간을 위한것으로 전환된다.

거대한 규모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불모의 땅을 옥토로 전변시킨 우리 인민의 대자연개조사업은 자연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시킨 뚜렷한 실례의 하나이다.

사회발전법칙을 주동적으로 틀어쥐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맹목적인 필연의 힘으로 작용하던 사회법칙이 사람의 지배밑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던 사회관계가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전변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은 조건에서도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가져다주는 쓰라린 진통과 재난을 겪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곧바른 길을 개척하여왔다. 이것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객관적법칙을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그 작용을 사람에게 복무시켜 세계를 사람을 위한 세계로 전환시킬수 있다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이 날로 확대되고 세계가 더욱더 사람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개조발전된다고 봄으로써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

Digitized by Google

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체사상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
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이 인민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근거가 바
여기에 있는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38폐지)

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혁명적인
로 되려면 그것이 세계를 변혁하기
투쟁에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고
동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
는바와 같이 세계에 대한 주체의
과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
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
점과 립장이다.

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보다도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
가지게 한다.

로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
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
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떨
설수 있으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구실을 바로할수 있다.

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를 대하는데서 세계의 주인인 사람
익으로부터 출발하게 함으로써 근
민대중으로 하여금 세계와의 관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리해관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자주적권
옹호하게 한다. 근로인민대중은
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견지
세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
이 없으며 세계의 모든 사물은
게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는 진리를 파악하고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한다.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은 그들자신의 사업인것만큼 그 성과는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데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삼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을 틀어쥐는 인간활동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자기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한다면 세계를 자신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발전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으로 무장하여야 사람들은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과 그 변혁적역할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며 세계를 변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여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사고와 행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

김 형 일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요인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사회력사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며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바로 풀어야 사회력사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옳은 지도원칙을 가질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8페지)

원래 의식은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의 역할을 하는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의식에 의하여 지휘되고 조절통제된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한다. 사람의 활동은 그들의 생활적요구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기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행동목적으로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그가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또한 사상의식은 사람이 행동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힘의 작용을 조절통제한다. 사람의 행동방향이 섰다고 하여 그 방향으로 사람의 힘이 저절로 작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사람의 행동과정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밖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닥치기 마련이다. 그것이 극복되고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행동이 진행되려면 의지가 작용하여야 한다. 의지는 사람의 요구가 끝까지 관철되도록 그의 힘이 발동되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사람이 활동과정에서 얼마만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대하여 그것을 지배하려는 요구를 제기할수 있게 하고 객관세계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 그것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아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사상의식이 사람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고 사람의 활동을 조절통제하기때문에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이다.

물론 과학지식도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필수적요인으로 된다.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

Digitized by Google

동의 대상은 사람의 요구와 의사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따라서 사람이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리려면 객관세계의 사물의 속성과 운동법칙에 관한 과학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지침으로 삼아야 행동목표를 세우는데서 현실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달성할수 있도록 사람자신의 힘과 객관적대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바로세울수 있다.

그러나 과학지식은 사람의 행동방향을 직접 결정하지 못한다. 객관세계를 반영한 과학지식에 의하여 사람의 행동방향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에 의하여서만 행동의 목표, 방향이 설수 있다.

과학지식은 다만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일따름이다. 지식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것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오직 자주적인 사상의식만이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휘하고 조절통제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외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69～170페지)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론문에 밝혀지있는바와 같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진다는것은 결국 자주적인 요구와 그와 관련된 리해관계를 자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를 행동목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동할수 있게 되려면 객관세계에 대한 리해관계를 자각하여야 한다.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대상은 외부세계에 있다. 그런데 외부세계에는 사람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과 그 실현을 방해하는것, 리로운것과 해로운것이 있다.

그러므로 자주적요구를 행동의 목적으로 내세울수 있게 되려면 객관세계에 대한 리해관계를 자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세계의 각이한 대상가운데서 무엇을 쟁취하는것이 유리한가를 가려낼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대상에 대한 요구를 옳바로 내세울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도움으로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하고 그와 관련시켜 객관세계의 각이한 대상에 대한 리해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또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할수 있게 되려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나가는 혁명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것은 혁명적의지를 가지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혁명적의지를 가질 때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포함된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자주적활동을 규제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본질적내용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

Digitized by Google

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노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심오히 밝혀준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들자신이 가지고있는 창조적힘, 혁명적능력에 의하여 추진된다.

혁명은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으로 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하여 추진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창조적운동으로 된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고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그들에게 있지만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혁명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날수도 추진될수도 없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 혁명적능력은 무궁무진하여도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다.

사상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다.

착취사회에서 오래동안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지 못하였던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리해관계를 옳바로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질 때에만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있고 창조적활동을 힘있게 벌려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지휘하고 조절통제하는 혁명적역할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무엇보다 혁명투쟁에서 행동목표를 옳바로 내세우고 투쟁에 일떠서도록 인민대중을 이끌어줌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여준다.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방향, 행동의 성격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계급의식이다. 바로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은 계급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사상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진계급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반동계급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서로 상반되는 행동목표를 내세우게 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혁명적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반동적지배계급의 사상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제하고 낡은 사회제도를 유지하려는 반혁명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반동적인 지배계급,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배치되는 반동적인 사상을 조작하여 퍼뜨린다. 이러한 반동적인 사상은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행동하는것을 방해하는 해독적작용을 할뿐이다.

오직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만이 사람들의 자주적이

Digitized by Google

며 창조적인 활동을 지휘하고 조절통제하는 혁명적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인민대중이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질 때에라야 일어나고 추진될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또한 혁명투쟁에서 사람들이 발휘하는 투쟁력을 규제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의식에 달려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자주적인 혁명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자주적인 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창조력을 가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되게 한다.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로서 통일단결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 잠재력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현실적인 력량으로 전환될수 있다.

이처럼 자주적인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의식적인 주체로, 사회력사적운동과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되게 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일떠세우며 떠밀어주는 혁명적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은 결국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에 귀착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사회력사적운동과 혁명운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 물질적 조건이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에 아무러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생활환경, 사회력사적조건을 떠나서는 생존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사회력사적조건을 떠난 사회적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생산력이나 생산관계 같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서의 변화발전이 없이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다.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사이에 생기는 모순이 해결되고 생산력이 발전할수 있도록 생산관계가 개변되여야 한다. 생산력이 발전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물질적으로 담보된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발전하는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사이의 모순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일어날수 없다.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생산관계, 경제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도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세워지고 개변된다.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근로인민대중과 그들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낡은것, 반동적인것과의 사회적모순도 해결될수 있다.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는 자연개조운동이나 사회개조운동이나 할것없이 그 어떤 사회적운동도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고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도 개변될수 없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이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이 밝혀진것은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 작용하는 요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해명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상의식의 역할은 혁명운동이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높아

지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조절통제되는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과 그 역할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심화발전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한 창조적투쟁과정에서 자신의 계급적리해관계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발전시켜나가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강화된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사실상 혁명투쟁의 폭과 깊이는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그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발전하고 그 역할이 강화되는데 따라 혁명투쟁이 확대발전하게 되며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더욱 높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의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운동,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전례없이 비상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의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서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고 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그들자신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추진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발전하고 의식성이 높이 발휘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온갖 조건이 보장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이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억제하는 낡은 사상의 구속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역할이 높아질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비상히 큰 역할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사회발전에서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그 계급적성격과 내용에 의존한다. 착취계급의 반동사상은 사회발전을 억제하며 진보적계급의 선진사상은 사회발전을 추동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력사상의 그 어느 선진사상에도 비할바없이 큰 혁명적작용을 하며 사회발전법칙과 인민대중의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변된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기때문에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이 비상히 확대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력사적인 투쟁은 높은 속도로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사람들이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을 억제하는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종

국적으로 벗어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의 범위가 끊임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며 상상할수 없으리만큼 높은 속도로 사회력사적운동이 진행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상의식의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려면 사람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아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창조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는것만큼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속에 혁명관을 옳게 세워야 한다.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되므로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실천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철저히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완성된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심으로써 지난날 민족적자주권을 잃고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은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생활의 정규화는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조 성 일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며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관념을 높인다는것은 당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언제나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이다. 당원의 이러한 조직관념은 당생활의 정규화를 통하여 세워지고 공고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예로운 전사로 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조직생활을 정규화하며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74폐지)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한다는것은 당조직사상생활을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규칙적으로 하는것을 제도화하며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그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로 하여금 당조직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데 있다.

당조직관념은 당조직에 대한 립장과 태도인것만큼 그것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해서만 세워지게 된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조직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이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있어도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오직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서만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다는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질수 있다.

당원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정치적생명이다. 당원들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정상적인 당생활을 통하여서만 이어지고 빛내일수 있다.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처럼 당원들이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섭취하여야 한다. 당원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가는데 필요한 이러한 사상정신적량식은 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 과정에 당조직을 통하여 받게 된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에게 정치적생명의 자양분인 혁명적인 사상을 넣어주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게 한다. 만일 당원들이 당생활에서 벗어나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으면 머리에 녹이 쓸고 사상적으로 변질되여 나중에는 정치적생명을 잃게 되며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 당원은 당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 그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활과정으로 습성화되게 되면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와 집체학습을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일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단련하여나가게 된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게 되며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당원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같이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은 당조직이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조직관념을 세워나가게 된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립장과 태도를 세워준다는데 있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당원들이 혁명가로서의 정치생활, 혁명활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원은 당조직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생활에 참가하며 혁명활동을 벌려나간다. 당원들이 혁명가로 살며 정치생활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원들이 당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존중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활동, 실천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은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립장과 관점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생활방식이며 혁명활동과정이다. 당원들의 혁명활동은 당조직생활을 통한 실천투쟁속에서 진행된다. 당생활을 떠난 당원의 실천활동,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당원이 당조직의 한성원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는것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데 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조직으로부터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위임분공을 받아 수행하게 되며 당조직앞에서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게 된다. 당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아 수행하고 또 새로운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인것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자신을 당조직과 련결시켜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당원만이 자기의 정치생활, 혁명활동을 잘해나갈수 있으며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당원이 당조직과의 일상적인 련계는 정규적인 당생활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당원들의 혁명활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게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당조직들은 정규적인 당생활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주고 수행방도를 가르쳐주며 그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아줌으로써 그들이 정치생활, 혁명활동을 옳게 벌려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당원들은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고 당조직으로부터 혁명과업을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려는 립장과 태도를 세워나가게 된다.

Digitized by Google

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그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로 내세워주려는 우리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높은 뜻이 담겨져있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여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며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생활을 정규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당조직생활에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당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져야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생활상요구로, 행동규범으로 여기고 당생활을 정규화할수 있다.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보람있게 살며 혁명가의 고귀한 칭호를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지고 그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당생활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하거나 시간적여유가 있을 때에만 하는것이 아니다. 당원은 당원증을 지니고있는 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생활을 하여야 하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여도 정규화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내세우면서 정규화생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것은 다 당조직생활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가 서있지 않는데서 나온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이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여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정규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조직관념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2페지)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당생활의 정규화는 매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당원들의 당생활이 실속있고 건전한것으로 될수 있다.

당원은 일생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나갈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이며 그들의 당생활은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활동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스스로 당생활에 참가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정규화생활의 기본요구와 당생활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당생활총화와 수요강연, 토요학습을 비롯한 정규화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당생활을 정규화하고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원들이 당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자각성에 반드시 당조직의 지도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준비정도가 아직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각성에만 맡겨서는 당생활

이 잘될수 없다. 여기에 당생활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를 따라세워야 당원들이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당생활을 자각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생활의 정규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원들의 자각성에 당조직의 지도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당세포는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야 당원들에 대한 혁명적인 교양과 조직적인 단련을 강화할수 있으며 그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육성할수 있다.

당세포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생활에 대한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회의와 당학습,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모든 세포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당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확히 주어 그들이 늘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은 당생활조직의 기본형식의 하나이며 매개 당원들이 분공을 받고 다 움직이게 하는것은 당조직생활의 기본요구이다.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그들이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구체적조건에 맞게 당적분공을 똑똑히 주고 그것을 옳게 수행하도록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이 수행되면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당적분공을 받고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이 당조직의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 정규화생활을 강화하고 조직관념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정규화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서 책임일군들의 실천적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책임일군들은 당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생활을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에 앞장서야 하며 자신의 모범으로 당원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또한 책임일군들은 회의나 학습을 조직해도 인식교양적의의가 있게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당원들이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을 높이기 위한 정규화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생활의 정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여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와 숭고한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정규화생활이 혁명과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며 혁명실천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정규화생활 일면만 강조하고 혁명과업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혁명과업수행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정규화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는 편향들을 다같이 없애고 당조직사상생활을 잘하면서 그것이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하는데 철저히 복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는것은 이렇듯 당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게 함으로써 그들이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고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당생활을 정규화, 습성화하고 조직관념을 바로 가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굽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옳은 결합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방도

리 영 복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옳은 결합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방도이다.

원래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생겨났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야 하며 교육방법도 이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야 한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와 교육목적의 반동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이 실천과 서로 분리되여있었으며 현실과 멀리 떨어져있었다. 그리하여 교육방법도 사람들에게 실생활과 혁명실천에는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죽은 지식》을 가르치는 독경식방법과 물이먹이는 방법이 적용되였다.

착취사회의 낡은 교육방법은 그자체가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대립되는것이므로 사회주의교육방법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청산한 토대우에서 새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를 교수교양사업에 구현하시여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29페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쓸모있는 사람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한다는것은 학생들에게 혁명리론과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리론, 지식을 공고히 다지며 숙련과 기량을 실천적으로 체득시키는 교육과정을 밀접히 통일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리론교육은 개념이나 법칙, 원리 등을 알려주는 교육으로서 주로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깨우쳐주는것을 통하여 진행되며 실천교육은 생동한 직관과 실천적체험에 토대하여 지식이나 기능과 기량을 체득시키는 교육으로서 주로 학생들의 실제동작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진행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은 이처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서로 제약하고 보충하는 하나의 통일적인 교육과정의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리론교육은 실천교육을 위한 밑천을 마련해주며 실천교육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심화되며 쓸모있는것으로 된다.

한편 실천교육은 리론교육에 튼튼히 의거하여 진행되며 실천교육을 통하여

Digitized by Google

리론교육이 끊임없이 완성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침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습득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인 교육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여야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우와 같은 문헌, 429~430페지)

공산주의혁명가는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여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투사들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려면 그에 대한 깊은 지식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을 알고 그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며 그들의 창조적활동을 담보하는 필수적요구로 된다.

산 지식은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그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것이 실천을 반영하고 일반화한것이므로 생동한 현실과 결부하여 학습하며 다양한 실천활동에서 적용되고 검열되여야만 비로소 쓸모있는 산 지식으로 체득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다양한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을 현실과 접촉시킴으로써 사물현상에 대한 생동하고도 정확한 인식을 주며 리론과 지식을 쉽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리론자체가 실천에서 나온것만큼 현실과 떨어지고 실천과 유리된 리론은 리해하기도 어렵고 흥미도 없다. 오직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하여 교육하여야만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인식적흥미도 높아지며 그들이 객관세계의 본질과 원리도 명백하고 인상깊게 리해하게 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은 학생들이 이미 배운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고 그것을 여러가지 실천활동에 활용할수 있는 응용능력과 기능을 키울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습득시키며 배운 리론과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훌륭히 준비시킨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교육이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교육사업을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교육사업에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강의하고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실천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주의교육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만 자기의 계급적성격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만일 교육사업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실천과 분리된다면 사람들을 현실생활에서 동떨어진 쓸모없는 《글뒤주》로, 사상의지적으로 나약하고 실천활동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 현실생활과는 담을 쌓고 이른바 《교육을 위한 교육》과 《지식만능》을 위한 교육을 주는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교육의 후과는 이것을 잘 실증해주고있다.

이와는 달리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면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실천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계를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은 바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원칙을 학교교육에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서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실제적방도를 밝혀준 가장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교육사업을 사회주의교육의 사명과 산 지식습득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과학적토대우에서 혁명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교육과 실천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현실생활에서 동떨어진 무기력하고 나약한 기형적인간으로 만들려는 온갖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리론과 시도들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로동계급의 혁명적교육리론과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사상과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나서고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현대과학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장비로 갖추어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부문의 발전수준은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실력있는 일군들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과학기술적자질이 높은 수십만의 교원대렬이 꾸려져있으며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현대적으로 훌륭히 장비되여있다.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의 질을 한계단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내놓은 주체적교육방침을 어떻게

Digitized by Google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는것이 나라의 발전하는 현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유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방도이며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고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며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것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문헌, 430페지)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학교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중요한 형태이다.

강의는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수형태로서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교육강령에 제시된 교육내용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게 된다.

강의를 리론교육의 요구에 맞게 잘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 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하며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으며 우리의 혁명실천과 결부된 리론문제를 가지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설득력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가지문제라도 리치적으로 똑똑히 리해시킬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칠수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강의와 함께 교육강령에 예견된 실험실습을 실속있게 잘하여야 한다.

실천교육의 사명에 맞게 실험실습을 잘하는것은 리론교육의 성과를 공고히하며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험실습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교수형태의 하나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념과 법칙, 원리를 더욱 명백하고 깊이있게 깨닫게 하며 이미 배운 지식을 실천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실제적인 기능과 숙련을 형성시켜준다. 실험실습은 또한 학생들의 관찰력과 인식능력을 발전시키고 학습의욕과 과학적탐구심을 키워주며 과학적인 실험조작과 보람찬 생산실습과정을 통하여 높은 책임성과 강의한 의지 그리고 혁명적사업기풍과 공산주의적품성 등을 체득하게 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어김없이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로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 모든 새세대들이 한가지이상의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소유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문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현대생산과 기술의 공학적원리를 잘 알고 일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고있을뿐아니라 자동화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교수에서 련습을 강화해야 한다.

새세대들을 재능있고 쓸모있는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리론교육과 함께 그들의 소질과 기량을 키워주는 실천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목

Digitized by Google

과 기술교육, 체육 및 예능 교육에서는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만큼 련습에 힘을 넣어야 한다.

련습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모든 련습활동이 철저히 과학적인 리론과 원리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엄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련습에서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고 그들의 기량과 숙련을 끝없이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견학과 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여러 사회문화교양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학생들속에서 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가르쳐주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와 날로 변모되여가는 사회주의조국의 현실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되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확신하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견학과 답사 과정에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게 되며 벅찬 현실속에서 이미 배운 지식을 확인하고 심화시킬뿐아니라 교실에서는 배울수 없었던 여러 분야의 생동한 산 지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답사와 견학이 가지는 교육교양적의의를 명심하고 그것을 강의를 비롯한 교수형태들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국가적인 행사와 교수진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그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교원과 학생이 있으면 다 되는것이 아닙니다.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교육에 필요한 조건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학교들에 교육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14~15페지)

리론교육과 함께 실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따르는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져야 한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학교교육의 내용이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롭게 풍부화되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맞게 학교의 실험실습토대를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줄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되여있으며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과 열의도 대단히 높다. 학교들에 실험실습설비를 어떻게 더 잘 보장해주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이기에 얼마나 관심을 돌리며 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여러가지 실험실습설비들을 만들어 학교에 보내

Digitized by Google

주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새로 만든 기계설비들을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실험실습실비를 꾸려주는 사업을 전당적, 전인민적, 전국가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는 학생들을 위한 실습직장이나 실습작업반을 꾸려주며 협동농장들에서 농업대학과 고등농업전문학교들에 실습포전을 떼주어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공고화하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일군들은 우리 당 교육정책의 집행자이며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학교의 실험실습토대를 실속있게 꾸려나감으로써 교육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실험실습을 질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도 당의 지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교원들속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당 교육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깊이 해설침투하며 그것을 어김없이 관철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책임일군들은 학교에 자주 나가 교수참관도 하고 실험실습조건도 알아보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리론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실천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실험실습과 견학, 답사를 조직하는 경우에도 교육학적요구에 맞지 않게 간략화하거나 형식주의적으로 굼때려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육일군들이 우리 당의 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유능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믿음직하게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6호(루계48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6월 1일　　발 행• 1982년 6월 5일

ㄱ—2598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7
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SEP 9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EAST ASIATIC LIBRARY
SEP 7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7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제 7 호 (483)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보고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비상히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체득하고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옳게 결합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1)

사업방법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옳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에 의하여 실현되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 혁명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며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의 소유자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새 사회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인이지만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오직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자기의 창조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그것은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체로, 력사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는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옳은 령도방법, 혁명적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옳바른 사업방법에 의거할 때만이 대중에 대한 령도를 능숙하게 실현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과

Digitized by Google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91～92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옳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이 있고 로선과 정책이 바로세워졌다 하더라도 인민대중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다.

옳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사회건설을 령도함에 따라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을 무시하고 군중을 다스리려는 관료주의적경향과 손쉬운 행정적방법으로 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집권당에 있어서 온갖 관료화의 경향을 반대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세우는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확립하지 못하고 관료화되면 인민대중과 호흡을 같이할수 없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당이 대중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대중과 유리되면 혁명하는 당으로서의 전투적위력을 잃게 되며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처럼 옳은 령도방법, 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여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대중령도방법문제를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하여왔다.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로정은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세우고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온 자랑스러운 행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창조와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사업방법은 오늘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 사업과 활동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지난 1970년대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이 철저히 확립되고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스러운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그 본질과 특징, 기본요구 그리고 주체

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방도와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대중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일군들속에서 낡은 재래식 사업방법을 없애고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그리하여 낡은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으며 당사업이 보다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당사업전반에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구현됨으로써 당의 면모가 새로와지고 당사업기풍이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대중령도방법, 사업방법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될수록 끊임없이 개선되고 더욱 완성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우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으로, 의리로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우리 혁명대오를 그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요구를 보다 훌륭히 실현하여야 한다.

이 거창하고 영예로운 사업은 옳은 령도방법,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때만이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당면하여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때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2)

우리 당의 사업방법,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잃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2페지)

Digitized by Googl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본질을 밝혀준 과학적인 정식화이다.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의 근본요구이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고 대중에 대한 령도를 실현하는 수단인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의 주인된 자각을 높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바로 대중령도의 이러한 근본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 실현하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된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대중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이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문제는 결국 그들의 정치적 자각과 열의를 높이는 문제에 귀착된다.

대중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는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깊은 파악으로부터 출발하며 그에 기초해서만 높이 발양된다.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을 때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게 된다.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이다. 정치사업은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정치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제기된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주인된 자각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대중령도의 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또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일을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아래단위의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준다는것은 웃단위의 일군들이 현실에 내려가 구체적실태를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고 걸린 문제들은 제

Digitized by Google

때에 풀어준다는것을 말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들과 난관들이 있을수 있으며 복잡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될수 있다.

당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이 늘 현실에 내려가 아래를 적극 도와주어야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 있으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실정을 모르면 아래를 옳게 도와줄수 없을뿐아니라 주관주의, 관료주의에 빠져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억제하게 되며 결국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된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며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배워주어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창발적발기를 적극 조장함으로써 대중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또한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특성과 환경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창조적인 사업이다.

혁명투쟁은 언제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현실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일군들의 사업대상인 사람들도 그 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르며 그들이 처한 환경과 수행하는 과업도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나의 틀에 얽어매놓을수 없으며 천편일률식으로 할수 없다.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에 얽어매놓는것은 도식적이며 교조적인 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이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업에서 격식과 틀에 매달리게 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옳게 구현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대중지도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열의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공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처럼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표정격식화된 틀을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게 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자각성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의 사업작풍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이신작칙하는 문제입니다.》

Digitized by Google

(《김일성저작집》 제16권, 311페지)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사업방법이며 그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이 사업방법은 일군들이 실지 행동으로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일군들이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어깨를 들이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진군로를 헤쳐나갈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커다란 감동과 고무를 받게 되며 실천투쟁에서 더욱 높은 창발성과 혁명적열의를 발휘하게 된다.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야 대중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조력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시고 발전시키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수령님식사업방법에는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다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의 참다운 령도예술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창조되게 되였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로정에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혁명적사업방법이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불패의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주체의 사업방법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와 덕성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또한 거기에는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인민대중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시여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결한 인민적풍모와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혁명적전개력과 탁월한 령도력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근본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예술을 집대성하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사업방법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완성하여오신 우리 당의 사업방법,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혁명적임무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수령령도방법의 고귀한 업적을 빛나게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령도적권위와 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비약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옳게 체득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의 위대한 모범을 적극 따라 배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대중령도리론과 혁명적사업방법은 참다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야 혁명적사업방법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대중지도에 빛나게 구현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그 본질과 진수를 정확히 체득하며 주체의 대중령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집대성하고있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과 혁신적정신, 혁신적방법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기간 당 및 국가사업과 군사사업,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몸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옳게 체득하고 정확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늘 현실에 내려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현지에 내려가서 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군중에게서 지혜를 얻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69페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사업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언제나 중요하게 내세우는 원칙이다.

일군들의 사업대상인 근로자들이 살고 일하며 당정책이 직접 관철되는곳은 바로 아래의 생산현장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실태를 환히 꿰뚫수 있으며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다. 현실을 모르고서는 누구도 옳바른 지도를 할수 없으며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면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이미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현실에 알맞는 옳은 지도를 줄수 있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었다.

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과 군중의 창발적의견들을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집중시킬수 있

으며 당이 의도하고 요구하는대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한사람같이 움직이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이 일하며 생활하는 기대열으로, 협동전야의 포전으로 내려가는것은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모든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당정책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서도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았다가 오거나 늘 만나는 몇몇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아래에 내려가는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없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중간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생산자대중과 사업하여야 하며 남의 손을 거쳐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으로 일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통계나 자료가 요구되면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만나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 자신이 강연도 하고 선동도 하며 학습도 지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그것을 옳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내야 하며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아래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지닌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그대로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돌봐주며 그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전당에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능력이나 성격상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종합적표현이다. 일부 일군들이 아직도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버리지 못한데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릴 때만이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집권당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해야 할것은 당세도와 관료주의이다.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은 원래 착취계급의 통치방법이며 로동계급의 당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권력기관도 아니며 세도를 쓰는 기관도 아니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충복이다.

지도일군들, 특히 당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형식주의, 요령주의 역시 우리 일군

Digitized by Google

들의 사이에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일군들이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하면 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전개할수 없으며 혁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도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의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일군이 되게 하여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옳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이다.

사람들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 일군들이 머리가 비고 능력이 부족하면 모든 문제를 당적원칙에서 옳게 분석판단할수 없으며 지도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다.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과 높은 요구를 담고있는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일군들이 높은 지도능력과 조직적수완을 가져야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령도예술을 소유하자면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자기의 지휘능력이 당의 요구와 빨리 발전하는 현실보다 뒤떨어진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학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당의 방침을 깊이 학습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깊이 알고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실태를 정확히 알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옳게 지도할수 있다.

일군들의 식견이 높고 시야가 넓어야 대중과 어울릴수 있고 모든 문제를 폭넓게 보고 통이 크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기 위한 학습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자신들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

김 룡 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인민정권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대강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공화국정부의 력사적사명으로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정권건설리론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주체의 심원한 원리와 독창적인 명제들로 3대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로 끌어올리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혁명적진로를 명시하심으로써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새로운 리론적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또하나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받아안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주체의 심원한 혁명원리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시고 3대혁명을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입니다.

공산주의건설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7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총적임무를 정확히 규정하는것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근본방도를 옳게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나선다. 혁명과 건설의 근본방도를 정확히 세워야 인민대중에게 뚜렷한 전망과 확고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으며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당의 최종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혁명투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는 주체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당의 최종목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사상, 기

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새로운 혁명을 주시였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고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여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사상문화적자질을 갖추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완전히 실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려면 사회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완성시켜나가는 사회개조사업과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고 완성시켜나가는 인간개조사업,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생활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자연개조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3대혁명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첫날부터 진행되지만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전면적으로 수행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되는 공산주의건설과정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계속혁명의 내용입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7～8페지)

혁명의 내용을 똑바로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의 내용을 바로 규정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이 그에 맞게 옳은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를 세우는데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모든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인것으로 계속 발전완성시켜나가면서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본질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주체적인 관점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건설을 계속혁명의 과정으로 천명하시고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과정의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사회정치적으로 구속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사회정치적요인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이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구속하는 사회정치적요인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없애기 위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혁명단계에서는 착취계급과 그들이 의거하고있는 낡은 사회제도를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혁명적변혁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실현되지만 사람들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할 과업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것과 관련되며 따라서 이러한 유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제도의 교체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 사상, 기술, 문화를 선진적인 사상, 기술, 문화로 개조하는것도 혁명으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는 투쟁을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공산주의건설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되여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기초우에서 사회관계를 공산주의적인것으로 계속 발전완성시켜나가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민대중을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인간개조, 자연개조 사업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것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3대혁명은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투쟁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차이들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이며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근로자들은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그런데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다름아닌 로동계급과 농민이 가지고있는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와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소유형태에서의 차이로 하여 생긴 차이이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와 같은 로동조건의 차이도 로동의 대상과 성격상의 차이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로동생활의 담당자들인 근로자들자신의 기술, 문화 수준의 차이로부터 오는것이다.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도 모든 사회성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생산력과 과학기술을 높이 발전시켜 공산주의적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다같이 높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려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3대혁명을 전면적으로 벌려 모든 사회성원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다같이 높임으

Digitized by Google

로써 그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게 될 때 공산주의건설의 력사적과업이 완수되게 된다.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진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내용으로서 이 세가지 분야의 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하여야 한 혁명의 내용으로 규정하시여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의 본질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이 완전히 해명되게 되였으며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할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을 하는 새로운 방식,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혁명방식으로 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또 그들자신이 하는 사업인것만큼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을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의 계속혁명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해주는것이여야 할뿐아니라 옳바른 혁명방식을 제시해주는것이여야 한다.

혁명의 내용이 정확히 규정된 다음에도 그에 맞는 옳바른 혁명방식이 세워지지 못하면 혁명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혁명을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여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다시 말하여 혁명의 대상과 임무가 어떠한가에 따라 혁명의 방식도 규정되게 된다.

착취계급이 혁명의 대상으로 되고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것이 혁명의 임무로 나서는 사회주의혁명은 착취계급을 없애고 착취제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게 되며 또 오직 이러한 혁명방식에 의해서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혁명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혁명의 대상과 임무가 달라지는것만큼 혁명을 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방식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만약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을 하는 방식문제를 정확히 풀지 못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할 때의 투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없게 되며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것으로 혁명이 끝났다고 하면서 혁명투쟁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단순한 개량이나 순수 경제기술적인 사업으로만 하게 되면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Digitized by Google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계속하게 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주체적인 심오한 분석과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을 하는 방식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하게 되는 혁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코 사람자체를 반대하고 청산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사상, 기술, 문화를 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들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이며 혁명의 임무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혁명방식인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방법,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가장 우월한 혁명방식이다. 그것은 이 혁명방식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고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을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발전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과 원칙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식으로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이 방식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맞게 그들자신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들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3대혁명의 방식에 의하여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방식, 공산주의건설의 방식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의 방식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계속혁명의 내용과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 제시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의 혁명방식으로 새롭게 정식화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신데 기초한 위대한 발견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그 어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방도에 대한 명철한 과학적해답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3대혁명은 끝나게 될것이지만 그때에 가서도 사람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하여야 하므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될것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공

Digitized by Google

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면 사회가 더는 발전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민대중의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높은 수준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지만 이것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발전은 그 이전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그때에 가서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것이다.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한계가 없는것처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는 끝없이 높은것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높은 요구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기초하여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고도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게 된다.

이로부터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사상, 기술, 문화로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더욱 개선완성하며 자연을 정복하는 사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투쟁,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부단히 계속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공산주의사회발전에 관한 탁월한 사상에 의하여 앞날의 공산주의사회가 어떤 내용의 투쟁을 통하여 계속 공고발전되게 되는가 하는것이 새롭게 명시되게 되였으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면모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리론을 심화발전시키면서 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또하나의 위대한 공헌으로 되며 3대혁명리론의 심원한 진리성과 풍부한 내용에 대한 빛나는 확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인류가 예측과 가정의 울타리에서 그려오던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표상은 현실적인것으로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고 공산주의리론은 그 총적목표와 함께 실현방도까지 전면적으로 명시된 과학적인 혁명리론으로 발전풍부화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 불패의 혁명적기치를 가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원칙과 투쟁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혁명의 가장 옳바른 방향과 내용, 그에 맞는 혁명방식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 하여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으로 된다.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

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고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보다 선차적인것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사람들의 활동에서 규제적역할을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공산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다. 경험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없으며 또한 경제를 발전시켜 물질적토대만 쌓아가지고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기본방도는 사상을 발동하는것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그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고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는데로부터 나오는 인간개조의 근본원리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는것만으로는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으며 사상혁명을 하지 않으면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는 력사적경험에 기초한 인간개조의 혁명적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개조, 사상개조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로부터 사상혁명을 혁명의 선행관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개조를 다그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상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며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이다.

Digitized by Google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야 로동생활에서 사람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사상혁명, 문화혁명도 더 잘 수행해나갈수 있다.

오늘 기술혁명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푸는것이다.

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개조하고 생산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동하며 그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3대혁명의 필수적요구이다.

문화혁명의 중심과업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에 이르기까지의 로동의 온갖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모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주체적인 과학기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이 더욱 높은 경지에서 개화발전되게 하며 사회주의적인 생활문화와 생산문화가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풍부화하신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그 진리성과 독창성,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으며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세포사업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차 용 진

오늘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다.

우리 혁명이 빨리 전진하고 우리앞에 더욱 무겁고 보람찬 혁명임무가 나서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 당원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당원이란 당과 수령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겠다는 혁명적각오가 높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이다.

당원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혁명과업을 앞장에서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원의 영예와 존엄은 바로 이러한 실천투쟁에서 빛나게 된다.

언제나 곤난도 먼저 맞받아나가고 사선도 먼저 헤쳐나가는 돌격전의 기수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전위투사가 되는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가 있으며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을 다 당사업에 끌어들이며 매 당원이 언제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 당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만 우리 당의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이 제대로 보장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130페지)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조직된 선봉대인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투지와 생기발랄한 전투적기백을 가진 견결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고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모든 세포들이 다 튼튼하고 자기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하는것처럼 당도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원들모두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되고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갈 때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강화될수 있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또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당이 혼자서는 할수 없으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만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요

Digitized by Google

인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곧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자면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한 군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뭉칠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벌려나갈수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자면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을 교양하고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정치활동가이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앞장에 서서 나갈 때 광범한 군중들이 그들의 모범을 본받아 적극 떨쳐나서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것이다.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고 투쟁의 기수가 되는것은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풍모로 되고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원들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싸워왔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원들은 계급의 정수분자, 혁명의 전위투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여올수 있었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6차대회보고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새 전망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무겁고도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보람찬 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경험은 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당세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곳에 있는 당세포들과 당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높게 되면 혁명전선의 매개 초소들에서 당원들

과 군중이 잘 움직이고 당이 내놓은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것은 뻔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141～142페지)

당세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을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접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데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이다. 여기에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혁명임무와 구체적과업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당원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그것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알고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게 되며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의도에 맞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것이다.

당원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당세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게 된다.

언제나 대중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는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침투시키며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다.

우리 당의 정책은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관철된다. 따라서 당세포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 우리 당의 정책과 방침이 대중속에 제때에 침투되게 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해나가게 된다.

당세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게 하는것은 또한 당세포들이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고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주기때문이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혁명활동이다.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만 자신의 당성을 단련하고 정치적생명을 유지할수 있으며 선봉투사로서의 역할을 참답게 수행할수 있다.

당원의 이러한 혁명적조직생활은 바로 당세포에 소속되여 하게 된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정치생활, 조직생활의 거점이며 당원들이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전투단위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다시 새로운 과업을 주어 그들이 늘 움직이도록 이끌어준다.

당원은 당세포의 지도와 방조 밑에 당적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게 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당원들을 혁명의 선봉투사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정치활동가로 튼튼히 준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우리는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세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당세포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정책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집행하도

를 조직동원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171폐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당원들에게 당정책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방법, 정치사업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을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당이며 당세포는 당원들을 교양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세포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해설침투하는 사업을 언제나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의 본질과 요구,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그 관철에서 혁명적열정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세포들은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움직이며 당이 내놓은 정책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서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충실성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하고 무조건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정책의 선전자, 옹호자로서뿐아니라 그 관철에서 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당세포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은 저절로 높아질수 없다. 그것은 당세포의 끊임없는 지도와 방조 밑에 당원들속에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 때 높아지게 되는것이다.

당세포는 우리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생활의 거점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바로 당세포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당세포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적분공을 옳게 조직지도하는것이다.

당원들의 정치생활, 혁명활동은 당조직이 주는 당적분공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당세포는 언제나 당적분공, 정치적분공을 옳게 조직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옳게 주어야 그들이 조직관념을 높이고 정치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그들에게 당적분공을 빠짐없이 주고 그 집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총화하며 다시 새로운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적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생활지도의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자기의 투쟁목적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전투적무기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것을 력사적사명으로, 최고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모든 당활동과 당사업은 철두철미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수행에 복종되여야 하며 일관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당성을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방침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래 당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순수한 당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당생활은 마땅히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에게 주는 정치적 분공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주며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평가도 그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하는것을 놓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며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세포비서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세포비서들은 세포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초급정치일군이다.

당세포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당세포비서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많이 관련되여있다.

세포비서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우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신작칙은 힘있는 선동이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세포비서들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부닥치는 난관을 솔선 앞장서 헤쳐나갈 때 그것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당원들을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나가도록 이끌어줄수 있다.

당세포비서들은 언제나 마른일, 궂은일을 가리지 말고 생산로동에 적극 투신하여 어려운 모퉁이를 남먼저 맡아나서는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하며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도 항상 대중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여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는것은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품성의 하나이다. 세포비서들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당원들을 옳게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세포비서들의 사업작풍이 거칠고 까다로우면 대중은 그를 따르지 않게 되고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되며 자기의 속심을 털어놓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세포비서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대중과 같이 소박하게 생활하고 평범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요구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살피는것은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당세포비서들은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당원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제때에 타일러주고 일깨워주어 그들이 모든 사업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고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세포비서들은 또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세포비서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조직적수완과 사업능력이 따라서지 못하게 되며 사업 방법과 작풍도 거칠어지게 된다.

높은 정치적 안목과 풍부한 지식, 넓은 시야와 예리한 분석력을 가져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시, 군 당위원회들과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세포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하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세포에 들어가는것을 정상화, 습관화하여야 한다. 현실에 침투하지 않고서는 당세포들의 사업과 당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실천활동을 깊이 료해할수 없으며 실태를 모르고서는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없다.

당일군들은 당세포에 내려가면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면서도 특히 당세포비서들을 배워주고 도와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일군들은 당세포비서들에게 세포사업계획을 세우며 그 집행을 장악지도하고 총화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당회의와 당생활총화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방법,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어야 한다.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자신이 먼저 당세포에 깊이 침투하여 도와주어야 하며 그리고 부서일군들과 아래당위원회 일군들이 항상 당세포에 들어가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장악하고 조직하여야 한다.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전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

곽 영 찬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본성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그것을 옳바로 밝히는것은 철학적세계관의 근본문제를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 심오한 철학적해명이 주어져있다.

론문에 의하여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됨으로써 사람의 본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 서게 되였다.

* *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페지)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생명을 가진 다른 모든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생활수단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자연은 사람의 생존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먹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자연은 사람의 물질적생활환경인것만큼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람이 자연에 얽매여있거나 예속되여 살아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의 힘에 얽매여있는것이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요구에 복종시키고 지배하며 살아나간다.

사람은 자연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길들이고 다스리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

사람은 또한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회적관계속에서 살아나간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여야만 생활수단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으며 자기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관계속에서 살며 활동하기때문에 사회적관계의 영향과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비록 사회적관계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사회적관계에 얽매

Digitized by Google

여살아나가는것이 아니라 사회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자주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자유로운 정치적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

사람은 또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생활자료가 풍부하고 외부로부터 구속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자주적인 존재로 될수 없다.

사람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활동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다.

이처럼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바로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성질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에 얽매여살아나가는 동물과는 달리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 된다.

자주성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것이다.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으로 되는것은 자주성이 사람이 가지고있는 사회적속성이라는데 있다.

자주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다.

자주성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면서부터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해온 사람의 사회적인 성질이다.

자주성은 생명물질의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물론 사람자체는 진화의 산물이지만 사람의 자주성은 결코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사람의 자주성은 사회생활, 사회적실천의 요구로부터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자연적존재인 생물유기체는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나가려는 생활능력만을 가지지만 사람은 사회적으로 결합되고 사회적실천에 참가함으로써 순수 생물학적존재로서는 가질수 없는 가장 고급한 생활적요구인 자주적인 요구와 생활능력을 가지게 된다. 만일 사람이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생물학적생명인 육체적생명만을 가진 개인적인 존재라고만 한다면 객관세계를 지배하면서 살려는 자주적인 요구와 능력을 가질수 없는것이다.

사람은 우선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적인 존재임으로 하여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하고 자주성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개개로서는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자주성을 가질수 없다. 사람이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하고 자주성을 가지게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다름아닌 사회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회적집단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적으로만 형성되며 발전한다.

사람은 또한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적존재임으로 하여 혼자서는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으며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써는 자

Digitized by Google

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따라서 집단을 떠난 개인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사람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집단적으로 살며 활동하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창한 위업을 수행하며 세계를 자신을 위한것으로 끊임없이 개변시켜나간다. 사람의 자주적요구, 자주성은 결국 사람들의 사회적, 집단적 활동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생활을 떠난 사람의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을 떠난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이처럼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사회적관계속에서 가지게 되는 고유한 속성임으로 하여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말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밝혀줄뿐아니라 사회정치생활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 새로운 해명을 준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활환경인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가져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적관계에서 자주성을 가지는것이다.

사회적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사람의 자주성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정치적관계이다. 그것은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운동, 사회생활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령역에서 진행되지만 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정치생활이다. 물론 사람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려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생활이다.

정치는 사회적집단의 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사업인것만큼 사람의 모든 사회적활동은 정치생활에 의해서 실현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생활의 주인이 되여야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연의 주인으로도 될수 있다.

정치생활의 주인이 되여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열쇠로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물질적부를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 하여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없으며 지배계급에 의하여 강요되는 반동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정치생활의 주인이 되여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여야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사람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은 자주적권리에서 표현되고 담보되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자주성은 사회정치관계에서 기본으로 되며 사회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속성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적자주성을 지니는것을 말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주체사상은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는것을 밝혀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73페지)

사람은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고 사회생활, 사회정치활동을 할 때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이 될수 있다. 사회생활, 사회정치활동에 참답게 참가하는 사람만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가장 값있는 사회적인간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적리익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운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운명이 더 고귀한것만큼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값있는 삶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정치적생명이야말로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제하는 생명이며 사회정치활동, 혁명활동에 생기와 활력을 주는 혁명가의 고귀한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간직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 참답게 복무하며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사회정치적생명은 영원하다.

사람의 한생은 인류의 유구한 력사에서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육체가 없어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빛나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끝이 없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계속되며 인민의 력사가 영원하기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체적으로 로쇠하게 되고 나중에는 육체적생명을 잃게 되지만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바친 혁명가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은 조국과 인민의 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장기적인 투쟁에서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지만 선행세대가 혁명의 길에 남긴 고귀한 업적과 혁명정신은 후대들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게 된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원히 빛내이는 여기에 사람의 참다운 삶의 보람이 있으며 혁명가의 끝없는 영예가 있다.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풍모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인 모범을 찾아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 속에서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비록 육체적생명을 잃을지언정 사회정치적생명만은 버리지도 더럽히지도 않았다. 김혁, 차광수동지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가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간직하였던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혁명의 한길에서 빛내인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다운 사회정치적생명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받아안게 되며 빛내여나가게 된다.

사람들은 혁명조직에 참가하여야 혁명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고 집단의 공동의 리익인 자주적인 요구를 자각하게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집대성되며 혁명조직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깨우쳐주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의 량식으로 되며 수령이 창건하고 이끄는 혁명조직은 사회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키우는 터전으로 된다.

사람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조직에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 사회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일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어주신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가지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람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가장 값있는 생명이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빛내이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 *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이 밝혀진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으로 되며 사회력사적운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류력사가 펼쳐지고 철학적사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의 본성과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래동안 자신의 운명이 그 어떤 《신》이나 관념, 객관세계의 지배를 받는것으로만 인식하고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참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옳바르게 해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참다운 진리를 인식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으며 존엄있고 값있는 참다운 인간으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게 되였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인간의 운명개척의 혁명적인 길을 밝혀준 바로 여기에 자주성이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 주체적해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으며 인류사상발전과 인류해방위업에 기여한 주체사상의 거대한 공적의 하나가 있다.

자주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존엄과 가치를 규제하는 기본징표이며 사회정치적생명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첫째가는 고귀한 생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

최 성 근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원리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고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밝힌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확고한 초석을 이루는 근본원리이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시대와 력사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지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사회력사원리를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론문에서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원리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져 있는바와 같이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의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력사발전의 내용과 방향이 규정되고 그 전진속도가 좌우된다. 력사의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사회력사적과정을 고찰하는 출발점이 달라지고 력사발전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근본원리적문제로 된다.

과학적인 사회력사관확립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원리가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심오한 해명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1페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한다.

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의 담당자로서 모든 력사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으며 사회력사발전과정을 떠밀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력사발전과정은 다름아닌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이다.

자연을 정복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자연에 대한 그들의 지배령역이 넓어지고 사회관계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사회적처지가 개선됨으로써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부단히 높아진다. 한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질수록 력사발전과정은 더욱더 촉진된다.

그러므로 력사가 발전하는 과정은 곧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

Digitized by Google

리는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한것이다.

사회력사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발전한다.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는 과정이 다름아닌 력사발전과정이다.

그런데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진다.

물론 사회적운동도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진다. 사회적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이 작용한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력사를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것은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의 주체, 력사의 주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담당자이라는데 있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자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이며 지향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억눌리지 않고 존엄있게 살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행복한 물질생활을 누릴것을 념원한다. 그들은 또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추고 보다 더 보람차고 문명하게 살것을 바란다.

인민대중은 바로 이러한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로부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데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운동을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되는것은 또한 그들이 사회적운동을 떠밀어나가는 힘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에게는 력사의 전진운동을 떠밀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장 높이 체현한 사회세력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기초한 위력한 사상정신적힘과 사회력사적으로 축적된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있으며 거대한 조직적단결의 힘을 체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창조적힘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모든 사회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 사회발전을 추진시킬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은 모든 사회적운동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이다.

모든 사회적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추진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기때문에 사회적운동의 담당자, 주체는 언제나 인민대중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힘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진되는 사회적운동은 사회개조운동, 자연개조운동, 인간개조운동의 형태로 벌어진다. 사회개조운동, 자연개조운동, 인간개조운동은 사회적운동의 기본령역이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운동들이다.

인민대중이 벌리는 이 사회적운동들에 의하여 력사가 창조되고 사회가 발전하기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고 비록 우여곡절은 있으나 자기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게 된다.

이렇듯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서 력사의 앞길을 개척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인것만

Digitized by Google

즘 사회적운동의 높은 형태인 혁명운동에서도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생산도구가 개선되고 생활수단이 창조되며 사회의 물질적재부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진보적인 사상과 문화를 요구하며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선진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을 창조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간다.

인민대중은 특히 혁명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진보적인 사회제도로 교체하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며 새것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사회의 상승적발전을 이룩해나간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류력사를 놓고보면 매 세대들이 창조하고 변혁한 세계의 령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지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없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함으로써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간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위는 강화되고 그들의 힘은 장성하며 또 그들의 지위가 강화되고 힘이 커질수록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 혁명운동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만이 사회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된다.

반동적착취계급은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적대적계급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력사의 전진운동을 돌려세우려고 책동하는 반동적세력이다. 착취계급은 교활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고 노예화하는 비인간적존재이며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살아갈수 없는 존재이다. 더우기 착취계급은 어느 사회에서나 한줌도 못되는 극소수를 이룬다.

그러므로 모든 착취계급은 그 본성에 있어서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으며 오직 력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될뿐이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무권리를 강요하는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만 자주성을 옹호할수 있고 력사를 전진시킬수 있다.

계급사회의 전로정은 력사의 창조자와 력사의 반동, 혁명의 주인과 혁명의 대상, 다시말하여 근로인민대중과 반동적착취계급사이의 첨예한 투쟁의 력사이다. 사회는 이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하여왔다.

이 모든것은 근로인민대중만이 사회적운동의 주체, 사회력사의 주체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진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되여있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닙

니다.》(우와 같은 문헌, 48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모든 사회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없었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었다.

그것은 당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아직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으며 따라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력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수 없었다.

근로인민대중은 낡은 사회제도, 낡은 사회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된다. 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력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처지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령도와 투쟁의 결과이다.

로동계급은 조직성과 단결력이 강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계급이며 모든 피착취근로대중을 온갖 계급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서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여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으며 착취제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온 사회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될 때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은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온 사회가 혁명화, 로동계급화될 때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는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력사의 전진과 혁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될것이다.

론문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력사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민대중이 저절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사회발전을 절실히 요구하며 또 력사를 전진시킬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하나로 단합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창조적능력이 높이 발양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힘이며 단결의 힘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혁명투쟁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그가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정

Digitized by Google

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야만 혁명의 참다운 추동력이 될수 있고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은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게 되며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여 혁명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모든 피착취, 피압박 근로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인것으로 하여 거기에는 류례없이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한다. 또한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완전히 청산하고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유물까지 없애기 위한 심각한 사회적변혁인것으로 하여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동반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과학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고도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할것을 요구하며 특히 계급투쟁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이 필수적요구들은 오직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가장 중대하고 원칙적인 문제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선다.

론문에서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계급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을 조직령도하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수령은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은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혁명의 사상정신적량식을 준다. 또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켜 강유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전반을 장악하고 세련된 전략전술적지도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당과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지도는 곧 당과 수령의 령도로 된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하여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밝혀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는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Digitized by Google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성과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를 새롭게 가르쳐주는 독창적인 사회력사원리이다.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오던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며 인류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과 혁명실천은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 이것은 참으로 인류력사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영원히 변할수 없는 보편적진리이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힌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의 발전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력사관의 근본원리는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의 리론적출발점이며 그 전체계와 내용을 관통하는 근본사상이다.

근본원리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의하여 사회력사관의 전개방향과 성격, 내용이 규정되고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력사적운동의 중심에 무엇이 서있으며 그 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그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력사를 전진시키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대중이 서있다. 인민대중은 모든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이며 추진력이며 모든 사회관계의 체현자이다. 그러므로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원리로부터 출발하여야 사회력사적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줄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원리는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는 근본지침을 준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적운동을 주체의 운동으로 파악하고 주체의 운동법칙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힐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새로운 사회력사관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또한 사회발전의 기초와 근본방향을 비롯하여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리해할수 있는 과학리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해명은 우선 사회발전의 근본문제, 그 기초에 대한 문제에 새로운 리해를 준다.

사회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인것만큼 력사의 발전은 인민대중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는것을 필수적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며 어느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력사의 전진은 오직 인민대중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며 그들의 활동이 강화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이 높아

Digitized by Google

지는데 따라 강화발전한다.

그러므로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져 그들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는것은 사회발전의 기초로, 근본전제로 된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새로운 해명은 또한 사회력사발전의 근본방향에 대한 가장 옳바른 리해를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314페지)

력사는 그 주체인 인민대중이 요구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며 력사발전이 주체의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력사는 인민대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력사발전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는 그들이 지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짐으로써만 력사의 주체로서의 그들의 지위가 강화되고 창조적역할이 높아질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힘을 키워 낡은 사회관계, 사회제도를 개변하기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사회력사를 전진시켜왔다. 인류력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력사이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사상이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견해를 세울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준 탁월한 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책임성,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였으며 력사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였다. 또한 이 원리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길을 찾게 되였으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가장 옳바른 투쟁목적과 투쟁방향, 활동방침을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이 새롭게 밝힌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사상은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전변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실천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 위대한 사회력사원리이며 인류의 철학적사유가 달성한 가장 고귀한 재부이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사회력사의 주체에 관한 심오한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

김 원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 리론과 방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이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리론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리론이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에 가서야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이다.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치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경제건설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며 날로 늘어나는 그들의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담보가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대중에게 풍족한 물질생활을 마련해주려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고 그에 맞게 경제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혀야 경제건설에서 정확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록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와는 달리 유휴로력이나 유휴자재, 유휴설비와 같이 손쉽게 동원할수 있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많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Digitized by Google

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올바로 해명하지 않고서는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실천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사회의 합법칙성이며 그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전제로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00페지)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비상히 높은 속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첫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유지되는 항구적인 높은 속도이며 경제의 어느 한 개별적 부문이나 단위에서뿐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다같이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높은 속도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우월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의 목적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330페지)

생산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속도를 규정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생산의 목적에 따라 생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되며 나아가서 경제발전속도가 좌우되게 된다.

생산의 목적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제기된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소수 착취계급의 치부와 향락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오직 먹고 살아나가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이나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이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업이든지 모두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행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이 날로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적생산의 이러한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최대한으로 빨리 늘여야 한다. 생산을 빨리 늘이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이러한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근본요구를 과학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보통정도의 속도로가 아니라 비상히 높은 속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Digitized by Google

것이 합법칙적이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에 맞게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끝바른 길을 밝혀준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이야말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의 목적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인 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경제건설의 강령적지침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또한 생산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에 대한 주체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1페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발전시켜나가는 계획경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것은 또한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본가들의 《영업비밀》로 하여 기술발전이 심히 억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기술발전에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며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기술혁신을 일으켜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술발전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기술혁명을 다그쳐나간다.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과 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고있는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은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하여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의 주인이며 기술의 주인이다. 생산에 대하여 제일 잘 알고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기계를 만들어 다루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 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생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이라면 그들의 역할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수준에 따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규제되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에서의 성과가 결정된다.

혁명적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인민대중은 나라의 온갖 자원을 효과적

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며 선진적인 생산경험을 널리 받아들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들을 극복하고 집체적지혜를 높이 발휘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를 확신할 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쳐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수록 근로자들은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간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밝힌데 기초하여 제시된 주체적인 리론이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의 방침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이라고 하여 결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자면 반드시 생산의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을 맡은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이 있어야 한다. 혁명적인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이 있어야 자연을 정복하고 생산을 늘여나가는 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들을 뚫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속도전은 바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으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모든 단위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이도록 한다.

속도전의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현실로 전환시킬수 있는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준다.

속도전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데 있다.

우리 당은 속도전의 이러한 기본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속도전의 기본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방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

이처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을 새롭게 제시하고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혀준 여기에 속도전의 방침이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독창적인 방침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리론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발전속도에 관한 정확한 해명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Digitized by Google

국가로 하여금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정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의 발전법칙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줍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95페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옳바른 경제정책을 작성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전제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장성의 합법칙성과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발전속도를 정확히 규정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바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며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대규모경제는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그릇된 리론을 철저히 짓부시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세우고 경제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생산장성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힘있게 론증함으로써 경제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자면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를 잘 맞물려주고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야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은 생산발전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을 비롯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근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며 계획화사업과 생산보장사업, 생산 조직과 지휘를 보다 개선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렇듯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정책을 세우고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서던 복구기에는 물론 기술적개건기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가 비상히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남들이 한세기, 지어는 수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Digitized by Google

전후 복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게 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최근년간에도 매우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된 결과 6개년계획이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완수되였으며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도 해마다 넘쳐수행되고있다. 1960년대에 매해 평균 12.8%의 속도로 장성하였던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대에 와서는 해마다 15.9%라는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는 공업부문에서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확고히 견지되여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가 2년이나 앞당겨 점령되였으며 오늘은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과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는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들과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가 확고히 견지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자립성과 주체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기술장비수준이 매우 높아진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 위력은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함에 따라 인민생활이 체계적으로 향상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의식주문제가 해결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세금걱정,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있는 이 자랑찬 현실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보람찬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움직이고 발동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2페지)

사회주의적생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인것만큼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자면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시킬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경제건설에서 풀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첫공정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정치사업의 목적은 중요하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데 있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제때에 해설침투시키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계속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있다.

경제조직사업은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조직사업을 통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정확히 맞물려지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대책이 취하여진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아래단위의 실정을 환히 꿰뚫수 있으며 생산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들끓는 생산현장에 내려가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야 하며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고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의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증산은 절약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원료와 연료, 자재를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큰 보탬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여 랑비현상을 극복하여야 하며 한그람의 석탄, 한토막의 강재, 한방울의 연유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을 다그쳐 물자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있는 설비와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에 맞게 경제를 건설해나가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한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

한 존 순

[illegib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illegible] 사회주의경제 [illegible] 실현하기 [illegible]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illegible] 하기 위하여 [illegible] 경제관리를 개선하[illegible]이다.

[illegible] 기업관리를 개선하[illegible] 사[illegible]

[illegible]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사[illegible] 끊임없는 혁신을 [illegible]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illegible]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illegible]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히시고 [illegible]의 사회제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들을 [illegible]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는 [illegible] 마련하여주시였다.

[illegib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에 관한 사상과 이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 ☆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발전된 기술에 기초하고있는 대규모경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서로 밀접한 생산소비적련계를 맺고있으며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통일적으로 분배리용된다.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특성은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를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경제관리는 바로 생산에 대한 조직과 지휘이다. 경제관리를 통하여 인민경제 부문들과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맞물려지며 로동력과 로동수단, 로동대상이 합리적으로 동원리용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없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사회적로동을 절약적으로 리용하고 나라의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장, 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사회적생산의 한 고리를 직접 담당하고

Digitized by Google

있는 전투단위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속도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 기업소들을 옳게 관리운영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을 정도로 높지 못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하다. 또한 로동이 영예롭고 보람찬것이기는 하나 아직 생활상 제일차적요구로는 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영기업소들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게 되며 생산물의 생산과 류통에서는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도 작용하게 된다.

독립채산제는 바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과 물질적관심성을 리용하여 경영상독자성을 가지는 사회주의적기업소들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기업관리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독립채산제가 물질적관심성과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을 전제로 한다는것은 결코 그것이 곧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와 같은 낡은 사회의 경제법칙과 경제법주들에 의하여서만 규제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82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에 고유한 여러가지 경제법칙들이 작용한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들은 다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에로의 전환과 함께 작용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이다. 이러한 경제법칙들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하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는 반드시 그에 고유한 경제법칙들의 요구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기업관리방법도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는데 있다.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킨데 대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을 비롯한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기업관리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독립채산제가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영업채산제》와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우월성이 있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

Digitized by Google

음 다같이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들가운데서도 공장, 기업소들을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관리운영할것을 객관적으로 규제하는것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과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이다.

기업관리운영에서의 독립채산제원칙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계획적발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기때문에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이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506～507페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무정부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국가주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손에 장악되여있고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필수적요구로 나설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보장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경제의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은 객관적인 경제법칙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은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을 계획화, 조직화하여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계획적균형을 보장할뿐아니라 나라의 경제단위를 이루고있는 개개 공장, 기업소들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개별적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적관리운영이 전반적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의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고서는 나라의 인민경제전반에서 계획적균형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를 한걸음도 발전시킬수 없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이러한 요구는 중요하게 독립채산제를 통하여 기업관리에서 구현되게 된다.

사회주의기업소의 경영상독자성은 전인민적소유안에서의 독자성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성격을 띤다. 공장, 기업소들의 독자성이 상대적성격을 띤다는것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며 기업운영이 유일적인 국가계획수행에 철저히 복종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는 바로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로부터 계획과제를 받고 계획수행에 필요한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공급받아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평가도 국가계획을 얼마나 수행했는가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은 국가계획과제수행에 복종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띠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독립채산제가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기업관리운영에서의 독립채산제는 또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사람들이 일에서 열성을 다낼수 없으며 생산발전에서 지장을 받을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illegible]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이 작용한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

Digitized by Google

성을 반영하고있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이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경제법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특성과 우월성을 동시에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경제법칙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생산물분배에서 개별적성원들에게 그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로동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것을 요구한다.

로동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분배한다는것은 바로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 다시말하여 생산활동에서 논 근로자들의 역할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생산물분배를 규제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으로 된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본수단이며 물질적자극의 기본형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 그들의 물질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추동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물질적관심성을 자극할데 대한 요구가 상품화폐관계나 가치법칙과 같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기때문에만 제기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인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법칙에 의해서도 제기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독립채산제는 기업관리에서 생산자대중의 물질적관심성을 자극할데 대한 로동에 의한 분배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기업소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독립채산제는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소경영활동결과를 근로자들의 보수지불과 련결시키고 생활비, 상금, 장려금과 같은 로동보수형태를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를 물질적으로 자극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생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국가계획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일하게 한다.

이 모든것은 독립채산제가 상품화폐관계나 가치법칙과 같은 낡은 경제법칙의 요구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독립채산제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한 기업관리방법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그것을 절대화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기업관리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관련한 사람들의 물질적관심성 그리고 낡은 경제법칙인 가치법칙과 같은 경제공간을 전제로 하는 기업관리방법인것만큼 공산주의적경제관리방법으로는 될수 없다. 독립채산제는 과도적특성을 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공간이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는 공산주의기업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공산주의적

Digitized by Google

경제관리형태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것은 중요하게 대안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하며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실시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기업소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로동의 결과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실시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원칙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떠나서 독립채산제의 옳바른 실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독립채산제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실시할 때만이 그 참다운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본질과 그 관철방도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오늘 독립채산제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에 서서 그것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이 옳바른 립장과 관점에 서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할 때에는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과 그 관철에서 나서는 원칙과 요구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하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더 잘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모든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독립채산제원칙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려면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 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 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정량과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설비능력을 옳게 타산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기업소들에 현실성있는 계획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소들에 계획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것을 실행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수 없습니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97～398페지)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는 모든 경영활동이 곧 국가계획을 수행하는데로 지향되며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도 국가계획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에 계획을 정확히 주고 그 수행정형에 대한 평가를 옳게 진행하는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계획을 바로 주고 그 실행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경제관리운영에서 생산자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독립채산제도 정확히 실시할수 있다.

모든 국가계획일군들은 계획화사업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기계설비의 능력과 원료, 자재의 보장정형을 옳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적극적이고 동원적이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기업소에 내려보내야 한다. 계획을 아래에 내려보낼 때에는 현물지표별계획뿐아니라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로동계획, 기술발전계획, 원가계획과 같은 계획항목과 계획지표들도 동시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국가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것은 금액상으로가 아니라 현물지표별로 계획을 수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들에 계획과제를 현물지표별로 주고 그 실행정도에 따라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계획적관리원칙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고도로 조직화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대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할수 있게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의 규정과 규범을 더욱 완성하여 그것을 기업관리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부문별로 표준공장을 잘 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업관리를 철저히 정규화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우리 당이 창조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마련된 일 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독창적인 경제관리형태이다. 그것은 매일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을 놓고 좋은 점은 계속 살리며 부족점은 제때에 극복하도록 정치적방법으로 총화짓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기 위한 명확한 행정경제적방도를 세우게 한다. 그리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사상교양과 통제,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과

Digitized by Google

평가를 옳게 결합시켜 사회주의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생산총화와 재정총화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하며 경제과업수행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평가를 잘하여야 한다. 매일 하루동안의 생산 및 재정활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부족점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원리적으로 따져보고 쉼없이 혁신하고 전진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하는 재정총화를 잘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일군들의 자질을 높이고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4페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을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바로 실시할수 없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진지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운영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생산을 책임진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여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생산을 늘이는가 못늘이는가 하는것은 결국 일군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생산자대중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려면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한 일군만이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방법으로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다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맡겨진 경제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기업관리를 합리화하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공장, 기업소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전망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

황 동 섭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근본원칙에 대하여 다시금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1페지)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혁명적인 원칙이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다그쳐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민족적리익에 맞게 정확히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아갈것이다.

(1)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시종일관한 근본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원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정확히 구현한데 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의 이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그 성격상 어떠한 외세도 간섭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은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그밖의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힘에 의

하여 해결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내부문제해결의 주인이며 결정적요인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는 조건에서 모든 나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민족내부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모든 민족내부문제의 해결에서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인민의 주체적력량인것과 같이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의 해결에서도 결정적요인은 조선인민자신이다.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하여 고통을 직접 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조선인민이며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는것도 조선인민이고 조국통일문제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 통일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것도 조선인민이다. 또한 조선의 구체적현실을 잘 알며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끝까지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힘도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오직 조선인민만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이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의 자주적원칙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가장 정확히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특히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인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문제해결의 확고한 근본원칙으로 된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철저한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립장이다.

자주적립장에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그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끝까지 정확히 수행할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우선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으며 사소한 편향도 없이 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자주적립장을 지켜야만 또한 남의 힘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장애를 용감하게 물리치고 통일위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만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의 얼굴을 쳐다보며 남의 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민족적리익에 맞게 통일운동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외래침략자들에게 내여맡기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나라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이 수행하는것은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확고한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이다.

자주적원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것만큼 마땅히 민족자결의 권리에 따라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모든 민족은 다같이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민족내부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Digitized by Google

권리를 가지고있다. 민족자결권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민족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다.

민족자결권은 특히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간섭과 압력, 파괴암해책동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혁명하는 나라들은 민족자결의 권리를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하여야만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과 지배도 물리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담보할수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인 민족자결권은 그것이 아무리 신성불가침의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저절로 보장되거나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민족자결권은 인민대중이 민족내부문제의 처리에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 때에만 튼튼히 지켜낼수 있고 정확히 관철될수 있다.

지나온 모든 력사적 교훈과 경험은 민족자결권이 아무리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실천에서 자주적립장을 관철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것으로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인민의 내정문제이고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도 사정은 달라질수 없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통일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권리와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관철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민족자결권을 행사할수 없을뿐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극복할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자주적원칙을 관철할 때에만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주동적으로 물리치고 민족자결의 권리에 따라 조선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자주적원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이 투쟁을 조선인민 자신의 위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우리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며 이 문제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는 결정적조건이다.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본질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문제이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어느 한 특정한 정당이나 집단 또는 개인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될수 없는것이며 그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사업으로도 될수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철두철미 전체 조선인민의 공통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땅히 그들 모두가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나서야 할 공동의 위업으로 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또한 전민족적인 공동위업으로서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참가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전개될수 있다.

력사적경험과 실천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이 자기의 민족문제해결에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거족적으로 떨쳐나설 때 그 힘은 필승불패이며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지 못할 과업이란 없는것이다.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야만 승리할수 있는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이 이 투쟁에 거족적으로 참가할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참말로 우리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될 때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요구에 맞게 승리적으로 결속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아무리 온 민족공통의 위업이라 하더라도 저절로 우리 인민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수는 없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전체 조선인민이 자주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우리 인민자신의 위업으로 확고히 전환될수 있고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자주적원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다른 원칙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담보해준다는데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에도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모두가 조국통일의 본질과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공명정대한 원칙으로서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고 관철하여야 할 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들은 서로 뗄수 없는 유기적 련관속에서 조국통일의 성과적수행을 담보하면서도 그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서로 다른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되고있는 평화통일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자주적원칙의 담보밑에서만이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자주적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서 통일의 모든 가능성과 중요원칙, 그의 실현방도들을 규제하고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원칙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은 자주적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그 고유한 생활력을 나타낼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할수 없다.

평화통일원칙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비롯한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방침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주적원칙이 견지되고 관철될 때에만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민족적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자주적원칙은 이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부동한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근본원칙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적발전과 그 승리를 위한 불패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근본원칙과 함께 이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기본요구들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페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

고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선결적인 조건이며 평화적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우리 나라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은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근본원인이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는 기본화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7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아왔을뿐아니라 오늘도 《두개 조선》정책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우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꾀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 대한 침략무력의 증강을 계속 추진시키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과 함께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와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인민자신이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가장 합리적이고도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을 극력 외면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반공》대결과 분렬에로 적극 내몰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음모책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들까지 끌어들이고있다.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정책과 로골적인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은 갈수록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북과 남사이에는 군사적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격화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간섭을 끝장내지 않는 한 자주적원칙에 립각한 나라의 통일은 절대로 이룩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태도문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참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미제의 내정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또한 남조선통치배들의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을 저지시키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실시하고있는 외세의존정책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로 된다.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외래침략세력의 지배와 간섭 책동을 더욱 조장시키고 나라의 예속화를 심화시키며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의 발전과 통일의 실현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기때문이다.

외세의존정책은 인민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사대매국노들의 유일한 생존방식이다.

외래침략세력에 의존하여 자기의 추악한 목숨을 유지하는데서 전두환파쑈도당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분자들의 매국배족행위를 훨씬 능가하고있다.

오늘 전두환도당이 나라의 영구분렬과 《반공》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전대

미문의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여나서고 있는것은 그 모두가 미제의 침략적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비렬한 외세의존정책의 구체적표현들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는 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모든 행위는 례외없이 나라의 운명을 외래침략자들에게 내여맡기고 민족의 자주권을 포기하며 조국의 분단을 영구화하는 용납못할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이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그것을 끌어들이는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의 외세의존정책을 철저히 지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내정간섭이 끝장나고 남조선집권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이 종식되여 남조선에서도 정치적자주권이 보장될 때 순조롭게 이룩될수 있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인민대중의 지향을 거역하고 계속 외세의존의 길로 나간다면 조국과 민족 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내놓은 방안대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3페지)

분렬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합리적인 자주적조국통일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통일적인 주권국가를 세울 때에만 전국적범위에서 정확히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련방공화국은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에 세워야 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설하는것은 그자체가 곧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적자주권의 실현을 담보하는것으로 될뿐아니라 련방공화국의 자주적성격으로 하여 민족적자주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향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도로 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은 특히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망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자주적조국통일방안이다.

오늘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신앙이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기초

Digitized by Google

우에서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적요구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찾아내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한편으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을 본질적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조국통일의 이와 같은 본질적요구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곧바른 길은 북과 남에 현존하는 사회제도와 사상,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같은 혈통과 언어, 하나의 력사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공통성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망은 그 어떤 장애와 난관도 극복할수 있는 힘으로써 전체 인민을 하나의 민족적리념밑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는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서로 공산주의리념과 자본주의리념을 들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것이 아니라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민족적리념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능히 사회제도와 사상, 정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설할데 대한 방안은 바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사상과 제도의 통일에 앞서 그것을 초월하여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을 밝힌것으로 하여 자주적원칙에 기초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것이다.

*   *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근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나가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근본원칙은 그 혁명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과 함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근본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앞으로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조선》 정책과 매국도배들의 외세의존정책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담보

황 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강령적인 문헌에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 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성과적실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세계,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이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온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이 오늘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거세찬 조류가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며 자주적이고 평등한 새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발전의 요구로 나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우리 시대의 이러한 발전추세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의 시대적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온 세계가 자주화되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

Digitized by Google

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이러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세계정치무대에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크고작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같이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새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인류공동의 념원인 자주화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4페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주화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필연적요구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흐름에 합류되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것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기초우에서 자주적인 나라와 민족들의 대렬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력사적위업이다.

오늘 나라들사이에 국경이 있고 민족들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고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생활단위이며 집단인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위적인 나라와 민족으로 되며 그러한 나라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확대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해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되면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요구와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오직 이렇게 될 때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다.

만일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지키지 못하면 독자성과 창조성을 잃게 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며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여 결국 민족적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면할수 없게 된다.

지난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한것은 바로 그들이 자주성을 빼앗기고 그것을 무참히 짓밟혀왔기때문이였다. 오늘도 세계의

Digitized by Google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놈들의 지배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모든 사실들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예속과 간섭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며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이 전횡을 부리고 강권을 휘두를 대상과 지반은 없어지게 될것이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게 될것이다.

제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말살하며 다른 민족과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것을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다.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의 유린자이며 교살자인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이 전횡을 부리거나 강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면서 외세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 남의 장단에 춤을 추거나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으며 남의 대리인,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게 되면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는 발붙일 곤상, 의거할 지탱점을 잃게 되고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관계도 자주성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할 때 실현될수 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을수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을 민족은 따로 있을수 없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철저히 행사할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에는 자주권을 유린하는 낡은 질서, 다시말하여 지휘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의 관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의 관계는 없어지고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기초한 참다운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이룩하게 함으로써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서로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전세계적판도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거창한 위업으로서 광범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요구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단합된 힘으로 싸워나갈 때 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인민들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한나라안에서나 전세계적범위에서나 단결된 인민들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세계의 모든 혁명적나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전투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고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

Digitized by Google

한 요구이다. 특히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아가는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리간과 반목을 조성하고 이 나라들을 분렬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현시기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는 그것이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만이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자주성은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위한 근본원칙이다. 자주성이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위한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 단결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며 그 목적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데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세계의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며 숭고한 지향이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바로 인류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이다.

자주성은 자신이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을 반대한다.

자주성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완전히 평등하고 호상존중할것을 요구하며 온갖 예속과 압박, 불평등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며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단결할수 없으며 단결하지 않고서는 반제자주의 위업을 성취할수 없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할 때 그들사이에 완전한 평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에 기초한 진전하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들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도 당사자들자신의 민족적리익과 반제자주위업의 전반적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도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의 리념에 충실하고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여기에 외부세력이 끼여들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국 신흥세력을 더욱더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뿐이다.

자주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흥세력나라들을 진보적인 나라와 비진보적인 나라로, 이편저편으로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반제자주력량을 사분오렬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 또한 그들사이에 경제기술적협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된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여나갈 때 사회제도와 정견, 당파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공고한 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그들사이에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단결과 협조를 이룩할수 있게 하며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반제자주력량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담보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세계대전을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며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43페지)

자주화된 세계는 무엇보다도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구우에 공고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이다. 따라서 세계대전을 미리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려는것은 진보적인류의 공통된 념원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여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적진보와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근원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수많은 크고작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인류에게 커다란 참화를 들씌운 두차례의 세계대전도 바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도발되였다.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지배권을 유지확장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추종국가들과 앞잡이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세계전쟁을 준비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새 세계전쟁의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있으며 이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인민들의 머리우에 드리운 전쟁의 위험을 막는가 막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자주의 새세계를 일떠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는 바로 세계의 진보적 나라와 인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성의 원칙에서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매개 나라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원칙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놈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구라파와 중근동, 라틴아메리카와 대양주 등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이 나라의 자주성을 굳게 지키면서 자기 나라의 리익과 안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수 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있다. 모든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데 힘을 집중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은 고립되여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블럭에 말려들거나 자기 령토를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로 내여맡기는것과 같은 현상이 없어지게 될것이며 세계의 평화력량이 전쟁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게 될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추종하지 않고 그것을 반

Digitized by Google

대배격하는 길로 나갈 때 인류는 세계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수 있게 될것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제시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없는 새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곧바른 길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침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는것이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며 참다운 민족적독립의 필수적요구이다. 정치적자주성이 있어야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또한 경제적자립과 국방에서 자위의 정치적담보이다. 정치적자주성을 떠나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없고 자위적인 국방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국가의 모든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제적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는 나라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이며 국방에서의 자위는 자주적인 국가의 군사적담보이다.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은 말로만 주장한다고 하여 실현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자주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을 안받침하는 물질적기초를 가지고있지 못할 때에는 하고싶은 말도 할수 없고 하고싶은 일도 할수 없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을 단호히 물리칠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적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도 말고 자기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illegible] 한다.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진보적인민들앞에 나선

성스러운 공동위업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나라의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세워나가며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존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세우고 관철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철저히 확립하고 나라의 자주성을 튼튼히 수호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 고리이다.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자주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대외정책이며 우리 인민앞에 나선 국제적임무이다.

우리 당은 국제정세, 주변정세가 그처럼 복잡한 속에서도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공동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다. 이 성스러운 투쟁의 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온 세계의 자주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7호(루계 483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7월 1일 발 행• 1982년 7월 5일

ㄱ—2521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50전

Digitized by Google

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EAST ASIATIC LIBRARY
OCT 1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8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제 8 호 (48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차 례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 20周年에 즈음하여—

Digitized by Google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스무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 8월에 열렸던 창성련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빨리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이룩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경험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1980년대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을 마련하여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1)

창성련석회의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지역적 단위와 거점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나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나라살림살이의 전반적발전도 매개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지역적 단위와 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과 로동자구의 발전은 군기관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이 높아지는가 높아지지 못하는가가 크게 좌우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43~244페지)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거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단위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단위는 그 크기가 알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평균 20~30개의 협동농장들과 1만정보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 군들은 그 크기와 자연경제적조건으로 보나 그리고 해당한 지역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갖추고있는 점에서 보나 이러한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 가장 알맞춤한것이다.

매개 농가가 생산단위였던 지난날의 개인농시기에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가 리였고 군은 리를 통하여 모든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협동농장들이 리의 범위에서 하나로 통합된 다음부터 리는 지도단위가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단위로 되였다. 그리고 군은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자기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풀어나갈수 있는 맨아래의 지도단위로 되였다.

군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이다.

군이 사업을 잘하여야 주민들속에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수 있으며 농촌리들과 로동자구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릴수 있다.

그러므로 군이 어떻게 사업하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향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을 강화하고 군소재지를 잘 꾸리며 군내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여 군중을 이끌어나가며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창성련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지역적으로 분산된 농촌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매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고 군을 거점으로 하여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모든 일군들이 주인된 자각과 높은 창발성을 발휘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기 지방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창성련석회의는 또한 산간지대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빨리 높이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데서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인민생활의 향상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끊임없는 향상과 균형적향상의 두 측면을 포괄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 근

Digitized by Google

로자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면서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나가야 물질문화생활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평등을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근본조건의 하나인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생활분야에서도 도시와 농촌,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데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빨리 높이자면 무엇보다도 일제통치밑에서 가장 천대받고 못살아온 산지대주민들의 생활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메마른 산지대인 창성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시범을 창조하시여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자연경제적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조리용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자연을 능동적으로 개조하고 정복해나가야 모든 자연부원을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복무하도록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일군들이 매개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인민생활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온갖 조건들과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하여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 탁월한 사상과 방침은 객관적인 물질적조건을 사람들의 자주적지향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조해나갈데 대한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은 산을 잘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지대에 맞게 농작물을 배치하며 산간지방에 있는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는 옳은 인식을 똑바로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그들은 창성사람들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얼마든지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창성련석회의는 바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느냐 못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경제적조건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데 그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참으로 창성련석회의는 두메산골의 버림받던 끝짜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자연조건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고 유효하게 리용하여 온 나라 모든 지방의 경제를 고루 발전시키고 산간벽지의 농민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민들이 고르롭게 잘살게 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창성련석회의는 또한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전반을 추켜세우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령도방법을 인민생활분야에 빛나게 구현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 령도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나설 때마다 전형적인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전반적단위에 일반화하는 령도예술을 구현해나가고있다.

창성련석회의는 바로 우리 당의 이러

Digitized by Google

한 령도예술의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산지대들은 그 어디를 불문하고 경지면적으로 보나 땅의 비옥도로 보나 창성보다 못할것이 없다.

오래전부터 산지대농민들의 생활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척박한 산골군인 창성군을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여 이 지대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날 뒤떨어졌던 창성군을 시범의 대상으로 정하신 여기에는 가장 락후한곳이 가장 빛나는 본보기로 전변되여가는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모든 지방들의 특성에 맞게 군을 꾸리고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 대한 전반적지도에 앞서 군안에서 제일 뒤떨어진 리들중의 하나였던 약수리를 먼저 현지지도하시면서 산을 잘 리용하여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여러가지 부업을 하여 현금수입을 높이며 이고장에서 잘되는 강냉이와 고추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치주시였다.

약수풀마을이 생긴이래 수천수백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물려 살아오면서 눈을 뜨면 보이는것이 산이였지만 그 산을 리용하여 잘살아보자는 생각은 여지껏 누구도 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산들이 보물이 되고 자원이 되고 잘살 밑천이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약수리에서 얻은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창성군에 대한 전반적지도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성군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귀중한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바로 창성련석회의는 창성군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빛나는 모범을 통하여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지방공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교육문화사업과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는데 그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참으로 창성련석회의는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생동한 경험과 실물로써 일군들을 가르쳐주는 힘있는 사업방법,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예술을 인민생활향상에 빛나게 구현한 력사적인 회의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내놓으신 탁월한 사상과 방침,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은 지난 20년간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서 참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5~126페지)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

도밑에 무엇보다도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군기관들의 사업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정연하게 섰으며 군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결정지시가 제때에 거침없이 침투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군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농촌의 계급진지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창성련석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며 앞으로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밑천으로, 담보로 된다.

또한 모든 군들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자립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특히 지방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지난날 기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거의 빈터나 다름없는것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지방공업은 오늘 인민소비품에 대한 지방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선진기술로 장비된 현대적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지방공업은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구조가 가일층 개선완비되였으며 현대적인 기술과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소비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지방자체로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지방공업기업소수는 최근 10년 남짓한 사이에 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매개 군마다에는 평균 18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꾸려져있다.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절반이상의 몫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경공업기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지방예산수입의 첫째가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지방공업의 토대가 급속히 강화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더 빨리다그칠수 있게 되였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가일층 높아졌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에서 밝히신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는 힘있는 시위로 되며 우리 당의 지방공업정책이 가져다준 빛나는 승리로 된다.

창성련석회의이후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과학적인 실태조사와 재배시험에 기초하여 농작물의 배치가 더욱 합리적으로 되고 중간지대들에서 더 많은 알곡증산예비가 나오게 되였으며 산간지대들에서 풀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한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되고 농촌경리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추진되고 영농방법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됨으로써 모든 지방들에서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수입이 빨리 높아지고 그들의 살림은 더욱 유족하게 되였다.

군소재지들이 규모있고 알뜰하게 전신되고 리들에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을 비롯한 교육문화보건시설들과

Digitized by Google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지고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섰을뿐아니라 뻐스화, 수도화, 텔레비죤화까지 실현됨으로써 우리의 농촌은 말그대로 도시부럽지 않은 사회주의락원으로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이후 일어난 모든 전변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과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이미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군사업과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방침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을 더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이 자기 사업을 잘해야 군의 정치, 경제, 문화가 빨리 발전하게 되며 군소재지를 잘 꾸려야 농촌이 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군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촌경리를 옳게 지도해야 하며 상점, 학교, 병원 같은것을 훌륭히 꾸려놓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46페지)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결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나라의 200분의 1에 해당한 지역의 인민들과 자원들을 맡고있는 군이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야만 전반적국가사업이 잘되고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로동자와 농민사이의 생활수준과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모든 지방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을 튼튼히 꾸리고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 빨리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새로운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인민생활문제가 당의 요구대로 원만히 풀리는가 못풀리는가 하는것은 결국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어떤 립장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의 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을 크게 늘이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지금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은 대단히 크다. 지방공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설비와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조직을 잘하면 막대한 증산예비를 동원할수 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려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며 공업원료기지와 재배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지방산업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할수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위대한 생활력

리 명 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장성련석회의에서와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을 다그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었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농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할수 있었다.

현실은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이야말로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혁명적인 사상이며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정확한 사상과 리론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정확한 사상과 리론이 있어야 농촌문제해결에서 온갖 편향을 미리 막을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지역적거점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 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22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농촌을 지도할데 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에는 지역적거점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이 갖추어야 할 징표, 지역적거점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지였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서 가장 적합한 단위는 군이며 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히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상이 농촌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농촌사업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촌사업이 어렵고 복잡한것은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뒤떨어져있고 농민구성이 복잡할뿐아니라 중요하게는 농촌이 분산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농촌이 분산성을 띠게 되는것은 농업에서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널려있는데 있다. 토지가 분산되여있기때문에 농촌마을들과 작업장들이 넓은 지역에 널려져있게 되며 농민들도 작은 집단으로 나뉘여 일하며 생활하게 된다.

농촌의 분산성은 농업협동화에 의하여 훨씬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회주의하에서도 그것은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는 달리 자연지리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자연지리적조건은 지대에 따라 서로 다르다. 벌방지대와 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이 다르고 벌방지대와 중간지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도 서로 같지 않다.

농촌의 분산성과 농업생산의 이러한 특성은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그에 맞게 조직하고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농촌의 분산성과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농촌을 지도하려 하거나 개별적인 대상별로 혹은 부문별로 농촌사업을 지도하려 한다면 국가적지도를 실속있게 보장할수 없으며 농촌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농촌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지도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농촌의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단위는 크기가 알맞춤하고 그 단위의 범위안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거점은 해당 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으로 가장 합리적인 단위는 군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다. 군에는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지도기관들이 있으며 유능한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있다. 군에는 또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있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므로 군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군의 역할을 높여야 분산된 농촌의 모든 사업을 정확히 장악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농촌에 제때에 침투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지역적거점설정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근본원칙들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농촌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의 독창성이 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또한 그것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성과적으로 없앨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196폐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도시주민들의 문화수준보다 낮으며 농민들은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수준에서 뒤떨어져있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아직 협동적소유가 기본적인 형태로 되고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도 남아있게 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지역적거점인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은 바로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 농촌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군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조직화, 계획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은 또한 그것이 공산주의사회의 먼 앞날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마을들은 널려져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촌리에 공급기지를 둘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도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남아있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44～245폐지)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

Digitized by Google

주의농촌건설시기에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일뿐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협동적소유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농촌의 분산성이 없어지게 되지만 자연지리적조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농촌의 분산성은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분산성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이 남아있고 따라서 도시와 다른 농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이 고도로 공업화된다 하더라도 공업과 농업사이의 사회적분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는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이 고도로 기계화될것이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들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진행될것이다. 그러나 공업적방법으로 쌀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상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사회적분업으로서의 농업은 남아있게 된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서로 다른 물질적생산분야를 이루는 공업과 농업사이에는 상품교환의 형태를 띠지 않는 생산물교류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농촌사업을 강화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를 보장하는 일정한 거점이 있어야 하며 전국에 널려있는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전망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농촌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농촌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역적거점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그 크기를 알맞춤하게 하는것이다. 지역적거점의 크기가 알맞춤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농촌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할수 없으며 실속있는 지도를 줄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1952년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시고 국가행정체계를 개편하시여 중간단위인 면을 없애고 군과 리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대책을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의 규모를 조절하신데 이어 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몸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협동농장들이 리단위로 통합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위원회의 령도적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안의 행정경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지도기능을 떼내여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심으로써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국가적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게 하시였으며 지방산

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을 튼튼히 꾸려 군의 물질기술적, 문화적 토대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62년 8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4년 2월에 발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와 농촌테제에서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고 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적거점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군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옳게 설정하고 군의 역할을 높여 농촌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서 참으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25~12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군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은 해당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거점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군사업의 참모부인 군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때에 농촌에 침투되고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군당위원회들은 농촌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면서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안의 행정경제기관일군들로 하여금 당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농촌에서의 경제문화사업을 옳게 조직집행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군들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지방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는 평균 18개 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으며 그 기술장비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우리의 지방산업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를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주는데서 큰 역할을 놀고있으며 지방의 튼튼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생산을 빨리 늘임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군의 수요를 주로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켜나가고있다. 매개 군들에서 상업망을 튼튼히 꾸리고 상품류통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 나라의 군들은 또한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군소재지들이 문화적

으로 꾸려지고 모든 군들에서 교육문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농촌문화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의 군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 역할이 빨리 높아졌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군의 역할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운 결과 우리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리는 높은 정치적각오를 가지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농업이 더욱 공업화, 현대화되고있으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도 빨리 높아지고있다.

또한 국가적농업지도기관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직접 틀어쥐고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게 됨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더욱 강화되고 협동경리의 계획화, 조직화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의 물질기술적수단들과 기술력량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계속 확대강화하면서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함에 따라 공업과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강화되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가 보다 밀접해지고있다. 그리하여 전인민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더 넓게, 더 깊이 침투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로동계급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가 군을 단위로 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어나가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군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력이 류례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협동경리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고있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야말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군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지방경제건설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문 영 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성군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경제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기 위하여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신 때로부터 20년이 지나갔다.

창성련석회의 이후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에서는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방경제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로 알려진 영광의 땅, 창성에서도 군당위원회의 역할이 높아져 지방공업과 농촌경리가 더욱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으며 군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이 땅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 *

지방경제건설은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방경제는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주로 지방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가는 경제이다. 여기에는 농촌경리와 지방공업, 지방적인 건설과 상업 등 지방적의의를 가지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이 속한다. 지방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로 지방자체의 힘으로 이러한 경제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쌀과 고기,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물과 생활필수품들을 넉넉히 공급해주고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물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면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경리와 지방공업, 지방적인 건설을 빨리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면 또한 매개 지방의 자연부원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공업과 농업 생산물의 실현을 원활히 보장할수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빨리 늘이고 확대재생산에 더 많은 자금을 돌려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면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지방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지방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지방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의 일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전적으로 군당위원회에 달려있습니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지도기관으로서,

Digitized by Google

군의 참모부로서 군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틀어쥐고 당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사업을 잘하고 간부들이 앞장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284～285폐지)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지방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방경제발전의 거점이다. 지방공업이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도 군이 직접 지도한다. 군소재지와 농촌건설도 군단위로 진행되며 지방에서의 공급사업도 군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군당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단위의 전반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참모부이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의 기능을 높여야 군이 지방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지방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를 강화할 때 군의 전반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는것은 실천을 통하여 이미 명백히 확증되였다.

우리 창성군은 비래봉과 단풍덕산, 문지령과 연동령을 비롯한 높은 산과 령으로 둘러싸인 산간지대이다. 우리 군은 95%가 산지이고 5%되나마나한 부침땅도 거의나 돌밭이 아니면 메마른 땅이며 그것마저 골짜기 밭이거나 물매가 심한 비탈밭으로 되여있다. 원래 땅이 적은 이고장에서 비교적 좋다는 땅은 다 수풍호에 잠기다보니 해방전 이곳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한벌의 베옷을 가지고 부자간이 나누어입지 않으면 안되였고 벼짚조차 귀중하여 짚신에 헌고무신바닥을 덧붙여 신고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지난날의 창성사람들의 생활형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산골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산골치고도 심심산골인 창성군을 찾으시어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을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창성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지방경제건설의 빛나는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인민생활이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기 위하여 1962년 8월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를 몸소 소집하시고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군을 찾으시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 이후 지난 20년간 창성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모범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방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중형발전소와 화학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지방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시기 수공업적기술에 기초하고있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벗어났으며 제품의 생산량과 가지수가 빨리 늘어나고 그 질이 훨씬 높아졌다.

지방공업뿐아니라 농촌경리도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토지정리와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산과 축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골짜기의 밭들에까지 자급비료를 충분히 내는 한편 다수확작물재배면적을 훨씬 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알곡생산목표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농산과 축산이 밀접히 결합되고 농촌경리

Digitized by Google

가 다각적으로 빨리 발전함에 따라 농장원세대당 알곡 및 현금 분배몫이 훨씬 늘어났다.

지방적인 건설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이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창성사람들은 아담한 다층주택과 농촌문화주택에서 자체로 생산한 가구들을 그쯘히 차려놓고 도시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물론 우리가 거둔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군에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지방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경험들을 이룩하였다.

지방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우리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경험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실천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확증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어떤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8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며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닌 일군만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면 당정책을 접수하는 립장과 자세부터 투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지녀야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할수 있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립장과 자세부터 옳바로 세우는것은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지방경제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계속 빛내여나가야 하는 우리 창성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지난날 사람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창성군이 지방경제건설의 본보기단위로 꾸려진 자랑찬 현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접수하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세우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지방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성군당위원회는 바로 이 문제를 푸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모든 사업을 여기에 철저히 복종시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것을 첫공정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웠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정책을 해설침투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자신들이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수백차례에 걸치는 현지교시를 깊이 학습하면서 앞으로 군이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발취하였으며 그 집행방도를 찾기 위한 부문별

않고서는 지방의 예비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우리는 이동식집짐승우리를 건설하여 농산과 축산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지방경제건설에서 조직지도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체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창성군을 찾으시고 대부분의 부침땅이 깊은 골짜기들에 널려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동식집짐승우리를 건설하고 년중을 통하여 돌림식으로 집짐승놓아먹이기를 진행함으로써 질좋은 자급비료를 골짜기 밭들에까지 많이 내여 농산과 축산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가 있은 다음 우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백개의 골짜기들에 이동식집짐승우리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동식집짐승우리를 건설한 첫 시기에는 자급비료생산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사양공들은 집짐승관리에만 관심을 돌리면서 자급비료생산에 힘을 넣지 않고있었으며 일부 지도일군들은 또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사양공들에게 자급비료를 많이 생산하라고 강조하기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경제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집체적협의를 거듭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사양공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책임성을 높이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동원되여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혁신적인 방안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 일군들로 하여금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약수리와 금야리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며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집짐승사양공들에게도 자급비료생산과제를 주며 이동식집짐승우리에 풀을 베여다 깔아주는 고정로력을 배치하여 자급비료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협동농장관리일군들로 하여금 먼곳에 나가 집짐승을 기르는 농장원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며 현지에 나가 그들의 사업을 평가해주고 고무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지도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한 결과 우리는 이동식집짐승기르기를 진행하여 농산과 축산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빛나게 관철할수 있었으며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었다.

지방경제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지방경제건설의 직접적담당자는 자기 지방의 인민대중인것만큼 그들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지방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려면 그들로 하여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 부닥쳐도 힘있게 전진할수 있으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뚫고나가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는것은 우리 군에서 진행한 중형발전소건설과정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 군에서 중형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된 때였다. 발전소를 건설해본 경험도 없고 또 여기에 고정적으로 동원시킬 로력예비도 별로 없는 우리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Digitized by Google

군의 전력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소건설을 군자체의 힘으로 진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선전선동사업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한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서 수천메터에 달하는 수로를 째고 언제를 쌓는 방대한 공사를 전격적으로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발전소 언제와 수로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선류와 같은 여러가지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으며 배전반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도 자체로 만들어 발전소조업을 다그칠수 있었다.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는데서 우리가 특별히 큰 힘을 넣은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리는 것이였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약수협동농장과 군인민병원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생활은 우리 당이 지도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거대한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이 운동들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간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지방경제건설에서 우리 군당위원회가 이룩한 경험은 또한 지도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여야 경제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창성현지회의에서 지난 기간 창성군에서는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였기에 일이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 나가도록 적극 투쟁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은 발전소언제건설장에서 추운 겨울에 뜻하지 않게 샘물이 솟아나올 때 남먼저 뛰여들어 물을 퍼내면서 공사를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었으며 철제일용품공장에도 직접 나가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적극 투쟁하여 생산을 일약 4배이상으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또한 매해 계속 1,000여톤의 산열매를 딸 목표를 제기하고 가을에는 군당위원회일군들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앞장에 서서 산발을 타고나감으로써 자체의 원료로 식료공장에 만부하를 걸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창성군당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지방경제건설을 틀어쥐고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일군들이 이신작칙하여 대중을 이끌고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여주신 창성의 모범을 계속 빛내일수 있었으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

오늘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령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8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청년조직들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적지도가 더욱 철저히 실현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새세대의 참다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빛나는 로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그 참다운 시원이 열리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시대 청년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몸소 마련하시고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튼튼히 다져놓으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우리 나라에서 청년운동의 승리적인 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우리 청년들은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청년문제, 청년운동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전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과 관련되여있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것으로 하여 선진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된다. 청년들이 없이는 혁명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나라의 앞날도 사회의 진보도 있을수 없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도는 청년들을 어떻게 교양육성하고 청년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청년운동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운동이다. 따라서 청년운동을 옳게 이끌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의 선행한 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본질적약점과 심각한 교훈 그리고 사회혁명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궤도우에 올려세워주시였다.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옳바른 투쟁 로선과 강령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곧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있었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Digitized by Google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 때로부터 비로소 참다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이것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 선언이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청년운동은 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과학적인 투쟁강령을 가지고 자기의 새 력사를 창조하는 보람찬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데 이어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백산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청소년조직들을 몸소 무으시고 그 활동을 조직지도하시는 과정에 주체적인 청년조직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기본원칙들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청년운동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이 확고히 서고 혁명적청년조직건설과 청년사업의 귀중한 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마련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으로 되고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그것이 이룩된 로정으로 보나 그에 관통되고있는 사상과 내용으로 보나 우리의 청년운동발전에 영원한 생명력을 주는 고귀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자기 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고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사실상 청년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86페지)

혁명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하나의 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반제의식이 높고 민족적각성이 빠른 청년학생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키시고 불러일으키시여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조선혁명은 새로운 길,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전진하는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 있는것이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본보기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청년핵심들을 수많이 키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신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숭고한 공산주의사상정신적풍모를 완벽하게 갖춘 혁명의 전위투사로 키워주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등 고상한 혁명정신을 지니고있었다.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가 마련된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가장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의 본보기가 마련되고 이러한 풍모를 지닌 청년전위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육성됨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직령도하신 공산주의청년운동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또한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튼튼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광범한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종 반일단체들에 결속시키고 항일성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게 되였으며 항일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령도하신 공산주의청년운동은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2)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탁월한 령도자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불굴의 혁명정신, 이것은 준엄한 계급투쟁에서 혁명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령도자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전사사이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숭고한 정신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전사는 떼여놀수 없는 전일체를 이룬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고 최고령도자이라면 전사는 수령을 적극 받들어나가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전사들이 수령을 충성으로 모시고 받드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사들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관철되고 수령의 령도도 전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그를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혁명이 전진하고 승리한다는것은 우리 혁명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경험은 혁명전사들이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자기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에는 혁명

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수많은 애국청년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인 항일유격투쟁을 벌려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307～308페지)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향도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투쟁하였다.

그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은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이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가장 고귀한 전통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청년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였다.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의 충실성은 그것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 참다운것으로 된다. 혁명가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과 의리로 굳게 간직할 때에만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받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변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전사의 신념과 의리는 저절로 간직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할 때만이 확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지난날 망국의 비운속에서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으로 올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혁명의 진로를 찾게 되였으며 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갔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 다 바쳐나갔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정신을 지니고있었기때문에 아직은 당도 정권도 없었고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알수 없었던 그 엄혹한 시기에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였다. 그들은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견결히 싸워나갔던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나온 뜨거운 충성심의 발현이였으며 수령님을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충실성이 어떤 높이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간 여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것이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높이 발휘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가장 뜨겁고 깨끗한것이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티없이

Digitized by Google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모시고 따르는것으로 되여야 그것이 가장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창작보급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간 그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맞이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긍지가 절절하게 반영되여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선의 새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열렬한 지향과 혁명적의지가 담겨져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인민을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뜨거운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또한 그 어떤 가식도 없고 변심을 모르는 가장 견결하고 공고한것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간고하고 준엄하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온갖 기회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음모책동에 부닥칠수도 있다.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 부닥쳐도 변치 않는 충실성만이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으로 되는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이 우심하고 혁명정세가 아무리 엄혹하여도 변심과 가식을 모르는 참말로 견결하고 확고한것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간악한 원쑤들의 포위속에서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랐으며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견결히 싸워나아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구실과 조건타발도 몰랐으며 그 길에서 한목숨 바치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였다.

바로 그러한 견결한 정신을 가졌기때문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불사조처럼 투쟁할수 있었던것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 불굴의 혁명정신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부터 출발하고 가장 순결하고 공고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견결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을 언제나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의 고귀한 전통은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대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힘있게 고무해주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은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실로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3）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청년운동은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에는 우리의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고귀한 업적이 깃들어있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역군으로 자라났다.

우리 청년들속에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우리 당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길에서 더욱 힘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청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영광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운동을 령도하며 청년들을 선진적인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에게 옳은 투쟁의 앞길을 가리켜주는것은 바로 조선로동당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13페지)

오늘 우리 당은 청년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갈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것은 청년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세대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할때에만 빛나게 계승되고 완성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절대적역할을 인식시키는 원리교양과 함께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공산주의적품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교양과 옳게 결합되여야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다.

우리 당이 발기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의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체계가 확고히 세워지고 청소년학생들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

오늘 청소년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굳세게 다져지고있으며 그들의 모든 사고와 실천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당이 지펴준 위대한 수령님의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이야말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릴 때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튼튼히 키워주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위력한 교양방법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를 비롯한 충성의 구호들을 제시하고 청년들속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높이 발휘되였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들은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혁명정신이 우리 청년대오안에 차넘치게 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이 19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전투적후비대로 키워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 선봉대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줌으로써 그들을 벅찬 혁명실천속에서 단련시키도록 한데 있다.

청년들을 혁명실천을 통하여 튼튼히 단련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중요한 사업일뿐아니라 그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육성하는 힘있는 방도이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을 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언제나 슬기와 용맹을 높이 떨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당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나서는것을 청춘의 더없는 영예와 긍지로,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새로운 탄광개발과 발전소건설, 철도건설, 간석지개간을 비롯하여 조국땅우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선구자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사로청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사로청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강한 조직생활체계를 세워줌으로써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참다운 혁명의 계승자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믿음직하게 키워나가고있다.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조국과 혁명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새세대들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는 이것은 청소년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야 할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청년들이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세우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의 가장 성스러운 혁명임무이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청년운동의 강화발전과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도 있을수 없으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있을수 없다.

모든 청년들은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혁명의 혁명기를 빛내인것처럼 19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3대혁명과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최 석 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　　　*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최종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옳게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최종목적은 인류의 리상이며 미래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이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헤치나가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공산주의혁명위업은 정확한 전략적목표와 투쟁방침이 옳게 밝혀질 때만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혁명과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략적목표와 투쟁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2페지)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공산주의혁명리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3대혁명과 두 요새에 관한 리론은 공산주의건설의 전략적목표와 근본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에 관한 리론은 혁명의 전략적목표를 밝혀주며 3대혁명에 관한 리론은 이 전략적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제시해준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은 공산주의건설의 2대전략적목표이다.

공산주의의 최종목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될뿐아니라 사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Digitized by Google

생활을 누리자면 사상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령역에서 다같이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지만 결국은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두 령역에 귀착된다. 따라서 이 두 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완전히 보장될 때 공산주의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은 바로 인간생활의 2대기본령역인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에서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상정신생활에서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과 문화적락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출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완전히 누릴수 있는것이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물질생활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할수 있도록 사회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물질생활령역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평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그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것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가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전략적목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3대혁명은 공산주의의 전략적목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3대혁명이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과업은 로동계급이 끝까지 틀어쥐고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 계속되는 혁명의 내용으로 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그들을 계급적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낡은 사회 유물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주인이며 그 창조자이다. 사람의 사상의

Digitized by Google

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없다. 사람들을 낡은 사상에서 해방하여야 그들의 사상생활을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과 관점, 낡은 사고방식이 남아있게 되면 그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킬수 없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참다운 사회적존재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자면 사상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을 낡은 사상에서 해방하고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은 사상혁명을 통하여 수행된다.

기술혁명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자체를 개조할뿐아니라 사회와 자연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사람들에게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경제제도는 사람들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며 모든 사회관계의 기초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놓여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실현되는 사회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 공산주의적소유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될 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공산주의적분배원칙을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혁명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로동생활에서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완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새로운 문화의 확립과 그 높은 발전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좀먹는 낡은 사회의 문화를 철저히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문화를 건설하여야 인민들은 참으로 문화적이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인류문명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적문화는 문화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문화혁명을 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온 사회에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화가 확고하게 지배하게 할수 있으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문화의 모든 부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3대혁명이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위한 혁명방식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방식은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조건의 하나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그에 맞는 혁명방식에 의해서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것은 혁명의 내용이 정확히 규

Digitized by Google

정된 마음에도 그에 맞는 올바른 혁명방식이 세워지지 못하면 혁명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공산주의건설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방식은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의 본질적요구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은 사회의 물질적조건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공산주의화하는 거창한 혁명투쟁이며 온갖 낡은것을 극복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청산하는 혁명투쟁과는 달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새로운 혁명방식을 요구한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이 혁명투쟁은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낡은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3대혁명의 방식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혁명적성격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게 한다. 또한 이 혁명방식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에 맞게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킨다.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방법은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고유한 혁명방식이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것,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방법,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혁명을 할것을 요구한다.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처럼 3대혁명은 공산주의의 두 요새점령을 위한 혁명의 내용과 방식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힘있게 다그치는 근본방도로 된다.

3대혁명은 또한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정확히 밝혀줌으로써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늘 강조하였으며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것을 당조직들에 호소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5페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적요새점령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는것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목적의식적인 운동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Digitized by Google

나서는 근본원칙이다.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그자체의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사상의식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건설되는 사회이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사상의식의 규제와 조절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다.

그런데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물질적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다. 그것은 낡은 사상 잔재와 락후한 생활습성이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하기때문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어렵고 복잡한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공산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만일 사상개조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킨다면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후과를 끼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인간개조사업,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여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언제나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상혁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은 결코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illegible]요시하여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물질적조건을 변혁하는 그들의 투쟁에서 결정적작용을 하지만 사상개조는 사회의 물질적조건과 동떨어져서 진행될수 없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경제건설을 잘할수 있으며 다른 한편 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의 물질적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이 확고히 안받침되여야 그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가야 공산주의의 전략적목표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지 되었다.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공산주의사회건설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 투쟁방도가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지게 되였다.

로동계급이 공산주의의 붉은 기치를 들고 력사무대에 나선 때로부터 시대와 혁명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공산주의건설리론을 더욱 뚜렷이 밝힐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들은 공산주의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

Digitized by Google

한 표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또한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에 대한 리해가 새롭게 되였다.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조건들을 개조할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사람들을 개조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다.

또한 이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사업이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하나의 혁명투쟁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으로 발전풍부화되고 더욱 완성되게 되였으며 인민들은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들이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인류의 리상을 가장 빨리 실현해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무한히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혁명투쟁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과 두 요새점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쳐나갈수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

리 상 걸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사회력사원리이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내용을 옳바로 해명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을 세우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힐수 있으며 사회적변혁과 진보를 이룩하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것을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 원리가 담고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 천명된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심오히 분석함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속성과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라는 사회력사원리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3～274페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를 관통하고있는 주되는 사회력사적내용을 이룬다.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은 원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이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여왔다. 인류사회발전의 전과정에 걸쳐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동떨어진 력사적시대란 없었다.

인류력사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라고 하는것은 인류사회발전의 전과정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고 관통되여있는 력사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의 발전과정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 사회적변혁들과 력사적사변들로 엮어지는 과정이

Digitized by Google

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련결되여있으며 이 투쟁의 이러저러한 발현인것이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로 되는것은 사회와 자연과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의 근본목적과 관련되여있다.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은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활동과정이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환경을 이루고있는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자기자신을 개조해나감으로써만 살며 발전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자연, 인간 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활동의 기본령역으로 되며 력사발전과정의 기본내용을 이루게 된다.

사회와 자연과 자기자신을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근본요구가 놓여있다. 그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변혁이든지 다 세계를 자신의 자주적인 리익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로부터 시작되며 이 요구가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 운동과 변혁은 더욱더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게 되는것이다.

인류사회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온갖 형태의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은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울 때에만 마련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낡은사회제도를 없애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내용을 이루게 된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자연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울 때에만 마련될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내용을 이루게 된다.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한 자주적인 존재로 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은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할 때에만 마련될수 있다. 따라서 낡은 사상과 문화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사회와 자연과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이처럼 사회정치생활과 물질생활, 사상정신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력사는 바로 이 투쟁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한다.

사회와 자연과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력사발전과정은 사회정치생활과 물질생활, 사상정신생활 령역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일관되여있

Digitized by Google

다는 여기에 인류사회의 발전력사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로 되는 리유가 있다.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해명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력사원리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는 원리는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특성을 표현하며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혀준다.

그것은 바로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사회력사원리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을 구현하고있는 원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운동의 본질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과 뗄수 없이 결부되여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력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발전한다.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인 자주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데 대한 요구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을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사회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된다.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는 이처럼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을 구현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혀주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원리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고찰하는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하게 밝힐수 있는 리론적전제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력사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을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사회와 자연은 사람의 생존과 직접 련결되여있는 생활환경을 이루고있다.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사회와 자연을 자기의 근본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야 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기자신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과업이 다같은 위치에 있는것은 아니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Digitized by Google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이다.

사람은 일정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며 사회관계에서 기본은 사회정치적관계이다. 따라서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없이는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살며 발전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이 없게 된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데서나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열쇠로 된다.

정치는 원래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정치가 없이는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수 없다. 정치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서나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결정적작용을 한다. 결국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를 규제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없으며 반동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사회의 정치적관계, 정치제도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변혁하고 개조하는것이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낡은 사회제도를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바꾸기 위한 사회혁명을 수행하는것이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렬된 이래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력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이다. 사회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사회가 발전하여왔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첫진출이라고 말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인하여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붕괴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계급적 지배와 압박의 형태를 바꾸어놓았을뿐 계급적 지배와 압박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다. 인류력사에서 자본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자본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울 때에만 완전히 실현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게 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이 마련되기때문이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개조와 함께 자연개조, 인간개조가 또한 중요한 력사적과업으로 나선다.

자연개조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의 힘, 다시말하여 생산력을 발전시켜 사람들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조하는 사업이며 인간개조는 사람들을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수준도 매우 낮았다. 인류사회발전의 첫단계라고 말할수 있는 원시공동체사회에서나 첫계급사회였던 노예사회에서의 유치한 로동도구나 생산방법은 다 그 사회 사람

Digitized by Google

들의 창조적힘과 사상문화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사상의식수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인류사회가 도달한 현대과학과 기술, 선진 사상과 문화는 모두 인민대중이 벌려온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력사적인 투쟁의 결실이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가 어떤 높이에서 진행되며 사회적변혁과정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한다.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혁명적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드는 력사적과제는 사회주의하에서만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되였기때문이다.

착취사회의 조건에서는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기본과업으로 전면에 나서지만 사회제도의 혁명적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적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이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이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것과 그 실현의 합법칙적과정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간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령역과 방도가 뚜렷이 해명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성격을 띠고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주성을 억압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으며 다른편으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력량이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여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여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련합되여있는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낡은 세계질서를 마사버릴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수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이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인 동시에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승리의 국제적담보를 마련하여주는 정확한 길이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여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지만 그것은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단계와 로

Digitized by Google

정을 거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야말로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사회정치적, 물질적,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투쟁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수세기에 걸쳐 벌려온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단계에 와서 비로소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공산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 구성부분과 그 실현의 단계,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국제적성격과 그 발전로정이 전면적으로 밝혀진것은 인류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리해를 확립하고 자주성을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자주성을 옹호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빼앗길수 없는 기본권리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이며 또한 자주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창조적 지혜와 힘을 다 바치는것이다. 결국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당하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발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억눌리우거나 구속당하는곳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것은 력사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론문은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이 사회적인간의 절대적요구라는 사실로부터 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1페지)

자주적립장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다. 그것은 자주적립장이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에서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을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기때문이다.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 혁명투쟁자체의 요구이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할 때에만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철저한 혁명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서, 다시말하

Digitized by Google

여 독자성을 견지하는데서 표현된다. 또한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서, 다시말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여기에 자주적립장의 기본내용이 있다.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론문에서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것도 반대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는 참다운 립장에 섰다고 말할수 있다.

오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날뿐아니라 미래의 력사적시대도 전적으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속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성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발생발전의 근본원인과 이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라는 원리는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새롭게 하여주는 위대한 사회력사원리이다. 그것은 또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근본방향과 합법칙적과정,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변혁의 기본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혁명의 지도적지침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원칙

리 능 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적원칙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적원칙은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인 사람의 본성과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주었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 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이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원칙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뿐아니라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한 여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기여한 론문의 특출한 업적의 하나가 있다.

(1)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것을 요구합니다. 주체, 자주, 자립, 자위, 이것은 우리 혁명의 지도원칙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0페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사상,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론문에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라는것이 밝혀져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Digitized by Google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야 한다. 그리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 주인다운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론문에 지적된바와 같이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혁명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리며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인민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고 사상, 경제,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성을 구현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론문에 천명된바와 같이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고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세계의 반제자주력량과 사회주의 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론문에 지적된바와 같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무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적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물리치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이처럼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앞세우면서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하

Digitized by Google

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경제에서 자립과 국방에서 자위를 다같이 실현해나가는것은 당과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구현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혁명운동의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며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인민대중이 진행하고있는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이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창조적 지혜와 힘을 다 바치는것은 다름아닌 자주성을 위한것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따라서 자주성을 구현하는것은 바로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의 활동,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투쟁이라는데로부터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요구를 가장 옳게 구현할수 있게 하는 근본립장을 밝혀준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 때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 주인다운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옳게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혁명적립장이며 그것을 철저히 견지하여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2)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것이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하나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72페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역량이 인민대중인것만큼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데서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론문에 천명된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

Digitized by Google

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하며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 특히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하며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리고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구이다.

론문에 지적된바와 같이 혁명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혁명투쟁이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것만큼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면서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만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하는데서 창조성을 발양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수 있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 인민대중이 수행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창조의 대상인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과정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창조적방법이다.

창조적방법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것은 바로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을 대중적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에서 리용하게 되는 객관세계의 힘은 사람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용하는것만큼 객관세계의 힘을 옳게 동원리용하려면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창조적방법의 요구대로 실정에 맞게 하는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사고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창조적방법은 이처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는 방법 그리고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인것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 개조에서 의

Digitized by Google

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것이야말로 오늘의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다.

(3)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는것이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하나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론문에는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에 서서 창조적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그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69폐지)

론문에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상개조를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며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사람들속에서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야만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일수 있다.

론문에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정치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결합하며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며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며 정치사업

Digitized by Google

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추동되고 승리한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은 다름아닌 그들의 의식성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쥘데 대한 원칙은 사람, 인민대중의 의식성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가장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운동에서는 물질적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 물질적조건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규제된다. 물질적조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빨리 갖추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이로부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쥘데 대한 원칙은 물질적요인이 아니라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옳은 계급적립장과 견결한 혁명정신,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게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쥘데 대한 원칙은 이처럼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의하여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전면적으로 밝혀진것은 주체의 사상리론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전반적 체계와 내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혁명사상의 사명은 혁명실천에 복무하는데 있는것만큼 그것은 철학적세계관과 사회력사관을 주는 원리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까지 밝혀주어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완성된 면모와 내용을 갖출수 있다.

론문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새롭게 천명함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완성된 방법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옹호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

남 학 수

당사업의 기본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당의 공고발전과 당활동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사업의 기본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임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실천투쟁속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이라는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511페지)

당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당사업에서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된다는것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이 당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며 그것을 통하여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비롯한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그 본성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선봉적정치조직이며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은 결코 권력기관이 아니다. 당은 사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조직이다. 정치적지도기관인 당에 있어서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은 본성적요구로 된다.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에 두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갈 때에만 당이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만일 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지 않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거나 행정경제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고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으로서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다.

당이 정치적령도기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고 행동상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합과 행동상통일을 보장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결속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여나가도록 하여

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하나의 목적 실현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은 당사업,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그것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본성적요구를 옳게 실현할수 있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명은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사람,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주인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람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할수 없으며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사상을 발동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여부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당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당사업을 행정화하거나 기술실무화하여서는 안되며 철저히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당사업의 기본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요구이다. 당이 우리앞에 제시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사상을 발동하는 여기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의 열쇠가 있으며 성과의 담보가 있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이라는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된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이다.

당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으로 되자면 그것이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은 목적의식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

Digitized by Google

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이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사람,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의 발전과 사회적진보란 있을수 없다.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이라는것은 바로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를 당사업분야에 구현한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하고있는 여기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 사업방법의 위대성과 과학성이 있고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당사업을 조직진행할수 있는 길을 명시하여준 혁명적인 당건설리론이다.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에 기본을 두고 당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민적으로 구현되여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당사업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당사업이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게 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우리 당 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환, 이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에 맞게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놓은것은 우리 당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하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현실은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당사업,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이 세워준 사람과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과의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당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철저히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복종시켜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에 있어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풀어나가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바로 우리 당 사업의 목적으로 되며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선차적인 공정으로 된다. 이 사업을 잘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언제나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으로 되게 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사람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모두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411폐지)

일군들속에서 사람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람에 대한 혁명적 립장과 관점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립장과 관점이다. 사람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은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한다. 만약 일군들이 사람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보지 못하게 되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 주관주의적 방법으로 일하게 되는것이다.

일군들이 사람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져야 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대중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속에 들어가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본분이다. 당일군들의 사업대상인 사람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생산현장에 있다. 일군들이 사람을 만나자면 아래에 내려가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첫시작이다.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서는 사람을 만날수 없으며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들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다.

일군들이 당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있는 현실에 침투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는 대중속에 들어가야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가 어떠하며 성격은 어떻고 취미는 무엇이며 사업능력과 조직적수완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깊이 알수 있으며 사람과의 사업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바로 찾아낼수 있

Digitized by Google

다. 또한 일군들이 군중과 접촉하고 당회의에도 참가하여보아야 군중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정확한 방도도 찾아낼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늘 일군들이 인민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만나보며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험은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하고 지시나 하며 사무실에 앉아 잡다한 문서놀음에 파묻혀가지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직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서만 맴도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 습성화하고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갈 때에도 중간다리를 거치지 말고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야 하며 유람식으로가 아니라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실에 침투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대중을 발동하는것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87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수백만 근로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혁명은 각성된 몇사람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수백수천만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급적처지와 각오정도, 의식수준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각성되여 혁명투쟁에 나설수는 없는것이다. 어떠한 혁명운동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나서는것은 아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은 수령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각오가 되여있는 선각자들이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혁명대오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승리하게 된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각계각층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사업이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은 특정된 몇사람에 의해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그러므로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반드시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웃간부들이 먼저 아래간부들과 핵심들을 교양하여 움직이고 그들이 당원들을 교양하게 하며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게 함으로써 사람과의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는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이 전당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하여야 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성과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으며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서로 같지 않다. 또한 성격과 취미도 사람마다 다르며 생활감정과 사업조건도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같은 처방에 의하여 할수 없으며 한가지틀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할수도 없다.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은 각이한 수준과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는 산 사람과의 사업인것만큼 반드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성격, 준비정도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 때에만 그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할수 있으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창조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잘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능숙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진행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맡아하는 일군들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능력을 가진 일군만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사업할수 있으며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수준이 낮아가지고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없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사람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신중하고 로숙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면 정치가,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하고있어야 하며 정세에도 밝고 경제지식과 기술지식도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

당일군은 또한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한다. 당일군은 혁명소설도 많이 읽고 군중이 노래를 부를때에는 자신도 노래를 부를줄 알아야하며 군중이 춤을 출 때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춤도 출줄 알아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자기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주체의 당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의 특징

최 태 진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악독한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37년간에 걸쳐서 감행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그 무슨 《협조》와 《보호》, 《자주》와 《독립》을 위한 정치로 되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그 어떤 감언리설과 허황한 궤변으로써도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은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오래전부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해온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　　*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에서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감행하고있는 실제적통치자이다.

8.15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군사적강권을 발동하여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닦고 괴뢰정권을 조작한데 토대하여 남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갔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는 그를 둘러싼 주객관적조건의 작용과 관련하여 일련의 특징들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교활한 신식민주의통치방식은 제2차대전후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나라 인민들을 탄압하고 략탈하기 위하여 쓰는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미제는 이와 같은 교활한 수법으로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해나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교활성은 남조선에서 직접적인 통치방식으로써가 아니라 괴뢰정권을 앞에 내세우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지배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날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총독정치를 하였는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욱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남조선을 통치하고있는것뿐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509～510페지)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식민지통치는 지난날 일제가 감행한 구식민주의적총독정치와는 달리 괴뢰들을 내세워 저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신식민주의적통치이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는 구식민주의적인 직접통치이건 신식민주의적인 간접통치이건 관계없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노예화하고 략탈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이상 거기에는 아무러한 본질적차이도 있을수 없다. 차이가

Digitized by Google

있다면 그 형식에서 차이가 있을뿐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더 교활한 성격을 띤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식민지통치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해놓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남조선이 마치 《독립국》이나 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괴뢰정권을 앞에 내세운다고 하여 남조선의 식민지적성격을 가리울수는 없는것이다.

미제는 괴뢰정권과의 각종 접촉, 괴뢰정권과 맺은 이른바 《조약》과 《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남조선에 펼쳐놓은 여러 현지지배기구들을 통하여 괴뢰정권을 남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요구에 맞게 조종, 감독, 통제하고있다.

그리고 미제는 《정보교환》, 《정세평가》, 《정무협의》 등 《쌍무적》인 《합의》를 통하여 괴뢰정권의 대내외정책이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리익에 맞게 실시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원조의 효률적리용을 관찰한다.》는 구실밑에 괴뢰정권의 재정과 군사를 장악조종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추진시키고있는 《외자도입계획》, 《국군현대화계획》, 《경제개발계획》 등은 모두 미제의 승인을 받은후에 시작되였으며 그 실행과정도 철두철미 미국상전의 《검토》를 받고있는것이다.

교활한 미제는 괴뢰정권에 대한 감독통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학자》나 《연구자》 등으로 위장한 정객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학술토론》, 《정치평론》의 형식으로 괴뢰도당에게 저들의 침략정책의 요구를 내리먹이고있으며 과거 남조선과 관계를 가졌던자들을 《관광》, 《시찰》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파견하여 흑막외교의 형식으로 괴뢰도당을 부추겨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간접적식민지통치를 감행하고있다는것과 남조선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바로 미제이며 괴뢰정권은 그의 꼭두각시의 역할밖에 놀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출판물들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힘에 의하여 조직되고 보존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고있다.》고 쓰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교활성은 괴뢰군을 유지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구식민주의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민족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없애버렸다. 조선을 강점하기전에 일제가 바로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와는 달리 남조선에서 《국군》을 유지할뿐아니라 그 력량을 더욱더 증강하는데로 나갔다.

미제는 교활하게도 《국군》의 존재를 크게 내세우면서 바로 이것을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방패로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어긋나는 교활한 속임수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통수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정권의 독립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된다. 군대란 독립정권의 권력구조의 중추부분의 하나를 이루며 독립정권의 실력적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통수권을 가지지 못한 정권은 독립적인 정권으로 될수 없다. 남조선괴뢰정권은 《국군》에 대한 통수권일반은 물론 야전지휘권마저 못가지고있다. 《국군》은 결코 민족의 군대도 독립적인 군대도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미제가 틀어쥐고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고있는 괴뢰군이며 미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탄알받이에 불과하다. 괴뢰군의 편성과 유지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교활성을 그대로 말해줄따름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교활성은 《원조》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하여 여러가지 침략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미제는 마치 《호의》와 《선심》을 가지

Digitized by Google

고 남조선을 《원조》하는듯이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퍼뜨리고 일부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제의 《원조》가 남조선경제를 저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는 올가미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독점자본은 식민지예속국가들을 침략하는데서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를 더 많이 짜낼수 있는 자본수출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미제는 이와는 달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서 자본을 수출하는것보다 《원조》를 통하여 과잉상품의 판로를 늘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서 이러한 교활한 술책을 쓰게 된것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부닥쳐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미제는 남조선에 자본을 대대적으로 수출할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치적불안정성으로 하여 자본수출이 아니라 과잉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이러한 《원조》정책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실현하며 저들의 침략적본질을 음페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직접적군사《원조》의 경우는 두말할것도 없고 경제《원조》의 경우도 강한 군사적성격을 띠고있다. 미제는 직접적군사《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괴뢰군을 무장시키고 그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미국제무기와 군수품구입비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있으며 경제《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시장을 미국과잉상품시장으로 전변시키고 괴뢰군의 유지비를 유리하게 마련하는 한편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침략적목적에 복종시키려 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퍼뜨리고 과잉상품의 판로를 늘여 남조선경제를 예속시키며 남조선전역을 미제의 군사기지, 군사적부속물로 만들려고 꾀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원조》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활한 침략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전례없는 포악성을 띠고있다는데 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포악성은 무엇보다 제놈들의 주구들가운데서도 가장 포악무도한자들을 내세워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원래 파쑈통치체제는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있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을 탄압하고 저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나오는 악독한 통치형태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더욱 포악무도한자들을 내세워 파쑈폭압의 몽둥이를 휘두르게 하였다.

미제는 37년동안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이런 방식으로 유지해왔다.

미제는 정전후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고 민주주의운동과 조국통일기운이 높아지게 되자 리승만괴뢰도당으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도록 적극 부추겨주었으며 리승만괴뢰도당이 꺼꾸러진 다음에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내세워 더욱 횡포한 군사파쑈독재를 감행케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을 대신하여 총칼로 권력을 틀어쥔 전두환역적놈이 선행통치자들도 무색케 할 악독한 군사파쑈통치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도 바로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에 의한것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제국주의종주국파쑈통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다. 남조선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예속적인것이며 아무러한 독

Digitized by Google

자적인 정치철학이나 리념도 가지고있지 못한 무지막지한 폭력만능주의적인것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횡포성과 야만성에서 지난 시기 독일이나 일본을 지배하고있던 파쑈독재체제를 훨씬 릉가하고있으며 식민지에서 실시되고있는 악랄한 군사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력사상 류례가 없는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방식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남조선에서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 진출을 말살하고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해나가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저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여기에 복종시키고있으며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경찰,정보,특무망으로 뒤덮고 혁명력량은 두말할것도 없고 사소한 진보적요소들까지 가장 야만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탄압말살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의 흔적마저 찾아볼수 없는 글자그대로 정치적암흑지대로,모든 진보적인 요소들이 여지없이 탄압말살당하고있는 치떨리는 공포지대로 변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가장 포악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은 남조선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49폐지)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에서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데 기본을 두고있으며 다른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직접적인 군사행동지대로 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정책적예봉을 돌리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바로 침략전쟁체제이며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모든 식민지예속화정책이 이것을 뒤받침하는데 리용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데서 남조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은 제1급의 전략지역》이며 《미국동전략의 최전선》이라고 떠벌이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이 《미국동전략》의 첫째가는 《전선지대》로 되고있다는것은 군사인원배치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는 4만명의 미제침략군외에도 미국무기로 무장한 70여만명의 괴뢰군,370만명의 《향토예비군》, 440만명의 《민방위대》, 182만명의 《학도호국단》이 꾸려져있다. 7만 2,000여명의 경찰을 내놓고도 도합 1,066만명의 《전투인원》이 남조선전역에서 《림전태세》를 갖추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실로 1평방키로메터당 106명의 《전투인원》이 있는것으로, 인구 3명당 1명이 군사인원으로 되고있는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평균면적당 및 평균인구당 군사인원분포에서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철저히 전변되였다.

이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보위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군사력이며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주되는 폭력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군사기지화정책에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꾀하고있다. 놈들은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할

Digitized by Google

수 없다.》느니, 《미군의 영구주둔은 미국의 전략》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7함대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미군무력을 하와이, 괌, 오끼나와 등 여러 지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10여만명으로 구성된 《기동타격부대》를 남조선에 《출동》할수 있게 항상 대기상태에 두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괴뢰통치체제를 뒤받침하고 저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미군무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중요한 고리로 삼고있다는것은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미제가 남조선경제를 군사화하는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방대한 량의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일부를 현지생산,현지조달하기 위한 예속적인 군수공업을 창설하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미제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강제동원과 징발을 전제로 한다. 그런것만큼 미제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폭압과 악랄한 착취와 수탈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군사화책동이 가장 포악하고 가장 반동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른 한편 미제는 남조선이 침략전쟁수행에서 전초기지,직접적군사행동지대,병참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의 현지생산을 촉진시키고있으며 철도, 고속도로망,항만, 통신 등 군사기동력과 병참보급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은 방대한 규모의 괴뢰군의 유지와 함께 괴뢰정부예산에서 군사비지출이 차지하는 몫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크게 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방대한 자금과 로동력을 사회적확대재생산과는 인연이 없는 비생산분야에 투하하고 탕진하게 함으로써 만성적인 경제적 혼란과 파국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또한 가장 파렴치한 성격을 띠고있는데 있다.

파렴치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이다. 침략과 략탈, 억압과 착취 등 강도적본성을 가지고있지 않는 제국주의가 없는것과 같이 파렴치하지 않는 제국주의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파렴치성은 놈들이 감행하고있는 식민지통치 그자체와 그것이 빚어내는 엄중한 파괴적후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미화하기 위하여 온갖 어리석은 책동을 다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그 실제적통치자는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이것은 력사와 세계인민들이 인정하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파렴치하게도 이 엄연한 사실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공공연히 부정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그 무슨 《독립정권》이나 되는듯이 떠들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으로 말하면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미제에 의하여 부지되고있는 신식민주의통치의 현지대리인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은 의연히 미제침략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정권을 가리켜 그 무슨 《동반자》요, 《독립정권》이요 하는것은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법질서도 없는 정치적암흑지대로, 테로와 학살이 공공연히 감행되는 살인지대로 전변된 남조선의 현실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이것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

Digitized by Google

는데 이골이 난 미제침략자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가장 파렴치하고 추악한 날강도적행위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도 미제의 파렴치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수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며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력사는 우리 민족의 리익과 념원을 짓밟고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이며 교활하고 악랄한 현대제국주의의 추악한 면모를 세계의 면전에 집중적으로 드러내놓은 저주로운 력사라는것을 여지없이 폭로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주를 교살하고 파쑈를 부추기며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전두환괴뢰도당은 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마땅히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고있는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이 지역에서 놈들의 지위가 결코 강화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식민지파쑈통치는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이 의거하는 마지막 통치수단이다. 때문에 식민지파쑈통치를 강화하는 그자체는 곧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종국적붕괴를 예고하는것이나 다름없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도 그 본질적약점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파탄되고야말것이다.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놈들의 폭압밑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완강해지는 법이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착취와 압박의 원흉, 모든 불행과 고통의 장본인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부산과 광주에서, 서울과 춘천에서,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양키는 물러가라!》는 인민들의 노호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미국문화원》과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구국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모든 침략무력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끌어가며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인민은 신성한 조국강토에 미제침략자들을 더는 두어둘수 없다.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온 세계의 자주화와 쁠럭불가담운동

손 진 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방침은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추세와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력량관계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명시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며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 *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인류공동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온갖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세계이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것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4폐지)

자주화된 세계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새로운 세계이다.

지난날의 세계는 오래동안 제국주의렬강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왔다. 한때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세계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횡포하게 유린하고 수많은 인민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지배하고 통제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와 인민들이 자주권을 빼앗기고 제국주의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오늘도 세계에는 제국주의가 횡행하던 지난 시기의 낡은 유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그것은 인류력사발전을 저애하는 중요한 장애로 되고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면 세계정치무대에서 오래동안 내려온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온갖 주종관계가 종국적으로 청산됨으로써 지배하는 나라와 추종하는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없게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가 실현될 때 나라들사이에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적관계가 확립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같이 동등하게 세계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국제문제를 처리해나갈수 있다.

이러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난날 민족적자주권을 유린당하고도 이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겨오던 인민들이 오늘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나라들뿐아니라 일부 자본주의 나라들도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고있다. 많은 나라와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있다.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을 따라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다. 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것을 일정에 제기하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시대발전의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나온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의 근본방향이 새롭게 밝히지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전반적세계혁명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투쟁전략이 새롭게 마련되게 되였다.

자주화된 세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될것이다.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면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지구우에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게 될것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력사적위업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류공동의 숭고한 위업인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쁠럭불가담운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5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은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합법칙적과정 그리고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이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탁월한 사상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무엇보다도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력한 혁명력량인것으로 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요구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기초우에서 자주적인 나라와 민족들의 대렬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은 자기의 숭고한 리념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렬강들의 쁠럭과 세력권으로 분할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의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 령토완정, 평등, 자유로운 사회적발전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여 온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운동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실시하고있는 모든 정책들과 그리고 쁠럭불가담운동이

Digitized by Google

벌리고있는 투쟁은 바로 나라와 민족들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대내외정책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그 어떤 간섭책동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또한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원을 튼튼히 지키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의 공간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것은 매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력량을 강화하고 전반적쁠럭불가담력량을 튼튼히 다질뿐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에 의하여 국제무대에서는 력량관계가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세계적범위에서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지난날의 지배령역을 잃어버리고 이르는곳마다에서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의 력사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촉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쁠럭불가담운동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며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강력한 반제혁명력량인것으로 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자주화된 세계는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없고 세계의 항구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러한 세계이다. 따라서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세계전쟁의 항시적근원으로 되고있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이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예속을 강요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유린하며 희생시키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다. 제국주의는 세상에 생겨나자부터 공공연하고 잔인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힘이 약하거나 작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식민주의의 족압과 략탈권안에 끌어넣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가 이룩한 귀중한 재부를 모조리 파괴하고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운것도 바로 제국주의자들이다.

오늘도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는 새 세계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는 전례없는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적군사쁠럭을 확대강화하며 새로운 군사쁠럭을 조작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신흥세력나라들과 정의의 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반대하는 무력간섭과 전복, 파괴 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민족적자주권이 유린당하고있으며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커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Digitized by Google

을 떠나서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없으며 자주적인 새 사회, 새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끝 지구상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없애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다.

원래 쁠럭불가담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새 세계전쟁의 위험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반제혁명력량이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들과 기타 국제회의들에서 현시기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낳는 근원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는것을 밝히고 놈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을 반대하고 침략적군사쁠럭의 해체를 요구하며 세계도처에 있는 외국군사기지 및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특히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과 민족적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여 침략전쟁과 간섭책동을 감행할 때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집단적인 공동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으며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이러한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세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투쟁이 더욱 강화될 때 침략과 전쟁의 방법으로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은 파탄되고 놈들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모든 사실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막고 놈들의 쇠퇴몰락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새 세계전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세계적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반제자주운동이라는데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공동으로 투쟁하며 그들이 서로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가장 폭넓게 구현하고있는 위력한 운동이다. 쁠럭불가담운동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을 자기 대오에 단합시키고있다.

이 운동은 세계 5대륙의 97개 나라들을 망라하고있는 대규모적인 운동으로서 자기의 공인된 활동원칙을 가지고

Digitized by Google

조직화된 정치세력으로 강화발전하고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정기적인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교부장회의가 있으며 36개 나라로 무어진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기구들이 조직되여 이 운동의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에는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 세계 인구와 령토의 대부분이 속하여있다. 여기에는 풍부한 물적자원이 있으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들이 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진장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과거처지의 공통성,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가는데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세계적범위에서 반제자주력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쁠럭불가담운동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세계의 정치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수단으로 되고있는 낡은 국제질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바뀌여지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현실은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운동앞에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36페지)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쁠럭불가담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단결은 쁠럭불가담운동의 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단결의 전략을 떠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단결의 전략을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이 운동을 강화발전시킬수 없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은 이 운동성원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날로 앙양되는데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반혁명적량면전술과 각개격파전략에 의거하여 쁠럭불가담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고 이 나라들 사이에 쐐기를 박고 서로 반목질시케 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통일단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오직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지지성원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굳게 단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의 매개 성원국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단합시키는 사상적기초이다. 자주성을 떠나서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자주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고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련대성을 강화하여나가야 쁠럭불가담운동의 개별적고리들이 튼튼

Digitized by Google

해지고 이 운동의 전반적위력도 더욱 강화될수 있다.

쁠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가지고 반제투쟁에 예봉을 돌리는것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될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으며 침략수법도 더욱더 교활한 형태로 감행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데 주되는 창끝을 돌려야 한다.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규탄하여야 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성원국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가지고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 자주화된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수 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제기술적협조의 강화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화함으로써 쁠럭불가담운동의 매개 고리들을 강화하게 하며 이 운동전반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해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수 있으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오늘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주적이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세계를 건설하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쁠럭불가담운동에 대한 혁명적인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가고있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은 이 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과 리념에 기초하여 이 운동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며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주화된 새세계를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근로자 1982년 제8호(루계 484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2년 8월 1일 발 행•1982년 8월 5일

ㄱ—25133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해지고 이 운동의 전반적위력도 더욱
강화될수 있다.
빨럭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
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운동의 모
든 성원국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
립장을 가지고 반제투쟁에 예봉을 돌리
는것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
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절대
로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반제자주를 위한 진보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될수록
악랄해지고있으며 침략수법도
교활한 형태로 감행되고있다.
빨럭불가담나라들은 제국주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도 가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교활
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빨럭불가담나라들은
교활한 속임수에 넘
질시하거나 싸우지
제국주의자들의 침
는데 주되는 창
모든 빨럭불
제적립장을
략과 전쟁
민족적 도
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빨럭불가담운동의 모든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릴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
계를 성과적으로 건설

빨럭불가
를 강화하
대발전
하나이
결
강

RETURN TO → EAST ASIATIC LIBRARY
208 Durant Hall
LOAN PERIOD 1 MONTH | 2 | 3
1 DAY
5
ALL BOOKS MAY BE RECALLED AFTER 7 DAYS
DUE AS STAMPED BELOW

01-1

Digitized by Google

51
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DEC 6 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9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9호 (485)

차 례

Digitized by Google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를 또다시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변혁과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과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언제나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1980년대를 위대한 비약과 혁신으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 *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며 부단히 혁신하는것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86페지)

매개 민족과 인민의 혁명성은 그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나타난다. 혁명적 기개와 기상은 민족과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의 높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은 그들이 높은 사상의식과 함께 혁명적인 기개와 기상을 지닐 때 비로소 남김없이 발양되게 된다.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지닌 인민만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굽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으며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높은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지닌 영웅적인민이다.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지향하여 억세게 전진하는 혁명적진취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와 기상을 특징짓는 중요한 풍모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오래동안 착취와 억압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기때문에 남달리 혁명성이 강하며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 열망이 비상히 높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자기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헌신성과 희생성이 강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집단적영웅주의와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은 혁명적인민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혁명적 기개와 기상의 근저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놓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개와 기상은 가장 숭고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혁명적기개를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Digitized by Google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대담하게 투쟁하며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올수 있었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영웅적기백과 혁명적기상을 지니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고 남들이 한세기 또는 수세기에 걸쳐 하였던 공업화의 력사적과업도 단 14년동안에 수행하는 놀라운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를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의 발현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는 인민대중을 위대한 비약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기개가 하나로 결합되여 일어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발단은 특히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 당사업과 당활동 그리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1970년대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들로 충만된 력사적시기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쌓은 눌렬의 업적과 령도적권위로 하여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다.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는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인민대중의 떼여야 뗄수 없는 혈연적련계,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요인이다.

《80년대속도》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상징하고있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비상히 빠른 진군속도이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혁명적 기세와 기백을 그대로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이미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끊임없이 계승하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간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서 간고한 시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리의 길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과 인민대중속에서 높이 발양된 투쟁 정신과 기풍은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시기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의 시기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자금도 자재도 부족하였으며 인민생활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거기에다 안팎의 정세 역시 긴장하고 복잡하였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

성능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장엄한 혁명적대진군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단숨에 혁신하고 대담하게 전진하였으며 당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으로 앞서 달려나갔다.

참으로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높이 발휘되였던 우리 인민의 투지와 기적은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여 우리 나라의 위력을 오늘과 같은 높이에로 끌어올린 불굴의 힘의 원천이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되였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세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되였으며 그것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발기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바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와 기백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대진군운동이다.

이것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천리마대고조의 빛나는 전통을 전면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오늘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이룩한 비상히 높은 속도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서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고 빛나게 구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속도전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여 우리 인민을 위대한 비약과 혁신에로 이끌어왔으며 특히 최근년간 주체사상탑, 개선문, 창광거리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건설속도를 인민경제 전반적부문에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80년대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 주체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그 폭과 목표의 높이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대중적진군운동이 제기하는 목표의 높이와 그 폭은 사회경제발전수준과 해결하려는 혁명과업의 내용과 그 규모의 방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는 길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비상히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특징의 하나가 있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6폐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목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웅대한 설계도이며 비상히 높은 단계의 경제건설강령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일대 비약의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천리마대고조시기 령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비상히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벌리고있다.

이렇듯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은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시기에도 내세우지 못했던 웅대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있는 투쟁이며 우리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진군운동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전례없는 빠른 속도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생산장성의 예비는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자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끊임없이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먼 장래가 아니라 10년도 못되는동안에 다시말하여 80년대말에 가서 공업총생산액을 1980년에 비하여 3.1배로 장성시키며 1946년에 비하여서는 무려 1,000배로 늘이게 된다. 이것은 1946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생산물을 단 8시간동안에 생산하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진 오늘의 조건에서 경제발전속도의 한프로, 한프로에는 지난날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경제건설을 하던 때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있다.

실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점령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보통의 발전속도가 아니라 그 몇배나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거대한 위력과 불패의 힘의 원천을 가지고있는 혁명적대진군운동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위력의 원천이며 그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인민의 장래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대중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세련된 령도자이다.

오늘 우리 당은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조직적수완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을 한결같이 움직이

는 비상한 조직력과 혁명적전개력을 지닌 우리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강철전선, 석탄전선, 화학전선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내달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의 간고하고 보람찬 투쟁로정을 당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자신의 모든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굳게 다져진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들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면서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는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김철의 강철전사들을 비롯한 전국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당이 제시한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기적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새로운 대고조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고 물질기술적토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진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위력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지펴준 혁명적봉화는 오늘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있으며 그 위력과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이 발휘되고 있다.

우리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진군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하루빨리 점령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차게 떨쳐야 한다.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사상과 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위력한 방도는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이 담겨져있다. 오늘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혁명적앙양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Digitized by Google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근기있게 벌려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웅대한 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옳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 대중운동들이 큰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52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고있는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을 옹호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기백을 가지고 당이 제시한 높은 목표를 끝까지 점령해나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당과 수령께 참말로 충실한 진짜배기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화, 신조화하여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높은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가리며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중도반단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혁명가의 일본새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어길수 없는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페지)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 과정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비상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여기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높은 목표를 점령할

Digitized by Google

수 있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의한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전후 모든것이 모자라고 부족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는 전후시기에 비할바없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는 생산을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 방대한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가지고있다.

오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경제를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가는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잠재력과 예비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탐구동원리용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내부예비를 동원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며 자체의 기술, 자체의 설비, 자체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빨리 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전투를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일군들이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 때일수록 지도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당의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생산과 건설을 얼마나 힘있게 밀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작전과 설계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며 생산지휘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히 모든 선전선동 수단들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진공적인 경제선동공세를 들이댐으로써 전투장마다에 혁명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없다.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새로운 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기백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

진 영 결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력사를 전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해명되고 주체사관이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함께 그 성격을 옳게 밝히는것은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사회력사적원리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밝힌 독창적인 사회력사원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3페지)

사회력사적운동은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그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창조적운동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이 창조적성격을 띠며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라는것과 관련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천명되여있는바와 같이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여나간다. 다른 생명물질들은 외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하는 맹목적인 방법으로 생활상요구를 실현하지만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자기의 생활상요구를 외부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실현한다. 세계를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될수 없다. 세계에 대한 사람의 지배는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함으로써만 실현된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람의 창조적활동의 대상은 자연과 사회이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이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자연을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문화적 재부를 만들어낸다.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는 창조적로동을 떠나서는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수 없으며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나갈수 없다.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면서 사람의 고유한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니게 되며 사회적집단의 힘으로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여나간다. 사회를 떠나서는

Digitized by Google

그 누구도 사람답게 살며 발전해나갈수 없다.

그러나 사회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공동의 리익을 보장하는 사회로 될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공평한 사회로 될수도 있다. 사람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온갖 사회적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으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제도를 세우며 새생활을 창조해나간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의 활동의 창조적성격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능력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활동은 언제나 자기의 본성적요구와 능력의 발현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요구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에 기초하고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성을 구속하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창조적요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담보하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사람은 결코 개별적으로는 세계를 개조하는 창조자로 될수 없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력은 바로 사회의 기본력량인 인민대중의 사회적인 협력과 단결의 위력이다. 단결하고 협력하는 인민대중의 힘을 떠나서는 사실상 창조적힘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창조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의 체현자는 인민대중뿐이다.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의 발현이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로 될수 없다. 그것은 반동적착취계급이 낡은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것을 요구하며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착취계급은 력사의 창조자로 되지 못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서 제거해야 할 낡은 세력이며 혁명의 대상이다. 오직 인민대중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의 주체로 될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이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 인민대중은 창조적로동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재부를 만들어왔으며 낡은것을 변혁하는 창조적활동으로 사회적진보를 이룩하여왔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연을 개조하여 물질문화적재부를 늘여나가는 창조과정이며 사회를 개조하여 사람들의 사회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끊임없는 변혁과정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끊임없는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하여왔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은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창조의 과정은 곧 투쟁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투쟁을 통하여 낡고 반동적인것이 반드시 새롭고 진보적인것에 의하여 교체되는것은 사물발전의 법칙이다.

인민대중이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에 있는 모든것이 사람의 생활상요구와 리익에 맞게 이루어져있는것이 아니며 또 저절로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도 아니다. 자연의 사물들은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Digitized by Google

존재하며 운동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

자연과의 투쟁이 없이 자연을 정복한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인민대중이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은 자연을 정복하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한다. 특히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고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여나가는 과정은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반동세력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없애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존하려는 반동계급, 낡은 세력의 반항에 부닥치게 된다. 반동계급과 낡은 세력의 반항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은 자체에 투쟁을 내포하고있으며 투쟁은 혁명의 승리를 담보한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을 청산극복하는 심각한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은 계급적원쑤들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속에서만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결국 인류가 오랜 력사적과정에 걸쳐 이룩한 모든 진보와 변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의 열매인것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과정은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이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는것은 창조적활동에서 성과의 기본전제이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의 결정적담보이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실현을 담보하는 능력이 안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성할수 없다.

자연을 개조하자면 창조력이 자라나야 하며 사회제도를 변혁하자면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능력이 장성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그들의 창조적요구가 증대된다고 하여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은 실천투쟁속에서, 창조적로동과정에서 발전하고 증대된다. 창조적로동과정에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쌓으며 그에 기초하여 로동도구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을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력은 끊임없이 장성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은 혁명투쟁속에서 급속히 자라난다.

혁명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결속이 촉진되며 혁명의 핵심력량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 로동활동과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이 과정에 인민대중은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생산력의 발전력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힘이 장성하여온 력사이며 사회혁명의 력사는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이 강화되여온 력사이다.

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정은 이처럼 투쟁과정으로, 창조적능력의 장성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론문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사회력사적운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의 폭과 깊이에는 한계가 없으며 따라서 그를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의 발전에도 끝이 없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인류력사는 더욱 높은 형태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론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로동계급에 의하여 조직전개되는 공산주의운동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

Digitized by Google

조적운동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력사에 이미 있었던 모든 계급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의 최고리상사회,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고 온갖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생활수준의 차이가 없어져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이 실현되며 모든 사회성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누리게 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는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이 거창한 규모로 폭넓게 진행되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단계에 와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의식화, 조직화되게 되며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적대계급사회의 긴기간 지배계급에 의하여 창조적활동을 억제당하여온 근로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의하여 비로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된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를 밝혀줌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을 새롭게 해명하여주었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창조적성격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사회력사발전과정을 인민대중이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운동과정으로 보는 주체적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인 혁명운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들을 밝혀주고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강조된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인 혁명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자체의 필수적요구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운동인것만큼 마땅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75폐지)

창조적립장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은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창조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옳게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이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창조적립장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 인민대중이 마땅히 견지하여야 할 립장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는 떳떳한 권리를 가지

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밀고나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자면 창조적립장에서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없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갈수 없다. 창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주인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것을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창조적립장을 지키는것이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문제는 혁명운동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옳은 방법에 의거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옳게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창조적립장인것이다.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며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난관을 대중적투쟁으로 극복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방법이기때문이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것을 높이 발양시킬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고 기본동력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의 소유자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야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해야 할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교조적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이기때문이다.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혁명운동은 언제나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현실속에서 진행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행동원칙이나 고정불변한 행동방법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운동은 온갖 도식과 교조를 배격하며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낡은 관점을 반대한다.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창발성이 억제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바로 인식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없다.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모든것을 창발적으로 대하는 립장을 지켜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옳은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능숙하게 구현하여나갈수 있다.

론문에서 지적된것처럼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혁명운동이 심화발전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법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온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새롭게 수많이 나서게 되였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Digitized by Google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창조적립장은 오늘의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규정할수 있게 한다. 창조적립장은 또한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것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끊임없이 발양시키며 혁명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이처럼 창조적립장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고 모든것을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게 하는 위력한 혁명적방법이기때문에 그것을 지키는것은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조적립장이 밝혀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문제가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위력한 방법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사회력사원리가 과학적으로 새롭게 밝혀진것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의 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창조적활동으로 실현해나가는 과정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합법칙성은 사회력사관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을 이룬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합법칙성을 해명함이 없이는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도 이 운동의 추동력도 옳바르게 밝힐수 없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합법칙성이 밝혀져야 자주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력사적운동이 어떤 요인의 작용에 의하여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확립할수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근본문제의 하나인 사회적운동의 성격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발전에 의하여 사회의 발전이 담보된다는 새로운 리해를 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립장, 창조적립장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에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는 실천적결론을 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깊이 학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

리 성 준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방법을 구현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중대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옳바른 방법을 구현하여야 투쟁방도를 바로세우고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할 필요성과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져있다.

론문에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력량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곧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힘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참으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적극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는 혁명적인 방법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들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이다. 당이 로선과 정책을 옳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

책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과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여나가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03페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은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혁명성, 인민성과 생활력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데 있으며 로선과 정책의 가치와 위력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얼마나 옳바로 규정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끊임없이 벌리므로 현실을 잘 알고있으며 또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있다. 물론 개별적사람들의 요구와 의사는 일면적인것일수 있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의견은 단편적이고 제한된것일수 있다. 그러나 광범한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종합하고 일반화한다면 인민대중의 리익과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수 있으며 또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다. 광범한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로선과 정책만이 인민의 리익에 맞는 가장 옳은 로선과 정책으로 되며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할수 있다. 만일 인민대중의 의사를 옳게 반영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주관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되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옳게 반영하지 못한 로선과 정책은 대중의 준비정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킬수 없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로선과 방침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자신의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결국 인민대중에 의하여 관철되고 실현된다. 인민대중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수행방도를 알 때 당정책을 사활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투쟁하게 된다. 인민대중에게 파악되지 못한 로선과 방침은 그것이 아무리 정확한것이라 하더라도 관철될수 없으며 생활에서 큰 힘을 나타낼수 없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을 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과업이 나설 때마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해결방도를 의논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기때문이다.

론문에는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자면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는것은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대중의 힘은 단결에 있다. 대중은 하나로 굳게 단결되였을 때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참으로 놀라운 힘을 나타내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우자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계급로선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온갖 적대적, 비로동계급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

쟁하는 원칙이며 군중로선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원칙이다.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해나가야 적대적요소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좌우경적편향을 범하면 대중의 단결을 약화시키게 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마비시키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야만 적대적요소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고립시키고 투쟁하여야 할 대상과 전취하고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적대적요소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왔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창조적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창조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 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520페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창조적투쟁은 낡은것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없이는 혁신과 전진이 이룩될수 없다. 원래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바로 적극과 소극,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믿지 않는데서 나타난다. 소극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낡은 경험, 낡은 공칭능력에 매여달리고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면서 대중의 창발성을 억누르며 난관에 굴복하고 혁신을 두려워하며 대중의 거세찬 전진운동을 막으려 한다. 그러므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하여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억제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계

Digitized by Google

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꾸준히 무장시켜왔다. 우리 당은 언제나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믿고 그들의 대담한 발기와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키며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해나갈수 있도록 옳게 이끌어왔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창조적 지혜와 힘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감으로써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으며 그것을 계속 견지하여올수 있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군중적운동을 벌리는것은 혁명과업의 수행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군중적운동은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위력한 방법이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주인인 인민대중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제기된 과업수행에서 대중이 단결의 위력, 동지적협조의 위력을 발휘하여야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혁명과업을 자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군중적운동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구현한것이다.

군중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이라는데 있다. 군중적운동은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벌리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군중적운동에서는 근로자들이 굳게 단결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라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군중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또한 그것이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이라는데 있다.

군중적운동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광범한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와 사상, 문화 분야 등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일대 혁신운동이다. 그러므로 군중적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방법으로 된다.

군중적운동은 대중자신의 운동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벌어질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의 옳바른 조직정치사업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군중적운동을 벌리기 위해서는 군중적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 한편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과 군중적운동을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중의 혁명적기세와 창조력을 늦춤이 없이 계속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군중적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여야 하며 대중자신이 이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일수 있을만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제기된 과업과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Digitized by Google

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적중한 혁명적구호를 제기하고 군중적운동의 과업과 형태를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대중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위력한 군중적운동을 벌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추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에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추동하시였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불러일으키시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마련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구호를 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앙양에로 부르고있다.

참으로 군중적운동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방법이다.

론문에는 또한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되여있다.

정확한 로선과 방침이 있어도 혁명적사업방법이 없으면 그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12페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대중에 대한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완성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 주체의 사업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라는데 그 본질적특징이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는것만큼 사업방법은 마땅히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우선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여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다. 따라서 이 사업방법은 군중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고 대중의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며 기성의 낡은 틀을 마스고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적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사업방법은 또한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며 대중이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줄것을 요구하는 사업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돈과 채찍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착취계급의 강압적방법이나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인민적사업방법이다.

론문에 밝히져있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은 수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이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

Digitized by Google

에서나 언제나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정권을 잡은 다음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앞에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더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전례없이 높아지며 다른 편으로는 집권당안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이 나타날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집권당에서 나타날수 있는 관료화와 행정화의 경향을 막을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의 창조력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견지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주체의 사업방법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참된 사업방법의 집대성이며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는 열쇠가 있다.

* *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해주었다.

론문에서 밝혀진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방법이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그 정당성과 위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

리 동 춘

온 나라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일군들과 당원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옹호하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끝까지 집행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이며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은 당의 정책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책을 옳게 집행할줄 알며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옳지 못한것과는 언제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226페지)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투사이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으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옳게 수행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바로 수령이 제시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는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은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기본품성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란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열렬한 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으며 투쟁과 삶의 참된 보람이 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집중적표현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관철할줄 아는 사람, 말은 적게 해도 당과 혁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줄 알고 실천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배기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을 떠나서 당과 수령께 충실할수 없고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이 없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수 없다. 일군들은 오직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그것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할 때 당과 수령께 참말로 충성다할수 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이렇듯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귀한 품성이며 사업과 생활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된다.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제2차7개년계획과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과 10대전망목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일대비약의 리정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이 거창한 력사적과업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만 훌륭히 수행해낼수 있는 어렵고도 무거운 투쟁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나갈 때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로정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뚫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고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재더미만 남았던 전후 폐허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나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수 있었고 안팎의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과 겹쌓인 난관을 물리치고 불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점령한것도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줄기차게 내달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키고 또다시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온 누리에 떨칠수 있은것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고동치고있었기때문이다.

참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

건설의 정신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시고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비약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과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그것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적지침이다. 그런것만큼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그 어떤 환경에서도 동요없이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강도당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국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튼튼히 가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갔다. 또한 도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받아들이고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불타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다.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해나감으로써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뚫고 철길부설공사를 단 몇달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이 똑바로 서면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해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이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본성적품성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심장은 언제나 주체사상으로 세차게 맥박치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드높은 혁명적 기백과 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조건이 유리하게 갖추어질것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주동적으로 그것을 마련하는 기풍, 우

Digitized by Google

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제힘으로 해내고야말겠다는 혁명적 립장과 투지, 이것이 바로 주체형의 혁명가의 투쟁기풍이며 사업방식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언제나 모든 조건이 충분히 마련된 환경에서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조건이 불리하게 제기될수도 있고 예견하지 않았던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나설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때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8월8일광산 선광장과 강계의학대학병원을 건설할 때였다. 막대한 량의 건설부재를 생산보장하는것을 비롯하여 경제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제기된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갔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에 주신 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은 자강도사람들이 주인이 되여 수행해야 한다는 사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건설자들은 언제나 신심과 열정에 넘쳐 자체의 힘으로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한것은 보충하면서 난관을 극복하고 돌과구를 열어나갔으며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한 성과로써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벽을 밀고나가라면 밀고나가고 돌과구를 뚫고나가라면 뚫고나가며 천길 물속에라도 뛰여들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전개력이 있고 완강한 투쟁력이 있는 혁명가는 조건을 탓하지 않으며 난관에 굴하지 않는다. 모든 일군들은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혁명의 요구라면 맨손으로 폭탄도 만들고 기관총도 만들어 원쑤를 족친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억센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기풍을 본받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전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험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에 뒤따라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할 때에만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67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당하며 당정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도 대단히 높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늘 대중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에 뒤따라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할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것이다.

더우기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새롭고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는 조건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전투적으로

Digitized by Google

하여야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대담하게 작전하고 힘있는 정치사업과 능숙한 조직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분공사업을 포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집행의 전과정을 늘 장악하고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제때에 총화도 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방침대로 사업에서 추적전을 벌려나감으로써 시작한 일은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내며 제기된 과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 모가 나게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드는데 있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대책과 방도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조직하며 높은 창발성을 가지고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어떤 과업이든지 구체적인 연구와 작전이 없이 아래에 되받아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수행할수 없으며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우리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제기된 과업을 어떻게 하면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더 잘 수행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깊이 사색하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 남아있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없애고 새로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투쟁이 없이는 혁명이 전진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들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이룩될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정책집행에서 조건타발을 하면서 일을 질질 끄는 현상 등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현상들과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부족하고 그 집행을 순간이라도 지연시키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투쟁기풍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첫째가는 원칙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옹호관철한 그 정신, 그 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그들처럼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들에게 지워진 시대의 숭고한 사명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튼튼히 옹호보위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앞당겨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

리 광 한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김책제철소 로동계급이 추켜든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봉화가 짧은 기간에 거세찬 불길로 타올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위대한 비약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천리마대진군과 속도전의 자랑찬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며 자력갱생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자력갱생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전투적기반이며 바로 이 기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인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1980년대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자랑차고 영광스러운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 *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대중적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0년대에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63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오늘 우리는 당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당면하게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경제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과업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게 달성할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제2차7개년계획은 규모가 대단히 커진 우리의 인민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경제건설과업이며 사회주의경

Digitized by Google

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는 지금보다 몇배나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데 있다.

올해는 벌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다섯번째해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진군속도를 더욱 높여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이 절실한 요구와 나라의 경제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금속공업부문 특히 우리 김책제철소에 새로운 대고조의 첫 봉화를 지펴주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차게 벌리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거세찬 투쟁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내달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방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위대한 승리와 비약을 이룩하여왔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한 고지를 점령하고는 련이어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것,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발단을 열어놓은 천리마운동과 이 과정에 이룩된 천리마속도는 바로 우리 당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우리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외부세력을 등에 업은 반당종파분자들의 악랄한 도전으로 하여 정세는 극도로 긴장하였으며 경제건설에서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방대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나섰으나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그때는 아직 어려웠다. 실로 당시 우리 나라 형편은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천리마대진군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실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창조적재능은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톤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우리 김책제철소의 강철전사들은 19만톤밖에 생산할수 없다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쇠물을 뽑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나라의 공업생산은 한해에 40~50%라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이 명우에는 천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경험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때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여 대중적인 운동을 적극 벌리는 방법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Digitized by Google

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이러한 투쟁 정신과 기세로 내달려 그때보다 더 높은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고조력사의 위대한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우리 당의 지도밑에 최근년간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이룩된 류례없이 높은 속도의 빛나는 모범을 인민경제 전반적부문들에 확대하고 구현해나가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만 하여도 창광거리와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울것을 발기하고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기념비건설장들에서는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으며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높은 속도,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가 창조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새로운 높은 속도, 이것은 언제나 원대한 목표를 내걸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며 일단 결심한 문제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당의 지도밑에 창조된 새로운 높은 속도의 위력은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으며 그 견인력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이러한 높은 속도창조의 모범을 인민경제 전반적부문에 확대하고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에 의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공산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혁명적기상은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이렇듯 천리마대진군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대고조력사를 빛나게 계승하고있을뿐아니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대고조, 속도전의 새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가지는 또하나의 거대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며 새로운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페지)

자력갱생은 자체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야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자력갱생하여야만 성과적으로

Digitized by Google

달성할수 있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우리가 달성하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이다.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그자체가 자력갱생할것을 전제로 하고 세워진 목표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자력갱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 이것은 《80년대속도》가 곧 자력갱생의 속도이며 자력갱생해야만 《80년대속도》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자력갱생하여 이룩한 높은 속도,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를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창조된 속도는 다름아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바로 이러한 빛나는 모범을 일반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며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자력갱생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온 나라를 대고조의 열풍으로 들끓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후시기 우리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남이 한걸음 걸을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릴수 있은것도 제힘을 믿고 자력갱생하였기때문이며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1970년대에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할수 있은것도 자력갱생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간 결과이다.

실로 자력갱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틀어쥔 필승불패의 무기이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기발이다.

자력갱생하여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자력갱생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상이 발동되고 심장이 불타면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샘솟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높이 발휘된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과 책임성을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는 혁신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두가 다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간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다그쳐나가자면 또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진 오늘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나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무진장한 예비가 있다. 문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예비동원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예비는 바로 사상에 있고 조직사업에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

Digitized by Google

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우리는 연료도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탄을 쓰며 원료, 자재도 우리의것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경제의 주체화도 다그칠수 있고 경제발전속도도 주동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군들의 경제조직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가 매우 높은 오늘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경험은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무진장한 예비를 찾아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방침을 받들고 최근 우리 김책제철소에서 현존설비와 로력으로 올해에 8만톤의 선철과 10만톤의 강철을 더 생산할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낸 사실이 이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기계설비들을 언제나 만가동시켜야 하며 원료, 자재들을 극력 절약하고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제조직사업을 주인답게 짜고들어 자기 부문앞에 나선 그 어떤 경제과업도 자체로 해내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지휘성원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는 투쟁의 기수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발전속도를 높여나갈수 없게 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마땅히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나가는데 있다.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밀고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의 전투적기발을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동원과 일군들의 창발성

김 히 택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이 장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일군들이 창발성을 가지고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모든 부문을 다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201페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적은 투자로써 그 효과성을 높여 생산을 늘일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으로 하여 계속 무진장하게 생겨난다.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근로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으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근로인민대중의 혁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또한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으며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으며 따라서 기술이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된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있는 밑천을 더 잘 리용하거나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는 무진장한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을 계속 빨리 장성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 여기에 우리앞에 나선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는 기본열쇠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데 있다. 나라의 경제규모와 생산잠재력이 대단히 커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진 오늘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전례없이 많아졌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한다면 그 어떤 경제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옳게 리용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 새 전망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방대한 규모의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예비를 찾아내며 생산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6권, 22페지)

우리의 일군들은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은 일군들을 믿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었으며 경제를 잘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마땅히 맡은바 혁명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사업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현시기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의 예비는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 것과 함께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사업을 잘하고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여야 성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이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면 들수록 더 많이 찾아낼수 있는 항구적인 예비이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일군들이 기성 경험이나 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창발적으로 일해나가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현실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때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보여주고있는 귀중한 진리이다.

전후 우리가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하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였기때문이며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내고있는것도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고있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고 우리앞에 나선 웅대한 경제건설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에는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예비의 형태와 그것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일군들의 사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와 방법론을 바로세워야 하며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폐지)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인민의 힘으로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창발성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지닌 일군만이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갈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속에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예비동원사업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립장을 바로세우고 그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다.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는

Digitized by Google

일군만이 자기앞에 나선 그 어떤 과업도 제힘으로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게 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게 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기된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립장과 관점에 튼튼히 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모든 일군들이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로 해나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일군들의 창발성은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된 현시기 숨은 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줄수도 없게 된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려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내부예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것은 생산자대중이며 그것을 옳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제일 잘 아는것도 바로 생산자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옳게 조직동원하기만 한다면 내부예비를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고 그 리용방도를 옳게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력, 기계설비, 자재, 자금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고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에서 기동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내부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온갖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물자자원과 로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현실은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비롯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극력 절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여있고 방대한 량의 원료와 자재를 쓰고있는 조건에서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여 원가를 1%만 낮추어도 그것은 생산을 늘이는데 커다란 보탬으로 된다.

현시기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물자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며 끊임없이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80년대속도》창조과정에서 이룩된 선진적인 기준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이 도입되는데 맞게 기술경제적 기준들과 지표들을 갱신하는 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물자를 등록실사하고 분배하는 사업을 잘하여 전국가적

Digitized by Google

범위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로력을 절약하고 480분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일군들의 창발성은 또한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파묻혀있는 예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예비는 정치사업을 잘하여 생산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3폐지)

오늘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수단들이 노는 역할은 더욱 커지고있다.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더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내고 자재를 극력 절약할수 있으며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늘일수 있다.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적극 벌려 그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과제를 똑바로 주고 사업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기술개조사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에 생산자대중의 경험과 창발성이 결합되면 그것은 참으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산자대중의 혁신적 발기들과 의견들을 귀중히 여기고 비록 자그마한 기술발명이나 창의고안의 싹이라도 적극 조장시키고 발전완성시켜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며 모든 생산자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배우도록 옳게 지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들과 창의고안, 생산합리화안들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적은 로력과 설비,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야 기술발전의 추세를 옳게 파악하고 기술개조사업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을 바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안들을 정확히 보고 제때에 조장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생산기술공정들에 정통하고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며 복잡한 기술개조사업도 능숙히 지도할수 있는 자질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주체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장 경 복

오늘 우리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세차게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참다운 인민의 국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진정한 대표자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우리 공화국정권은 지난 기간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생활은 우리의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인민정권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정권의 본질적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정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대표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4~5페지)

자주적권리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해결해나가려는것이 바로 사람들의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정치적자주권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적자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여야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의사와

Digitized by Google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

자주적권리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제일생명이다. 사람에게 자주적권리가 없으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있을수 없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적권리는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정치조직인 인민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대표자이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라는것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고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는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며 그들의 공동활동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람은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집단생활, 공동활동을 떠나서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으며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실현하여나갈수도 없다.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바로 정치조직이다. 정치조직은 그 성격에 따라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을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리익에 맞게 조직지휘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정치조직을 가져야 한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감으로써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인민대중은 인민정권밑에서만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대중의 손에 쥐여져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국가는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고있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국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1페지)

정권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있는가 하는것은 그의 계급적본질, 복무자적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는 적대적계급사회의 국가정권은 소수 착취계급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착취계급만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착취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만민평등》과 《인권옹호》를 그처럼 요란스럽게 떠벌이는것은 바로 착취계급국가의 이러한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대표자로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의 손에 쥐여져있는 정권만이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손에 쥐여져있는 정권만이 인민대중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주적권리를 보장하여주게 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손에 쥐여져

Digitized by Google

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에 의하여 령도된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그들은 인민정권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한다. 인민정권기관체계에서 골간을 이루는 각급 주권기관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행정기관, 사법, 검찰 기관들은 바로 이러한 주권기관에 의하여 조직된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밀에 모든 활동을 벌리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인민대중앞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므로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인민정권이야말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며 그것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정치적무기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정권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여왔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0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자주적인 정권에 의해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정권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자주적권리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도 보장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는 철두철미 자주적인 정권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이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최종목적으로 삼고있다.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인간해방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간다.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이며 인민정권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혁명로선이다.

인민정권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Digitized by Google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여나가며 대외관계에서도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한다. 인민정권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 위력한 자위적방위력을 마련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위한 경제적 및 군사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해나간다.

이처럼 인민정권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인것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고수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고있다.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힘과 수단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짓부시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해나가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힘과 수단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있는 정권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힘과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다 가지고있다.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하고있으며 정연한 국가기관체계를 갖추고있다. 인민정권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강력한 사상교양수단과 물질기술적수단들 그리고 혁명적독재수단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집중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인민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이라는 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정권의 성격과 사명, 기능을 뚜렷이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정권형태를 명시하여준 위대한 사상이다. 이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주체의 국가건설리론은 더욱 심화발전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대표자인 인민정권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철저히 실현해나감으로써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인민정권아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있으며 그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85페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인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것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주

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인민정권은 무엇보다도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를 세우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철저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여 자기의 진정한 대표들을 선거하거나 자기자신이 그 성원으로 선거됨으로써 주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참가한다.

인민정권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주적권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뿐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향유할때 확고히 보장된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정권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높여주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자, 사무원은 물론 협동농장원들까지 국가가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뿐아니라 무료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인민정권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참다운 대표자로서 그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정권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주체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활동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며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길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교육테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켜오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력사적인 문헌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총서이다.

력사적인 교육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었다.

교육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학생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위대한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1)

교육사업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고 민족간부를 길러내는 책임적인 사업이며 혁명의 승패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09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을 새세대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아무리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가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받을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지 않는다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이미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자체의 민족간부를 길러내지 않고서는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이처럼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교육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사상과 과학적인 교육리론에 의하여 교육사업이 지도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사업이 정확한 목표와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울수 있다.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절박한 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교육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

Digitized by Google

인 교육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교육사업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집대성되여있다.

교육테제에 밝혀진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사상이다.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교육 리론과 실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옳게 밝혀야 그에 기초하여 교육리론을 정확히 전개할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옳바른 방향에서 진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교육사업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더 잘 복무할수 있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교육의 혁명적본질을 밝혀준 고전적정식화이다.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을 자연과 사회에 예속되여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면서 사는 인간으로 키우며 자연과 사회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워나간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사업을 잘하여야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질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렇듯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뚜렷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람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중심의 사상과 리론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근본특징이 있으며 그 정당성이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에 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옳게 밝혀져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똑바로 규정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요구와 인간개조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밝혀진것으로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교육의 근본방향을 가르쳐준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상개조에서의 기본은 인간개조이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Digitized by Google

를 교육사업의 총적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그들을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나갈수 있다.

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혁명의 원리와 직접 결부시켜 전개하고 교육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하도록 한 여기에 또한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정당성이 있으며 그 혁명성과 과학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에 대해서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교육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교육사업전반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교육사업에 정확히 구현할수 있으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도 옳게 할수 있다.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며 자기 나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이 참말로 혁명적인 교육으로 되자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자기 나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근본원칙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교수교양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교육사상이 밝힌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는 쓸모있는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워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도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참으로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산 인간으로 키울수 있게 하는 길을 밝힌 혁명적인 교육원칙이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고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따라서 실천과 밀접히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을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키울수 있는 원칙적방도를 밝혀준다.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는것을 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

Digitized by Google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교육사업을 당의 의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은 이렇듯 교육사업전반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게 하고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지으며 이것은 그에 상응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교육방법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따라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확립하여야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정치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밀고나가는것을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과 현대과학지식, 건장한 체력은 새형의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창조적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사상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서의 높은 정치사상적풍모와 리론실천적자질을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이 소유하여야 할 풍모와 자질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의해서만 갖추어지게 된다.

교육테제에서 밝혀진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등 사회주의교육의 방법들은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워주고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들이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창설과 그 완성에 관한 문제,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에 관한 문제 등 모든 독창적인 사상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제도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 교육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야말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원리와 방법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한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교육의 원리와 원칙, 내용과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의하여 공산주의적혁명인재의 풍모와 자질, 그 육성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의 본질적특징이 있으며 그 과학성과 독창성이 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교육에 관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주체의 인간개조학설

Digitized by Google

이며 교육의 사명과 원리, 내용과 방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가장 과학적으로,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공산주의교육강령이다.

(2)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우리 나라 교육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먼저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워낼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에 뒤이어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였으며 1972년부터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보통교육의 의무화가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고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다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고있다.

우리는 새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마음껏 공부할수 있도록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오늘은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이리하여 온 나라가 학교망의 조밀한 그물로 뒤덮이게 되였으며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남녀로소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전변되게 되였다.

이 위대한 비약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가져다준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새 사회 건설에서 가장 힘든 문제의 하나인 민족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민족간부양성문제는 새 사회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더우기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져야 한다. 민족간부가 없이는 자립적민족경제도 건설할수 없고 민족문화도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의 장래번영도 기대할수 없다.

새 사회 건설에서 이처럼 중대한 문제로 나선 민족간부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빛나게 해결되였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말미암아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자, 전문가가 불과 몇명밖에 안되였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70여개의 대학과 수백개에 달하는 고등전문학교들이 일떠서고 이

Digitized by Google

를 통하여 이미 100여만명의 인테리대군이 양성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로력자총수에서 기술자,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총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였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바로 이들에 의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있으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00만명이상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냄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처럼 절박하게 제기되였던 민족간부문제를 빠른 기간에 원만히 해결하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진군길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직장을 생산전투장이자 곧 학습전투장으로 만들고 126명이 한날한시에 준기사가 되였을뿐아니라 모두가 또다시 대학공부를 하면서 생산과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룡양광산 금산갱광부들의 경험과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협동농장에 집단진출하여 모두가 일하면서 고등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공부를 하고있는 청년분조원들의 숭고한 모범은 실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이다.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의 육성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위대한 결실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되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앞에 나선 숭고한 사명이며 첫째가는 임무이다.

교육의 전과정을 사상혁명과정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양에 주되는 힘을 넣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갖춘 참다운 혁명인재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새세대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나가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의 새세대들은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단련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학교와 거리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며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는데서도 고상한 기풍을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새세대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정신도덕적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어나가고있으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육성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교육기관들에서 우리 혁명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의 교육사업은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고 교육사업의 보장자가 됨으로써 《모범교육군》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생활력을 확증하여주고있으며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그를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자랑찬 현실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비상한 견인력과 영향력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 《교육문제의 해결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대백과사전》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훌륭한 교육제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제도》라고 높이 찬양하고있다.

참으로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교육부문일군들은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며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하고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

신 길 수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위대한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성스러운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것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입니다. 농촌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이라고 하면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로 만드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72페지)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된다는것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이 교육테제가 내세운 전략적인 목표로서 교육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모든 과업들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마지막과업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온 사회가 인테리화될 때 교육테제가 제시한 모든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것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오직 교육테제의 철저한 관철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반적으로 강령의 위대성과 그 사상적높이는 강령이 최종단계의 과업을 어떻게 내세우고있는가 하는것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어떤 강령이든지 최종단계의 과업을 뚜렷이 내놓지 못하거나 만약 그것이 일정한 력사적단계의 문제해결에 머무르는것이라면 그 강령은 완성된 우수한 강령으로 될수 없으며 강령에 밝혀진 제반 과업들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강령에서 최종단계의 과업을 옳게 밝히는것은 강령의 작성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선포한 위대한 교육강령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최종단계의 과업, 전략적목표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적인간육성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을 완성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으로 되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교육테제가 내놓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과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11페지)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Digitized by Google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람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존재로 되려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교육과 사회적실천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을 교육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교육테제에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그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한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 정식화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정연한 체계속에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근본 방향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교육테제에 제시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로운 인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혁명인재의 육성문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실현될 때 빛나게 해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기초우에서 그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이란 사상도덕적, 지적 및 육체적 발전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인간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있는 사상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며 과학기술과 인류문화의 모든 우수한 성과들을 체득한 지식있고 능력있는 인간이며 육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된 인간이다.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이러한 풍모와 자질을 원만히 갖추려면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인테리로 되여야 한다.

대학교육은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함께 과학기술의 최신성과와 인류문화의 우수한 재부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시키는 학교교육의 마지막과정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대학교육과정을 거쳐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깊은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될수 있다.

이처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인테리로 되면 사회주의교육테제가 제시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높은 목표와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성되게 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교육테제가 내놓은 전반적의무교육제를 완성하기 위한 과업도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완성된다.》(우와 같은 문헌, 439~440페지)

교육사업은 해당 사회의 본성과 교육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아무리 교육목적이 훌륭하고 인재육성

Digitized by Google

의 리론과 방법이 정확하게 서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제적으로 담보하여주는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사업에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육성의 리론과 방법을 해명하는 사업과 함께 교육제도를 세우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과 그 완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교육테제에서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로 규정하고 교육체계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 무료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체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밝히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합법칙적로정과 그 완성의 길이 새롭게 해명되고 교육분야에서 공산주의적시책을 완전히 실현하는 과학적방도가 뚜렷이 천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교육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원래 한 나라 교육의 발전정도와 교육제도의 선진성은 사회성원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얼마나 차례지며 전반적교육수준이 어느 높이에 이르고있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전민교육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의무교육의 수준이 곧 교육제도의 발전과 완성의 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새세대들은 물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고등교육도 의무교육화할것을 요구한다.

전반적고등의무교육제는 의무교육의 수준과 년한에 있어서나 사회성원들에게 차례지는 교육혜택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최상의 수준에 이른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제도이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면 전민교육제도로서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완성되며 교육분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교육혜택이 고르롭게 차례지는 실제적평등이 이루어지고 공산주의적시책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교육테제에 밝혀진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완성과 공산주의교육건설의 과업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교육테제를 완전히 관철하면 3대혁명을 완성할수 있으며 3대혁명을 완성하면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161폐지)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과 3대혁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사상문화생활과 로동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기때문이다.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는 바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이

Digitized by Google

다.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와 결정적 역할이 없이는 3대혁명의 성과적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이 노는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사람은 오직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지식에 기초한 창조적능력을 가질 때에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립장을 확고히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 그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교육사업, 공산주의적인간개조사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빛나게 완성하게 하는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우선 인간개조의 합법칙성과 그에 기초한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한다.

교육테제는 또한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을 문화기술적락후성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할뿐아니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적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테제에 밝혀진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완성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낡은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게 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교육테제가 내놓은 이 력사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 그리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이 유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정신문화생활에서는 물론 로동생활에서 사람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없으며 인간해방의 력사적위업도 이룩할수 없다.

원래 인간의 정신생활과 육체적활동은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진행되는것이다. 그러나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피착취근로대중에게는 고된 육체로동만 강요됨으로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사이에는 대립이 생겨나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착취사회의 전기간에 뿌리깊이 존속되여온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대립을 영원히 페절하지만 그 본질적차이까지는 없애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기술발전의 미숙성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가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람들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면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까지 없애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은 바로 육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정신로동을 하는 인테리의 수준에로 끌어올림으로써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로동에서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사람

Digitized by Google

들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정신적활동과 육체적활동이 조화롭게 결합된 훌륭하고 보람찬 로동생활을 하게 되며 공산주의문화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여 정신문화활동과 생산활동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또한 온 사회가 인테리화되면 정신로동에만 종사하는 인테리를 따로 갈라볼수 없게 되고 사회계층으로서의 인테리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 교육테제가 내놓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화건설의 과업을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매우 영예로운 사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선포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강령으로서의 교육테제의 성격과 사명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과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명확한 전략적목표를 가지고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으로 내세우게 됨으로써 위대한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확고한 전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발전에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가 열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해나가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육사업에 의하여 육성되는 인간의 자질을 규정하며 이 사업이 잘되여야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 교육정책의 집행자이며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모든 새세대들이 고중졸업정도의 문화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할수 있게 하며 대학들에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로 무장한 능력있는 민족간부, 철저히 혁명화된 로동계급의 인테리들이 믿음직하게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테제를 관철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말그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인테리로 만들기 위한 방대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려면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공산주의적교육형태이며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는 인민경제의 지역적배치와 부문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을 많이 내와야 한다. 그러자면 이미 내온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을 잘 꾸리고 훌륭히 관리운영하여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급속히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통신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지역적,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인 교육을 일시에 줄수 있는 우월한 교육형태인 텔레비존방송대학을 새로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다그쳐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11년제의무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새세대들은 물론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지난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다 망라하는 전반적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누구나 다 배울수 있는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유리한 교육조건을 지어놓았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식의 주체도, 학습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사람인것만큼 그들자신이 꾸준하게 정력적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설수 없으며 사회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여나갈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두가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 혁명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얻은 경험은 당조직의 결심이 확고하고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이끌어나간다면 교육테제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창조된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는 한편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한고리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교육테제를 관철하여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 육 제 도

최 태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할데 대한 리론과 방침은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리론과 방침이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담보를 마련해주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교육테제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옳바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세우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교육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페하시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공고화하여 점차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계와 내용, 방법을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시고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438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무엇보다먼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매개 사회에는 그 본성에 맞는 교육제도가 세워지며 그에 토대하여 교육사업

Digitized by Google

이 진행된다.

교육제도의 성격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에 어떻게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교육제도만이 혁명적인 교육제도로 된다.

착취사회에서의 교육제도는 사람들을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제도를 유지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냄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혁명적인 교육제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사람들에게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비롯한 학교교육체계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이 사상교양과 지식교육,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우는것을 다같이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통하여서는 모든 새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게 되며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민족간부들을 키우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 세워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게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지식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학습과 실천활동은 그들에게 있어서 뗄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일되여있다. 이러한 과정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능력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자라나게 된다.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혁명적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과 품격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것만큼 어린 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비릇을 길러주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움으로써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비릇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도덕품성이 싹트게 할뿐아니라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제도로부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에 이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람들을 혁

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가장 혁명적인 교육제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일생동안 중단없이 지속적인 교육을 주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는것은 사람의 사상과 품격 형성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 요구이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일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심화되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끊임없이 풍부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교양하여야 그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더욱 공고히 할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높여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완성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 형성의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맞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시절에는 유치원에서, 학령기에는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정규학교들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은 정규적인 학습체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인교육형태들에서 교육교양을 받게 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중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주어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는데 훌륭히 이바지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교육제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교육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사람들에게 배움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여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배움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제도만이 참다운 인민적인 교육제도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배움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다 공부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인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이 전민교육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인 전체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교육, 일부 소수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민교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전민교육이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빠짐없이 공부하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간이 길고 수준이 높은 우월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에 의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은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써는 전민교육을 실현할수 없다. 전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공부시키는 일정한 교육체계가 있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공부시킬데 대한 전민교육의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학령기의 새세대들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이 열리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교육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이처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고있으며 바로 이 교육제도에 의하여 전체 인민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인민적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이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선포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배울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교육뿐만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무료로 진행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학령전 어린이들과 학령기의 새세대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담보할수 있도록 하자면 정확한 지도사상과 혁명적교육전통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이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

Digitized by Google

는것으로 하여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바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인 교육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었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우와 같은 문헌, 410페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수립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됨으로써 해방후 아무것도 없던 빈터우에서 문맹퇴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사업은 매우 높은 발전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전국이 170여개의 대학을 비롯한 교육망으로 뒤덮이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무료로 일생동안 끊임없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지덕체를 전면적으로 갖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의 새세대들의 가장 고상한 풍모로 되고있다.

조국과 혁명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새세대들이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는것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이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가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해결한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100여만의 인테리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으로 하여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제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육제도》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Digitized by Google

앞에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여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계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있다. 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여야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며 전문분야의 현대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줄수 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육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고등의무교육은 완성된 사회주의의무교육제이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할수 있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잘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경제의 지역적배치와 부문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 일하면서 공부하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을 많이 내오도록 하며 이와 함께 통신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텔레비죤방송대학을 새로 내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투쟁

최 창 덕

오늘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37년간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침략자》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미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례없이 강한 반미구호를 제기하고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지난날 남조선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수많이 벌어졌지만 미제를 반대하는 구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는 반미구호가 더욱더 정면에 나타나고있다.

지금 남조선도처에서 인민들은 《우리는 미국이 이 나라를 예속국으로 만드는것을 중지하며 이 땅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양키는 물러가라》, 《조선의 영구분렬을 획책하고있는 미제의 죄행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착취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들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다.

광주인민봉기이후 최근까지 반미구호를 들고 벌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무려 80여건이나 된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이 급속히 높아가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어느 한 계층,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한 계층, 남조선전역으로 확대되고있는것이다.

광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반미투쟁의 불길은 부산, 서울, 춘천을 비롯한 남조선각지로 계속 퍼지고있다. 그리고 이 투쟁에는 청년학생들뿐아니라 《정치범》가족들, 종교인들과 재야민주세력들이 망라되여있다. 또한 이 투쟁대렬에는 지난날 미제를 《우방》으로, 《벗》으로 생각하면서 미국을 숭배하던 사람들까지 합류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투쟁과 결합된 반《정부》투쟁이 수많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종합하여보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날이 갈수록 청년학생들의 테두리를 벗어나 광범한 대중속에 급속히 확대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이 각계층 인민들속에 급속히 파급되고 날로 대중화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미국무부의 한 비민보고에서까지 《남한에서의 미국에 대한 태도변화는 비단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금후사태발전의 추이에 《우려》를 표시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은 미제를 규탄하고 일련의 반미적요구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지행동으로 놈들을 타격하는데로 전환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이

Digitized by Google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있는 매우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광주인민봉기이후 청년학생들은 《미국이 현정책을 계속하는 한 이 나라에 있는 미국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증할수 없다.》, 《미국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해 미국관광객 몇명을 죽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1980년 12월 광주 《미국문화공보원》에 불을 지름으로써 자기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지난해 8월 대구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대한 대폭파투쟁, 올해 3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투쟁, 서울의 워커힐방화투쟁, 4월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성조기소각투쟁 등을 통하여 또다시 미제침략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미제를 반대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그것이 결코 그 어떤 일시적충분이나 우연한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이며 조직화된 투쟁으로 진행되고있다.

사람들의 래왕이 가장 많은 대낮에 진행된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른 투쟁만 보아도 그것은 청년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치밀한 준비와 몇차례의 훈련을 거쳐 벌린 투쟁이였다.

지난 4월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천주교와 기독교의 련합단체인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반미성명투쟁도 종교인들의 목적의식적인 반미투쟁이였다. 이들의 반미성명은 발표되기 10여일전부터 준비되여 협의회의 지도위원 및 실행위원들이 참가한 련석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몇차례에 걸쳐 수정보충한것이였다.

이렇듯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대중적으로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벌어지고있으며 미제에게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출판물들도 《지금 미국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이래 볼수 없었던 미증유의 반미주의에 직면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지배층이 남조선에서 빠지고있는 궁지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횡포한 식민지통치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이 마음대로 억누르고 죽일수 있는 순한 양과 같은 인민이 아니며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가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더욱더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투쟁핵심들이 자라나고있다. 이것은 앞으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확대발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장기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쌓이고쌓인 인민대중의 울분의 폭발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새로운 획기적전환으로 된다.

남조선에서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필연적산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4페지)

Digitized by Google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는 미제는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올가미를 들씌운 장본인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시기부터 남조선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와 자유의 극악한 교살자로, 가장 흉악한 분렬주의자, 통일의 원쑤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았다.

해방후 오늘까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랜 력사를 두고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놓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방해하고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남조선에서 전대미문의 참혹한 식민지통치를 감행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이미 30여년전에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인민에게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천추에 용납못할 죄행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길음마다 총칼로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그대로 두고 과연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사람치고 어느 누가 그들을 《벗》으로 상대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이 1960년대초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안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 리승만파쑈독재정권을 꺼꾸러뜨렸을 때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새 정치, 새생활에 대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총칼로 짓밟아버린 원흉도 바로 미제였으며 1979년 10월 미제의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꺼꾸러진후 밝아오던 민주와 통일의 려명을 가로막고 남조선사회를 더욱 숨막히는 파쑈의 광란지대로 전변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가 내세운 어중이떠중이 파쑈살인광들의 칼부림에 얼마나 많은 남조선인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가.

8.15직후 하의도농민들과 광주로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만행으로부터 4.19인민봉기자들에 대한 잔인한 살륙만행에 이르기까지 미제가 남조선에서 감행한 인민학살만행은 살인귀 미제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력사의 증거들이다.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그때마다 탄압하고 파쑈와 분렬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은 특히 1980년 5월 광주의 영웅항쟁자들이 벌린 정의의 애국투쟁을 탄압말살하는데서 절정을 이루었다.

파쑈와 분렬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인 민들을 무차별살륙하여 온 광주땅을 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광주대학살만행은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살인마 전두환파쑈교형리들이 감행한 대류혈참극이였다.

광주대학살만행은 미제의 《인권》과 《자유》, 《평등》과 《박애》가 어떤것인가 하는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광주대학살만행은 미제가 《벗》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민주와 통일의 극악한 교살자라는것을 다시금 세계의 면전에 폭로하여주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두고 민족적량심이 있는 모든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었으며 이 참담한 현실에 항거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애국의 길, 투쟁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여 광주사태를 계기로 하여 쌓이고 서린 반미감정을 폭발시켜 광주《미국문화공보원》에 대한 방화투쟁에 이어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며 저주로운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성명을 발표하며

Digitized by Google

반미가두시위를 벌리는 등 반미자주화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은 자기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참을수 없는 항거이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짓눌리우고 인간이하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강요당하고있는 이러한 억압과 정치적무권리를 《숙명》적인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실지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가 남조선의 《원조자》, 《벗》이 아니라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흉악한 원쑤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은 천대와 멸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미제와 그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억제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은 37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횡포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화근이며 파쑈와 폭정을 산생시키는 암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억누르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함이 없이는 남조선에서 결코 자주화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자주와 민주, 통일의 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54페지)

반미자주화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지난 력사적경험은 자주성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그 어떠한 투쟁도 반미자주화투쟁을 떠나서는 참다운 발전과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후 지금까지 남조선인민들이 정의의 애국투쟁을 수많이 벌려왔지만 그때마다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여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거듭하게 된것은 그것이 중요하게는 대중적인 반미자주화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한데 있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진행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외세의 지배가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 때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통일의 기본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Digitized by Google

마련한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여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실천에 옮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리익과 북과 남의 현실태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이다.

련방공화국창립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남조선괴뢰도당이다.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간섭책동이 종식되면 우리 민족은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적인 련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무엇보다먼저 미군철거의 구호부터 들어야 하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나가기 위해서는 미제의 침략과 예속화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지지하며 그에 추종하고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의 무리이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의 온갖 전횡과 략탈행위를 적극 옹호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반드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동시에 그 앞잡이로 충실히 복무하는 남조선의 매국역적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자주화의 물결은 온 세계를 휩쓸고있다. 그 어떤 힘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멈춰세울수 없다.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우에 외세와 매국노가 없는 자유로운 새 사회, 통일독립된 하나의 조선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념원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반미자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로자 1982년 제9호 (루계 485호)

편집위원회

발행•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2년 9월 1일 발 행•1982년 9월 5일

ㄱ—25140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EAST ASIATIC LIBRARY
1983
UNIVERSITY OF CALIFORNIA

10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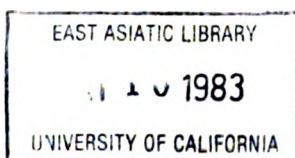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486)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조선로동당은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기치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서른일곱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당이 창건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가장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여온 자랑스러운 년대들로 빛나고있다.

이 투쟁행정에서 우리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어렵고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공산주의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향도적기치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며 영예이다.

(1)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간다.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지닌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우리 당이 수행하고있는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영광에 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가장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삼고있으며 거기에 모든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투쟁을 집중시키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활동과 투쟁에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은 이 원칙적문제들을 언제나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령도

Digitized by Google

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 원칙적문제들을 실현해나가는데 돌려지고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고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본질적요구와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제시된 정당한 방침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순결성을 영원히 옹호고수하며 우리 혁명을 오직 주체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도가 반영되여있다. 또한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땅우에 인류의 리상사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리상사회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의 공고화, 혁명전통의 계승발전, 위대한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그 완성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령도와 그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또한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만이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의 향도적력량인 당을 어떻게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수령이 창시한 혁명전통과 혁명사상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다. 당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수령이 개척한 길로 드팀없이 전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 그것은 혁명투쟁에 끊임없는 생기와 활력을 주며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원천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바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

이와 함께 수령의 혁명사상은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혁명의 운명, 그 계승완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가지 과업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하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여온 과정은 바로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로정이였다.

1970년대는 바로 우리 당의 이러한 력사적투쟁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우리 당은 이 력사적시기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

Digitized by Google

화함에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닦고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6페지)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졌다는것은 우리 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되였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그 어느때보다 튼튼히 다지지고 우리 당은 주체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가는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이 지배되였으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영원히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당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계승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은 억센 뿌리여 토대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더욱 힘찬 진군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 당의 위력과 령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만년대전이 확고히 마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가장 의의깊은 위대한 승리로 되며 전체 인민과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으로 된다.

우리 당이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강력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조선혁명은 그 어떤 풍파도 없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확고히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2)

조선로동당은 탁월한 령도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당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

Digitized by Google

가는 우리 당의 위력은 탁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에서 불면의 위훈을 창조해 나가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당의 령도에 의하여 그 승리가 확고히 마련된다.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옳은 전략과 전술이 능숙하게 활용될수 있고 대중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오늘 탁월한 령도로 우리 인민을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고있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옳바른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대중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성과 령도력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때에 내놓고 인민대중을 그 관철에로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이 정확한 로선과 투쟁구호를 내세워야 인민대중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왔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구호들에는 당이 해결하려는 전략적목표들과 과업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들이 정확히 반영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제시되자마자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데 대한 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하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당의 철석같은 의지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옳바른 방침과 투쟁구호를 제때에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앙양과 비약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비롯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적구호를 련이어 제시함으로써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시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구호들은 그 혁명성과 전투성, 과학성과 높은 호소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으며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 자연개조사업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되여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당이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인 력량인것만큼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광범한 대중의 높은 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방도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

Digitized by Google

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4페지)

대중운동은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이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혁명적 방법이다.

해방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을 발기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력한 대중적 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이끄심으로써 전인민적투쟁으로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를 창조와 변혁으로 빛내인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이 운동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직접 목표와 과업으로 제기하고 전개되는 대중적 진군운동으로서 주체위업을 전진시키고 그 완성을 다그치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개조사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러한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가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고 사회경제문화건설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혁명이 비상히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발기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을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전당적,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혁명앞에 나선 무거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우리 당의 세련된 조직력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원래 혁명은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전진과 앙양을 요구한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며 진공적으로 내미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내세워야 왕성한 의욕과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포치하고 전개하는데서 언제나 투쟁목표를 높이 세우는것을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창조와 혁신의 안목에서 보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투지로 끝까지 관철해나가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

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대중적진군운동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짐으로써 비상히 높은 목표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있다.

끊임없이 높은 목표와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비상한 조직력과 완강한 전개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우리 당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전당적으로, 전국가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가장 정확히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방침과 의도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혁명적 사업질서와 규률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며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기치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전성기가 펼쳐진 장엄한 현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이 자기들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수 있으며 오직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에만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3)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에서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지졌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4페지)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중앙위원회의 혁명적령도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만이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방침과 결전지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그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은 우리 당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의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과 두터운 신뢰에 기초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근 40년이 되는 오늘 이처럼 위대한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은 우리 당이 시대와 혁명, 력사 앞에 쌓아올린 가장 귀중한 업적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이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은 우리 당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을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기술과 설비, 자체의 원료로 생산을 빨리 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우리 당이 있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영웅적인민이 있는 이상 주체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것은 사상개조의 기본

최 장 룡

사상개조의 기본을 옳게 밝히는것은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상개조의 기본을 정확히 밝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인간개조사업을 아무런 편향과 곡절도 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것이 사상개조의 기본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사상개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었다.

론문에 의하여 혁명관을 세우는것이 사상개조의 기본이라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요 내용과 방도를 정확히 규정하고 사상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혁명관을 세우는것이 사상개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사상개조의 목적과 관련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사상개조의 목적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 있다.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속에서 혁명관을 옳게 세워야 한다.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이며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혁명관에는 혁명을 통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개척하려는 확고한 계급적의지가 관통되여있다.

혁명관이 바로서야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사람들이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게 된다.

혁명관을 세우는것이 사상개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또한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가 혁명관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는 기성된 형태로 주어지거나 일시에 형성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투쟁과정에서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에 기초하여 합법칙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혁명관은 공산주의사상정신적풍모형성의 원천이며 그의 공고발전을 위한 추동력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비롯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모든 사상정신적풍모는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서 생겨나며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워야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수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서만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170페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한다는것은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하며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의 결정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혁명에 대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혁명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혁명투쟁에서 사회의 물질경제적조건이나 혁명의 객관적정세도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의 물질경제적조건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혁명의 객관적정세를 성숙시키고 성숙된 정세를 리용하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것도 바로 인민대중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마땅히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의 혁명관은 또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원래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데로 추동하는 의지를 담고있는것만큼 혁명관에서도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뿐아니라 혁명투쟁에로 사람들을 추동하는 혁명정신이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을 동반하는것으로 하여 혁명관에서 혁명정신은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예속을 청산하고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더 말할것도 없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3대혁명도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혁명의 길에는 일시적인 실패와 우여

Digitized by Google

곡절도 있을수 있고 때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가는 강의한 투쟁정신,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견결한 혁명정신이 없이는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뿐아니라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까지 담은 혁명관이라야 참다운 혁명관으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관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게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새롭게 확립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관은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 그리고 혁명정신까지 담은 완성된 혁명관으로 될수 있게 되였다.

혁명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관의 본질, 내용과 함께 그것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요구와 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요구와 방도가 과학적으로 론증되이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은 혁명관을 옳게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수령은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올바른 길을 따라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수령관에서 최고정화를 이루게 되며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시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한데서 오는 확고한 신념이며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호해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과 신임을 뜨겁게 느낀데로부터 우러나오는 도덕의리적감정이다. 그것은 또한 당과 수령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떤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당과 수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가장 고결한 혁명적의지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을 떠나서 혁명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지 않고서는 혁명관을 옳게 세울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론문에 밝혀지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관을 바로세우자면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관은 혁명의 원리에 대한 인식과 혁명실천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혁명원리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확고한것으로 된다.

혁명의 원리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혁명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관을 바로세우는데서

Digitized by Google

나서는 선결적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와 근로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원리를 밝힌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의 원인과 본질, 혁명승리의 요인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준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고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되게 되였다. 그러므로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혁명관을 바로세우자면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혁명 사상과 리론을 원리적으로 확신할뿐아니라 그에 감정정서적으로 깊이 공감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될 때 혁명관이 확고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투쟁력사는 혁명의 진리를 리론적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지녀야 한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이며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이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또한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며 혁명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이다. 이것은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통하여 그리고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면서 인류의 최고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본성적인 투쟁정신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지니게 될 때 혁명관이 바로섰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은 혁명실천에 의하여 검증된다. 혁명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로서의 실천은 사회적실천, 혁명실천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실천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Digitized by Google

수령의 혁명사상이 구현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본분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난 혁명적실천이란 있을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혁명관이 똑바로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이다.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 것은 특히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역경에 부닥쳤을 때 진속을 드러내게 되는 법이다. 혁명에 충실할것을 다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번 다진 맹세를 끝까지 고수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각오가 되여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된 혁명가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론문에서는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학습은 혁명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체득할수 없으며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식견을 가질수 없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학습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98페지)

주체사상학습은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길을 끗끗이 걸어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파악하고 그 정당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옳게 인식하여야 높은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혁명위업에 헌신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혁명적신념으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체의 혁명관이 철저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을 체득할뿐아니라 불굴의 혁명정신을 산 모범을 통하여 심장속 깊이 간직할수 있다.

학습은 단순히 리론과 지식을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학습을 통하여 배운 혁명리론과 지식은 반드시 신념화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한두번의 학습으로 그치지 말고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여야 한다.

론문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로 되자면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생활방식이며 혁명적단련의 학교이다. 공산주의자의 중요

Digitized by Google

한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는 강한 조직성이며 공산주의운동은 선행한 모든 사회적운동과는 달리 고도로 조직화된 운동이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랄수 없고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갈수 없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생명을 받고 태여나지만 정치적생명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되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언제나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될수 있으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여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조직생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사상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낡은 사상 잔재는 보수적이고 집요하며 일반적인 호소나 구호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으며 사상개조는 하루이틀에 손쉽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은 오직 끊임없는 강한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만 철저히 극복청산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혁명적조직생활을 틀어쥐고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단련하여야 한다.

론문에는 또한 혁명관이 바로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한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혁명실천은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가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여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된다. 계급투쟁은 가장 첨예한 혁명투쟁이다. 사람들은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고 적아를 옳게 가릴줄 알게 되며 계급적원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을 키우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도 중요한 혁명투쟁이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며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혁명적풍모를 지닐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될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상개조의 기본은 혁명관을 세우는데 있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진것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상개조를 선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가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 주체의 혁명관의 본질과 내용,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요구와 방도가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사상개조에 관한 심오한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튼튼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

정 성 철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하는것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원칙적요구이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창조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자신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창조적운동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의 필요성이 뚜렷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전일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론문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혁명운동에서 언제나 확고히 지켜야 할 지도적원칙이라는것이 힘있게 론증되였으며 그것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그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일률적으로 들어맞는 행동원칙이나 고정불변한 행동방법은 있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환경과 발전하는 현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75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진행된다. 력사적시대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매개 나라에 조성된 혁명투쟁의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은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러 력사적시대를 거쳐 진행되게 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혁명의 대상과 성격이 변하게 되며 혁명앞에는 새로운 요구들이 나서게 된다. 시대적조건에 따라 각이하게 나서는 혁명의 요구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다.

혁명과 건설은 서로 다른 시대적조건에서 벌어질뿐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속에서 진행된다. 혁명은 원래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부모순에 의하여 일어난다.

매개 나라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력사적조건을 가지고있다. 민족국가들은 인류사회발전의 오랜 력사적 행정에서 이룩된 사람들의 공고한 생활단위이다. 매개 민족국가들은 언어, 령토, 풍습들에 의하여 구별될뿐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단위로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 나라마다 혁명의 발전단계와 혁명임무가 다르고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주객관적조건도 다르며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 일률적

Digitized by Google

으로 들어맞는 행동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매개 나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은 모든 문제를 시대적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혁명운동발전의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은 혁명운동자체의 요구일뿐아니라 로동계급혁명리론발전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기도 하다.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일정한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혁명이 성숙된 개별적나라의 력사적조건과 특성을 전제로 하여 나오며 발전한다. 력사적시대와 결부되여있지 않는 혁명리론이란 있을수 없으며 일정한 나라의 특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혁명리론이 창시될수 없다. 혁명리론은 일정한 나라, 일정한 시대와 관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구체적이며 력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혁명리론은 일반적으로 해당한 력사적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다. 일정한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특성을 전제로 하여 나온 공식과 명제가 다른 나라에 그대로 맞을수 없다.

시대의 요구와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나오게 되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특성과 그 구체적이며 력사적인 성격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기존공식과 명제가 아니라 산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는 혁명리론의 창조적성격을 보지 못하고 선행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모든 문제를 기존공식에 의하여 풀어나가려 할 때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피할수 없다는 심중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천명되여 있는바와 같이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옳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한다.

혁명투쟁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원칙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활동, 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옳바른 로선과 정책,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만이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할수 있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 혁명에는 그에 고유한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조건이 작용한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자기 나라의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현실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세워야 하며 자기 인민의 창조적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전술을 세워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들을 옳게 타산하지 못하면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데서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혁명의 로선과 방도를 규정하는데서는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을 기본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강화하여 혁명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혁명투쟁에 작용하는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 가운데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보고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Digitized by Google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투쟁은 주체적요인인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만 발생발전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그들의 창조적투쟁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밀고나가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요인이다.

혁명투쟁에 작용하는 객관적요인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마련되고 능동적으로 리용된다.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리용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투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것으로 개변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사회관계가 어떻게 개조변혁되여나가는가 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 지니고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그들의 창조적힘의 높이에 달려있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위는 강화되고 그들의 힘은 장성하며 또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힘이 장성할수록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것은 혁명투쟁에서 주체적요인이 기본을 이루며 따라서 혁명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주체적요인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는 또한 정치사상적요인과 경제기술적요인의 관계를 옳게 보고 처리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에는 정치사상적요인과 경제기술적요인들이 작용한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정치사상적요인은 경제기술적요인에 비하여 결정적역할을 한다.

그것은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하는것은 바로 사상의식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활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발전하며 혁명적인 정치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휘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옳은 계급적립장을 가지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강의한 의지와 투쟁력을 발휘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조직동원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정치사상적요인이 인민대중의 활동을 규제하는 바로 여기에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게 되는 리유가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경제기술적요인, 물질경제적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활동은 경제기술적요인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안받침된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의 경제기술적, 물질경제적 요인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사상적요인에 의하여 규제되는 인간활동의 창조물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경제기술적요인에 비하여 정치사상적요인이 기본을 이루며 따라서 혁명로선과 투쟁전략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데서 정치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을 기본으로 보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것을 관철해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매우 락후한 생산력을 물려받았고 그것마저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전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빛나게 실현한 우리 당의 경험은 주체적력량이 준비되고 인

Digitized by Google

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을 때에는 비록 다른 조건은 불리하여도 혁명을 주동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주었다. 지난 시기에는 공업이 농업에 현대적농기계를 충분히 대줄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조건에서만 농업협동화를 할수 있다는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되여있었다. 우리 당은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협동화를 실현하는것이 농민대중의 생활상요구로 나서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변혁을 능히 실현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농업협동화를 주동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였다. 남들이 백년 또는 수백년에 걸쳐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여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혁명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는데서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의 정당성을 산 현실로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지적되여 있는바와 같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해나가자면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성리론에 대한 교조주의적관점과 허무주의적태도를 반대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대하는 옳바른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기성리론은 선행한 력사적시대의 요구와 당대의 구체적조건을 반영하여나온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기성리론을 참고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리론의 명제나 공식이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어떤 전제밑에서 나왔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기성리론은 당시의 시대적조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리론적과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답을 준것이며 자기의 출발점으로 삼은 력사적전제에 기초하여 명제와 공식들을 내세웠다. 선행리론에 반영된 시대적요구와 그것이 출발점으로 삼은 력사적전제를 옳바로 분석하여야 기성리론이 가지는 의의를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자체의 구체적현실과 특성에 맞게 적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와 관련하여 기성리론에 력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선행기성리론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를 념두에 두고 중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거의 동시에 련속적으로 일어나 세계혁명이 빨리 승리하리라고 인정한데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비교적 짧은 력사적기간으로 보고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적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수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기성리론에 창조적으로 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게 될 때 과도기가 끝난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과도기가 끝나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속 있어야 하며 세계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출발점은 기성리론의 명제나 공식이 아니라 산 현실이다. 구체적인 혁명실천

Digitized by Google

과 산 현실에 맞지 않는 리론은 쓸모가 없다. 문제는 기성리론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해당한 력사적시기의 주객관적조건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고 주객관적조건에 맞으면 기존명제나 공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또한 혁명투쟁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투쟁의 구체적조건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리론적무기가 필요하게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지도사상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결부된 투쟁방도를 알아야 력사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새로운 력사적시대에는 혁명투쟁의 새로운 합법칙성이 작용하게 되며 선행단계에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투쟁경험들이 축적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혁명투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원리와 방도를 새롭게 탐구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더욱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이 비할바없이 심화발전되고 수많은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고있는 우리 시대는 오늘의 현실에 맞는 혁명의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원리와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천명한 우리 당의 리론활동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우리 당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수도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여놓았다. 우리 당에 의하여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공산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전략과 투쟁방침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리로운 경험은 받아들이고 필요없고 해로운 경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인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306페지)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반영한것이다. 거기에는 자기 나라에 필요하고 유익한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으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있다. 그러므로 남의 경험에 마땅히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론문에 밝혀진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험가운데서 자기에게 리로운것은 받

Digitized by Google

아들이고 그렇지 못한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남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통채로 삼킬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변형하여 받아들이는 립장을 지켜야 한다. 다른 나라의 아무리 좋은 경험과 훌륭한 성과도 자기 인민의 비위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소화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의 전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

남의 경험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될수록 자체의 경험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분석하여야 자체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옳바른 발전방향과 투쟁방도를 찾아낼수 있다.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대하는 립장은 관문주의, 배타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남의 옳은 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는 남의것을 무턱대고 본따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과학기술같은데서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과 성과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은 필요하고 유익한것이다. 문제는 어떤 립장에서 남의 경험에 대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이 반대하는것은 창조성을 잃고 남의 경험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자기 실정에 맞지 않는것까지 통채로 삼키는 교조주의적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게 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없게 한다.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이야말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하여주고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하여 모든것을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이 옳은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가며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그리고 자기 인민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고 학습하여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깊이 체득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당의 정책적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

리 주 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는것은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기때문이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혈연적뉴대로 이어지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진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로 된다.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여기에 우리 혁명이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지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입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278페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는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그것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모든 활동에서 철칙으로 된다.

광범한 군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을 이룬다. 대지에 깊이 뿌리박은 나무라야 무성하게 자랄수 있는것과 같이 자기의 확고한 군중적지반을 가진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군중을 떠난 당은 자체의 공고발전을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대중을 령도하는 당으로 될수 없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조직이다. 당의 위력은 곧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의 질적구성과 그 활동에 의하여 담보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맺고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근로대중속에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열렬히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싸울 각오가 된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당을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당이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고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력사적경험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수호할수 없고 나중에는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이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진행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광범한 대중의 힘

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그들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고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킬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한편 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바른 방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려왔다.

우리 당의 전력사는 대중과의 공고한 뉴대가 마련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자랑찬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혈연적련계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따르며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과 건설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한 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23페지)

우리 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있다는데 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 통일단결이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 통일단결은 오직 위대한 사상에 기초해서만 실현되게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는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통일과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으며 투쟁할수도 없고 전진할수도 없다는 이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투쟁의 신념이며 생활의 신조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직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말그대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맥박치는 사상의지의 통일체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와 같이 숨쉬고 생각하며 하나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련계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련계의 공고성은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해나가고있는

Digitized by Google

메 있다.

당과 인민의 련계가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억센 뉴대로 되자면 그것이 실무적인 단합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으로 련결된 혈연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하는것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인민대중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반이며 당의 옹호보위자이다.

당과 인민대중의 운명은 언제나 하나로 잇닿아있다. 당은 인민에게서 힘을 얻고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을 령도해나가며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운명을 같이하는 당과 인민사이에 맺어지는 참다운 관계이다.

당과 인민이 운명을 같이한다는것은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혁명을 완성할 때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으며 인민들은 또한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서 자기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끼고있으며 당의 손길에서 힘과 지혜를 얻으면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당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도 행복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며 인민을 떠나서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고 혁명을 이끌어나갈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련계는 이처럼 하나의 운명으로, 혈연적인 뉴대로 굳게 결속된것임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으며 그 어떤 풍파도 뚫고나가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련계는 순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혁명의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간고한 투쟁과 거창한 실천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통일단결만이 가장 진실하고 굳센것으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간고한 시련으로 가득찬 투쟁행로였다.

우리는 지난날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처지에서 새 사회, 새생활 창조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했으며 포악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과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자들과도 싸워야 했으며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고난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겹쌓인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손에 무장을 잡고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그리고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발전을 가로막으려던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에로의 생소한 길을 개척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튼튼히 이루어졌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련계는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하나의 지향, 하나의 목적에 기초하여 맺어진 련계이며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력사적투쟁속에서 더욱 공고해진 확고부동한 련계이다.

당과 인민의 이러한 공고한 혈연적련계는 우리 당의 위력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튼튼히 담보하여주는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Digitized by Google

된다.

우리 당이 오늘처럼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로 련결된 강위력한 당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인민들이 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로부터 이룩된 필연적결과이다.

우리 나라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련계가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당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같이 친근하고 자애로와야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 있고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는 주체의 관점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고있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실생활을 통하여 당의 품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로운것인가를 심장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살며 생활해나가게 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또한 인민들이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있기때문이다.

당의 기초와 대중적지반이 튼튼하자면 당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당이 위대하고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닐 때라야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비상히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고 유구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으며 세계혁명과 반제자주위업을 다그치는데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력사와 인류 앞에 쌓은 위대한 업적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오늘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향도자로 국제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위부대로 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커다란 승리와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들의 처지와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변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자신들과 후대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수 있는 혁명의 품은 오직 당의 품이며 우리 당만이 자신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 조국의 륭성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마련해주는 위대한 향도성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참으로 당의 위대성과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당과 대중을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되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는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류례없이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변혁과정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또 발휘하고있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불패의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준엄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인민대중과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로 이어져있었기에 우리 당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꺼꾸러뜨리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할수 있었으며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천리마대고조의 세찬 불길을 일으켜 100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던 원쑤들의 잠꼬대를 짓부시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세기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불패의 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에서도, 세계를 휩쓴 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해마다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데서도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도처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있는것도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이 있기때문이다.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길실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의 불패의 통일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의 빛나는 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02페지)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기치이다.

당의 권위가 높고 그 위력이 강해야 전체 인민이 언제나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처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인민의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최고의 영예로,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지고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Digitized by Google

묶어세워야 한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고 당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들은 바로 우리 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를 받아안게 되고 당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된다.

일상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직접 잇닿아있는 우리 일군들이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에 매달려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하게 되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면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대상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깊이 료해할수 있으며 그들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일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고 근로자들의 장치생활로부터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당에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굿굿이 지키고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삶과 영예를 빛내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Digitized by Google

대중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주객관적요구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대중운동형태를 제때에 발기하고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우리 당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이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운동과 민접히 결부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으며 바로 이 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정치사업의 근본핵이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1)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운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끌어나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대중운동의 목적은 광범한 대중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들의 투쟁을 조직화하고 적극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잘, 더 빨리 다그치자는데 있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투쟁형식이며 로동계급의 당이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령도방법이다. 그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대중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대중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7페지)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단결과 협조에 있다.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단결과 협조는 근로인민대중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고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하는 가장 적

Digitized by Google

극적인 대중령도방법이다.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전개하여야 광범한 군중을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대중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낡은것과 새것과의 투쟁이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투쟁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다.

대중운동은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투쟁으로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의 집단적힘에 의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는 집단주의이며 이 사회제도의 공고성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나가자면 사람들을 집단적혁신과 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별적사람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의 힘, 군중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합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대중운동은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대중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위력한 방법이라는데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그것은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히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대중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대중운동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형식이며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힘있는 대중령도방법이다.

대중운동은 이렇듯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대중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추동력이라고 하여 그 위력이 저절로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대중운동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추동력으로서의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당은 대중운동의 조직자이며 정치적령도자이다.

대중운동은 오직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것과 함께 적중한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당의 혁명적령도에 의하여서만 전인민적, 전사회적 운동으로 조직화되고 심화발전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받지 않는 대중운동은 경제실무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당이 내세운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으로 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Digitized by Google

때 이 운동이 당의 의도와 정책적 에 맞게 조직전개될수 있으며 사회 건설의 추동력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나라 서 대중운동이 발전하고 그 위력과 활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게 한 결정 요인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대중운동에 대한 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이 대중운동을 령도하는데서 그 형 를 어떻게 규정하며 어떤 구호와 목 를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대중운동 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 이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제때에 가장 옳바른 대중운동형태를 발기하고 이 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대중운동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언제나 적중한 투쟁구호와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대중운동을 령도하는데서 인간개조사업과 기술문화개조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그리하여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전군중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운동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으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94페지)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한 첫 시기부터 대중운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몸소 발기하시고 이끄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증산경쟁운동, 문맹퇴치운동은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운동의 첫 발단이였으며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을 청산하며 새 조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천리마운동은 혁명적대중운동발전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시대의 탄생을 가져온 위대한 대중적진군운동이였다.

천리마운동과 그 심화발전된 형태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첫걸음부터 혁명적대고조, 대앙양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력사적진군을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온갖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가 산산이 마사지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이룩되여 비상히 빠른 경제발전속도가 창조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위대한 비약과 변혁을 가져온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발기에 의하여 일어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

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위대한 대중운동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에서 일대 전환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이 더욱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였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의 긍정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그리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로정은 우리 당이 대중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온 자랑찬 로정이였다.

(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대중운동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상식, 전인민적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입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16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설계도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의 경제건설강령이다.

여기에는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전진시키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이 펼쳐준 휘황한 설계도와 당의 웅대한 구상은 보통의 전진속도가 아니라 그전에 비하여 몇배나 더 빠른 속도, 천리마에 속도전의 위력을 가한 높은 속도를 창조함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80년대속도》는 바로 당이 펼쳐놓은 웅대한 목표를 가장 짧은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전례없는 비약의 속도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이러한 높은 속도는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창조될수 있다.

우리 당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발기하고 그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방침은 대중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

Digitized by Google

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우월한 대중운동형태이다.

이 운동들에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본질적요구와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한다.

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상히 빠른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람과의 사업,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야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거창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를 높이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한다.

경험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사상혁명을 다그쳐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 근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중운동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이 높아지게 되고 온 사회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된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이 없이는 현대과학기술에 토대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대중자신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이 운동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갈 때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할수 있으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경험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운동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일군들의 전투조직과 생산지휘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실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당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중운동을 통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확증

Digitized by Google

해주고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과업이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80년대속도》는 오직 대중적운동을 광범히 벌리는 과정에서만 이룩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만 대중적투쟁으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올수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숨은 영웅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로 살며 싸워나감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서 승리의 근본열쇠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대중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군중의 혁명적열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대중운동에 대한 당의 옳바른 정치적지도가 없이는 이 운동이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성과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없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지도밑에 조직전개되는 운동인것만큼 당조직들은 응당 이 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사업과 밀착시키고 그것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언제나 당조직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실속있게 벌어지도록 하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운동의 담당자는 바로 인민대중이며 그들이 어떻게 발동되는가 하는데 따라 이 운동의 성과가 좌우된다. 인민대중이 이 운동을 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대중운동은 참말로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똑똑히 알고 높은 혁명적 열의와 자각을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대중운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김 태 복

지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당조직들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요구가 나서고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와 성과를 위한 기본요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데 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7페지)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주인이며 담당자인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발동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업도 수행할수 없으며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기 위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은 바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통제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의 활동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발현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의 역할인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국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사상을 적극 발동하면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함으로써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이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Digitized by Google

기본열쇠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는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며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의 사상을 움직일 때에만 높이 발양되게 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지도기관이다. 대중의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지혜를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때만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될수 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당의 방침이 정당하며 그 수행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는 조건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는 당위원회들이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데 달려있다.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오늘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요구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확립하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2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이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을 접수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조직진행하는것이다.

당정책을 접수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 가지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이 참말로 당과 수령께 충실한 혁명가이다.

당조직들은 당경제정책집행과정을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과정으로서가 아니

Digitized by Google

라 철두철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고 충성의 열도를 검열받는 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은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실천투쟁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이다.

자력갱생은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보며 남의 힘에 의존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할수 없으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갈수 없다.

오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따라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현시기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저히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자재로 생산과 건설을 해나가는 확고한 주체적인 립장을 가지고 사업하며 생활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항일혈전의 나날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를 족치던 그 정신으로, 천리마대고조의 나날 빈터우에서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불사조와 같이 일어서 도처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던 그 투지로 그리고 19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나날에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전진하던 그 기풍으로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누가 조건을 유리하게 마련해줄것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나간다는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깡그리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대중운동을 옳게 조직하고 정확히 이끌어나가야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에 의하여 발기되고 령도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당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목표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실천목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뚜렷이 세우고 그것이 정확히 실현되도록 옳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그것이 총의적과정으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우리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전개되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갈 때에만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정치사업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창조적사업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야 광범한 대중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우월하고 위력한 대중정치사업방법이다. 경제선동은 강한 전투성과 호소성,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구두선동과 직관선동, 예술선동과 같은 여러가지 선동형식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조성된 정황과 계기에 맞게 대중이 직접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진행되기때문에 정치사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게 한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당의 목소리가 전투장마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게 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고무추동하여 모든 단위, 모든 초소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할수 있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명

Digitized by Google

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을 통한 감화교양은 대중을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기 위한 정치사업의 중요한 형식이며 방법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훌륭한 모범들과 영웅적위훈들이 수많이 창조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창조되고있는 긍정적모범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대중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발기들과 기적적인 성과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조장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모범적인 사실들, 《80년대속도》창조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들과 위훈의 창조자들을 적극 찾아내어 내세워주고 제때에 소개선전하며 널리 일반화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이 당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관철되고있는 현실에 침투하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할수 있고 정확한 대책과 방도를 세울수 있으며 대중을 새로운 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지휘관들처럼 직접 아래에 내려가 대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돌격전이 벌어지는 용해장과 지하막장 그리고 흙냄새 풍기는 포전에서 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언제나 혁명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의 교양자이며 정치사업은 일군들의 본분이다. 모든 일군들이 선전원이 되고 선동원이 되여 대중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과업수행에서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며 정치사업을 하면 그만큼 혁명과업수행에서 성과가 오를수 있게 실속있는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한사람을 만나 교양하여도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번의 정치사업을 하여도 그것이 대중의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게 하고 소문난 혁신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새로운 대고조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진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재포치함으로써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명확한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해주고 분공조직사업을 정확히 하며 사업을 포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포치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중도반단됨이 없이 끝까지 철저히 관철되여 빛나는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은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심도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요구하는 거창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지금보다 몇배나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해야 한다.

올해는 벌써 제2차7개년계획수행의 다섯번째해이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진속도를 더욱 높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야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더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대고조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고 당의 령도따라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와 영웅적기상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인다는것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역할을 다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4권, 17페지)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바로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집행되며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쟁도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조직지휘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경제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당경제정책을 어떻게 관철하며 경제건설을 얼마나 빨리 다그쳐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은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현실은 빨리 발전하는 부문과 단위들에서 요구하는 원료, 자재를 보장해주는 사업을 비롯하여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고있다. 이 모든 사업을 제때에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여 생산과 건설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직접적담당자, 당사자는 다름아닌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이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생산과정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실천에서 제기되는 긴박한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경제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려주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다

Digitized by Google

같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오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경제지도일군들의 충실성은 곧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책임성을 높이 발휘하여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타난다.

당은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을 굳게 믿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주었으며 생산을 지도하고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나라를 부강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영예로운 임무를 맡겨주었다. 생산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앞에 나서고있는 기본임무이다. 따라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의 충실성은 마땅히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에서 나타나야 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 말은 적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경제지도일군이 곧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일군이며 책임성이 강한 일군이다.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경제지도일군은 바로 이런 일군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는것은 실천이 확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천리마속도》, 《비날론속도》, 《평양속도》를 련이어 창조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했기때문이며 1970년대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할수 있은것도 결국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의 적극적인 조직자, 철저한 집행자로서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갔기때문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책임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적극적인 조직자, 철저한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흠점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236페지)

당경제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당경제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일군만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사업의욕을 가지고 무비의 완강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 당에서 주는 임무에 대해서는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며 조건이 유리한것과 불리한것,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가리

Digitized by Google

지 말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방침, 특히 자기 부문사업과 관련한 당경제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조직자,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은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며 당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자각이 없으면 제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게 되며 당경제정책관철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사업할 때에라야만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제기된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정책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을 가지는것이다.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과 불리한 조건에 부닥칠수도 있고 예견치 않았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일군들이 당경제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때에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일해나간다면 그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면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능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은 대단하며 그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주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것이다.

주선을 옳게 틀어쥐고 거기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하나씩 모가나게 해제껴야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여러가지 복잡한 경제과업들이 제기된다고 하여 이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줴버리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놓치며 일을 벌려만 놓고 끝을 맺지 않는다면 그 어느 혁명과업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사업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려야 하며 한가지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련이어 새로운 과업을 포치하고 그것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조직자,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데 따라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커다란 예비는 바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6페지)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실속있게 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일군들이 모든것을 치밀하게 타산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당경제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머리를 써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드는 여기에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언제나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산실태와 설비상태, 기업관리정형을 손금보듯이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계획화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자재보장 사업을 비롯한 기업관리의 전반 공정들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특히 분공을 잘 조직하고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재포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경제과업들이 다 훌륭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또한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생산지휘를 기동적으로 따라세워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목표를 높이 내걸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 언제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당의 의도와 요구를 제때에 알고 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잘할수 있으며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당조직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당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조직집행자,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경제지도일군들의 임무는 실로 무겁고도 중대하며 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책임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당경제정책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속도문제

오 형 일

지금 온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생산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리론과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친다는것은 곧 경제발전속도, 생산장성속도를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성과들은 중요하게 경제발전속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발전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 빨리 쌓아나갈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속도, 생산장성속도는 일정한 기간, 보통은 한해를 단위로 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을 어느 정도로 늘이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발전속도문제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이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속도는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독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속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할뿐아니라 주기적으로 떨어지는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속도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실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300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발전속도의

Digitized by Google

근본특징은 그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비상히 높은 속도일뿐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높은 속도라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는 복구기와 개건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 규모가 비상히 커진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속도는 기준년도에 비하여 물질적부의 생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반영하는것만큼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같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려 해도 그 규모가 작을 때에 비하여 한해에 량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 생산의 목적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그 발전속도를 계속 높이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며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조직화된 계획경제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오직 계획적으로만 진행되며 전사회적규모에서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리용된다. 이것은 곧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또한 생산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유지할수 있게 한다. 균형을 옳게 보장하는것은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균형을 잘 보장하여야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려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계속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바로 경제생활전반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인민경제의 균형도 객관적현실에 맞게 미리 설정할수 있으며 나라의 생산잠재력과 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균형의 적극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지어주는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더 많아진다. 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은 더욱 강화되며 일군들의 경제관리수준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여지며 축적에 돌릴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곧 경제의 규모가 커져도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것은 또한 기술이 비약적으로 빨리 발전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산의 장성은 중요하게 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로력만 늘이려 해서는 생산을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없다.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자본가들의 《영업비밀》과 같이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경제적요인들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

리 발전시켜나간다. 기술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생산능률이 더욱 높아지며 생산이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것은 특히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휘하여 일한다는데 있다.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생산과정에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물질적수단이 아니라 그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이며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바로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상혁명이 강화될수록 높아진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계속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을 강화하면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빨리 없어지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나며 따라서 경제가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의 규모가 커져도 생산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의 정당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은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방침에 의하여 더욱 발전풍부화되였다.

경제가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합법칙성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그것이 저절로 실현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그에 맞는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에 의하여서만 확고히 보장된다. 옳은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이 있어야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은 바로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속도전의 이러한 요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드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속도전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립장으로 일관된 적극적인 전투형식,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인것으로 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속도전의 방침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다.

이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형식과 사업전개원칙을 제

Digitized by Google

시하고 그것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우리 당의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주체적인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왔으며 또 전진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2권, 292페지)

전후 재더미우에서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기까지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시위한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뚜렷이 확증해준 빛나는 로정이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기초건설에 들어서던 시기 나라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방대한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나섰으나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그때는 아직 어려웠다. 게다가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실로 당시의 형편은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천리마운동의 첫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갔으며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킨 《천리마속도》, 《비날론속도》, 《평양속도》와 같은 비약적인 속도를 창조하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시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남들이 응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전후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가 매우 복잡하고 밀접해진 최근년간에도 확고히 견지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진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였다.

우리 당은 이 장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통이 크게 작전하면서 대중을 새로운 고조, 속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를 위훈으로 빛내이는 새로운 높은 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방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4년 8개월에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 결과 1960년대에 매해 평

균 12.8%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던 우리 나라의 공업생산은 1970년대에 와서는 해마다 15.9%라는 더욱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던 1970년대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80년대에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긴장한 투쟁을 벌려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63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는것을 1980년대에 우리 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창광거리와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한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새로운 높은 속도를 창조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그 발단을 열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대고조력사의 자랑찬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빨리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규모와 폭에 있어서 전례없이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는데 있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창조한 경제발전속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며 공업화의 성과들을 보다 공고히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과정에 이룩된 끊임없는 높은 속도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기술적 조건을 마련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80년대속도》창조투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높은 속도를 창조하여 경제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닦던 때와는 달리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다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

Digitized by Google

한 물질기술적담보를 가지고있다.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바로 이러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이 심화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생산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매우 거창한 사업이다. 바로 여기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근본특징의 하나가 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그것이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진행되고있는데 있다.

지금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졌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보다 높이 발양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혁명적인민에 의하여 진행되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그 어느 년대의 경제건설투쟁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더욱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에 기초하고있는 새로운 높은 형태의 투쟁이며 바로 이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의 전통을 빛내이고 당이 제시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방도는 이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대중적운동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의 방침을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더욱 적극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다그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시대를 앞당겨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는 체계적으로 남조선을 완전 식민지로 만든 장본인

한 웅 식

지금 미제는 철면피하게도 남조선을 그 무슨 《독립국가》인것처럼 내세우면서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세계인민들을 우롱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이제 더는 지탱하기 어려운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더러운 종말을 고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력사적사실은 남조선이 《독립국가》인것이 아니라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현대식민지의 전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

미제는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체계적으로 식민지화하여온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식민주의자이다.

제국주의는 본성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생명선으로 한다. 식민지의 본질적특징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우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예속되여있으며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성 및 군사적통수권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식민지가 제국주의의 생명선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제국주의를 위한 자본투하지, 상품판매시장, 원료원천지 및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논다는데 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오랜 침략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5년에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기의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50페지)

미제는 이미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술책을 다하여왔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오랜 침략계획은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섰다. 해방직후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야망은 당장 전조선을 지배할수 없는 조건에서 남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집중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완전식민지화는 무엇보다도 강도적인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남의 나라의 령토를 무력으로 강점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목적과 팽창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적용해오던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침략수법이다. 미제는 승냥이의 본성을 가지고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해방자》의 탈을 쓰고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기여들었다.

미제침략군이 일제가 패망하고 남조선이 해방된지 근 한달이 되는 때에야 인천에 기여들었다는 사실은 미제야말로 《해방자》인것이 아니라 철저한 침략자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독립》이 아니라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씌우기 위하여 기여든 가장 흉악한 식민주의자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강도적인 《포고》문을 공포함으로써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일시에 틀어쥐고 앞으로 남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해나갈수 있는 전제와 기초를 마련하였

Digitized by Google

던것이다.

이와 함께 미제는 군정을 설치하고 그에 의거하여 식민지통치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구축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다른 나라의 식민지화는 그 나라 령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함께 식민지통치를 위한 정치, 경제적 지반의 구축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한다. 식민지통치는 종주국독점자본의 계급적지배를 다른 나라에 연장하고 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철저한 예속과 억압,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서 그를 위한 통치지반구축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린다.

더우기 미제는 장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일제때와 같은 공공연한 직접적인 통치방법이 아니라 은폐된 간접적인 통치방법에 의거하는 길을 택하였던것만큼 그를 위한 통치지반을 구축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미제는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의 설치를 발표하고 군사점령제도를 세움으로써 일제때의 《총독부》와 같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조작하였다. 미군정의 침략적본질은 일제총독을 대신한 미군정장관 아놀드가 《전 조선총독이 가졌던 직권과 권리를 나자신 즉 군정장관 아놀드가 장악한다》고 선언한 사실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미제는 군정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식민지통치를 감행하는 한편 식민지통치의 《안정된》 정치, 경제적 지반을 마련하기 위한 책동에 적극 달라붙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먼저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민주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반동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정치적지반을 닦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미강점군사령관이였던 하지는 《주권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통치권은 우리 《미군정》에 있으니 인민위원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자주적인 정권인 인민위원회들이 놈들의 탄압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키는것과 함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해나선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애국적민주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민주주의적인 신문들과 출판물들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민주력량을 탄압약화시키기 위한 미군정의 야만적인 테로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2.7구국투쟁, 4.3제주도인민봉기, 5.10망국《단선》반대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을 중무장한 군사인원까지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미군정은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탄압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반동들을 규합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군정기간을 통하여 일제때의 친일분자들과 경찰특무들을 규합하고 이들을 친미주구로 변생시켰으며 친미, 친일적인 악질반동들과 민족반역자들로 《한국민주당》이나 《대한독립청년단》, 《서북청년회》와 같은 반동적인 정당, 단체들을 조작케 하고 이것들을 리용하여 반동들을 적극 규합하였으며 친미주구인 매국역적 리승만을 끌어들여 그 괴수로 군림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의 정치적지반과 함께 경제적지반도 하나하나 구축해나갔다.

미제는 일제가 우리 인민들로부터 강탈한 재산을 《적산》이라는 명목밑에 마구 략탈해냄으로써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였다. 미제가 략탈한 《적산》은 당시 남조선주식회사 총자본의 91%와 남조선총재산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의것이였으며 그것은 남조선경제생활의 전반적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는 《적산》과 함께 침략적인 《원조》를 통하여 잉여상품과 잉여농산물, 낡은 시설과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투입시킴으로써 민족산업을 전면적으로 파탄시키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하루도 제대로 움직일수 없게 철저히 예속시켰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적통치의 요구에 맞게 사회경제적관계를 더러 다시 편성함으로써 식민지통치의 지주로 삼을 매판자본을 적극 육성하였으며 봉건지주를 비호하였다.

미제는 군정에 의거하여 파쑈적인 탄압과 강도적인 략탈로 식민지통치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구축함으로써 장차 남조선에서 보다 은폐된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적 및 물질적 준비를 계통적으로 다져나갔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을 완전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신식민주의적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다른 나라의 식민지화는 령토적강점과 통치지반의 구축으로써는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다. 그것은 령토적강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치지반을 구축하고 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만 비로소 완성되게 되는것이다.

미제는 군정을 《대한민국정부》의 간판으로 바꾸어달고 신식민주의적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보다 은폐된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하는데로 나아갔다.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이미 군정통치의 첫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여왔다.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1945년말에 벌써 《…조선남반부에는 곧 단독적인 〈정부〉가 수립되여야》한다고 하면서 괴뢰정부의 조작을 시사하였다.

교활한 미제는 1946년 2월 매국역적 리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의원》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시초였다. 미제는 《민주의원》을 조작한데 뒤이어 1947년에는 《남조선과도정부》를 조작함으로써 괴뢰정권을 꾸미기 위한 준비를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놓았다.

그러나 교활한 미제는 식민주의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그것을 직접 발족시키지 않고 유엔을 괴뢰정권의 산파로 리용하였다.

조선은 전패국이 아니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철저한 민족내정문제인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조선문제를 토의조정하며 그것을 해결하는데 개입하거나 간섭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갔으며 제놈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1948년 5월 10일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망국《단선》을 날조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전역을 계엄상태에 몰아넣고 인민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투표장》에 내몰았으며 리승만역적과 같은 선거구에서 립후보한 최아무개를 불법체포하여 학살함으로써 리승만역적을 무투표당선시키는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미제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사기협잡과 음모적인 방법으로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미제는 괴뢰정권을 조작한 이후 그의 《요청》이라는 명목밑에 남조선괴뢰들과 《한미군사협정》과 《한미경제원조협정》을 비롯한 각종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법》적인 외피를 쓰면서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더욱더 깊이 틀어쥐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통치체제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남조선에 괴뢰정권이 조작되고 신식민주의적통치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

Digitized by Google

로 굳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분렬은 더욱더 심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미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기어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체계적으로 식민지화하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는 장본인이다.

2

미제는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남조선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인 통치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선전하며 자신을 〈원조자〉로 묘사하고있으나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통치자는 바로 미국침략자들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20권, 454폐지)

미제가 감행하여온 체계적인 식민지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도 《독립국가》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제가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통치하는 철저한 식민지이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에 놓여있으며 여기에서는 독립국가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점령군밑에 있는 완전한 식민지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점령군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가 독립국가인가 식민지인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징표의 하나로 된다.

점령군은 다른 나라 령토를 강점하고 이 지역에서 군사전략적임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4만여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미제침략군이 있다. 남조선에 있는 미군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전횡을 부리고있는 철저한 침략군이다.

남조선의 실권자는 미제의 점령군사령관인 《한미련합군사령관》놈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놈이다. 이놈들이 미국지배층의 우두머리들과 모의하여 괴뢰대통령과 《장, 차관》 및 기타 《요직》들을 계통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와 간섭을 실현하고있다. 이것은 마치도 일제의 괴뢰《만주국》에서 《관동군사령관》이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던것과 같은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을뿐아니라 군사적통수권도 완전히 장악하고있다.

자주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군사적통수권을 쥐고있는것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자위적인 민족군대를 가져야 하며 군대의 통수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있어야 한다.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나라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또 그러한 군대는 진정한 민족의 군대라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70여만을 헤아리는 괴뢰군이 있다.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괴뢰군을 이른바 《독립국가의 군대》인것처럼 분장시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국군》은 민족의 군대도 아니며 그에 대한 통수권은 미제가 틀어쥐고있다.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하는것은 괴뢰대통령인것이 아니라 《한미련합군사령관》이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에 기초하여 괴뢰군의 작전지휘권을 비롯하여 인사행정권과 병참보급권 및 기타 훈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철저히 틀어쥐고 괴뢰군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철저히 복종시키고있다.

미제는 1948년 8월의 《한미잠정군사

Digitized by Google

협정》과 1950년 1월의 《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 1950년 7월의 《대전협정》과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하여 괴뢰륙해공군의 작전지휘권과 부대편성 및 장비리용권까지 다 틀어쥐였다.

미제는 각종 예속적인 《조약》과 함께 《한미련합군사령부》를 통하여 괴뢰군의 통수권을 직접 행사하고있다. 교활한 미제는 저들의 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마치도 《대등관계》에 있는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한미련합군사령부》의 구성에 괴뢰군장교들도 참가시키고있으나 그 《사령관》과 《참모장》 그리고 작전, 군수, 기획 등 참모부서의 요직은 저들이 차지함으로써 《사령부》의 실권을 틀어쥐고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직접 행사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한미군사위원회》와 《주한미군사지원단》과 같은 지배기구들과 《군사원조》를 통하여 괴뢰군의 조직과 규모, 작전과 장비, 보급과 훈련 등을 조절통제하고있다.

남조선의 이른바 《헌법》에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씌여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명색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남조선에서 괴뢰국방부는 물론 괴뢰대통령까지도 미점령군사령관의 승인이 없이는 괴뢰군부대를 움직일수 없으며 훈련도 못시키고 탄알 한알, 휘발유 한방울조차 제마음대로 쓸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여있는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에는 정치적자주성이 없으며 남조선의 모든 정치생활은 철저하게 미제의 지배와 간섭 밑에 놓여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나라의 완전독립을 보장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자주적인 정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 자주적인 정권이 있어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남조선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정치적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히우고 아무런 독자성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에는 《행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으며 《사법기관》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세워진 자주적인 정권인것이 아니라 미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작되고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허수아비정권이다.

남조선에서 력대괴뢰정권의 조작과 교체는 전적으로 미제의 각본과 지휘 밑에 이루어졌다. 해방후 친미반동분자인 리승만을 끌어들여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혔다가 《하야》시킨것도 미제였고 4.19이후 미중앙정보국의 오랜 특무인 박정희를 파쑈독재의 우두머리로 올려앉혔다가 제거한것도 미제였으며 《10월사건》이후 친미특등주구인 군사깡패 전두환을 《청와대》의 주인으로 올려앉힌것도 다름아닌 미제이다.

이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이였던 존 알렌 덜레스는 《5.16군사정변》과 관련하여 《내가 재임중 미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에서 제일 성공한것은 한국의 군사혁명이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력대 남조선괴뢰정권의 조작과 교체의 조종자였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실례이다.

부르죠아정치의 최고《권좌》라고 하는 《대통령》하나 제마음대로 고를수 없고 그 임면권조차 행사할수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는 남조선을 어떻게 《독립국가》이라고 하겠는가.

파쑈독재의 《권좌》에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들이 들어앉아있으니 이 《정

Digitized by Google

권>의 대내외정책이 미제의 지령에 따라 작성되고 그 모든 정책들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이나 《한미련합군사령부》와 같은 현지지배기구의 통제와 감시 밑에 집행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한것이다.

남조선괴뢰들에게는 아무런 자주성도 없고 그 어떤 독자성도 없다. 그들은 미국놈들이 하라는대로만 하고있는 허수아비들이다.

미제는 괴뢰정권에 들여앉힌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들과 맺은 60여종의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간섭을 실현하고있다.

미국의 《워싱톤 포스트》지는 남조선의 《정부》와 《국회》를 가리켜 《미국의 지배하에서 그 어떤 독립성이 있는듯이 꾸미려는 기만적허상》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괴뢰정부가 전적으로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괴뢰정권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는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생활전반을 제놈들의 침략적의사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있는것이다.

남조선은 경제적으로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예속되여있으며 아무런 자립성도 못가지고있는 미제의 완전한 경제적식민지이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게 된다.

남조선은 자주독립국가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경제적자립성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의존하고 얽매여있는 전형적인 식민지경제이다.

남조선경제는 미제에 의하여 자체로써 생산순환을 완결하는 그 어떤 《독자성》을 가진 경제인것처럼 분장되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적환절들에서 철두철미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는 식민지하청경제이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자금과 기술면에서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남조선경제는 투자재원의 40%이상을 미국과 일본등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차관》과 《직접투자》에 의거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관영기업》이라고 하는 《대한전력주식회사》와 《포항제철주식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들은 각각 자기자산의 70~80%이상에 해당하는 《차관》을 끌어들여서야 기업을 운영할수 있는 형편에 놓여있다.

외자를 마구 끌어들이는데로부터 남조선괴뢰들의 《외채》는 1981년말현재 무려 350여억딸라나 되였으며 1986년에는 그것이 645억딸라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경제가 외래독점자본에 자금적으로 얼마나 깊이 얽매여있는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조선경제는 자금만이 아니라 기술과 설비면에서도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괴뢰들은 요구되는 설비의 약 80%와 기술의 100%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자금과 기술뿐아니라 총원자재의 근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와 원면, 원모, 철광석과 파고철 등은 총소요량의 80~100%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끌어들이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는 석유를 기본으로 하는 연료, 동력 체계를 세워놓고 원유공급권을 장악함으로써 남조선의 연료, 동력 부문과 석유화학 및 교통운수 부문을 완전히 예속시키고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공업원료뿐아니라 식량도 그 40%이상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끌어들이는 잉여량곡에 의존하고있다. 미제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무려 800

Digitized by Google

여만톤의 알곡을 수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량정전반을 규제하고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실현하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시장도 남조선내부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주로 의존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상품류통총액의 70%는 해외시장을 통하여 실현되고있으며 수출무역의 70%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여있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경제는 이른바 《수출주도형경제》로 더욱더 기형화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미제에 의한 경제의 군사화책동이 심화됨으로써 경제가 더욱더 기형적이며 편파적인것으로 되여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최근 10년동안에만 하여도 괴뢰정부예산에서 군사비지출이 20배이상으로 늘어남으로써 민수산업은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무리로 파산되는 반면에 군수공업과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부문들은 일면적으로 확대되였다.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오늘과 같은 대외의존적인 예속경제로 전락시켰을뿐아니라 그를 장악지배하고있는 실제적인 《주인》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는 《원조》와 《차관》, 시장과 원료를 통하여 경제적지배와 간섭을 실현하고있으며 매판자본을 앞잡이로 틀어쥐고 경제생활전반을 저들의 침략적 및 략탈적 목적에 복종시키고있다.

미제는 《주한미국제개발국》과 《한미공동투자위원회》, 《한미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현지지배기구들을 통해서도 괴뢰정부의 경제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좌지우지하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장악통제하고있다.

미제는 국가독점자본수출과 함께 자기 나라의 사독점자본과 저들의 손아래동맹자인 일본독점자본을 《합작》 및 《단독》 투자의 형태로 침투시킴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직접 장악지배하게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국의 석유독점체들인 칼텍스, 유니온, 엑손 등은 정유공업을, 화학독점체인 다우케미칼 에스켄리는 비료 및 폭약 공업을, 기계독점체들인 제네랄엘렉트리크, 제네랄모터스 등은 전자, 자동차 및 기계공업을 각각 지배하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이 아무런 자립성도 못가지고있는 미국의 완전한 경제적식민지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참으로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예속되여있는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놈과 《한미련합군사령관》놈은 남조선현지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행사하는 식민지《총독》이다.

3

남조선을 완전식민지로 전락시킨 미제는 오늘도 계속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하여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려고 꾀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96페지)

지금까지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켜온 미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저들의 점령군을 계속 철수시키지 않고있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려 하는 한 그 군사침략의 담보인 저들의 점령군을 식민지로부터 절대로 철수시키지 않는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가 그러했고 파쑈독일이 그러했다.

Digitized by Google

미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강점한지 3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온갖 교활한 술책을 다 써가면서 저들의 점령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키지 않고있다.

미제는 지난 40년대에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강점을 합법화하는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미제는 1947년에 유엔총회에서 조선으로부터 쏘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할데 대한 정당한 안이 제기되자 저들에게 예속된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거부하여버렸으며 괴뢰정권이 조작된 이후에는 유엔총회에 남조선괴뢰들을 조선인민의 《대표》로 가장시켜 참가시키고 그들이 《요청》한다는 구실밑에 미군의 남조선장기강점을 《합법화》하는 《결의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철면피한 술책으로 저들의 점령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켰던것이다.

정전후 우리 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근원을 없애며 항구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미제는 정전직후인 1953년 10월에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함으로써 미점령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그 이듬해에 있은 제네바회의때에는 《우리는 조선에 와서 몇십만명의 희생을 냈는데 어찌 조선을 거저 내놓겠는가, 우리는 조선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승냥이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계속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는 가장 흉악한 날강도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1960년대이후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이 더욱더 힘차게 벌어지게 됨에 따라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술책에 매여달렸다. 미제는 종래와는 달리 남조선괴뢰들이 《요청》한다는것을 더욱더 앞에 내세우고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과 이른바 《힘의 균형》과 《공약리행》, 《미국의 국가적리익》 등을 운운하면서 저들의 침략무력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해나서고 있다. 미제가 떠들고있는 그 무슨 《요청》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제상전이 없이는 단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친미사대매국노인 전두환과 쓰악당과 같은 역적들의 《요청》이다.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있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으며 그들은 침략과 략탈, 불행과 고통의 원흉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부산과 광주에서 있은 《미국문화원》에 대한 방화투쟁, 강원대학교에서 있은 미국성조기소각투쟁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그 무슨 《요청》이요 뭐요 하면서 저들의 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냥 눌러두려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도전인것이다.

미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남조선에 대한 오랜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하면서도 저들의 더러운 침략적야욕으로부터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은 계속 철수시키지 않고있다.

미제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정당한 결의가 채택되자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은 《유엔군》이 아니라 그 무슨 《조약》에 의해 남아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유엔의 결의를 계속 리행하지 않고있다.

지금까지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합리화》해왔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16개 나라의 침략무력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였던 미제가 오늘은 유엔총회의 일치한 결의조차 리행하지 않고있으니 이 얼마나 낯가죽이 두터운 날강도인가. 미제의

강도적승냥이 본성은 바로 이렇다. 제놈들에게 유리할 때에는 유엔의 간판을 내들고 불리할 때에는 그것을 내던지는 미제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행위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데 이골이 난 미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행위인것이다.

미제는 침략무력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무슨 《담보》를 운운하면서도 그 확고한 담보로 되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평화협정체결제안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러한 대답도 하지 않고 저들의 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두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떠들고있는 《담보》요, 《요청》이요 하는것들은 다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저들의 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두려 하고있는 진짜의도는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영구히 틀어쥐기 위한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에서 파쑈통치를 강화하면서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파쑈화는 사회에 대한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수단이며 침략과 전쟁은 그들의 기본생존방식이다.

미제는 오늘 남조선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야만적인 파쑈통치를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남조선의 력대괴뢰정권은 미국이 쥐여준 총칼을 가지고 미제가 지시하는대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요구해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이 벌린 영웅적 4.19인민봉기를 무참히 탄압한데 뒤이어 1961년 5월에는 날로 심각화되는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포악한 군사파쑈독재를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의 3.24, 6.3 봉기를 비롯한 의로운 애국투쟁을 잔인무도하게 탄압하였으며 항쟁의 거리를 애국적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하였다.

미제는 1970년대에 들어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자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이른바 《10월유신》을 단행케 하고 남조선전역에서 파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아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10월유신》이후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렸으며 1979년 10월의 부산, 마산 폭동과 같은 적극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로 몰아넣었다.

이에 당황한 미제는 선손을 써서 박정희역적을 제거하고 《유신》독재를 훨씬 릉가하는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조작해내여 영웅적광주인민봉기를 잔인무도하게 탄압한것과 같은 횡포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해보려고 하고있다.

미제는 파쑈통치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다.

놈들이 떠드는 《남침위협》은 전적으로 저들의 《북침》준비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조선에서 《남침위협》이란 있은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우리를 적으로 가상한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면서 새 전쟁 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기 위하여 파쑈폭압과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Digitized by Google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현시기 미제의 대조선전략의 기본으로 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놈들은 갖은 음모와 술책을 다하고있다.

원래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통치에서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일체 통일론의를 독점물로 만들고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파쑈악법과 폭압기구를 발동하여 가차없이 검거투옥학살하였다. 한편 미제는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세상에 공포한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인 7.4남북공동성명을 하나의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공동성명의 리행을 한사코 반대하도록 하였다.

미제는 국제무대에서도 《유엔동시가입안》과 《교차승인안》, 《4자회담》과 《6자회담》과 같은 분렬주의적술책을 들고나와 일본반동들을 비롯한 저들의 추종국가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합법화》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미제는 남조선을 그 무슨 《독립국가》인것처럼 분장시켜놓고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 열로당로않는 분렬주의적인 술책을 들고나오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있다.

범죄적인 《두개 조선》전략에 매여달려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려는 책동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 더러운 침략적야망의 산물이다.

참으로 미제는 남조선에 저들의 점령군을 계속 강점시켜놓고 군사파쑈통치와 나라의 영구분렬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는 조선인민의 가장 극악한 원수이다.

* *

오늘 남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미제에게 철저히 예속된 완전한 식민지이다.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완전식민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벌써 오래전에 자주와 민주의 소원을 성취하였을것이며 조선의 통일은 이룩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현시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쫓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자주와 민주를 요구하며 통일을 갈망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며 남조선전역으로 확대되게 하여야 한다. 자주와 민주, 통일의 념원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의 기치아래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때 남조선사회의 참다운 발전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열려지게 될것이다.

미제의 침략과 분렬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며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

명 창 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민족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반제자주위업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9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선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이 대외관계분야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옳바른 전략적로선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며 그것은 세계혁명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면서 발전한다. 세계적범위에서 변화되는 력량관계와 정치정세는 개별적나라들의 혁명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매개 나라에서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다. 그 어떤 조건이나 힘도 주체적력량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은 국제혁명력량이 강화되고 그와의 련대성이 튼튼해질 때 더욱 위력해지며 혁명의 승리도 빨리 이룩될수 있다.

더우기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국제적으로 결탁된 반혁명을 성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해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제국주의세력은 그 반동적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언제나 국제적으로 긴밀히 결탁되여있다.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에 대한 봉쇄와 고립, 각개격파전략은 반혁명세력이 의거하고있는 상투적수법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력량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이룩하여야 자체의 고립성을 피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성과적으로 수호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제국주의의 반혁명적책동을 짓부시고 우세한 힘으로 혁명을 계속 밀고나갈수 있다.

따라서 매개 나라 혁명력량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은 민족적범위에서나 국제적범위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여준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적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온 사회

Digitized by Google

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 많이 늘이면 늘일수록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게 될것이며 우리 혁명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는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될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은 또한 우리 인민이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전세계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이다.

물론 매개 나라는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잘하는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매개 나라 혁명력량이 자기앞에 부여된 국제적의무를 다하는것으로 될수 없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것과 함께 세계의 다른 혁명력량과의 긴밀한 국제적련대성의 뉴대를 맺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세계혁명발전을 위한 공동의 위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매개 나라의 혁명력량은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할수 있다.

만일 개별적나라들이 민족적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 세계혁명의 운명에 대하여 외면한다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세계혁명에도 기여할수 없게 된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게 벌어지고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관범히 참가하고있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력사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전선에 결합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서로 지지성원하는 관계에 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시대발전의 이러한 추세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이 전투적련대성을 이룩해나갈 때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해버릴수 있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로선에는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는 동시에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

Digitized by Google

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91페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로선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인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에 집대성되여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은 바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더욱 튼튼히 지키며 지구상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자주의 새세계를 건설하자는데 있다.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 대다수의 나라와 민족들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가지고 호상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국제적련대성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혁명하는 나라들의 국제적련대성이 참말로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되고 그것이 매개 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게 되며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이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세계의 광범한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허물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는것은 바로 대외관계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기때문이다.

대외관계에서 친선의 리념을 구현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친선의 리념에는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실현하여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려는 혁명적지향이 반영되여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폭넓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립장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친선의 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도 친선관계를 맺고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친선의 리념은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하여 세계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게 함으로써 세계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무대에서 평화의 리념을 높이 들고 나가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평화의 리념은 본질에 있어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짓부시자는데 있다.

Digitized by Google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반제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련대성이다.

매개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가지고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다른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여야 혁명력량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이 대외관계분야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리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은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에 언제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을 일관한 전략로선으로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시고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다그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의 전투적뉴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데서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복잡성과 장기성을 띤 우리 혁명의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는것을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으로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구현을 위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오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 존엄있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세계정치무대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의 정은 날로 두터워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는 100여개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150여개의 국제기구들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5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 자기의 벗들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말하여준다.

한때 세계정치지도에서 이름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명성과 존엄을 떨치며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우리 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고 고립질식시키려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책동은 걸음마다 파탄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놈들은

Digitized by Google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남조선괴뢰들이 베닌, 또고,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세이쉘, 그레네이더 등 여러 나라들에서 련이어 쫓겨난 사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유엔무대에서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미제가 남조선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독점물로 만들고 조선침략의 도구로 리용해오던 수치스러운 력사는 끝장나게 되였다. 유엔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승리는 조선인민과 미제와의 정치적대결에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세계 5대륙의 방방곡곡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가 조직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선의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다양한 련대성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지난해 국제적으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많은 국제기구들과 100여개의 나라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들을 비롯하여 11억이상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련대성운동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조직적성격을 띤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3월에 알제리의 수도 알쟈자이르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비롯하여 조선에 관한 북구라파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기자회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조선의 통일에 관한 국제토론회, 아프리카지역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조직책임일군들의 협의회,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회의 등 세계적 및 지역적인 련대성회의들이 수많이 진행되였으며 얼마전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언론인대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올해 《6. 25—7. 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치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를 초월하여 폭넓게 벌어지고있는 련대성운동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힘있게 강화발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기 위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

Digitized by Google

당들 그리고 국제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분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력량을 옹호하고 공동으로 보위하며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단결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당은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약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의 반동적본질과 위험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분렬, 리간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힘있는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정치적독립을 쟁취하고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렇듯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반적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고있다.

실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로선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혁명과업과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튼튼히 할데 대한 혁명로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나감으로써 온갖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근로자 1982년 제10호 (루계 486호)

편집위원회

편집• 근로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10월 1일 발행• 1982년 10월 5일

ㄱ—25173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SIATIC LIBRARY
JAN 17 1983
UNIVERSITY OF CALIFORNIA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제 11 호(48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Digitized by Google

Digitized by Google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 정 일

오늘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56돐이 되는 날이다.

《ㅌ.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그 길우에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으며 철석같이 통일단결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거창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일떠세웠다. 우리 당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조국과 혁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 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

Digitized by Google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1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곡절을 겪은 조선혁명은 온갖 시련을 뚫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전투적인 당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조선혁명의 이 절실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옳은 투쟁강령을 가지고 대중에 의거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벌려나가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 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ㅌ. 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ㅌ. 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 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 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다름아닌 <ㅌ. 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준다.

<ㅌ. ㄷ>로부터 시작된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내오심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세대들이 등장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0년대후반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결함들이 극복되고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있은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혁명적당창건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나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 담당자,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자신이다. 매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자신의 힘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다.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은 새로운 반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짐에 따라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 당을 창건하는 사업도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할것을 요구하였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였다.

종래에는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소조들을 묶어세우거나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부터 혁명파가 분리되여나오는 방법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길을 걸을수 없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만 쳐다보면서 파벌투쟁을 일삼아 당을 말아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이였다.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종파사대주의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하여서는 결코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없었다.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낡은 당이나 종파주의, 사대주의에 오염된 기성세대와 인연을 끊고 참신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야 하였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

Digitized by Google

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하였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을 빨리 키워낼수 있었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적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었다.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었으며 당을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부대로 건설해나갈수 있었다.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은 이처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카륜회의후 당조직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활동에 의하여 1930년 10월초에 온성일대의 혁명조직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기층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특히 1934년 3월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내오고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하여졌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나옴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였으며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전반기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후반기에 당조직들을 국내에 널리 확대하고 반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전반적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당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것을 구상하시고 이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여기에서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군정간부회의는 중요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에서 1930년대전반기의 당조직건설사업을 총화하시고 이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도록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리하여 만주의 넓은 지역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당조직들과 우리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1936년 5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가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다.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회에 묶어세워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훨씬 강화되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오와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 우리 당 조직들이 건설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와 조직적으로 련결됨으로써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수령의 령도, 당적령도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파악

Digitized by Google

적으로 분석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함으로써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은 수령에 의하여 제시되며 당회의들에서 토의결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당및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에서 매 시기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었다. 사실 당시의 조건에서 당및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은 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는 회의였으며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무장투쟁이였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속에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해설침투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국내외 여러 지역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처럼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그 령도밑에 투쟁하였기때문에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굽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수 있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온 당창건위업을 완성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새사회 건설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해방후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집권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당대렬을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

Digitized by Google

고히 하는 과정이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 문제는 당을 급속히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였다. 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야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여 새 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결성하시였다.

공산당을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부합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는 혁명에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광범히 참가하게 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나섰다. 해방후 공산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제때에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근로대중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선 중요한 과업은 당대렬의 급속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는것이였다.

1948년 3월에 진행된 당 제2차대회는 당의 질적공고화를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로 내세우고 당세포의 강화, 당사상사업의 개선, 당의 조직적, 사상적 통일의 보장 등 당의 질적공고화를 위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 제2차대회에서 제시된 당의 질적공고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이 개선되고 당세포가 전반적으로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원들과 간부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당대렬이 질적으로 공고화되고 당의 통일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당의 령도적기능이

Digitized by Google

높아졌다.

1950년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시기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당에 있어서 엄혹한 시련이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전쟁의 조건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이끄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일시적후퇴시기에 조성되였던 무규률적현상들이 극복되고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확립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조직사업에서 나타났던 좌경적편향이 극복되고 당대렬이 확대강화되였다. 특히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통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제때에 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기때문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었다.

전후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며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후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복구사업을 끝냈으나 형편은 아직 어려웠다. 그우에 당내에 남아있던 종파분자들이 수정주의를 받아물고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4월에 당 제3차대회를 소집하시고 당건설분야앞에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며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에서 당에 도전하여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당 제3차

Digitized by Google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가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종파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주체의 기치, 당의 통일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데 있다. 당 제3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 사업에서는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서고 당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제때에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였기때문에 내외정세가 복잡하던 때에도 동요없이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1960년대에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완수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전일적으로 확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됨으로써 우리 당 활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또한 반당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 이룩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당 제4차대회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수정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와 운명을 같이하여 끝까지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당 제4차대회가 당건설분야앞에 제시한 과업들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한층 높아졌으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는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

1970년 11월에 소집된 당 제5차대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고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를

Digitized by Google

튼튼히 다져놓았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모든 활동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복종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안에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혁명의 골간력량을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로, 농, 청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 그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였다. 당이 제시한 간부혁명방침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당의 간부화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이 더욱 강화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골간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규률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움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1970년대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이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1980년대초에 열린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새로운 웅대한 투쟁강령을 내놓으면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계속 틀어쥐고 당대렬과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당건설분야의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실현하여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었다.

〈ㅌ. ㄷ〉의 기치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오늘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이 위대한 투쟁의 조직자, 령도자인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2

〈ㅌ. 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당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마땅히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종에 놀게 되면 결국 당도 혁명도 다 망쳐먹게 된다. 오직 제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당만이 자기의

Digitized by Google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것이다. 특히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쳐온 우리 나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에도,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 시기에도 언제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당을 강화발전시키고 혁명투쟁을 전진시킬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대주의자들은 남의 승인을 받아 당을 창건하고 남의 힘을 빌어 독립을 이룩하려 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해방후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는 굽임없는 앙양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Digitized by Google

강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당의 사상적유일성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실현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전당에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

우리 당은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당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전과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온 과정이다. 우리 당은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기하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은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

Digitized by Google

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이다.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당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극복하는 투쟁과정에서 대렬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대오안에서는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전대오가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서 이루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 그런데 변절자, 시정배로 굴러먹어났던 종파분자들이 해방후 혼란된 틈을 타서 공산주의대렬안에 잠입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것도 서슴지않았다.

종파주의를 허용하고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며 당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다.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으로 끝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당의 력사적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하나의

Digitized by Google

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하나의 사상은 다름아닌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통일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강력한것이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력사적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이 지배하게 되면 당이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우리 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더욱 위력하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된다.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자각성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 때 더욱 강화된다. 우리의 현실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방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당조직관념이 높아지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된것은 당건설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불패의 당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

Digitized by Google

2.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였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당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관료화의 경향이 나올수 있다. 관료주의는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자라난 일군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수 있다.

원래 관료주의는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실시하는 전제적인 통치방법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에 물젖게 되면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다 하여도 그것이 옳게 관철될수 없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 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한 기본방침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참다운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그릇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뿌리뽑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 참다운 길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현되고 발전되였다. 청산리방법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사업방법이며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며 군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되였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 투쟁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인것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린 결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당사업전반에 구현되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였다. 전당에 혁

Digitized by Google

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모든 사업이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참으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3

오늘 우리 당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그 어떤 무정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움직여나가자면 당과 같이 강한 조직력을 가진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있어야 한다. 옳바른 정치적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활동을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조직하고 지휘할수 없다.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낡은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 투쟁을 통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가 없이는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이

Digitized by Google

보장될수 없다.

지구우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여도 외부의 원쑤들의 침략위협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을 면할수 없다.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칠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보호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해나가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령도해나갈수 있다.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곧 당을 주체사상화하여온 과정이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 투쟁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어떤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앞길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Digitized by Google

갖 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워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신념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것이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신것처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이 대를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당이며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손길밑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다.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당 건설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오늘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고있으며 혁명대오안에서는 세대가 바뀌여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다.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다.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모든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된다는것이 우리의 신조이다.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데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구감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폭압밑에서 신음하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

Digitized by Google

적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그이께 충성다하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당사업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혁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의 혁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것이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혁통을 이어받음으로써 가장 굳건한 조직사상적터전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전도도 이 위대한 혁통을 어떻게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현세대뿐아니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굳건히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위대한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등 당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Digitized by Google

뭉친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당원들은 조선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책임지고 완성하여야 할 전위투사들이다.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당대렬안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대렬이 당적세련이 부족한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는 조건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당의 대를 굿굿이 이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전당에 세워진 새로운 당생활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키워오신 우리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수령님식사업방법밖에 다른 사업 방법과 작풍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당안에는 아직도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남아있어 당사업에 손실을 끼치고있다.

당이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없애지 못하면 점차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들과 리탈되여 나중에는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우리는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는것이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뿌리빼야 한다.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적품성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당일군들은 아래일군들과 군중을 참다운 혁명동지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묵묵히 바칠줄 알아야 한다.

당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려면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체득하여야 한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독창적인 당사업제

Digitized by Google

론, 당사업방법론이다. 주체의 당사업 리론과 방법론을 깊이 체득하여야 사람과의 사업을 옳게 할수 있으며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조직동원하는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당이 관료화, 행정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명을 령도할 자격을 잃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을 언제나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어머니당으로,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대중의 기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투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이다. 우리는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따라 계속 굴함없이 싸워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빛나게 풀어나가는 위대한 령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으며 나라의 정치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고리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섬멸전을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제때에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에서도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함흥에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유색금속생산을 늘이며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함흥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며 우리앞에 나선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은 정치사업이나 경제사업, 군사작전 할것없이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446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은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나가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평등한 로동생활과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경제건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방대한 과업들이 제기된다. 복잡한 경제과업들가운데는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대상들과 반드시 먼저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업들이 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로 된다.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제때에 풀어나가야만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중심고리를 제때에 찾아내고 그것을

Digitized by Google

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
설이 진척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
선다.

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되면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들사
생산단위들사이의 련계가 더욱 복
고 밀접해진다. 이러한 현실은 나
경제생활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소비적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는
커다란 힘을 넣을것을 요구한다.
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절실
요구는 바로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
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
소비적련계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방
한 과업이 나선다고 하여 일을 벌려
놓으면서 이것도 좀 다치고 저것도
해보는 식으로 하여서는 경제사업에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
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
을 적극 다그칠수 없게 된다. 오직
당 시기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할 대
상, 그것을 해결하면 나라의 경제건설
전반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중심고리
를 제때에 포착하고 섬멸전을 벌려나가
야만 인민경제의 적극적인 균형을 확고
히 보장할수 있으며 이미 마련된 경제
적밑천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
과있게 동원리용하여 경제발전의 끊임
없는 높은 속도를 튼튼히 견지할수 있
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제때에 풀어나가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제시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한다. 당과 수령에 의하여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확히 분석되며 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가 밝혀지고 그것을 풀기 위한 작전이 펼쳐진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할수도 없으며 그것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중심고리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합흥전원회의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령도의 현명성을 힘있게 확증하여주는 뜻깊은 회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합흥전원회의에서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밝혀주시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명시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례없이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그것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빛나게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엇보다 먼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하여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과 태천발전소 건설의 4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물질생활분야에서

Digitized by Google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간적공업부문들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며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나가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것은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나 쉽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책제철소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림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합흥전원회의에서 2~3년안에 100만톤, 1988년까지 15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투적과업과 그 실현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23페지)

유색금속 150만톤고지를 점령하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유색금속은 현대적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원료이다.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공업의 다방면적인 반전과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로선에 따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illegible] 경제와 과학기술이 높은 속도로 [illegible] 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illegible] 산을 늘이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illegible] 구조를 더욱 완비할수 없게 되며 [illegible] 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illegible] 대로 풀어나갈수 없게 된다.

유색금속생산을 빨리 늘여 150[illegible]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할 때 우리 [illegible] 인구 한사람당 유색금속생산량에 [illegible] 계적으로 가장 앞서나가게 될것이 [illegible] 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illegible] 힘있고 생활력있는 경제로 장성 [illegible] 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illegible] 의 경제군사적위력을 강화하며 [illegible] 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지금에 [illegible] 없는 거창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illegible] 하여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illegible] 당중앙위원회 합흥전원회의에서 [illegible] 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유색금속 150만톤고지를 점령하는것이 오늘 [illegible]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illegible] 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심고리로 [illegible] 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면 중[illegible] 고리와 함께 련쇄된 다른 고리들도 [illegible] 게 풀어야 한다. 련쇄된 다른 고리들을 다같이 잘 풀어나가야 인민경제의 [illegible] 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반 [illegible]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합흥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 용접혁명, 절연물혁명을 적극 벌려 기계설비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될 때 유색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적진보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될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우리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사업분야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

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길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신 여기에 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위성과 현명성이 있으며 우리 당 력사서 함흥전원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가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력사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러한 령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보여는 영광의 력사이며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는 보람찬 투쟁의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제때에 풀어나가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거기에 힘을 넣어 문제들을 하나씩하나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력사를 튼튼히 이끌고나아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96~197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빛나게 풀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중심고리를 제때에 정확히 제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하신데 있다.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전후시기 우리 당앞에는 실로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중심고리로 규정하시고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매우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령락된 인민생활도 안정향상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에서 경제건설의 중심고리를 철과 기계에서 찾으시고 모든 힘을 집중하여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황해제철소와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여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중심고리를 옳게 밝혀주시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선차적힘을 넣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었으며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다.

중심고리를 빛나게 풀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섬멸전을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해결하신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적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이다. 근로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적극 발양시켜야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목표를

Digitized by Google

뚜렷이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힘을 지향시킬 때 높이 발양된다. 섬멸전은 바로 주어진 력량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조직동원하여 중심고리를 풀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섬멸전을 벌려나가는 여기에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빨리 전환시키고 일을 모가 나게 해제껴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발동하여 섬멸전을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중심고리를 제때에 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대중을 발동하여 섬멸전을 벌림으로써 중심고리를 빛나게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벌려나가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풀기 위한 기본방법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제선동을 집중적으로 벌리는 한편 조직지도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제기된 과업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주체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새로운 높은 속도, 《70일전투속도》는 바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려나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6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최후돌격전투를 승리에로 이끈 우리 당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면서 련이어 채취공업을 주타격방향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강력한 지도력량을 파견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현실은 섬멸전의 방법으로 중심고리를 풀어야 경제건설에서 속도전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할수 있으며 하나의 중심고리를 해결한 다음에는 새로운 중심고리를 제때에 찾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력량을 집중하여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굽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중심고리를 하나씩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련쇄된 모든 고리들을 다같이 풀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유기적인 련계와 합리적인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고 경제가 굽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특히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던 197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나감으로써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는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이 보람찬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Digitized by Google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는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경애하는 수령님의 의도대로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들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데 대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드팀없이 관철해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제기된 모든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성과적으로 풀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드는것이다.

빈틈없는 경제조직사업과 능숙한 생산지휘를 떠나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은 생산성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없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색금속생산과 기계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들과 경제기관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계획화사업을 잘하여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하며 자재공급사업, 설비관리사업, 로력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건설의 중심고리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있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당의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특히 함흥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려나감으로써 유색금속생산과 기계공업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하며 온 나라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세차게 들끓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의도대로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밝혀준 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라는것을 심오하게 해명하는것은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특징과 본질적우월성,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밝히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과학적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라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라는것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계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것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보고 대한다는 것이며 인민대중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준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방도를 밝힌다는것을 말한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라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세계관으로서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내용과 그 빛나는 력사적지위가 과학적으로 해명되였으며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라는것이 힘있게 확증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명제, 리론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밝혀져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9페지)

철학적원리는 세계관의 근본초석을 이룬다. 어떠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성격, 내용이 규정되게 되며 세계관이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옳게 이바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좌우되게 된다.

종래에는 세계의 시원이 물질인가 의식인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여왔다.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유물론적원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히진 조건에서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내놓았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는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

Digitized by Google

학적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옳게 밝히는것은 사람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전제로 된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정확히 밝혀져야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가 옳바로 설정될수 있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해명될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이며 오직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짐으로 하여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사람은 세계를 떠나서 살수 없고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나간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을 이루며 사회는 사람들이 생활하며 활동하는 집단이다.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조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진보적인가 반동적인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에 그저 순응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기초하여 자기에게 유리한것과 불리한것을 주동적으로 구분하고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이며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사람이 객관세계의 영향을 받는 측면보다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측면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해나가는 지배자, 개조자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세계관의 발전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철학의 근본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그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준 철학적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람을 위주로 철학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리해가 확립되고 과학적인 세계관의 초석이 확고하게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을 준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온 인류의 철학적인식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원리가 밝혀진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관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철학적사유의 새 력사를 펼쳐놓고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시대와 력사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게 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혀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

Digitized by Google

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폐지)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지는가 하는데 따라 그 과학성과 혁명성이 규정되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투쟁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세계가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발전한다는것은 이미 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의하여 밝혀졌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인 운동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견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혀준다. 사람과 세계는 일정한 관계속에 있다. 사람은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를 차지한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측면이며 세계는 자연발생적이고 피동적인 측면이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는 사람을 주체로 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세계는 사람의 지배밑에 놓이게 되며 사람의 지배대상으로 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견해는 사람의 역할과의 관계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에 대하여 밝혀준다.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세계는 사람의 역할에 의하여 사람에게 리롭게 개조변혁된다.

세계의 개조발전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에 원천을 두고 이루어지며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추진된다. 세계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발전되여나간다.

력사는 사람의 자주적요구가 높아지고 창조적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에게 지배되는 세계의 령역이 날로 확대되며 세계가 더욱더 사람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된다는 새로운 견해가 밝혀짐으로써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 철학발전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해명에 기초한 과학적인 관점과 립장이며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 세계를

Digitized by Google

동 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하는 혁명적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을 의미 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마땅히 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 야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에 대 는 요구보다 더 근본적인 요구, 절실한 리해관계는 없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 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자주적요구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을 한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 은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 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사람이 사 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것은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정치적으 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자연 을 파악하고 정복하는 사람의 활동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 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이다. 사람이 자신을 개조하는것은 낡은 사상과 문화 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존재로 참답게 살며 발전하려는데 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 는 목적은 결국 세계의 모든것을 사람 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 은 없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 다.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리 익을 기준으로, 척도로 하여야 세계의 사물현상이 가지고있는 가치를 가장 옳 바르게 평가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 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 으로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 은 또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 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세계를 대하는데서는 사람의 리익으 로부터 출발하며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데서는 사람의 활동을 기 본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세계를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립장의 특징이 있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 다.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인 사 람은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 게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의 변화발 전과정을 자신에게 복종시켜나갈수 있다.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 를 실현하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사람은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요구에 맞게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면 서 세계를 개변할것을 지향한다. 사람 은 세계의 개조를 요구할뿐아니라 자기 의 주동적활동으로 자연과 사회의 변혁 을 실현한다. 세계에는 객관적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 어나는 운동변화와 사람들의 능동적작 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변화발전과정이 있다.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기본을 이 루는것은 사람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화발전이 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활동을 통하여서만 객관 적물질세계를 자기를 위한 세계로 전환 시켜나갈수 있다.

인류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람 의 주동적활동에 의하여 엄혹한 자연이 길들여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착취제도와 반동세력이 멸망하 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 제도가 확립된다.

이 모든것은 사람의 주동적활동의 견 지에서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 세계의 변화발 전에 대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 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Digitized by Google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람의 자주성의 실현을 모든 활동의 근본목적으로 옳바로 내세우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자주적요구로부터 세계를 보고 평가하는 세계관의 새로운 분야가 독창적으로 개척되였다. 그리하여 혁명적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주동적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통일적으로 밝혀주는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세계관이 사물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인식할뿐아니라 사람의 요구로부터 그것을 평가하게 하는 옳바른 지침을 주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위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새롭게 밝힌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확립, 이것은 참으로 세계관의 성격과 내용을 원리적으로 혁신한 력사적사변이며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세계를 주동적으로 지배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 획기적인 사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준뿐아니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력사관을 밝혀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원리는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페지)

사회력사관은 세계관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밝히는것은 사회력사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력사발전과정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본질적특성, 그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철학적세계관과 함께 어떤 사회력사관을 구성부분으로 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유물사관은 《하느님》이나 《영웅》에 의하여 력사가 창조된다는 관념론적사회력사관을 짓부시고 사회도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물질적운동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며 물질세계의 일반적법칙의 작용을 받는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그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주체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이 발생발전한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밝혀준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담당자이며 력사발전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결정적

Digitized by Google

요연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혁명적변혁과 진보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기의 창조적투쟁을 통하여 력사를 발전시켜나간다. 사회를 변혁하며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력사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은 곧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힘이 장성하며 또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힘이 커질수록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이 해명됨으로써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사회력사관의 내용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운동은 그 사물자체의 본성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운동의 특성은 운동의 담당자의 본질적특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며 자주적, 창조적 운동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운동과정이며 낡은 제도와 낡은 생활을 청산하고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해나가는 창조적운동과정이다. 투쟁과 창조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분리할수 없는 두 측면이며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현인것이다.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라는것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과정으로서의 력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을 새롭게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과정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고 조절통제된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을 규제한다. 선진계급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에만 옳은 계급적립장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주체사관의 기본내용이며 사람,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에 의하여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

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주어졌으며 인류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 인민대중을 위주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함께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히는것은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사상은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사회력사에 대하는 주체적 관점과 립장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류력사와 사회혁명을 대하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력사와 혁명운동의 발전과정을 대하는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다.

이러한 관점과 립장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사회력사관을 새롭게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에 기초하여 세계관의 근본문제들을 사람을 위주로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사람중심의 과학적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옳바른 견해가 세워지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에 대하는 과학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세계관의 근본문제들을 고찰하고 풀어나가는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인 지향과 절절한 념원이 세계관으로 구현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방도가 환히 밝혀지게 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의 세계관의 확립은 참으로 로동계급의 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력사적사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전반적내용을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새로운 원리들과 명제들로써 주체의 세계관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탁월한 공헌을 한 력사적문헌이다.

론문에 의하여 주체철학의 근본문제와 기본원리로부터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에 이르기까지의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모든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진리성이 힘있게 론증되게 되였다.

론문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 사회력사원리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힌것은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은 독창적인 원리와 명제들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의 총서이며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귀중한 교과서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의 창시는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

리 성 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발전풍부화과정을 옳게 파악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체득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발전풍부화과정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져있다.

론문에서 주체사상창시의 시대적, 력사적 환경과 그 출발점, 주체사상창시와 그 발전풍부화과정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과학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진보적사상이 사회력사발전에서 노는 중요한 역할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된다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진보적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보적사상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에게 사회계급적처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각성시키며 사회력사를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한다. 인민대중은 진보적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될수 있다.

진보적사상이라고 하여 사회력사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다 같은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어떻게 대변하며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그 역할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로동계급이 출현하기전에도 사회의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력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도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과학적으로 밝힐수 없었다.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사회력사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력사상의 그 어느 선진사상에도 비할바없이 큰 혁명적작용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사회발전법칙과 인민대중의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변된다. 현실을 인식하고 변혁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무기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력사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며 이끌어나가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정한 력사적시대는 그에 맞는 지도사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혁명실천이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하여 저절로 나오는것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페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에게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주는 사상리론의 뇌수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혁명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일반화하여 새로운 혁명사상을 창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앞길을 밝혀준다. 수령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창시하는데 있다.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력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여 세계를 변혁시켜온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선행한 시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들은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시대와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밝혀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나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그것이 력사와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사상만이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으로 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지난 시기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다시말하여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한편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저들이 겪고있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였으며 오래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해온 인민대중이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시대가 다가왔다.

참으로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Digitized by Google

등장하여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우리 시대는 지난 시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내세웠으며 그것을 정확히 풀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다.

인민대중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것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와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경험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서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당시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로 되였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이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단합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정치적력량으로 단결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혁명력량도 인민대중속에서 키워내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도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있었으며 대중을 파벌싸움으로 분렬시켰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은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를 비롯한 수많은 파를 만들고 세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대중과 리탈되여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혁명사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리론》싸움만 하였다. 한편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를 비롯한 각종 파벌을 뭇고 자기들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령도권쟁탈을 위한 싸움만을 일삼았으며 저마다 《리론가》,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인민대중을 혁명운동에 동원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본질적제한성을 꿰뚫어보시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이 과정에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져

Digitized by Google

개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그령님께서는 일관하게 혁명실천으 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 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 -.》(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혁명투쟁의 실 는에서 창시되였다.

원래 실천은 사상, 리론 발전의 기초 고 출발점이며 추동력이다. 혁명실천 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리론의 명제 공식이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 가 맞지 않는가를 식별할수 있으며 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조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또한 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지난 시기 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에 확한 해답을 줄수 있으며 시대의 력 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혁명원리와 방도들을 찾아낼수 있다.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리론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창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 정통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조선혁명의 실천에 구현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두철미 혁명실천속에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로선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의 창시, 이것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열망을 체현하시고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실천의 불길속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하고도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자연과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천리혜안의 과학적통찰력, 뛰여난 예지와 비범한 리론적전개력을 지니시였기때문에 아직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던 사상적혼란속에서도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보시고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실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된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여나올수 없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력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 기간의 투쟁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완성되게 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민족해방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다방

Digitized by Google

면적인 경험이며 생소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참신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은 비길데없이 고귀한 경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50여성상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력사는 위대한 혁명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완성시켜오신 력사이다.

이렇듯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요구와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창시되고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를 갖춘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적발전의 한길로 힘찬 진군을 개시하게 되였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었던탓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쓰라린 실패를 거듭하였고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새 시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은 무장투쟁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였으며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곧바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가까운 길로 전진하여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랜 세월 가난과 락후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고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룩된것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으며 그 정당성, 진리성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주체사상은 공인된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력사의 전진과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의의는 더욱더 커가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투쟁할 때 백전백승한다는것은 조선혁명의 전력사가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이며 우리 인민이 간직한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

강 운 빈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어떤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결정적요인인 근로인민대중이 옳바른 립장을 가져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론문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근본립장을 밝힘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더욱 심오히 해명하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24~25페지)

자주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조건이다.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 혁명투쟁자체의 본성적요구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것을 절대적인 요구로, 빼앗길수 없는 기본권리로 간주하며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리는것이며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다 바치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간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

Digitized by Google

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며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떠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데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할 필연적요구가 흘러나온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그 본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킨 결과 우리 당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이것은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립장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이라는것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아온 계급으로서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사회의 그 어느 계급보다도 가장 강렬한것이다. 또한 로동계급은 조직되고 단련된 계급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 단결의 힘으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자기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한다.

로동계급은 자신을 해방할뿐아니라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한 계급으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언제나 령도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자주적립장과 어긋나는 그 어떤 립장도 로동계급의 립장, 인민대중의 립장과 인연이 없으며 그것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해로운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자주적립장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주견과 신념이 없이 남에게 추종하고 굴종하게 되며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이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 로동계급적립장으로서 그것은 진실로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립장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이 심오히 해명되여 있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의 표현이다. 혁명과 건설

Digitized by Google

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으로 표현되게 된다.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떠나서는 주인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주인구실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원만히 수행하는 립장이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의 본질적내용과 주되는 특징이 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다. 인민대중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자기의 지향과 요구, 신념과 각오에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한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인민에게만 있다. 그 누구도 남의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 하고 지시하거나 간섭할수 없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그 나라 인민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수 있다. 만일 밖으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을 허용한다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된다. 남에게 눌리거나 얽매여 자기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객관적조건을 분석하는것도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것도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것도 모두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결정하며 처리하는데 바로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 립장은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과 간섭 그리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그 누가 좌지우지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바로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 립장은 남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 누구의 비위에 맞게 행동하는것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자주적립장은 이와 같이 그 누구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을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성의 원칙에서 자체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할수 있게 한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서 표현된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자연과 사회가 저절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그 누가 대신하여 해줄수도 없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

로를 마련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아무리 복잡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의 힘이다. 남에게 의존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려 하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렇게 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없게 된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것이며 주인된 립장을 저버리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들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이다.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데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이 립장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거나 혁명과 건설이 저절로 되기를 앉아기다리는 의존심,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자주적립장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립장이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온갖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뚫고나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자주적립장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 립장은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주저앉고 투쟁을 포기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철저히 반대한다.

이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한다.

자주적립장의 표현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과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주견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만 자기 나라의 주체적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에만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고수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것과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은 서로 뗄수 없는 련관과 통일속에서 다같이 자주적립장을 표현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힌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Digitized by Google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것만큼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요인도 그 나라 인민자체의 힘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들사이에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있을수 있으며 또 그것이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놀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원은 그것이 아무리 성실한것이라 하더라도 부차적인것이며 그 나라 인민자체의 혁명력량을 대신할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독자성의 원칙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조건에서만 국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의의가 있는것이다.

만일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면 자체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잠재력을 옳게 동원할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독자성이 마비되여 제정신을 잃게 되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력사적 경험은 외세에 의존할 때에는 자기의 운명이 롱락당하고 자신을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비참한 처지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은 명백한 진리로 되고 있다.

국경이 있고 나라를 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은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만 자기 나라 혁명문제, 자기 민족의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혁명의 승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다.

참으로 자주적립장을 지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그 합법칙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담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힌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라는 창조적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이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무엇보다도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이 더욱 심오히 해명되게 되였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립장을 해명하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인민대중이 지켜야 할 립장을 옳게 해명하여야만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이 발전하고 승리하는 합

Digitized by Google

법칙성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립장이라는것이 철의 론리와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그리하여 사회력사적운동,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지킬 때만이 그 본성에 맞게 전진해나갈수 있다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이 더욱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내용으로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자주적립장에 관한 독창적사상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자주적립장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인 해명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기여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어떤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인민대중이 옳바른 립장을 가지면 혁명과 건설은 목적지향성있게 그리고 부닥치는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면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고 반대로 인민대중이 옳바른 립장을 가지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게 된다.

자주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창조적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책임을 다하는 참다운 길을 찾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의 본질과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옳바른 립장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언제나 자기의 지향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투쟁 목표와 방향, 행동방침을 정확히 규정하고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어떠한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고 풍파가 닥쳐와도 아무러한 편향이나 추호의 동요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자주적립장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들로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무기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자주적립장을 지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사상개조의 선행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필수적요구

김 배 환

사상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야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지도적원칙이 천명되여있으며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상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론문에는 사상개조를 선행하여야 할 필요성과 사상개조에서의 기본, 그 방도가 뚜렷이 지적되여있다.

론문에 의하여 사상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63폐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업,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뿐아니라 사람들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진다 하여도 근로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의 사회력사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과 함께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이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그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키울수 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온 사회에 확고히 지배하게 할수 있고 경제와 문화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

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것이 바로 사상의식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은 그가 사상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의해 규정된다.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야 사회와 혁명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고상한 품격을 소유할수 있다. 사람이 비록 높은 과학기술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소유하고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면 쓸모없는 정신적불구자로밖에 될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은 참다운 인간으로 될수 없다.

사람은 오직 혁명적인 사상의식,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혁명정신을 가질 때에만 사람답게 살수 있으며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된 가치를 가질수 있는것이다.

사람은 또한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할수 있다.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기술수준을 어떤 높이에서 갖추었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사람은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소유할 때 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가질수 있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높은 문화기술수준은 혁명적인 사상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다.

혁명적인 사상의식은 공산주의적인 정신도덕적풍모를 형성하는데서 원천으로 되며 그 공고발전을 위한 추동력으로 된다. 혁명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계급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과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게 하며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닐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먼저 자기 활동의 목적과 방법 그 결과를 머리속에 미리 구상하고 진행한다. 사상의식을 떠난 사람들의 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사상의식이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그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휘할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 활동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며 사상개조를 선행하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Digitized by Google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처지와 물질생활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사회경제적처지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 변한다고 하여 저절로 개변되는것이 아닙니다.**》(우와 같은 문헌, 64페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개조가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으로 되는것은 낡은 사상 잔재가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하다는데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그 력사적뿌리가 매우 깊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만 남아있는것이 아니라 낡은 생활풍습, 도덕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으며 그것은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의식의 발전에 제동기적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눈으로 볼수도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개조되였는지 계산해낼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사상개조는 한두번의 강조나 교양으로 되는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투쟁을 거쳐 진행되여야 할 사업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사상개조사업은 경제, 문화 건설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되며 그것은 인내성있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따라서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우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사상개조를 앞세워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하나의 심각한 혁명이기때문이다.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는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이다.

인간개조사업이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오랜 세기를 거쳐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박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아직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상은 확립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의 건전한 공산주의적사상의 발전을 저애한다.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지 않고 그것이 조장되면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되는 계급투쟁이 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로동계급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상의식을 넣어주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여 결코 그것이 사상의식령역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의 물질적생활조건의 반영인것만큼 낡은 사상 잔재는 기술, 문화적 락후성과도 련관되여있으며 따라서 이 령역에서도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할 때에만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되는 인간개조사업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Digitized by Google

실현된다.

인간개조사업은 또한 외부로부터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이 끊임없이 침투되는 조건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할뿐아니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부단히 강화한다.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파괴활동의 한 고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타락시켜 변질되게 하려하고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사람들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도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있는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되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실로 사상개조를 앞세우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사상개조의 기본과 방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상개조의 기본과 방도가 정확히 밝혀져야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개조하는 사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사상개조의 기본과 방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주어져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4페지)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속에 혁명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혁명관은 혁명에 대한 로동계급적관점과 립장이며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다. 혁명관이 바로서야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사람들이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행된다. 혁명운동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야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관을 바로세우자면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Digitized by Google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혁명사상과 리론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지니게 된 때 혁명관이 바로섰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관은 혁명적실천에 의하여 검증된다.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 특히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각오가 되여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줄 아는 사람만이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론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관을 바로세우자면 또한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힌 사상개조를 선행할데 대한 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람들의 혁명적개조를 다그쳐나갈 때에만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더욱 강화하고 그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론문은 인간개조의 본질은 사상개조이고 사상개조에서 기본이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룬다는것을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였다.

사상개조를 선행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다그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사상개조선행에 관한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위대한 력사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5돐에 즈음하여—

허 상 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항일대전승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5돐이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11월 10일에 발표하신 이 력사적인 로작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혁명리론을 옳게 밝히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옳바른 지도사상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인 지도리론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 길을 옳게 밝히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새롭게 제기한 매우 절박한 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새롭게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찬 앙양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있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위대한 혁명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천명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김일성저작집》 제1권, 152페지)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혁명투쟁을 옳게 조직령도하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밝혀야 매개 혁명단계에서 투쟁대상과 동력을 똑똑히 규정하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의 성격은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당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제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Digitized by Google

게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의 길이 억제되고 봉건적제관계가 지배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봉건적인 예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도하고 그의 식민지적착취의 지반인 봉건적제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철쇄에서 해방할수 없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당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봉건적인 제 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혁명의 과업과 그와 결탁한 봉건지주들을 반대하는 반봉건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이러한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제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정상적인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거치지 못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나라들에서 혁명의 성격이 뚜렷이 해명되고 사회혁명의 새로운 류형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나라들의 혁명을 《부르죠아혁명》 또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보던 좌우경적견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은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제시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의 편성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의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도 반제투쟁에 참가할수 있다.》(우와 같은 문헌, 153～154페지)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혁명투쟁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착잡하게 엉켜있고 계급관계가 매우 복잡한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혁명력량을 옳게 편성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적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는 원칙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야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는 로동자, 농민뿐아니라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 등 여러 계급과 계층이 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다.

식민지통치하에서 로동계급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참을수 없는 고역에 시달린다.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혁명성과 조직성을

Digitized by Google

매우 높여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가장 적극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게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예속밑에서 2중3중의 압박과 착취를 받는다. 이로부터 그들은 혁명성이 강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며 로동계급과 함께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때려부시는 혁명에서 기본력량으로 된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등 각계각층 군중은 민족적억압과 심한 차별대우를 받기때문에 반제의식과 민족적독립에 대한 지향이 강하며 따라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계급적처지와 혁명에 대한 립장으로부터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와 량심적인 종교인들까지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림에 있어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할수 있는 로동자, 농민을 튼튼히 결속시키는 한편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당시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인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로동자, 농민은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다같이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각 계급, 계층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그로부터 출발한 그들의 혁명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로동계급과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시고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와 량심적인 종교인들이 혁명의 보조적력량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주체적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종국적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는 대중을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는데서 이미 그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고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키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를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앙양되는 대중의 반일기세에 맞게 전민족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민족해방투쟁에 총동원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명시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동력에 관한 사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계급관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가장 정확히 편성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 기초우에서 전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문제를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로 굳게

Digitized by Google

어 세워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승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천명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권문제를 밝힌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를 타도한후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적민주주의정권 즉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이다.》 (우와 같은 문헌, 162페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그 주인으로 되여야만 완전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있다.

주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해당 시기의 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계급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권형태를 규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적제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적민주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이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새형의 정권형태이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하신 정권에 관한 사상을 구체화한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력사적조건에 맞게 로동계급의 정권건설문제를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정권을 세운 다음 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식민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모든 반동세력을 타도하는것만으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할수 없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타도한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의거하고있던 사회경제적관계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야만이 완수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는 혁명의 근본문제인 주권문제를 해결한후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여 새 사회 건설의 경제적토대를 축성하며 일제가 남겨놓은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철저히 숙청하고 나라의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주의정권건설에 관한 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의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며 민주주의적기초를 축성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발표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신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와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

히심으로써 무엇보다먼저 조선혁명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더욱 확신성있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이 발표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화되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후방》의 공고화를 떠벌이면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공세에 예봉을 돌리고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를 비롯한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조직을 파괴하고 우리 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야수적만행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었다. 이 준엄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주저하고 동요하였으며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일제침략자들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로 나가고있었다. 또한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반일민족해방운동전반을 앙양시키는데 막대한 장애가 조성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과 혁명앞에 엄혹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일제와 조선인민사이의 극도로 첨예화된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을 해결하며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전략전술, 뚜렷한 혁명수행의 방도를 가지고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준엄한 시기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전망,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길을 밝혀준 위력한 무기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을 밝히신것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해나가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성을 위한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지향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시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대상과 동력, 혁명에서 해결하여야 할 제반 과업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신음하는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참다운 길을 찾게 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혁명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히시고 정연한 체계로 집대성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풍부화되였으며 피압박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가장 곧바른 지름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Digitized by Google

관한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이 있으며 그 력사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히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은 그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보편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혁명리론을 따라 힘찬 투쟁을 벌려옴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였으며 해방후 짧은 기간에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세기적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은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위업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은 끝나지 못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남조선혁명은 심한 진통을 겪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흠모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으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은 조선혁명이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언제나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킨 힘의 원천이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오직 공통한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린다면 원쑤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한것처럼 나라의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장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김 량 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감으로써 한생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살며 싸워나가며 당과 혁명에 충성다해나가는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들며 사람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철저히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 독창적인 사상이다.

공산주의사회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사회이다. 로동계급은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생산수단의 [illegible] 철저한 사회화를 요구하는 선진적인 계급이며 온갖 계급적차이와 불평등을 없앨뿐아니라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을 지향하는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바로 로동계급이 자기의 이러한 요구와 지향에 맞게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드는 과정이며 사람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아가는 과정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성원들사이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과 도덕, 문화 면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게 된다. 그리하여 온갖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가 실현되며 사람과 사회가 공산주의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되게 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

Digitized by Google

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김일성저
ㅏ선집》 제8권, 341페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
ㅣ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
덕요구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듦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 맞게 인간개조사업을
간성해나간다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
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
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
뿐아니라 사람자체를 공산주의적인간으
로 개조하여야 한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부가 풍부해
진다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
이며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똑바로 세우는것이다.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당
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
의 이러한 로동계급적세계관, 혁명관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
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
발전되게 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
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낡은 사상 요소
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그들을 주체의
혁명관,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
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의 모든 성
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
기 위한 사업이 공산주의사회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간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서 나서
는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는것을 말하
여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
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
함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 맞게 사회개
조사업을 완성해나간다는데 있다.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하
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들
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분야에서 사회
를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차이
를 없앨수 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로동계급을 다른 계급과 계층 속에 용해
시키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로동계급
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
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두 소유를 분리시
키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전인민적소
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고 협동적소유
를 전인민적소유와 유기적으로 결합시
키면서 그것을 점차 전인민적소유의 수
준에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로동계급
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사회를 경제적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
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생활조건과 생활수준
에서의 차이는 물론 로동조건에서의 차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서의 차
이를 없애고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
를 로동계급과 같아지게 한다. 이것은
또한 사회를 문화적면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개조함으로써 온 사
회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가 지배하
게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사이의 문
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게 한
다. 이 방침은 또한 사회의 모든 분야
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적도덕이 확고히 지배하게 함으로써 사

Digitized by Google

회를 혁명화, 공산주의화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모든 분야에서 사회관계를 철저히 공산주의적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특히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 오늘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은 끊임없이 유족해지고있으며 지난날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한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속에서는 혁명적각성과 계급적의식이 무디여지고 행복한 생활에 도취되여 혁명하기 싫어하고 투쟁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고수할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인 임무가 나서고있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일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과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하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목표이다.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근로인민대중의 사상의식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통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게 되며 사회에는 로동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의식이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다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였지만 사회에는 아직도 로동계급과 함께 협동농민, 근로인테리 등 계급과 계층이 있게 되며 그들사이에는 사상의식수준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전면에 제기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된다.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여 과도기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였다고 볼수 없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담당자이며 생산력발전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다름아닌 사람이다.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가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어떻게 발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혁명적열의가 높으면높을수록 그만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과정은 더 빨리 추진되게 된다.

그런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자각적인 혁명투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 때라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이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위한 투쟁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열렬한 혁명투사로 훌륭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참으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밝혀주고있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관철되고있으며 날을 따라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Digitized by Google

제2판, 436페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사회에는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온갖 낡은 사상의 경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됨으로써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따라배워 우리 사회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미풍이 활짝 꽃피게 되였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전투적으로 일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분위기속에서 혁명적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일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면모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또한 우리 사회의 내부도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다져졌다. 오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공고화되고 우리 사회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것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만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7페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은 하루이틀에 끝날수 없으며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과 심각한 사상투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서만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의리를 지니고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며 이 영광스러운 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누구나 다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 밑에 정치사상적으로,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사람들의 혁명화는 혁명적실천활동과 떨어져 진행될수 없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혁명적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이며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어떻게 다그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단련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실천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따라배워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성과로써 혁명투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힘있는 방도이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적모범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헌신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 높은 형태의 사상개조운동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숨은 영웅들처럼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

황 병 철

혁명적사업기풍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발현되는 일군들의 혁명적인 사업태도이며 일본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기풍은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표현이다.

로동계급의 사상과 혁명적방법으로부터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나오며 반대로 부르조아 사상과 사고방식으로부터는 반인민적인 기풍과 태도가 나온다.

사업기풍이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군들의 사업태도인것만큼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는것이다.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일군들이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풍을 지니고 일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된다.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이 없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높은 혁명적 기백과 기풍이 나올수 없다.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193폐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 모든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있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굳게 확신하고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혁명가들은 그 어떤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언제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청춘의 기백에 넘쳐 용감히 투쟁해나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과정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난관과 시련 앞에서 동요주저를 모르며 언제나 혁명적열정과 승리의 신심에 넘쳐 투쟁함으로써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킨다.

이처럼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니는 중요

Digitized by Google

업의욕을 지니고 일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주인다운 자세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정과 사업의욕은 주인다운 립장과 자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구체적 발현으로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자각을 깊이 간직할 때 모든 일에서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사업도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이 없으면 정열과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되고 혁명투쟁과정에서 권태감에 사로잡혀 월급쟁이식으로 현상유지를 해가는 안일한 생활에 물젖게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패기있게 책임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언제나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또 해낼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투쟁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집행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으로 사업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주인이 되여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옳은 방법론을 찾아내며 섬멸전의 방법으로 이악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책임일군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도록 아글타글 애쓰며 사업을 가발하게 착상하고 설계하며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혁명적 가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이다.

현실은 날로 변하고있으며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누구든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으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게 될뿐아니라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도 없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만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그리고 심도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이것은 일군들이 높은 정책적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신심과 열정에 넘쳐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근본요구로 된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모르면 혁명과업수행에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앞뒤를 재면서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들고 깊이 알 때라야만 그것을 자로 하여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경영활동에 필요

Digitized by Google

과 경제조직사업, 생산지휘를 짜고들어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또다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을 더욱 전투적으로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혁명가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이 곤난앞에서 굴할줄 모르고 언제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며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 기술과 재능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제2판, 254페지)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투쟁하는것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다 지녀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이다.

우리 일군들은 그가 경제사업을 지도하든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할 때만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키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지니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담하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충성심은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가치를 결정하며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할 때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되며 거기에서 삶과 투쟁의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김혁, 차광수 등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싸워나갈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불탔고 그들의 모든 활동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혁명적투지로 일관되여있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그렇듯 투철한 충성심을 본받아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이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얼마나 높이 간직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려는 뜨거운 충성의 열정을 지닐 때 사람들은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게 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ㅣ 의욕을 지니고 일하는데서 또한 중
ㄴ 것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
는 것이다.
든 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주인다운 자
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경 적열정과 사업의욕은 주인다운 립
과 자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 구체적
현으로 된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자각을 깊이 간직할 때 모든 일에서
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업도 자체의 힘으로 책임적으로 수
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인이라는
은 자각이 없으면 정열과 의욕이 생
지 않게 되고 혁명투쟁과정에서 권태
에 사로잡혀 월급쟁이식으로 현상유
를 해가는 안일한 생활에 물젖게
다.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내기있게 책임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위업
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주체형
의 혁명가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주체
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주체
형의 혁명가들은 언제나 자기앞에 맡
겨진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
의 힘으로 해나가야 하며 또 해낼수 있
다는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열정으로 불
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
임적으로 조직집행하며 일단 시작한 일
은 완강하게 투쟁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집행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으
로 사업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은 어떤 일
이 있어도 자신이 주인이 되여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혁명적각
오를 가지고 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옳
은 방법론을 찾아내며 심빈전의 방법으
로 이악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책
임일군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전
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훌륭한 성과
가 이룩되도록 아글타글 애쓰며 사업을
기발하게 착상하고 설계하며 자기 손
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혁명적
가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이다.

현실은 날로 변하고있으며 과학과 기
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누구든지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으며 자기 사
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현실
을 따라갈수 없게 될뿐아니라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수도 없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야만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
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그리고 심
도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
이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
게 자체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데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무장하는것이다. 이것은 일군
들이 높은 정책적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신심과
열정에 넘쳐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
갈수 있게 하는데서 근본요구로 된
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모르면 혁명과
업수행에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앞뒤
를 재면서 부닥치는 난관앞에서 주저하
고 동요하게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들고 깊이 알 때라야만 그것을
자로 하여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
쟁과 건설사업에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의 로
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경영활동에 필요

Digitized by Google

한 지식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한것은 풍부한 경제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이다. 일군들이 경제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발언권이 서고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판을 크게 벌리는것이다.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궁리하고 설계하며 높은 목표를 내거는것은 일군들이 안일해이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통이 크게 설계하고 목표를 높이 내걸어야 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언제나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과 투쟁목표를 내세우며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포치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휘황한 전망을 안고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하여 어떤 일에서나 잡도리를 크게 하고 사업을 패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일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쇠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이다.

로쇠현상은 사업에서 정열과 전투적기백이 없고 긴장하게 일하지 않는 안일한 현상,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아무런 창발성도 없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현상, 조직성, 규률성이 없이 자유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현상, 령감을 내고 틀을 차리는 현상, 정치적각성과 투쟁력이 없이 늘크데한 현상 등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러한 로쇠병에 걸리게 되면 정열이 나올수 없고 사업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로쇠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나감으로써 비록 육체적으로는 늙는다 하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고 언제나 청춘의 열정과 기백에 넘쳐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사상투쟁과 혁명적실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지 않으면 사상적으로 변질될수 있고 혁명에서 도퇴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감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며 삶의 순간순간마다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있게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투쟁의 기수,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경제선동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

표 태 환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이 과정에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더욱 활발히 벌림으로써 대중을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

경제선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위력한 대중정치사업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1980년대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나라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투쟁은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만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전면적대중적진군운동이다.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얼마나 높이 발휘시키는가 하는것은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얼마나 힘있게 벌려나가는가 하는것과 관련된다.

정치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상동원의 위력한 수단이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열쇠는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대중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동사업은 군중의 기세를 돋구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직접 발동시키는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153페지)

선동사업은 선전사업과 함께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제선동은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방법의 하나이다. 정치선전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원리적으로 해설하여 깊이 파악시키는 정치사업방법이라면 경제선동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생산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경제과업수행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방법이다.

경제선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Digitized by Google

계속전진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경제선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게 한다는데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근본요인이다. 사람들의 심장을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여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을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심장으로 받아들일때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경제선동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경제선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해결하려는 긴절한 문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제때에 알려주고 그것을 푸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대중이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정을 지니고 일해나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말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보람찬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모든 초소와 전투장마다에서 충성의 열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한다.

이처럼 경제선동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된다.

경제선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친다는데 있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로 발전한 [illegible]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정치사업을 생산과 건설이 진행되는 현지에 접근시켜 그것을 기동성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illegible] 기세로 달리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은 정치사업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공적으로 벌릴 때 더욱 힘있게 추진될수 있다.

경제선동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업수행에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합되여 전투적으로 진행되는 경제선동은 모든 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생산현장에 집중시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는것으로 하여 정치사업의 성과가 즉시에 생산실천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선동사업은 생산자대중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어 생산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게 한다.

바로 여기에 경제선동이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경제선동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긍정적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과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사상과 열의를 발동시키는데서 긍정적모범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

는것은 경제선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을 지향하며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긍정이 긍정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산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과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은 전체 인민이 사상적으로 발동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릴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 모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게 하는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경제선동은 바로 대중속에서 높이 발현되는 긍정적인 모범을 제때에 발견하고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집단적혁신에로 고무추동한다.

경제선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고귀한 경험, 대중속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운 소행을 적극 따라배우게 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선동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대중동원방법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있는 대중정치사업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운동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어려운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경제선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 당사상사업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특히 독창적인 경제선동방침이 옳게 구현되여 선동사업에서 고귀한 모범과 경험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은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에 많은 선동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경제선동을 통한 선동사업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생동한 본보기가 마련되고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1974년의 《70일전투》와 당창건 30돐을 맞으면서 진행한 《100일전투》 그리고 당 제6차대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을 앞두고 벌어진 충성의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조직지휘한 대규모의 경제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기하고 그에 맞게 경제선동을 적극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김철의 강철전사들과 검덕의 영웅광부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광범한 생산자들속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경제선동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제선동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대중정치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경제선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당은 이미 정연한 선동사업체계를 세워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마련하여주었다.

중앙과 도들에는 예술선전대, 군들과 큰 공장, 기업소들에는 기동예술선동대들이 무어져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것은 경제선동을 통하여 대중을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을 높이 받들고 선동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기동적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과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7페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경제선동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녁을 옳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선동공세를 진공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경제선동의 과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진공적인 선동공세를 벌리는것은 대중정치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푸는데 모를 박고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선동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여기에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그들의 충성심이 남김없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경제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시키기 위한 진공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그들이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자체의 기술, 자체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더 빨리 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

Digitized by Google

하고 그들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경제선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숨은 영웅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이다. 그들은 누가 보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앞에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우리는 경제선동을 통하여 숨은 영웅들속에서 발현된 숭고한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순간을 살아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보람있게 사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과정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적극 내세우며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선동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가지 선동수단과 형식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을 리용하여 진공적으로 벌려야 설정된 과녁에 맞게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댈수 있다.

경제선동에는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이 있다.

구두선동은 절절한 호소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직관선동은 사람들에게 직감적인 충동과 자극을 주며 예술선동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투쟁은 선동사업의 이러한 형식과 방법들을 옳게 리용하여 대중정치사업을 다양하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정치사업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그 어떤 고정격식화된 틀과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써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때와 장소,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는 정치사업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고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우리는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환경, 제기된 혁명과업의 요구에 맞게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옳게 결합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공세를 들이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 전당적인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발전실태와 그 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었다.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든 우리의 금속부문 로동계급들과 기계전사들, 광부들은 오늘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기수가 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의 전투적기세를 더욱 높여주자면 강력한 선동력량을 무어 그들속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들이대여 그들이 철강재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유색금속 150만톤고지를 점령하며 프레스화, 형단조화, 용접혁명, 절연물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창조되고 실천투쟁속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경제선동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우렁차게 울리고 《80년대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문예활동의 대중화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요구

리 동 원

문예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예술을 옳게 발전시키려면 예술을 대중화하여야 합니다. 예술을 대중화하여 공장과 농촌의 광범한 근로자들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하여야 우리의 예술을 참다운 인민적예술로 만들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345폐지)

문예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문학예술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자신이 문학예술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문예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창조와 보급 사업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문학예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군중적로대우에서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문학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문학예술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 정서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작적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우리의 문학예술을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만들수 있다.

문예활동의 대중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적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주체적문학예술은 본성에 있어서 인민적성격을 가지고있다.

주체적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은 근로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체적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은 문예활동의 대중화를 통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예술의 성격은 그 문학예술이 누구의 힘에 의하여 창조되며 또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부르죠아문학예술은 착취계급의 돈주머니에 매달린 반동적인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것으로 하여 철두철미 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다. 문예활동에 몇몇 전문가들만이 참가하게 되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킬수 없게 된다.

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을 확고히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문예활동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 그것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흘러나온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문화적재부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만들어내며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력사를 발전시킨다.

Digitized by Google

그러나 인민대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다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어느때나 자기의 힘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것도 아니다. 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으며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려면 그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지 않고서는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근로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문학예술은 현실생활과 근로인민대중의 실천활동을 떠나서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할수 없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문학예술의 생명력은 현실생활을 어느만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 얼마나 밀접히 결합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근로자들의 실천활동과 결합된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문예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 여러 초소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문예활동에 광범히 참가하면 저마다 자기자신들이 체험한 생활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쥐고 현실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이 좋아하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낼수 있다.

이것은 문예활동을 대중화하는것이 주체의 문학예술을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참신하고 특색있는 형식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근로인민대중을 문학예술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예술적재능을 꽃피워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문예활동의 대중화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문예활동의 대중화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매우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주체의 문학예술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할 때 주체의 문학예술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하게 된다.

오늘 주체의 문학예술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 문화교양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인공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혁명적문예작품을 통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문화적소양을

Digitized by Google

갖추어나갈수 있게 된다.

특히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예작품창작에 참가하면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뿐아니라 문화적소양도 더욱 높여나갈수 있다. 그것은 문예작품창작과정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문예작품창작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자로 하여 현실을 분석평가하고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창작과정은 또한 문예작품창조자들자신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와 함께 숨쉬고 사고하며 충성의 열정을 꽃피워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그러므로 문예활동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광범한 군중을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만들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이것은 문예활동의 대중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 수행에 이바지해야 할 주체적문학예술의 전투적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문예활동의 대중화가 주체적문학예술 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온 나라의 예술화를 다그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찬란히 꽃필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참가하고 즐기는 군중예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라고 밝히였다.

온 나라의 예술화는 문예활동의 대중화를 통하여서만 실현할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문예활동을 전사회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다루며 춤도 출줄 알게 하며 일터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노래소리, 악기소리가 울려나오게 하여야 온 나라의 예술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된다. 온 나라의 예술화, 이것은 참으로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도 완전한 주인으로 되는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힘있게 밀고나갈 때 문학예술의 창조와 향유에서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불평등과 차이를 없애고 문화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게 될것이다.

이렇듯 문예활동의 대중화는 우리의 문학예술의 인민적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 잘 이바지하며 온 나라의 예술화를 다그치게 하는것으로 하여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문예활동의 대중화방침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우리 당은 문예활동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문예활동의 대중화를 힘있게 다그쳐왔다.

문학예술창조사업을 대중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이 사업을 신비화하는 경향을 없애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여러번 말했지만 글쓰는것을 신비화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학과 예술이 신비한것이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것을 쓸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7권, 109페지)

작품창작을 신비화하는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이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과 반동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창작에 신비성을 부여하면서 창작사업은 마치 타고난 특출한 재능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것처럼

Digitized by Google

크인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
ㅓ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창
ㅏ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
를 부인하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이며
인민적인 사상관점의 표현이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창조사업을 신비
하는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여 강하게
쟁하는 한편 전체 인민이 다 풍부하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누구나 다 마음먹고 달라붙는다면
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다
확고한 관점과 신심을 가지도록 대
을 교양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문
예술창조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히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소조들을 널
조직하고 그 활동을 활발히 벌리도
한것이다.
문학예술소조는 대중의 문예활동을
조직화하고 정상화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
시키며 작가, 예술인 대오의 후비를 키
워내는 믿음직한 원천으로 된다. 문학
예술소조는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그
어떤 지역이나 직종, 계층들 속에도 조
직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문예활동
에 적극 참가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문학예술소조
는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세포로서
주체적문학예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확
고히 담보한다.

우리 당은 문학예술소조의 특성에 대
한 과학적고찰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인
민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모든곳에 문학
예술소조를 조직하게 하고 그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
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이르
는곳마다에 수많은 문학예술소조들이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조직되였으며 소
조원들은 생산도 하면서 문예활동을 정
상화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중앙과 도의 전
문예술단체들에서 군중예술을 발전시키
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어주었
으며 전문예술인들이 공장과 농촌에 나
가 공연하면서 예술소조사업도 지도방
조하는 사업체계를 세워주었다.

이렇듯 우리 당이 문학예술소조사업
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
소년학생, 군인 등 광범한 사회성원들
이 문예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들의
예술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실
로 우리 나라의 문예소조활동은 그 포
괄범위와 조직화의 심도에 있어서나 군
중예술작품의 내용의 풍부성과 형식의
다양성에 있어서 비할바없는 높은 경
지에 이르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해마다 국가적기념일
과 명절을 계기로 문학예술작품현상모
집, 미술작품전람회, 예술축전과 경연
대회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현명
하게 령도함으로써 군중예술을 더욱 발
전시키고 온 나라를 혁명적랑만과 전투
적기백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치있는 문학예술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주체적문학
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고있으
며 인민대중속에서 자라난 믿음직한 작
가, 예술인 후비들로 우리의 문학예술인
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주고있다.

문예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우리 당
의 령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
은 문학예술보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
선하도록 한것이다.

문학예술보급사업은 근로자들을 문학
예술의 창조에서뿐아니라 그 향유에서
도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사상교양, 문화정서교양을 강
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
답게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아
무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
술작품들을 많이 창조해낸다고 하여도
그것이 대중속에 잘 보급되지 못한다면
그 문학예술은 자기의 교양자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한것
으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
구에 맞게 문학예술의 교양적기능을 더
욱 높이기 위하여 예술보급사업을 통털

Digitized by Google

계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예술보급체계를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새롭게 세워준 예술보급체계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우리 식의 예술보급체계이다. 그것은 예술작품을 상품화하던 자본주의적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예술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골고루 예술작품을 향유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예술보급체계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예술보급체계가 확립되였다. 새로운 예술보급체계는 당의 수중에 장악된 문학예술이 자기의 교양자적기능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문학예술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하기 위한 실효투쟁을 널리 벌리도록 이끌어주었다. 오늘 대중속에서 영화감상모임, 소설감상모임, 시랑송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실효투쟁은 순간을 살아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주인공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주고있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예술선전을 강화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예술선전을 위하여 각 도에 예술선전대를 내오고 그의 사업체계와 활동 내용,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예술선전대들은 경제선동과 예술보급을 결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문화교양을 적극 벌림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도예술선전대뿐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기동예술선동대가 조직되여 생산을 떠남이 없이 예술선동,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충성의 한길로 적극 이끌어주고있으며 《80년대속도》창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문학예술인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문예활동의 대중화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매진군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을 보다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은 매국배족행위

김 정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남조선괴뢰도당의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저지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합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32페지)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을 저지시키는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그 당사자인 조선사람이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문제도 능히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그 앞잡이들의 외세의존정책때문이다.

나라안에 외세에 빌붙어 살아가려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이다.

어떤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민족의 내부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으며 민족의 운명이 롱락당하는 비참한 처지를 면할수 없게 된다.

외세의존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사대주의사상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에 빌붙어 살아가려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떠맡기는 망국사상이다.

사대주의자들은 례외없이 나라안에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근본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다.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어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게 되면 외세에 굴종하여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외세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허용하게 된다.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또한 민족경제를 다른 나라에 예속시키고 군사적통수권도 빼앗기게 되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초래하여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외세에 의존하는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을 완전히 저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노예의 처지에 빠뜨리는 가장 엄중한 범죄적행위로 되는것이다.

력사는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은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며 사대주의자, 외세에 의존하는자들은 례외없이 매국노들이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동안 민족수난의 참화를 입은것은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 배인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아부굴종한데 있었다.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은 자주를 지향

Digitized by Google

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반민족적인 외세의존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집권자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외세의존정책은 다름아닌 매국배족행위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82페지)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은 례외없이 외세에 의존하여 연명해온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을 줄곧 그 무슨 《자유의 수호자》로 떠받들면서 철저한 외세의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

특히 전두환괴뢰도당은 력대의 그 어느 괴뢰보다도 외세의존정책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전두환역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자주권을 외세에 팔아먹고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희생물로 만드는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는 정치적사환군이다.

정치적자주권은 민족의 제일생명이다. 정치적자주권이 있어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나갈수 있다.

만일 정치적자주권을 외세에 빼앗기게 되면 모든 문제를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갈수 없으며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때문에 정치적자주권을 외세에 팔아먹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는 최대의 민족반역행위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에게 정치적지배권을 완전히 내맡김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정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치도 할줄 모르는 무지막지한 군사깡패무리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강요하는 《정치》는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들은 철두철미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을 《정당화》하고 놈들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다.

전두환역도는 괴뢰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강요한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을 비롯한 100여건에 달하는 매국적이며 배족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대미예속의 주종관계를 《합법화》해놓았다.

전두환괴뢰도당은 괴간이 미국대통령으로 되자 누구보다 먼저 상전을 찾아가 아양을 떨면서 남조선이 태평양상에서의 《미국방위의 성새》가 될것을 다짐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계획》을 백지화한 침략과 매국의 문건인 《한미공동성명》에 서슴없이 도장을 찍었다.

미제에게 정치적지배권을 완전히 내넘기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원히 눌러두려는 전두환괴뢰도당의 책동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주권에 대한 횡포한 유린행위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팔아넘기려는 참을수 없는 매국배족행위이다.

극악한 매국노인 전두환역도는 미제에게 정치적실권을 완전히 넘겨주었을뿐아니라 일본반동들에게까지 빌붙으면서 그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미국과 일본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입만 벌리면 남조선과 일본은 같은 령토이고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생명선》이며 《방파제》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일본반동들을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이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일본자위대무력이 조선전선에 출동할수 있는 길까지 터놓고있다. 이것은 전두환괴뢰도당이야말로 민족도 모르고 털끝만한 인간의 량심도

Digitized by Google

는 철저한 사대매국노이라는것을 잘 여주고있다.

최근에 전두환역도는 그 무슨 《의식혁》이라는것까지 들고나와 남조선인들속에 숭미공미사상과 노예적굴종사을 부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으며 왜색왜풍을 마구 범람시키고있.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적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 하고있다. 남선피뢰도당의 이러한 범죄적책동으로 여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이 강요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족적자주의식, 민족의 얼을 찾아볼수 는 《남이 사는 내 나라》로 되여 다.

전두환역도가 정치적지배권을 외세에게 내맡기고 그 하수인노릇을 하고있는것은 미제의 지령에 따라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전두환피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통치의 도구이다. 따라서 전두환피뢰도당은 미제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것을 례사로운 일로 여기고있다.

전두환역도가 미제의 특별지령을 받고 수천수만의 애국적인민들을 피바다에 잠기게 한 광주대학살만행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력사는 수많은 민족반역자들의 범죄행위를 기록하고있지만 전두환역도와 같이 침략자를 등에 업고 자기 민족을 그처럼 잔인무도하게 학살한 극악한 민족의 백정, 파쑈교형리를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나라와 민족을 팔고 동족을 학살하면서라도 오직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전두환피뢰도당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애국적인민들은 물론 재야정객들까지 체포투옥학살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반미, 반파쑈민주항쟁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짓밟히고 대중적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는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전두환피뢰도당은 또한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외세에 팔아넘긴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전두환피뢰도당은 우선 경제분야에서 외자도입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투자조건과 특혜,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매국적조치를 취하여 외래독점자본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들어올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자본시장개방의 최후단계라고 볼수 있는 합작은행의 설립까지 허용하여 외국자본이 생산과 류통, 금융의 지배권까지 틀어쥐고 남조선의 경제리권을 제멋대로 침식하며 롱락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외국독점체들이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물적 및 인적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갈수 있게 하여준 용납할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전두환피뢰도당은 더 많은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으며 수입자유화정책을 실시하여 상품시장을 외국독점체에 통채로 내맡기고있다. 남조선피뢰도당은 지난해에만도 79억딸라의 예속적인 차관을 끌어들이였으며 앞으로 5년동안에 469억딸라의 외자를 더 끌어들이겠다고 하고 있다.

엄청난 외자도입과 시장개방은 남조선경제를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외국자본은 정유, 합성수지, 자동차공업의 100%, 전기공업, 조선업의 80%, 금속공업의 70%, 세멘트공업, 체신기자재공업의 60%를 지배하고있다.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2천개에 달하는 미국독점회사들은 전

Digitized by Google

기, 비료, 정유, 기계,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분야에 깊이 침투하여 경영활동전반을 장악하고있다. 20여개의 미국은행 역시 남조선산업에 대한 금융적지배를 실현하여 경제의 대미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오늘 남조선괴뢰들이 걸머지고있는 외채는 이미 350억딸라를 넘고있으며 차관도입에 따르는 원리상환금만 해도 올해에는 원금과 리자를 합쳐 60억딸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글자 그대로 《채무의 왕국》으로 전변되였다.

전두환도당의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완전히 외국독점체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며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산몰락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미제의 략탈적인 《원조》와 《차관》에 명줄을 걸고있으며 외국에서 원료를 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지탱해나갈수 없는 철저한 식민지예속경제로 굴러떨어졌다.

지속적인 경제위기속에서 남조선의 중소기업은 더이상 지탱할수 없어 무리로 파산되고있으며 대기업체들도 자금난, 원료난으로 하여 문을 닫아매고 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미국잉여농산물도입과 저미가정책을 공간으로 한 농촌수탈책동에 의하여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남조선은 항시적인 기근지대로 되고말았다. 남조선에서 식량자급률은 1981년에 42%밖에 되지 않았으며 외곡도입량은 800만톤으로 늘어났다.

남조선경제가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위기는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고있으며 력사상 류례없는 민생고를 빚어내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집이 없고 먹을것이 없어 혹심한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면서 류랑걸식하고있으며 거리는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로동자들과 살 길을 찾아 모여든 리농민들로 욱실거리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수륙만리 륙과 대양을 건너 낯설은 이국땅으로 팔려가고있다. 이것은 바로 전두환괴뢰도당의 정치적폭압과 예속적인 식민지경제정책이 빚어낸 후과이며 놈들의 매국배족적책동의 필연적산물인것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외세의존정책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에서 극치를 이루고있다.

원래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일시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지만 하나의 강토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살려는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최대의 매국배족행위로 된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미국상전의 지시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범죄적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 대한 태도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31～32페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는가 투쟁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대를 내보낼데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하

Digitized by Google

않으면서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아미 떠들어댄다 하여도 그것은 사회의 론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이다.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면 웅당 다른 말을 하기전에 먼저 미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내몰데 대구호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역도는 겉으로는 마치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이고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조국통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미제침략군을 조선에서 철거시킬데 대하여서는 한디의 말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언제까지나 눌러두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외세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범죄행위인것이다.

한편 전두환역도는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전략에 따라 《2천년대통일론》과 같은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오면서 분렬을 위한 대결태세를 굳히는데 피눈이 되고있다.

전두환역도는 2천년대까지를 그 무슨 《남북개방대결시기》, 《남북경쟁심화시기》로 나누고 남북대결기반을 닦은 다음 《멸공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잠꼬대같은 소리를 줴치고있다.

외세에 빌붙은 전두환역도는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통일》의 너울을 쓰고 분렬을 추구하는 매국배족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전두환역도가 미제의 지령에 따라 꾸며낸 이른바 《상호방문》이요, 《최고당국자회담》이요,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이요 뭐요 하면서 떠들어댄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북과는 대결만이 있을뿐이고 평화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떠들던 전두환역도가 갑자기 《방문》이요, 《회담》이요, 《총선거》요 뭐요 하고 떠드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과 열렬한 지지를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이 지난 1월에 내놓은 이른바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유지하고 《한미호상방위조약》, 《한일조약》과 같은 예속적이며 매국적인 《조약》들을 존속시키며 북과 남의 관계를 다른 민족국가들사이의 관계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반대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무제한한 지배와 간섭을 허용하며 하나의 강토인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만들자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저들의 매국배족적인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후에도 미국지배층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따라 《남북교차승인》과 《유엔단독가입》을 《대외적인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더러운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또한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려는 미제의 전략을 충실히 집행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괴뢰군무력을 증강하고 군수산업을 확대하고있으며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전역에서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외

Digitized by Google

세의존정책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두환괴뢰도당은 외세의 비호밑에 민족의 리익을 저버리고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지만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오래동안 이어갈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면서 력사를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지난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남조선인민들도 인간의 존엄과 빼앗긴 자주권을 찾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양키는 물러가라》, 《전두환을 타도하라》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전두환괴뢰도당의 대미의존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확고한 결의의 표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서 쫓아내고야말것이며 그 앞잡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이제라도 조국과 인민앞에서 저지른 지난날의 죄과를 조금이나마 씻고 옳은 길로 나가려 한다면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자주적립장으로 돌아서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거족적인 투쟁에 합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다운 길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어긋나게 계속 외세의존의 길, 매국배족의 길로 나간다면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민족해방의 기치높이 반미자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 성스러운 투쟁의 불길속에서 매국배족의 무리들은 타죽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11호(루계 487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11월 1일 발 행• 1982년 11월 5일

ㄱ—2518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82

Digitized by Google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488)

차 례

Digitized by Google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

인류사상사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는 위대한 공산주의적문헌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혁명의 령도자에 의하여 창조된다.

시대의 앞길을 밝히고 인민대중에게 투쟁의 지침을 안겨주는 위대한 혁명적문헌들은 심오한 사색과 탐구의 고귀한 열매이며 거창한 혁명실천의 사상리론적총화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그 사상리론적내용의 심오성과 독창성, 풍부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강령적문헌으로 빛나고있다.

이 력사적문헌은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자기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면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문헌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성과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모든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당의 향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주체의 철리로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문헌이며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당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향도적기치를 마련한 위대한 문헌이다.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전면적으로 밝힌 력사적문헌이다.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건설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새로운 력사적시대는 공산주의자들이 당건설위업을 자주적으로 새롭게 수행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킴으로써만 실현될수 있었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새형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튼튼한 정치적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페지)

우리 당은 자주성의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여온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다.

《ㅌ.ㄷ》에 뿌리를 둔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우리 당은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무어진 첫 당조직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을 확대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창건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여온 당창건위업은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빛나게 완성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고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을 확신성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창건의 력사적경험은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는것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혁명적당 창건의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을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건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당창건에서 중요한것은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요구에 부합되게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이 되여 제힘으로 당을 창건할수 있다.

기층당조직들을 먼저 내오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핵심을 빨리 키워낼수 있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당을 투쟁력이 강한 전투적부대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새형의 혁명적당을 어떤 로정을 거쳐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창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여기에 론문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론문은 집권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건설력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당대렬을 확대하며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이 창건된 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참된 길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적조건과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창건된 당을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당대렬의 급속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 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제때에 종파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계속하여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빛나게 이룩하였다.

론문에서는 1970년대가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혁명적성

Digitized by Google

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켰으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축성되고 당의 지도체제가 철저히 섬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투쟁력사는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 수령이 이룩한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오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자라난 영광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론문은 자주적으로 새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그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론문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천명한 불멸의 기념비적로작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특징, 그 위력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한 고전적문헌이다.

당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는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성과 위대성을 규정하는 근본징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30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불패성과 위대성은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의 높이,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의 공고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론문에서는 우리 당이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성격과 사명을 규정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이다. 옳바른 지도사상을 지침으로 하고있는 당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당이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자기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강력한 당으로 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다.

론문은 당의 지도사상이 당의 면모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당의 위대성은 결코 당의 크기와 력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당이 의거하고있는 지도사상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는 또한 우리 당이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이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위력한 당이며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당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만들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을 당건설의 원칙적문제로 제기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우리 당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은 독창적인 당건설로선과 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축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론문은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론문에서는 또한 우리 당이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위대한 당이라는데 대하여 해명하고있다.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모부, 인민대중의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당은 무력해지며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부시켜 당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을수 있게 되였다.

당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은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움으로써 당사업을 행정실무화

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고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며 모든 당조직들이 정치적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당사업전반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당사업기풍을 근본적으로 일신하였다.

이렇듯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이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것이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당을 공고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며 광범한 군중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밝힌 여기에 론문이 가지는 또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론문은 우리 당이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로선과 방침들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고유한 면모와 근본특징을 전면적으로 천명하고있다.

론문에서 심오히 밝히고있는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당의 지도사상문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 축성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더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들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원칙적문제들이 가장 정확하게 밝혀짐으로써 새형의 혁명적당 사업과 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실로 론문은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집대성하고 강철의 론리로 체계화한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에서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로작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준 위대한 문헌이다.

당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옳게 움직여나갈수 없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움직여나가며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계속되는 낡은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을 옳게 조직전개하고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정치적령도가 있어야 한다.

론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당과 같은 정치적조직이 있게 되는 근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에 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론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할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공산주의가 건설된 다음에도 당과 같은 향도적력량의 령도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천명한데 기초하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영원히 그 창건자인 탁월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

Digitized by Google

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으로서의 당의 혁명적성격을 튼튼히 고수할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론문은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할에 비추어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와 같은 문헌, 32페지)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해나가기 위한 근본방향이다.

당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창건된 우리 당이 처음부터 견지하여온 당건설의 일관한 방침이며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투쟁의 계속이며 그 높은 단계이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여야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당으로 만들수 있으며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론문은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의 주체사상화구호를 높이 들고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로 준비시키며 전당에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근본특징과 면모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미래 공산주의사회에 있게 될 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대한 명확한 표상이 주어지게 되였으며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불멸의 력사적공헌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문헌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우리 당의 창건으로부터 그 강화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명제들과 정식화들로 심오히 밝힘으로써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고있다.

력사의 새시대는 새로운 혁명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은 새형의 혁명적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승리하게 된다. 당이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력사적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활동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론문은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로정,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근본특징,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의 면모를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론문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력사적문헌으로 된다.

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당 건설위업을 령도해오시는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우리 당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나게 이어나가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이 력사적문헌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확신성있게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로작의 발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주체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사상리론적업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건설 사상과 리론들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행정에서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풍부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속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전면적으로 튼튼히 확립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실현되였으며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였다.

이 행정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이 튼튼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보물고가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다.

실로 론문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집대성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의 빛나는 총화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론문에서 밝혀주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론문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방침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실천투쟁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을 고수하고 끝까지 빛내여나가며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어 강화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당과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과 함께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당 제6차대회결정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과감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선로동당은 《ㅌ.ㄷ》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

강 석 숭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위대성과 위력은 당의 력사적뿌리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깊고 억센 뿌리에서 자라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된 당만이 불패의 위력을 지닐수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튼튼한 력사적뿌리를 가진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영광스러운 당이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당창건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온 빛나는 력사이며 창건된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온 자랑찬 력사이다.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온 우리 당은 실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력사적론문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창건위업의 개시로부터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로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새로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7권, 258페지)

로동계급의 당의 력사적뿌리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당이 자기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심중한 문제이다.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전위조직인 《ㅌ.ㄷ》를 결성하신 그때로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

론문은 《ㅌ.ㄷ》가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는 근거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ㅌ.ㄷ》의 강령은 우리 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ㅌ.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혁명조직이 어떤 투쟁강령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그 조직의 성격과 사명, 전투성과 혁명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강령을 내세우는 혁명조직이라야 뚜렷한 목표와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Digitized by Google

《ㅌ.ㄷ》의 강령에 의하여 비로소 조선혁명의 최종목적과 당면과업이 밝혀지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략적단계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전략과 전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ㅌ.ㄷ》의 강령은 이처럼 우리 혁명의 근본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창건될 우리 당이 내세워야 할 강령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위대한 강령이였다.

이와 함께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그 당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ㅌ.ㄷ》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자주적인 혁명조직이였다. 《ㅌ.ㄷ》는 혁명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자주적립장에서 독자적으로 세웠으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일관한 원칙으로 되였다.

당창건에 앞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반드시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선진분자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키워야 한다.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키운데 기초하여 창건된 당만이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령도적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ㅌ.ㄷ》를 결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써 장차 우리 나라에서 창건될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의 조직적골간이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ㅌ.ㄷ》에서 시작된 참다운 주체의 혁명가의 대오는 그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끊임없이 확대되였으며 그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론문은 《ㅌ.ㄷ》가 우리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된다는것을 심오히 해명함으로써 당창건위업수행에서 《ㅌ.ㄷ》의 지위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참으로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론문은 1930년대의 당조직건설의 로정을 새로운 력사적자료에 기초하여 심오히 분석하였으며 특히 카륜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과 그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첫 당조직이 무어지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당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된데 대하여서와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된데 대하여 새롭게 해명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에 기초하여 카륜회의후 당조직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카륜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였으며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당조직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Digitized by Google

《ㄹ.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5~6페지)

첫 당조직의 결성, 이것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적시원으로 되는 모체조직의 출현이였다.

첫 당조직은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이였다.

첫 당조직은 또한 준엄한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자기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적핵심들로 무어진 조직이였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한 첫 당조직은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성의 열도에 있어서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의 순결성과 공고성에 있어서, 군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높이에 이른 새로운 혁명적당조직의 참다운 전형이였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의 결성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당의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갈수 있는 향도적력량의 출현이였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참다운 향도적력량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론문에서는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무장대오와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 기층당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된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 조직사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적핵심들을 빨리 키워낼수 있으며 공산주의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을수 있다.

론문에서는 특히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결성한것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획기적인 조치로 되였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보다 조직화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과 당조직건설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론문에서 1930년대후반기에 진행된 당조직건설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1930년대후반기에 당조직건설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당조직건설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벌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축성하는것이였다.

당창건에 앞서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과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반드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지도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하며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마련되고 대중적지반이 닦아져야 한다.

이러한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축성되여야 조건이 성숙되면 지체없이 당창건을 선포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의 령도,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방침에 따라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그리고 당적령도가 보장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던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훨씬 강화되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을 제시하는것이다.

당및공청간부회의와 군정간부회의들은 당의 조직적의사를 반영하는 회의였으며 당적령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도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조선인민혁명군안에 조직된 당조직들과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수령이 제시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가 결성되고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아직 당중앙은 선포되지 않았지만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여오신 당창건의 위업을 완성한 위대한 업적이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또한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혁명발전의 매 년대들에서 강화발전되여온 력사적로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집권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우와 같은 문헌, 10페지)

집권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건설력사는 당대렬을 확대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과정이였다. 이 과정에 제기된 중요한 문제는 당을 빨리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며 당대렬의 급속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는것이였다.

론문에서는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명을 줌으로써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고있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적조건에서는 혁명투쟁에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광범히 참가하게 된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우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더우기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나섰다. 해방후 공산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 힘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통일적인 대중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성숙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은 제때에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근로대중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적경험은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각이한 당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하나의 통일적당으로 발전시키는것이 혁명력량의 분렬을 막고 근로대중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하며 보다 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 선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론문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을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 발전의 특성으로 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랜 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당은 실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해방후 혼란된 틈을 타서 공산주의대렬안에 잠입한 반당종파분자들은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것도 서슴지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안에 나타났던 종파주의와 온갖 자유주의적경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앞에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음모책동을 로골화하였다. 이자들은 1956년에 이르러 나라의 내외정세가 복잡해지게 된 틈을 타서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이끌었으며 종파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력사적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론문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요소들과 반당적조류들을 극복하는 투쟁과정에 이룩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는 1970년대가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당은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 숭고한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공고화하는 사업,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다지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Digitized by Google

체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켰으며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강화하는 사업을 새로운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당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함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다졌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은 사상성과 조직성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불패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투쟁력사는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 수령이 이룩한 전통을 빛나게 이어온 자랑스러운 년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향도적력량으로 자라난 영광의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우리 당이 〈ㅌ.ㄷ〉에서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많은 년대를 빛나게 장식하고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여온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론문은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와 시원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고 우리 당의 발전력사를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론문은 또한 우리 당이 력사적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확고한 지침을 마련하여놓았다.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는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을 지니시고 일찌부터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 력사적인 론문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과 혁명투쟁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론문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장 종 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론문에서 밝혀진 당건설 사상과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론문에 의하여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이 정식화되고 그 근거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 새롭게 해명되고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당건설을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론문에서 밝혀진 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을 옳게 밝히는것은 당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건설의 기본원칙을 옳바로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벌려나가야 로동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참모부, 정치적령도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과 특징을 명백히 규정해주심으로써 당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0페지)

선행한 력사적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는 그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할것을 요구하였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ㅌ.ㄷ〉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건설되고 발전하여온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다.

우리 당을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정식화한 이 사상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밝

Digitized by Google

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활동하는 당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19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자면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여야 하며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지 않은 당은 결코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 불패의 당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것은 당자체의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령도기관인것만큼 마땅히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이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남의 풍에 놀게 되면 결국 당도 혁명도 다 망쳐먹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것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것은 특히 그것이 심하게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에 큰 해독을 끼쳤던 우리 나라에서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이 절실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오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더욱 완전하게 갖추어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적당,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근본특징이 있으며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 있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이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

Digitized by Google

당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불패의 혁명적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자면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뿐아니라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이러한 본성적요구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것은 당건설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이며 당의 특징을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수 있었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다.

우리 당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수령은 또한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전당에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게 하였으며 모든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정연한 체계를 확립하여놓았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정연하게 세운 결과 우리 당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혁명이 전진할수록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은 당과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원칙들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과 수령의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또한 우리 당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한 위력한 당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23페지)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

Digitized by Google

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여 통일을 위한 당의 력사적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바로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가장 위대하고 공고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불패성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며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결코 그 어떤 의무감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드팀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성과 공고성은 또한 그것이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라는데 있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당은 바로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의지적통일체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통일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가장 공고하며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이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illegible]페지)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로 전변시키고 사상의지에서뿐아니라 행동에서의 통일성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더욱 위력하며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된다.

우리 당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놓았다.

우리의 현실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것이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력한 방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울수 있었다. 이것은 당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당이 인민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결되여있는 불패의 당이다.》(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형의 혁명적당으로 되자면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이루해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만으로는 결코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나가는 정치적령도기관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으며 대중을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대중과의 련계문제는 집권당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련계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집권당도 대중과 유리되고 대중의 지지와 신임을 잃으면 무력해질뿐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이것은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로동계급의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당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당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은 언제나 당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전당에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함으로써 당사업의 행정화, 기술실무화를 막고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었으며 대중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전당적으로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식방법이 당사업전반에 구현되고 당사업기풍이 일신되였으며 전당에 혁명적기백이 약동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이처럼 우리 당을 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전진하는 혁명적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여기에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성과의 하나가 있으며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근본특징,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는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며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룰 때에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조선로동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한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으로,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단계에서 심화되여왔다.

Digitized by Googl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당사업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계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는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우리 시대의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밝혀진 우리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론문은 무엇보다도 《ㅌ.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근거들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질적특징,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론문은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우리 당 건설의 귀중한 경험들을 폭넓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것은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는 생소한 위업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 로선과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조직성과 대렬의 공고성,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우리 시대의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당의 이러한 면모를 뚜렷이 밝힌것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분석일반화한것으로 하여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한 수단

통일단결의 전통을 튼튼히
여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통일단결의 전통은 간고하
한 혁명의 길에서 이룩된
재부이며 당의 혁명적성격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한 밑천으로 된다.
통일단결의 전통이 있음으
당은 그처럼 복잡한 환경
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
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
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울수 있었다.
일단결의 영광스러운 력
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
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
당을 무장시키는것을 당
위한 근본방도로 제기하
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
어 강화해나갈수 있는
.
당원들을 무장시켜 그
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일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은 당의 방침을 높이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 *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으며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통일단결이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당의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이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으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당사업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지도체제가 튼튼히 섰다. 이것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는 우리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우리 시대의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론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에서 밝혀진 우리 당이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론문은 무엇보다도 《ㅌ.ㄷ》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독창적인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근거들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질적특징,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론문은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우리 당 건설의 귀중한 경험들을 폭넓게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것은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는 생소한 위업이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 로선과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조직성과 대렬의 공고성, 대중과의 혈연적련계에 있어서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혁명적당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우리 시대의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왔다. 당의 이러한 면모를 뚜렷이 밝힌것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깊이있게 분석일반화한것으로 하여 혁명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
단결의 위력한 수단

우리 당은 통일단결의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오늘과 같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올수 있었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으로 전당을 무장시키는것을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근본방도로 제기하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대를 이어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혁명전통으로 당원들을 무장시켜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여기에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당대렬의 통일... 힘의 원천이며 ... 이다. 통일되고 ... 로동계급의 당건... 과 단결보다 더 ...

당의 통일단결... 사상과 령도의 ... 여 당의 전투력을 ... 으며 혁명투쟁과 ... 로 수행해나갈수 ...

우리 당은 당대... 하는것을 당과 혁... 근본문제로 제기하... 커다란 힘을 기울... 력사에서 일찌기 ... 생활력있고 공고한 ... 였다.

우리 당의 통일... 김일성동지를 중심... 의 주체사상에 기초... 이며 어떤 풍파에도 ... 무엇으로써도 허물... 단결이다.

당의 통일단결이 ... 써 우리 당은 하나의 ... 움직이는 전투적인 ... 렵고 복잡한 과업도 ... 는 혁명적당으로 강화...

당대렬의 통일단결... 이 존재하는 한 끊임...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한 수단

우리 당은 통일단결의 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이 위대한 통일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당대렬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오늘과 같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올수 있었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으로 전당을 무장시키는것을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근본방도로 제기하고 당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대를 이어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혁명전통으로 당원들을 무장시켜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여기에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　　*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통일되고 단결된 당은 불패이며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언제나 이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였으며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통일단결이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통일단결이다.

당의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당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강화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우리 당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당앞에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0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이 지니고있는 가장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미 멀리 전진하여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 간고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가 있고 기회주의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인 당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이다. 당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부대로 되게 할수 있으며 모든 당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것으로 당원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만 강화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당의 통일단결은 당대렬이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혁명가들로 꾸려질 때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된다. 불굴의 혁명정신과 확고한 신념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만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당원대중을 당의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지켜나가고 당과 수령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전당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08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공산주의정신을 지닌 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이다.

혁명전통교양이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으로 당원대중을 무장시켜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든다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수령이다.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은 수령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결속되는가 하는

Digitized by Google

데 있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창시하며 당을 창건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속에서 높은 령도적권위와 위신을 지니게 된다.

수령의 령도적권위는 당원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닌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 당원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그 두리에 굳게 뭉치게 되며 당의 통일단결은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것으로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혁명적인 통일단결이며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 동지적이며 의리적인 단합이다.

우리 당의 투쟁력사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전통화되여있는 빛나는 력사이다.

지난날 일제통치의 암흑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자기의 진정한 령도자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투쟁속에서 찾은 신념과 피의 교훈으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따라 혁명하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였으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통일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셔야 험난한 혁명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서는 날아오는 적탄도 가슴으로 막아나서는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닌 공산주의적핵심들이 꾸려져있었기에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대오안에서는 종파주의가 극복되고 전대오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될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굳은 통일단결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과정에 이룩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은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혁명의 령도자를 어떻게 받들고 모셔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참다운 구감으로 되며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된다.

전당을 통일단결의 전통으로 무장시켜야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받들어모신것처럼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이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간직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닐 때만이 주옥처럼 맑고 영원히 변치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칼을 물고 달려드는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마당에서도 당과 혁명을 보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앞에 어떤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해나가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갈수

Digitized by Google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이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모든 당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합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할 때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에서 중요한것은 사상의지적인 단합을 이룩하는것이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만이 공고한 통일이며 실무적인 단합으로써는 공고한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5페지)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지도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이다.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지 않는 실무적단합은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참다운 통일단결로 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당원들은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지도사상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또한 그렇게 될 때만이 당원들은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대렬안에 그 어떤 이색적인 요소도 끼여들지 못하게 하며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투쟁무대에 출현한 이래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였다.

지난 100여년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공산주의운동이 서막을 올린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적지 않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대렬안에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지 못한탓으로 하여 행동상통일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혁명투쟁에서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도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날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사분오렬되고 1925년에 나타났던 공산당 자체가 얼마가지 못하여 자기 존재를 끝마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을 언제 어디서나 혁명가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신념화, 신조화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종파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여 싸워나갔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혁명대오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업적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여야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 주체사상

Digitized by Google

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며 주체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된다.

전당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될 때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며 우리 당안에는 그 어떤 잡사상도 발붙일수 없게 된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는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당대렬의 사상적일색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를 반석같이 다질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보여준다.

혁명전통교양이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간부들과 당원들을 통일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 투쟁경험과 교훈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고수하는 투쟁의 기수로 되게 한다는데 있다.

당의 통일단결은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반당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당내반영이다. 반당적조류와 이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섰던 투쟁대상은 종파주의였다. 종파분자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분자들은 공산주의대렬안에 잠입하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도전해나섰으며 혁명대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종파분자들이 벌린 좌경기회주의적책동과 반《민생단》투쟁행정에서 나타난 좌경적편향은 우리 혁명발전에 심대한 해독을 끼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종파주의와 배타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심으로써 공산주의대렬의 통일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다.

해방후 당대렬안에 잠입하였던 화요파, 엠엘파를 비롯한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탐위분자들이였으며 반당, 반국가적 음모책동을 감행한 반혁명분자들이였다. 이자들은 저들의 종파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어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는것도 서슴지않았다. 종파주의가 허용되면 당안에 음모가, 야심가들이 나타나 당이 통락당할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체로서 존재할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선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를 극복하는것으로 끝날수 없었다. 우리 당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청산한 다음에도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당의 력사적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반당종파분자들을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은 주동을 치고 피동을 포섭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분쇄하는 투쟁과 그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모든 힘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

Digitized by Google

적 사상조류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력사적경험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것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경험은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투쟁경험으로 무장시켜야 그들을 온갖 부정적요소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투쟁의 기수로,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되게 할수 있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언제나 예리한 당적,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제때에 식별하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당적원칙을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옹호해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드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당대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사상의지적순결체로, 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되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당대렬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 있어서 끝없는 영예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만족할수 없으며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대를 이어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다름아닌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당의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줄 아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전당에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그대로 본받음으로써 당중앙의 지휘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

윤 빈

당과 국가의 활동은 일정한 세계관,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전개된다.

우리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지도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당과 국가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상에서 주체원칙의 본질과 주체를 세워야 할 필요성,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론문은 우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7페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선차적인 요구로 나서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할수 없을뿐아니라 온갖 사회적예속에서 해방될수 없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 자신의 자주적인 요구와 계급적리해관계를 깊이 자각할수 있으며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사람들의 사상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사상문제를 옳게 풀기 위하여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인것만큼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그것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

방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사상적으로 남에게 얽매여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못하는 인민은 자주성을 발휘할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수 없다. 정치, 경제, 국방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상에서부터 주체를 확립하여야 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의 본질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론문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관점과 태도를 가질 때라야만 사상에서 주체가 철저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하는것은 무엇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그 나라 당과 인민의 기본임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지닌 기본임무이다. 혁명은 수입할수도 없고 수출할수도 없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은 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혁명의 주인이며 기본력량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을 떠나서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는 없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하는것은 또한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을 잘하여야 세계혁명도 잘되여나갈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세계혁명은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을 잘하고 그 기초우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여야 잘되여나갈수 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의 대렬이 점차 확대되여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여야 세계혁명의 련계고리를 강화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또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다른 나라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수 있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곧 그 나라 당과 인민의 기본임무이며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의무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38페지)

로동계급의 사상과 자기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는것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은 자주적인 계급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이다. 로동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의 지침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그 나라 혁명적당의 로선과 정책이다. 매개 나라 당의 로선과 정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있으며 그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고있다. 자기 나라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곧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한다는것을 말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룬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최고표현이며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야 사상에서 주체가 확고히 섰다고 할수 있다.

론문에는 또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자기 나라의것을 잘 알아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나갈수 있다. 또한 그래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적헌신성과 혁명적열정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조선사람은 조선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조선인민의 풍습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 혁명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것은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를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여야 주체사상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알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자체로 해나가는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수 있다. 또한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끝까지 견결히 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우리 인민의 풍습을 잘 알아야 하며 특히 우리 당 정책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론문에는 또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는것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는것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우선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만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기때문이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않다는 민족적자존심,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없고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은 다같이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상감정으로서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질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우수하고 훌륭한 모든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부

Digitized by Google

려 울려나오는 사상감정이며 혁명적자부심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번영, 통성발전을 이룩해나가는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긍지로 여기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져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하다.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는것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작은 나라들에서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기때문이다.

오래동안 남의 압박을 받아온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는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동화정책과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작은 나라들에서는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특별히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혁명의 앞길을 개척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오면서 실지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체득한 확고한 신념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그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싸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지니고 온갖 시련을 헤치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간을 살아도 수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살며 싸워왔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론문에는 또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여있다.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민족적형식에 혁명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문화,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고 로동계급적선이 선 주체적인 문화를 건설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할수 있으며 사상에서 주체를 더 잘 세울수 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저속하고 타락적이며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그들을 사상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고 책동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문화침투를 철저히 막아냄이 없이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나갈수 없다.

또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복고주의적경향과 허무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그 우수한 전통을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것은 결코 력사적으로 형성된 온갖 문화유산을 다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과거 통치배들이 자기들의 계급적지배와 향락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문화를 버리고 슬기롭고 용감한 근로인민대중이 이루어놓은 민족적감정에 맞는 문화를 계승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복고주의적경향과 허무주의적경향을 다같이 철저히 극복하여야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는 주체가 선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가운데서도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는 진보적인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문화를 발전시킨다는것은 결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문화라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고 진보적인것은 받아들여야 자기 나라의 민족문화를 보다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과학과 기술은 사람의 창조력을 높이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사람의 창조적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지식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의 성과는 높은 사상성과 함께 그들의 지적힘, 과학의 힘에 의하여 담보되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세계를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력을 발전시킬수 있다. 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일수 있으며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강화하여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에서 남을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경제발전수준이나 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쳐다보지 않게 되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경제와 함께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론문에는 또한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그자체가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상해방이며 새로운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상혁명입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그와 대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배격하여야 하며 특히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1페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낡은 사상과의 심각한 투쟁을 동반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는것은 사상령역에서의 혁명을 의미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특히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사대주의는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세울수 없게 하며 근로인민대중이 제 정신을 가지고 제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수 없게 하는 반동적사상이다. 사대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가로막아나선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Digitized by Google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것은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이다. 공미숭미사상으로 나타나고있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다.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의 해독성은 오늘 남조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부식한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사상은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미풍량속을 짓밟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독소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공미숭미사상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도 조국의 자주적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투쟁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정치와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과 국가 활동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근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위대한 과학적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더욱 철저히 개조하여나가야 한다.

Digitized by Google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김 화 종

정치에서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하며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이 원칙은 당과 국가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립장을 밝혀주며 매개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참된 길을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의 본질적내용과 그 필요성 및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명이 주어져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이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자주성을 견지하고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지도적원칙이다. 그것은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2페지)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이다.

사회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사람들의 집단생활은 복잡한 사회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동질서와 규범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인 정치가 필요하게 된다.

정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발전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이다. 정치가 없이는 사람들의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이 이루어질수도 없고 유지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정치는 사회생활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실천투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정치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도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선차적요구로 나선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사상문화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열쇠로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없으며 반동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수 없다. 이것은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Digitized by Google

론문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주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오직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정치분야에서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확고히 실현될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방향과 방도도 정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당과 국가의 정치적지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성과가 좌우된다.

당과 국가 활동에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있으며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은 이와 같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힌데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론문에 천명되여있는바와 같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기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는것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이 담고있는 가장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여나간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예속되면 인민대중도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실현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에만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적독립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어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적독립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라고 하여 민족적독립만 이룩하면 자주성이 저절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자면 민족적독립과 함께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자주권이 확고히 고수되여야 한다.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빼앗기면 남에게 예속되기 마련이며 자주적인 나라, 자주적인 민족으로 될수 없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는 비록 민족적독립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없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이 담고있는 본질적내용의 다른 하나는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는것이다.

정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이며 그 결정적요인이다.

자주성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의하여

Digitized by Google

대변되고 옹호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말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은 그들의 역할을 높여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말한다.

정치가 혁명과 건설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할 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확고히 실현되게 된다.

오늘과 같이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정치적자주성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확고히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실현할수 있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는것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은 정치적자주성을 전제로 한다. 정치적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자주성을 가지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참다운 자주독립국가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근본표징으로 된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일뿐아니라 제일생명이다.

자주독립국가의 존재와 발전은 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나라가 정치적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남에게 예속되기 마련이며 결국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남에게 먹히우게 된다.

정치적자주성을 잃게 되면 비록 위력한 경제력과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을 낼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담보해주지 못한다.

정치적자주성이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인것만큼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남의 정치적립장을 고스란히 받아물 때에는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세워 집행할수 없으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것은 또한 혁명위업의 운명이 정치적자주성에 의하여 좌우되는것과 관련된다.

혁명투쟁은 정치적자주성을 위한 투

쟁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직접 정치에 의존한다. 정치에서 어떤 립장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총적 방향과 방도가 결정되며 그 성과가 좌우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정치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간다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잃게 되고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특히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우심하게 감행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매개 나라 당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처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론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3페지)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된다.

자주적인 인민의 정권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와 령도를 통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보장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누릴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쥐고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적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우리 인민의 정치적자주성은 인민정권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론문에 천명되여있는바와 같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꾸려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혁명력량이 튼튼히 마련되여야 한다. 혁명력량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혁명력량은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정치적력량이다. 정치적력량은 혁명투쟁을 추동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힘이며 경제적력량과 군사적력량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력사는 인민대중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수령과 당의 두리에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통일단결되지 못할 때에는 발전된 경제력과 최신군사기술수단을 가지고있다 하여도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Digitized by Google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자주권을 쟁취하고 고수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자주적인 정치를 보장할수 있다.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자면 혁명의 지도력량인 당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이다. 당과 인민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통일단결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론문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는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독자적인 자기의 지도사상이 있어야 혁명과 건설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세울수 있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작성할수 있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것만큼 한 나라 당의 지도사상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나라에 그대로 맞을수 없다.

모든 나라에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시대의 지도사상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될 때에만 그 나라 당의 참다운 지도사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 자체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자로 하여 옳고그른 것을 정확히 가려볼수 있으며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질뿐아니라 자신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론문에 천명된바와 같이 정치에서 기본은 정책을 규정하고 집행하는것이다. 지도사상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정책과 로선을 바로 규정하고 정확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매개 나라 당과 국가정권이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여야만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였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당과 국가의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대외관계에서 철저히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의 자주성이 결국은 대외관계에서 표현되기때문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자주적인 당과 국가 활동의 기본표징의 하나이다. 당과 국가는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한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자주권이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기때문이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같이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형제당들사이에는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

Digitized by Google

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느 당도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특권적지위를 요구할수 없다. 모든 당들은 서로 평등한 립장에서 다른 당들을 존중하고 서로 동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의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자기의 자주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참말로 자주적인 정치를 할수 있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이 당과 국가의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자주성이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론문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자주성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자기 나라 혁명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수 없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원래 자주적이고 평등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자주성에 기초하여야 국제주의적단결도 비로소 자원적이고 평등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론문에는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의 기본내용이 명백히 밝히져있다.

그것은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는것이며 둘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는것이며 셋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견지하는것이며 넷째로,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과 단결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협조하는 방침을 견지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이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 당이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현실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밝혀진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고히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리론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며 독자적인 주견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사상은 그것이 철저한 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자주의 새세계를 창조하는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심오히 연구체득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경제에서 자립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질적기초

김 기 호

경제에서 자립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하자면 당과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해야 하며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와 함께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에서 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있다.

론문에서 밝혀진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45~46페지)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경제에서의 자립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사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제는 바로 사람들의 생활과 나라의 독립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한다. 사회를 이루고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수단이 있어야 한다.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갈수도, 발전할수도 없으며 사회자체가 존재할수도 없다. 나라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어떤 나라이든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나라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곧 경제가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로 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것이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경제에서 자립은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는 한 경제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세계적으로 아직 국경이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되며 매개 민족과 인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제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만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없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게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Digitized by Google

날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민족적독립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할수 있으며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확증된 귀중한 력사적경험이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경제에서의 자립은 또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를 보장하는것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조건이다. 민족적독립을 달성한 다음에도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다. 경제에서 자립은 바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예속된 나라 인민들속에서는 사상분야에서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을 섬기며 쳐다보는 사대주의가 생기게 되고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적어지게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이룩하여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사상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또한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인 정치적자주성도 견지할수 없게 된다. 경제적으로 예속된 나라는 자체의 결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며 결국은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오직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만이 자체의 지도사상과 결심에 따라 자기 나라 현실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관철해나감으로써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국방에서 자위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튼튼한 자립적인 경제토대가 있어야만 민족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계속 강화할수 있다.

이처럼 경제에서의 자립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민족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경제에서의 자립은 또한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안받침할수 없다.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생활수단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높일수 있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경제에서의 자립이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로 되며 사상, 정치, 군사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론문에서 경제적자립이 나라의 독립

과 자주성의 물질적기초로 된다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진것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주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경제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46페지)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또한 그래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계속 강화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은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는데서 나타난다. 국제관계에서의 자주성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해야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나라만이 그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예속도 견결히 반대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더 잘 도와주고 반제자주력량과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다른 나라의 《독립》을 표방하면서 은페된 교묘한 수법으로 올가미를 씌워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 인민들을 계속 지배하고 략탈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신식민주의정책을 물리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길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지난날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착취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다.

이렇듯 론문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본질과 그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힌것은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근본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준 위대한 사상리론적공헌으로 된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다음으

Digitized by Google

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46페지)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야 한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는 인민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낼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 인민은 아무 일도 잘할수 없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을 동원하고 자체의 자금과 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를 주동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나라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귀중한 경험이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자립경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립경제는 응당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은 여러가지 경제부문들과 생산공정을 다 갖추도록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다양한 생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을뿐아니라 경제를 공고한 토대우에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한 나라만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인민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설정하고 유지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를 건설하자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둥이다.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가져야 경제기술적으로 자립할수 있으며 경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중공업자체의 발전도 다그칠수 있다. 특히 농사를 잘하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기술적자립은 경제적자립의 필수적요구이다. 자체의 발전된 기술이 있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래야 근로대중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갈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고

Digitized by Google

그것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하나의 혁명이다. 모든 부문에서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기술혁명을 끊임없이 다그쳐나가야만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을 이룩할수 있다.

나라의 경제기술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기술인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자체의 민족기술인재가 없이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경제를 제대로 관리운영할수도 없다. 민족기술인재문제를 푸는것은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예속밑에서 현대적과학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므로 기술혁명을 하고 경제기술적으로 자립하자면 반드시 문화혁명에 힘을 넣어 근로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민족기술인재의 대부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방침을 견결히 관철해나가야 하며 근로대중의 문화기술수준과 기술간부들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더 좋게 키워내야 한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은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경제를 안전하고 전망성있게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자체의 원료, 연료 기지에 의거하여야 하며 원료, 연료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켜야 한다. 원료, 연료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것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원료위기, 연료위기를 겪고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는 자체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공업을 처음부터 자기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론문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자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9페지)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신흥세력나라들은 서로 경제적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며 소수 자본주의렬강들이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낡은 경제질서를 끝장내고 공정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이와 같이 공통된 경제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을뿐아니라 무진장한 인적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거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신흥세력나라들은 또한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신흥세력나라들과 인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적자립과 번영을 이룩

Digitized by Google

할수 있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또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이라고 밝히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며 모든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철저히 과학화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론문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해명됨으로써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다그쳐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경제에서 자립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경제리론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에서 자립에 관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본질과 합법칙성,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리하여 주체의 경제리론은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무기로서 보다 큰 위력과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경제에서 자립에 관한 사상에 의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쳐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을 물리치고 민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힘있는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이 사상에 의하여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여 국제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론문에서 밝혀진 경제에서 자립에 관한 사상이 주체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안겨준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말하여준다.

우리는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경제에서 자립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당의 령도밑에 급속히 발전한 주체적인 과학기술

—과학원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정 준 기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과학원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몸소 마련하여주신 과학원의 창립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것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승리한 조국의 먼 앞날까지 확신성있게 내다보시고 우리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경사였다.

과학원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과학의 최고전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활짝 꽃피워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과학원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여왔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과학원을 창립하여주시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 *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근로자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로동생활과 물질생활 분야에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과학기술은 바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여야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다. 또한 그래야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사대주의사상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줄수 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 위력한 사회주의

Digitized by Google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없었으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주체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의 근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제2판, 569페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자기 나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고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는 과학기술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 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치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이 과학연구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주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근본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여준 독창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이다.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과학기술수준이 높으며 실천적경험이 풍부한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민족기술간부가 매우 부족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오랜 인테리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교양개조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당을 창건하실 때 인테리들을 우리 당의 구성성분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적성과로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 일제의 심한 민족적 억압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일정한 반제혁명의식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공

부를 하고 진리를 파악하고있기때문에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선진계급인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전국에 널려있는 오랜 인테리들을 부르시여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대렬에 내세워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시기 위하여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대학과 전문학교들을 창설하시고 과학기술간부양성사업을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들에 대학만 하여도 170여개나 세워졌으며 교수교양사업이 개선되고 민족간부양성규모가 늘어났다. 교육기관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교육의 질이 끊임없이 개선됨으로써 새 사회 건설의 초시기에 그처럼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민족간부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민족경제와 과학, 문화 발전의 휘황한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해결하여주시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쓰고살 집과 먹고 입는 문제로부터 건강에 이르기까지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끊임없는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수 있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현되여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당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게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규률성을 배우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그들모두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강의한 혁명적의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지도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이 방침을 높이 받들고 누가 보건말건 평가해주건말건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자

Digitized by Google

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과학의 높은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과학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키도록 과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여러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돌격대를 무어 생산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식과 생산자들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방침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 비날론에 대한 연구의 완성, 무연탄가스화문제의 해결,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인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5권, 189페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제를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이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해결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석탄과 쇠돌,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과 합금원소광물, 비금속광물들을 많이 찾아내고 새로운 채탄법과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을 연구해냄으로써 주체공업의 원료, 연료 기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한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 특히 우리 나라에 풍부한 저열탄과 조수력자원을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동력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한것이다.

생산이 몇개 부문에 편중되여있거나 원료나 반제품 생산공정만 꾸려져있는

Digitized by Google

그러한 경제는 결코 자립적인 경제로 될수 없다. 부문구조를 완비하여야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자립적인 경제체계를 갖출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적인 야금법을 발명하고 콕스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제철, 제강 공업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유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과 유색합금재료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으로 비날론과 갈섬유를 만들어낸데 이어 새로운 주체적인 섬유인 모빌론을 연구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데 성공하였으며 합성고무공업과 린비료공업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들을 창설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여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한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공업기지들을 꾸리고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농작물의 육종방법과 재배방법을 해결하여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앙양을 이룩하게 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주체적인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되며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다.

기술혁명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기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의 수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공업화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이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경제를 최신기술로 장비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려 새로운 주물방법을 발명하고 여러가지 최신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생산방법과 기술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토대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이 빨리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렇듯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여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한 바

Digitized by Google

또 여기에 주체적인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주되는 성과가 있는것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은 앞으로 더욱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는 100여만명의 인테리대군이 마련되였으며 그들의 과학기술수준도 비상히 높아졌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대학과 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모든 인테리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테리로 되였다. 이 충성의 대오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많이 나온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된 인테리대군이 마련된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더욱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지난날 과학연구실 하나 없었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수많은 연구기관들과 연구기지들이 꾸려지있으며 인민대학습당과 수백만부에 달하는 과학기술도서를 가진 과학도서관들, 여러가지 학술잡지와 과학기술도서를 발간하는 출판기지, 현대적인 실험기구와 자재, 시약을 생산하는 공장들, 연구결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실험을 할수 있는 많은 중간공장이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자체의 믿음직한 과학기술력량과 연구기지들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참으로 전화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과학원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온 자랑찬 나날이였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고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온 빛나는 로정이였다.

오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는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기술공학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중요한 기초과학부문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원자에네르기와 태양에네르기의 개발, 레이자와 플라즈마와 같은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인민경제에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현대과학의 높은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영원한 정치적생명

황 순 희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적생애와 녀사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투쟁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덕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남달리 일찍부터 애국의 정신과 혁명의 뜻을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시였다.

피어린 항일성전의 그날로부터 해방후 거창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어려운 투쟁의 나날에 이르기까지 존경하는 김정숙동지께서 걸어오신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조선이 낳은 걸출한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조국의 광복과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온갖 충성을 다하여온 빛나는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렇듯 고결한 삶을 빛내여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으며 녀사께서 지니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4권, 387페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정치적생명이다. 사람은 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되며 참된 삶을 누리게 된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생명에는 끝이 없다. 혁명가들은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는것이다.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주며 보호해준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수령은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은인이며 그것을 영원히 꽃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버이이다. 혁명가들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다할 때만이 자기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을 지닐 때 높이 발양되게 된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Digitized by Google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가 지니고있는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을 가장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이라야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공산주의혁명가의 위대한 구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신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성심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높이에 이른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절대적인 존경과 열렬한 흠모,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은 그 어떤 도덕적의무감에서 나온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오직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고매한 풍모를 심장으로 체득하신데 기초하여 생겨난것이였으며 간고한 시련과 혁명의 불길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철석같은것이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폭압속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에 사무치게 체험한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김일성장군님의 품은 곧 혁명의 품이였으며 조국의 품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반드시 조국을 광복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누구보다도 굳게 확신하시였다. 장군님께 자신과 온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철석같은 신념이였으며 의지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관철하신 열렬한 혁명가의 빛나는 생애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켜온 혁명가의 숭고한 생애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정숙동지의 충성심은 그처럼 숭고하며 녀사의 한생은 그처럼 값높고 빛나는것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충성심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신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유일한 혁명적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혁명가들의 참다운 삶과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드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은 그것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Digitized by Google

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을 때만이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혁명적지조를 굿굿이 지켜나갈수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원쑤들과의 치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단 한시도 학습을 중단하는 일이 없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한 군정훈련의 짬시간에도 숙영지의 깊은 밤 우등불가에서도 지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시간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학습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사고와 실천의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삼고 오직 그대로만 살며 싸워나아가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이시였을뿐아니라 그 견결한 옹호자이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혁명적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투쟁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한데로부터 기성리론의 명제를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옳게 관철하지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어긋나는 사소한 경향도 융화묵과하지 않으시였으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이끌고계시던 1938년 겨울이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새로운 혁명임무를 받고 청봉밀영에 들어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헐뜯고있던 혁명의 배신자인 엄가놈의 죄행을 낱낱이 발가놓으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견결히 고수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순결하게 고수해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철석같은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엄혹한 시련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위험속에서도 온갖 반혁명적사상경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김정숙동지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은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단결은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성심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혁명임무와 명령지시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훌륭히 수행해내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이며 이 투쟁행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이 발휘되게 된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 수령이 주는 혁명임무와 명령지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사람만이 진실로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될수 있으며 자기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항

일혁명전쟁의 나날 그리고 민주와 반동의 대결이 치렬하던 해방직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시는 혁명임무를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제때에 훌륭히 관철하는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를 집행하는데서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으시였으며 언제나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과 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이것이 바로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신념이였으며 의지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길에서 군사활동과 지하공작, 학습과 부대관리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혁명임무들을 가장 철저히 집행하시였으며 여기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였다.

1936년 8월 무송현성진공전투때의 일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7명의 녀대원들과 함께 부대들이 재빨리 철수하는데서 하나밖에 없는 통로인 잘룩목을 지킬데 대한 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수행하고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 철수하는 아군을 앞질러 한개 소대력량의 일제침략군놈들이 잘룩목으로 접근해왔다. 사령관동지의 신변과 전부대에 큰 위협이 조성될수 있는 긴박한 순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의 회생적인 투쟁으로써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고 차지한 계선을 끝까지 고수하시여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1937년 봄 사령관동지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넘나드시며 반년 남짓한 기간에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장백현 하강구와 상강구 일대 그리고 국내 신파일대를 혁명촌으로 꾸리신 일이며 대부대선회작전시기 한달안으로 600벌의 겨울군복을 만들 과업을 받으시고 단 20일사이에 만들어내신 사실들은 실로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내고야마시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명령과 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훌륭히 관철해나가시였으며 이 성스러운 행정에서 혁명가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성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10페지)

일제의 총칼밑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당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주신 태양이시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펼쳐나가시는 해방의 구성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우리 조국,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 투쟁을 떠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생각하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Digitized by Google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을 위한 투쟁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이 있고 수령님께서 안녕하실때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철벽으로 지켜싸우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 치렬한 격전을 벌리면서 사선과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엄혹한 시련과 사선의 고비마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과 신변안전을 지키는 투쟁의 맨앞장에는 언제나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였다.

1940년 여름 안도현 대사하치기에서 일제의 가장 악질적인 주구인《신선대》놈들과 맞다들게 되였을 때였다.

긴장한 전투환경에서 사령관동지를 호위하며 싸우고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중턱바위우에 올라서시여 전투를 지휘하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곁으로 적들이 은밀히 기여들어 총을 겨누고있는것을 발견하시였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아슬아슬한 이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번개같이 몸을 솟구치며 온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훌륭히 지켜내시였다.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이처럼 위험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변안전을 튼튼히 보위하신 불멸의 이야기는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의 숭고한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그 복잡한 시기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였다.

이것은 녀사께서 어느 하루, 어느 한시도 드티지 않은 생활의 철칙이였다.

해방직후 형형색색의 반동들이 날치던 그 삼엄한 시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두밀림의 깊은 밤 사령부를 지켜선 친위전사의 모습 그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호위하는 초병이 되시여 수령님의 안녕을 굳건히 보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정신세계와 빛나는 모범은 수령을 모시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립장이 어떤 높이에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모범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살고 한생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해오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정치적생명은 대를 이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며 녀사의 고귀한 혁명적생애는 주체위업의 자랑찬 길우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산악과 진펄이라도 오직 그 길로만 가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Digitized by Google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

심 형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때로부터 10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법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적문헌이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고 공고발전되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실천적경험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계급국가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수단이다. 헌법에 의하여 국가정치의 기본문제들과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들이 규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는것은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헌법이 노는 중요한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는 새형의 주체의 헌법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국가활동원칙을 폭넓게 규제하고있다. 우리 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근본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데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성격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의 근본원천이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중요한 특성과 우월성은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적극 복무한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인 헌법입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헌법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고 사

Digitized by Google

[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복무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56페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는데 있다.

헌법이 노는 작용과 복무적역할은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실천적과업과 방도들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있게 규제하고있는가 하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헌법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려면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킬뿐아니라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규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종래의 헌법들과는 달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강령적규범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을 위주로 하는 독특한 구성체계와 내용을 갖추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강령적규범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은 사회생활의 기본분야를 이루며 거기에는 인간개조와 사회개조, 자연개조를 위한 기본문제들이 포괄되고있다. 이 제원칙들과 규범들은 헌법의 교양적, 조직동원적 역할을 규정짓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인간개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인간개조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인간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국가의 중요원칙이 뚜렷이 명시되여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주체사상과 집단주의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울데 대한 사상교양의 구체적과업들이 제시되여있다. 이와 함께 사상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만들며 긍정적모범에 의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중요방도들도 밝혀져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고 자주적인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할데 대한 문화혁명의 기본목적과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근본원칙이 뚜렷이 규정되여있으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국가의 혁명적방침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사회주의헌법에 담겨진 이러한 규제내용들은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는 사업을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이 헌법을 관철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해나갈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이와 함께

Digitized by Google

자연개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함께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우리 국가의 경제적과업을 규제하면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목표와 그 수행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헌법에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문제들이 제시되여있다.

자연개조를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한 헌법규범들은 그자체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확고한 전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고무추동하는 동시에 국가기관, 기업소들에 생산, 기술 발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한 의무적인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빠른 발전을 확고히 떠밀어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사회개조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하고있다.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는것은 사회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적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것만큼 사회개조사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자들사이의 완전한 사회적평등을 실현할데 대한 근본목표를 제시하면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기초한 우리 국가정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천명하고있다. 헌법에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일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또한 경제관리형태와 교육, 보건 등 경제, 문화관계들에서 공산주의적요소들을 계속 발전완성시켜나갈데 대한 방침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이 규제내용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변혁하는데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수호하고 법적으로 공고히 할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주고 튼튼히 담보하여준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규제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력한 법적담보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국가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와 성과의 기본담보이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에게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Digitized by Google

ㅣ만히 보장하여주고 온 사회를 주체사
ㅏ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
ㄴ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정권기관의 모든 활
동은 내용상 법적활동이다. 국가기관자
체가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조직되며 그 임무와 권한, 활동
형식과 방법들도 다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
에서 국가활동의 근본원칙과 국가기관
체계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국가정권을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정권
이 모든 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
야 할 근본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는 인민정권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
히 구현하며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
다. 인민정권활동에서 주체사상과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과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
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
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고 정권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요
구를 명확히 규제하고있다.

인민정권활동의 지도원칙과 근본원칙
에 관한 이러한 헌법적규제는 우리 인
민정권으로 하여금 완전한 정치적자주
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력을 가진 가장 자주적인 혁명정권
으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
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
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게 법적으로 확고
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인민
정권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
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질서를 법
화하고있다.

정권활동에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
를 세우는것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
를 보장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
리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결정적조건으
로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
체계의 최고령도자이다. 수령은 혁명사
상을 창시하고 전략전술을 세우며 대중
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키며 프로레타리
아독재체계를 창설하고 강화발전시킴으
로써 전사회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실현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
의 한결같은 조직적의사와 념원을 반영
하여 국가사업과 국가기관총체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
의 확고한 실현을 가장 훌륭히 보장하
는 국가주석제와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
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을 새롭게
규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법은 중앙정
권기관으로부터 지방정권기관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주권기관으로부터 사법, 검
찰 기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전지역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가주석의 유일적
령도밑에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
라 조직되고 활동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주석
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나의 산 유기체를 이루며 온 사회가
인민정권의 통일적인 관할밑에 질서있
게 움직여나가도록 규제함으로써 우리
정권으로 하여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
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야말로 인민정
권을 무기로 하여 사람과 사회와 자연
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할수 있게 하
는 위력한 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위대성

Digitized by Google

과 독창성, 정당성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과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으며 사회주의헌법의 참다운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 등 여러 부문의 법들이 제정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선완비되고 준법교양과 법집행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감독통제적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제도와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개선됨으로써 각급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다그쳐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근로자들은 힘든 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으며 우리의 자립경제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그리고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 등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찬란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믿음직한 담보밑에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 온갖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참된 삶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헌법이 우리 인민의 실생활에 빛나게 구현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 앞에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368폐지)

헌법을 만드는것은 그자체에 독자적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사회생활에 구현하자는데 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될 때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법적으로 옹호보장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다 근로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며 거기에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실현할데 대한 그들의 지향과 요구가 담겨져있다. 따라서 국가의 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세우는것은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해야 할 사업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인것만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그들이 법에 대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헌법을 롯한 국가의 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록 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일군들과 로자들 속에서 자각적인 준법의식을 우는 해설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실있게 하여 그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게 대하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 하여야 한다.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고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의 하나이다.

법질서의 확립은 준법교양 하나만으로 다 해결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의 리속에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인습이 아직 아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 법적통제를 약화시킬수 없다.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법적통제를 실시하여야 국가의 법질서와 규률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칠수 있다.

정권기관과 법기관들에서는 법집행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관철하여 국가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위법행위는 관료주의의 한 표현형태로 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법적투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을 국가사회생활에 구현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공민의 한 성원일뿐아니라 해당 부문과 단위에서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을 직접 조직집행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규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수 있으며 실천적모범으로 군중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이끌어나갈수 있다.

지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존중하고 법에 철저히 복종하며 모든 사업과 생활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근 로 자 1982년 제12호(루계 488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2년 12월 1일　발 행• 1982년 12월 5일

ㄱ—25194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50전

Digitized by Google

1982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Digitized by Google

정치사상론설

Digitized by Google

경제건설론설

남조선 및 국제 론설

Digitized by Google